

개념 완성 1권

미시적 분석 - 문학편

강사 : 유대종

<1. 계절감>

2012학년도 수능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핀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집 흐린 불빛 아래서도
활랑활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측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략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게 나는 좋테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게 나는 좋테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니

끓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네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어휘풀이] 1)영 : 고개.

1. (가), (나)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선지) (가)의 '보리'와 (나)의 '보리'는 두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동일함을 알려 준다.

2011학년도 수능

☆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가) 뒷집의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駒)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훌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싣근·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라.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육, 「율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싣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나)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퉈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랴?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나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박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라야 비로소 흡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볼거리로 구속되어 큰 볼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선지 (가)와 (나)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2006학년도 수능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⑤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3. 밑줄의 특징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고 할 때, 적절한 창작 구상인 지 판단하시오. [1점]

선지)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활용한다.

—

4. 수업 시간에 배운 시의 일부분을 바꾸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보기> (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나)의 조건에 맞는 것은?

<보 기>

(가) 봄 비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려온 풀빛이 짙어 오겠다.

(㉠)

이 비 그치면
시새워 병글어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香煙)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랭이 타오르겠다.

(나) 조건

- 계절감과 향토적 분위기를 살릴 것.
- 시 전체의 어조를 고려할 것.
-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이용할 것.

- ① 황룻길 봄 내용
피어나는 들녘에
종달새 푸르게 울어 예겠다.
- ② 버들피리 입에 물고
흥겹게 걷는 길에
화려한 내운사인 비취오시라.
- ③ 황금 물결 넘실대는
들관 너머로
푸른 하늘 끝없이 펼쳐지겠다.
- ④ 눈 덮인 호수가
어릴 적 꿈 찾아
햇 노래 나지막이 불러 봄니다.
- ⑤ 얼음 풀린 시냇가
파릇한 풀길 따라
듣노라, 아름다운 오페라의 아리아어!

—

2007학년도 수능

☆ 고전 시가 + 수필

[51~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잠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랑의 시조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 추루(空山獨樓)*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근골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 만겁(輪廻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가없는 이 얼굴을 내로다 반기실까

- 조위, 「만분가(萬憤歌)」-

*공산 추루: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만장송: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침변: 베갯머리.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5. (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선지)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2004학년도 수능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千山鳥飛絶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萬徑人蹤滅
외로운 배 안의 도룡이 입은 늙은이 孤舟蓑笠翁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엔 눈만 내리고 獨釣寒江雪
- 유종원, 강설(江雪) -

(나) 일곡(一曲)은 어드메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걷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이곡(二曲)은 어드메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더러

삼곡(三曲)은 어드메오 취병(翠屏)*에 일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
에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景)이 없으라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평무: 풀이 우거진 들판.

*녹준: 술잔.

*취병: 이끼가 끼어 푸른 병풍 같은 절벽.

*하상기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귀.

*반송: 옆으로 퍼져 운치 있는 소나무.

(다)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
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흰선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
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
(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
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칼판, 수정
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쏟알,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닢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
石)으로 으르렁 칼판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
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에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선지) (가), (다)와 달리, (나)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

1

<2. 공감각>

(나) 선재리 아낙네들

고은

막밤중 한밤중 새터 종들 개들이 시골짜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A]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재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뜰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다)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은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개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알줄 아름답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B]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여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볼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봉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선지)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2007학년도 수능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른 하늘에 달을 뜻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눕어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
 쁜 일이나

뼈에 지리도록 '생활' 은 슬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
 이거니……

- 신석경, 「들길에 서서」 -

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선지)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06 6월 모의평가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걸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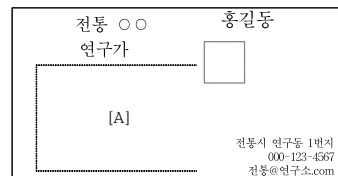
3. 시인이 시를 창작하면서 시상을 떠올린 과정을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다고 할 때,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빠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청무우밭'은 '바다'의 색채와 형태에서 연상된 걸 거야.
 ㄴ. '물결'과 맞서고 있는 '나비'의 모습에서 '공주'의 속성을 떠올렸
 을 거야.
 ㄷ. '꽃이 피지 않아서'는 '물결'이 일지 않는 '바다'의 모습에서 연
 상되었을 거야.
 ㄹ.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나비 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연
 상한 공감각적 심상일 거야.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수행 평가 과제로 장래의 명함을 만들고자 한다. [A]에 들어
 갈 문구로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보 기>

- 전통문화를 언급할 것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할 것
- 청유형 문장을 사용할 것

- ① 여기 있습니다, 달콤한 햇살의 속삭임이 머무는 집.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 ② 우리 부엌으로 오세요. 진정한 우리의 맛을 느껴봅시다. 고향의 된장 떡배기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 ③ 옷이 아년 밧을 입는다. 저고리, 마고자, 외씨버선, 우리 댁시 찾아 10년. 이제 당신의 것이 됩니다.
- ④ 가야금 곡조 따라 광한루까지. 춘향의 마음과 어우러지는 옥빛 소리 한 자락, 우리 연구소에서 즐겨봅시다.
- ⑤ 학을 품은 달 항아리, 자라 모양 청자연적. 둥근 곡선 따라 흐르는 영롱한 빛을 당신의 마음에 새겨드립니다.

<3. 입체감>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육사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여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 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명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이었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날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집 - 그늘 많은 열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해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꼭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약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이었다. 나란 늙은 아마 알 수 없는 농민가 보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피아노가 그런 시간을 채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런 시간을 채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에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 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잠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밤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다.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 김승욱, 「역사(力士)」 -

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선지)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가)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역박중 한밤중 새터 증뜸 개들이 시골짜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가 여 다 여 따위 말같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고 남이 아니다 [A]

풍발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를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으릿길 한밤중이니

심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법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버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밀똥거리다

(나)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은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필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개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얇줄 아름답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B]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디서

꽃침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듯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평양 틈새 가난한 소지(緜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2.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선지)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2013학년도 수능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쉼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실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뒤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건데, 전찬 뭇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 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빴다.

전차도 전차러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설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 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숫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튼튼가, 제물을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곁감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걸잡을 수

없게 들렸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옷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잠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 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나,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띄어나 깨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쩔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임은 민 주사며, 중산모 쓴 포복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육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나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는 작정이* 때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면, 그것들은 그만쯤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B] 더구나, 소년은, 즐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분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회신상’ 도 가 볼 수 있고, ‘전차’ 도 탈 수 있고, 울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내려다 준다는 ‘승강기’ 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 길에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지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던 정좌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 라는 물건은,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 었으나, 어느 튼튼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아이이다, 시골 아이야.”

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딸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얹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 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뻥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 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싹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저보다 좀 큰 아이가 가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겹이 부쩍 나며, 그제 아버지가 ‘전차’ 나 태워 주고, ‘화신상’ 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테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짐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꼭 좋겠다고 짐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 임바베스 : 납자용 외투의 일종.
- * 깍정이 : 거지.

3. 밑줄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선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4. 내적 갈등>

2013 6월 모의평가

[앞부분의 줄거리]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몰 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홍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9. 현상

홍 기자 여기는 동진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갱구 매몰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 사고는 울 들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씨가 무려 열하루째 지하 1천5백 미터 아래서 구출의 손길이 닿기를 에타게 기다리며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가 난 동5 갱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 위원회 회장이시며 동진 광업소 소장이신 권오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틴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

소장 (마이크 앞에 선다) 예뻐,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주공 2명, 조수 2명, 감독 1명, 신호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6시간씩 교대하여 불철주야 김창호 씨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앞으로 구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 애초 예상과 달리 갱목 철근 등의 장애물이 많은 데다 갱내에 물이 쏟아져 작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2, 3일 더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감사합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수행원, 경찰.

홍 기자 (기자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자 1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2 현지 주민들이 기자 숙소로 옥수수과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 달라고 호소할 땐 눈물 이 핑 돌더군요.

홍 기자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 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 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 말씀드렸습니다. (쪽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 를 창조하는 몽웁스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

10. 사무소와 갱내

전화벨 울리며 갱내를 비춘다. 지친 듯 쓰러져 있던 김창호, 간신히 몸을 움직여 전화를 받는다. 사무실엔 비서관, 수행원, 의사, 경찰서장이 전화 거는 것을 지켜본다.

김창호 네?

소장 나 소장이에요. 지금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비서관님을 보내셨습니다. 받아 보시오.

비서관 (전화 바꾼다)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가 어서 구출되어 나오길 바라고 계

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꼭 구출될 겁니다.

김창호 ㉠ (기운 없이) 감사합니다.

비서관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중략)

14. 기자 회견 석상

김창호, 주치의의 호위하에 단상에 앉는다. 기자들, 카메라맨, 카메라를 들이대자 김창호, 얼굴을 가린다.

카메라맨 김창호 씨, 얼굴 좀.

주치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시력이 약화돼서 카메라 플래시에 견디질 못합니다.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김창호에게 씌운다)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

플래시 터진다. ㉠ 김창호, 움찔거리지만 참고 견딘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우리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활을 환형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김창호씨가 구출되기까지 꼭 지켜보았던 한일 매스컴센터의 홍성기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 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창호 ㉢ (당황) 뭐가 뭐지 모르겠습니다. 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주치의, 귀에 대고 뭐라고 한다.

김창호 ㉣ 저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자 1 16일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 견디셨는데 어디서 그런 인내력이 나셨는지요?

김창호 예?

주치의, 쉽게 설명해 준다.

- 윤대성, 『출세기』-

* 인터셉트 : 화면에 다음 화면을 끼워 넣음.

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기>
이 글의 제목 「출세기」의 ‘출세’는, 갇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의미의 ㉠ 출세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된다는 의미의 ㉡ 출세이기도 하다.

선지) ㉠에는 ㉡에 대한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2008학년도 수능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ؤل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진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방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동」-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들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소요함도 이 소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서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려 함.

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2013학년도 수능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설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싶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건데, 전차 못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 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꿨다.

전차도 전차러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설 세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 이 선 듯도 싶지 않건 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재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련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썩었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옷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칠방 천 그 앞에 앉아서들 잠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 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겐 띄어나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충산모 쓴 포복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귀족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는 작정이* 때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덴,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즐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분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 도 가 볼 수 있고, ‘전차’ 도 탈

수 있고, 울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배려다 준다는 ‘승강기’ 라는 것이 있다지 않냐. 수 길의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지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 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 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야.”

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딸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얹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 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뻥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붙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 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걸걸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 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실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뺨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라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린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씩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 나 태워 주고, ‘화신상’ 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꼭 좋겠다고 짐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임바네스 : 납자용 외투의 일종.

* 작정이 : 거지.

3.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이들은 자신의 꿈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심리적 혼돈 속에서 크게 위축된다. 도시는 문명의 화려함을 내세워 그들을 매혹하지만 안정된 삶의 장소를 내주지는 않는다. 도시 문명에 가리어진 도시의 이면적 풍경, 인정이 메마른 도시인의 초상, 그리고 도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이 어우러져 도시 소설의 한 즐거움을 이룬다.

㉔ ‘창수’가 ‘자전거 종소리’에 허둥대는데도 계속 놀림을 당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입성한 인물이 현실에 직면하여 처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㉕ ‘창수’가, ‘어른같이’ 묻는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인물이 겪는 심리적 위축 상태를 볼 수 있군.

㉖ ‘창수’가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통해,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을 겪는 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임을 파한 후에 토끼 뒤에 따라가며 한 번 불러. “여보. 토생원(兔生員).” 토끼의 근본 성품 무겁지 못한 것이 경하여 몸집도 작으니 온 산중이 멸시하여 누가 대접하겠느냐. 쥐와 여우, 다람쥐도 ‘토끼야. 토끼야.’ 아이 부르듯 이름 불러 어른대접 못 받다가 천만뜻밖 누가 와서 생원이라 존칭하네. 좋아 아주 못 견디어. “게 뉘랄게. 게 뉘랄게. 날 찾는 게 뉘랄게.” 요리 팔팔 조리 팔팔 짱장짱장 뒤어오니. 별주부(羅主簿)가 의문하여 토끼의 동정 보자 긴 목을 움뜨리고 가만히 었었으니 토끼가 주부 보고 의심을 매우 하여, “이것이 무엇이고? 쇠뿔이 말랐는가. 이 산중에 무슨 술 깨어진 부들감*이 어찌 저리 묘하게 깨져. 애고. 이것 큰일났다. 사냥 왔던 총(銃)장이 절음승** 끌러 놓고 툽 누러 갔나 보다. 바빠바빠 도망하자.”

주부가 생각한즉 그대로 두어서는 저리 방정맞은 것이 이리저리 한없이 내달리겠거든 또 한 번 크게 불러. “여보 토생원.” 토끼가 가다 듣고. “누가 나를 또 부르뇨?” 아장아장 도로 오며 주부를 바라보니. 아가 없던 목줄기가 돌담 틈에 배암같이 슬금 나오거든. 의심 나고 겁이 나서 멀찍이 서서 보며 문자(文字)로 수작 내어. “내가 이 산중에 생어사(生於斯) 장어사(長於斯) 유어사(遊於斯) 노어사(老於斯)하여 몇 해가 되었으되 오늘 처음 보는 터에 나를 어찌 알고 무엇 하러 불렀느냐?” 주부가 대답하되. “유봉(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억낙호(不樂乎)가 공자님 말씀인데. 어이 그리 무식하여 처음 본다 괘시하니 인사가 틀렸는데.”

토끼가 들어본즉 생긴 것과 말하는 게 만만히 볼 수 없거든. 옆에 와 썩 앉으며. “뉘랴 하시요?” “예. 나는 수궁(水宮)에서 주부 벼슬하여 먹는 자라요.” “산수(山水)가 서로 다른데 산중은 어찌 왔소?” “우리 용왕 장한 가르침 팔천 리를 다스리니 하루에도 수 없이 몸소 일을 하옵는데 신하가 재주 없어 찬양하기 어렵기로. 용왕의 분부 모시어 임금 보좌할 인재를 구하기로. 천하 명산 다니다가 오늘날 모족(毛族) 모임 천만다행 만났기로. 자리를 다 보아도 임금 보필할 인물은 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선생 하나뿐이기로 선생을 모셔 가져 뒤를 따라 왔사오니. 바라건대 선생은 나를 따라 가사이요.”

토끼가 제 인물에 하 감사한 말이어든, 제 소견에도 의심하여, “어떻기에 내 형용이 꿈보다도 나올 테요? 범보다 나올 테요?” 주부가 대답하되. “곰의 몸이 비록 크나 눈이 작고 털이 덜어 태양 정기 부족하니 미련하여 못 쓸 테요, 범이 비록 용맹하나 코 짧고 줄기 없어 얼굴 가운데가 움푹하니 단명(短命)하여 못 쓸 테요, 몸이 작고 발이 빨라 산도 넘고 물도 뛰어 따라갈 이 없을 테니, 민첩한 저 구면(口辯)이 소진(蘇秦)의 합중(合縱)인지. 가끔가끔 조는 것이 공명(孔明)의 춘수(春睡)런지.*** 볼수록 모두, 짐승 중 제일이니, 우리 수궁 갑사오면 즐창입상, 부귀공명 따라갈 이 뉘 있을까?”

토끼가 들어 본즉 주부의 하는 말이 저 생긴 형용하고 낱말이 똑같거든. 가만히 생각한즉 형용은 무던하나 속에 글이 없었으니, 수궁에 글하는 이 있는지 알아야 할 때이든. 또 물어 “수궁의 조판(朝官) 중에 문장이 몇이 되요?” “문

장 조관 있으며는 영덕전(靈德殿) 지을 적에 상량문을 못 지어서 인간 세상까지 나와 구했겠소?” 또 물어, “수궁에 훨씩 키 큰 조관 있소?” “영덕전 상량할 제, 키 큰 조관 가리는데 내가 상량하였지요. 그리 큰 수궁에서 나만한 키도 없소. 선생이 들어가면 거인이 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라지요.”

토기가 생각한즉. ‘너른 의사(意思) 좋은 구변 내 속에 흠뻑 들고, 글 잘하고 키 큰 조관 수궁에 없다 하니. 나 지닌 신언서판(身言書判) 놀랄 데가 없건마는 땅에 안주하여 옮기기 어려우니 이 형편에 썩 떠나기가 어렵구나.’

- 신재효, 토별가(兔籠歌) -

- 부등감 :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아궁이의 불을 담아낼 때 부삽 대신 쓰는 것.
- 절음승 : 화악의 심지
- 소진의 합중, 공명의 춘수 : 토기의 말솜씨와 조는 모습을 각각 조진의 위엄과 제갈공명의 여유에 비긴 말.

4. (가)에 나타난 별주부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해학적 표현을 통해 자기 내면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 66. 철호의 집 안
 철호가 트락에 들어서는데 “가자!” 하는 어머니의 소리.
 철호 한 대 맞은 사람 모양 우두커니 한동안 서 있더니 되돌아서 터벅터벅 걷는다.
 여기에 덮이는 철호의 소리 - “어머니, 어디로 가자시는 말씀입니까?”

S# 67. 정신 병원 진료실
 4. 5년 전의 어머니가 병상에 반듯이 누워 있다.
 멍하니 어느 피안(彼岸)을 바라보는 눈.

어머니 가자!
 그 옆에 청진기를 손에 들고 있는 의사.
 그 앞에 마주 서 있는 좀 말쑥한 철호.

철호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저러실까요. 선생님!
 의사 과거에는 생활이 윤택하셨단니까 아마 그 당시로 돌아가 자지거나 아니면 우리 현실보다 나은 세계 -말하자면 영겁(永劫)의 나라일 테죠.
 철호 선생님!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의사 글썩요. 한 삼사 년 치료를 받아 보시면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S# 68. 산비탈 길
 두벅두벅 걷고 있는 철호.

S# 69. 피난민 수용소 안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위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흠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의 소리 -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 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련토로’.

- 중 략 -

S#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샀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그럼 뭐 뽐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용기?
 영호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없었던 말이다
 영호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하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 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 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폭폭 쑤시고 아픈 걸 견뎌내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났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픽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그건 역설이야.
 영호 역설이요?
 철호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냐.
 영호 천만에요.
 - 이병선 원작/나소은.이종기 각색. 오발탄 -

*O.L(overlap) : 한 화면 끝에 다음 화면의 시작을 합치면서 부드럽게 화면을 바꾸어 가는 기법.

5. S# 69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인물의 내적 갈등 요인을 짐작하게 한다.**

2009 9월 모의평가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야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재일 좋아도,
 물낯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업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단련 문에 기대섯을 뿐이다.
 문 열이라 꽃아. 문 열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이라 꽃아. 문 열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婆蘇) 단장」 -

6.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윗글을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보 기>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솔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산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2005 6월 모의평가

[38~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면 만첩(萬疊) 청산(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關)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라.
 * 만경파(萬頃波) : 넓은 바다 물결.
 ** 홍진(紅塵) :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제세현(濟世賢)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제.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빛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통 밧도 해할지 모른다 위험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하니
 앞뒤로 담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며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울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을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

(다) 지상(地上)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칸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叟)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있으면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질근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 박목월, 가정(家庭) -

7.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㉔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 준다.

—

2012년 6월 모의평가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택이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영글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덧 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팔끄러미 화산택이를 바라보고,
“아부지, 이거 누고 응?”
화산택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이다.
“할매대!”
“우리 할매?”
“음!”

아들은 백없는 대답을 하면서 흰 고무신 한 켤레를 내왔다. 화산택이는 걸레로 터실터실 분 발뒤꿈치 터더기를 훑치면서,
“그렇기, 나고는 침 보나…….”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질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걷는 데는 질세기가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질세기가 화산택이는 못내 아까웠다.

다다미방도 어색했지만,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의롱이 두 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앉은키만 한 경대도 놓였다. 벽에는 풀기 없는 무색옷들이 꾸르르 걸렸다.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우선 어디가 구둣목이며 어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전 방에 불려 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중략)

화산택이는 아들과 마주 앉고, 머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팔을 기었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젖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좇고 있던 화산택이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보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통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더께 더께기운 피뢰졌 때 물은 비선을 들어내고 검은 보통이를 또 하나 들어냈다. 들어낸 보통이를 풀어 헤치고 아들과 머느리 어중간에 밀어 놓으면서,
“목어 보라, 꿀밤(도토리)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딸딸하다만…….”

그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머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애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 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거니
목어 보라!”

머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싹힐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 보던 손녀도 그만 케케 하고는 도로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잖아!”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택이는 몇 해를 두고 버른 아들에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자던 습관은, 휘날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횃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러었다. 화산택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빛을 뒤엎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장보에 자식이지, 쫓쫓.’ 돌아놓는다. 건넌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조면*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그러나 잠 대신 화산택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냇은 초가집이다.

빈대 피가 맺히처럼 굵은 토벽, 배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에서 손자들이 아랫도리 벗은 채 제멋대로 굴러 자고, 썩물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말아들, 갈퀴 손으로 누더기를 걸고 있는 맘머느리, 화산택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담아 기침을 내려 주고 머느리와 무르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또 뒤쳐놓는다.

‘아무리 시에미가 시에미 같지 않기로니 침 보는 시에미에게 인사것도 없이, 본밭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은 작은아들 돈 잘 벌고 하리갈래* 매누리 봤다고 부러하더라만, 시장시럽고 가시롭다.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양기가 있는 것도

다 기집 탓이지 머고. 여태껏 땅 한 뼘기 못 사는 것도 안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머고.’ 화산택이는 눈꼬리만 따잡고 잠은 잠점 멀어 갔다.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십 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지 형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더분한 색시나 골라 장가들었으면 등 따시고 배 부릴 꺼로 머 공장을 하느니 하고 날뽀 땡기더니.’

화산택이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은 언제 셀지 모르겠고 뒤는 자꾸 급해 왔다. 화산택이는 참다못해 조심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다시 더듬어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뒷간에 있을 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대채 적산집* 뒷간에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택이는 뒷간에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담 밑에다 대고 뒤를 보았다. 한결 개분했다. 문살만 흰하면 나와서 뒤본 자리를 쟁기리라 맘먹고 다시 들어왔다.

화산택이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날이 활짝 섰다. 아들 내외가 겹까 싶어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뒤본 자리는 공교롭게도 돌가루로 마련된 수채였다. 수채는 앞집으로 통했다. 아침에 봐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 오영수, 「화산택이」-

- * 저거 조면 : ‘자기네들끼리 좋으면’의 방언.
- * 하리갈래 : 예전에 서양식 유행을 따르던 멋쟁이를 이르던 말.
- * 적산집 : 해방 전에 일본인들이 지은 신식 가옥을 이르는 말.

8.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없다

㉔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 내적 갈등을 고조한다.

—

2013년 6월 모의평가

(가)

그만큼에 웬 난데없는 비렁뱅이 객(객) 하나이 구부러진 등에 거문고 엮비슷이 메고 진창에 맨발을 축축 담그면서, 제가 아직 어찌 될 줄 모르고서 저자의 가운데길로 하염없이 내려왔던 것이었다. 거문고를 메었으니 노래라도 할 줄 알겠구나 싶었오되, 꼬락서니가 내 사촌이 틀림없었다. 나는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살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또랑물 속으로 싸락눈이 떨어져 녹아 사라지는 모양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 이상한 가락이 내 어깨 위에 피땀같이 나부끼며 얹히고, 다시 목덜미로 깊숙이 뿔터

니 정수리에서 발뒤꿈치로 뚫고 들어와 맨돌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직하고 힘찬 목소리가 가락 위에 툅 걸처서는 이 싸늘하고 구죽죽한 저자를 따듯하게 덤피는 것만 같았다. 나만 일어섰는가? 아니다. 내가 뒤가 급해진 느낌으로 안달을 온몸에 싣고서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에, 저자의 술집 창문마다 가게 빈지문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둘씩 꼬집어내어지는 중이었다. 다리 위에서 비렁뱅이 객은 거문고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서 고개를 꼭 숙여 머리가 없는 자처럼 땅속에서 소리를 심고 있었다. 막 울던 사람들과 수다쟁이 떡장수 아낙네며 나들이 나온 처자들이 모두 한두 발짝씩 모여들어 다리 위에는 음물에 끌린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소리로구나. 저런 소리는 이 저자가 생겨난 이래로 처음 들었다.”

한 곡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제각기 허리춤을 끄르고 돈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잦아질 제 나는 새삼과 신망으로 이를 악물었고 다음에는 저 신묘한 소리로 돈을 벌게 하는 거문고를 박살 내 버리고 싶었다.

“하나 더 해라.”

“이번에는 긴 것을 해 보아라.”
사람들이 제각기 아우성을 치는데, 객은 고개를 가슴팍에 꼭 처박고 잠잠히 앉아 있었다. 그는 부지깽이처럼 긴고도 여윈 손을 뻗쳐서 무릎 근처에 흩어진 돈을 긁어모아서는 제 자리 밑에다 쓸어 넣는 것이었다.

“노래를 한 가지밖에 모르느냐.”
“얼굴을 들고 해라, 안 보인다.”
“고개를 들어라.”

내던진 밀천을 뿜으려고 주변에 웅기중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비렁뱅이 객의 얼굴을 보려고 자꾸만 재촉했다. 고개를 처박고 있던 그가 작심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한 바퀴 휘이 둘러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회가 동했을 때처럼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객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더러운 얼굴은 더욱 흉하게 일그러져 가락의 신묘한 아름다움은 그 추한 얼굴에 석위 사그라지고 말았다. 눈도 코도 입도, 제자리에 붙어 있건만, 어쩐지 얼굴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중요를 불러일으키고, 중요는 곧 심한 역증이 나게끔 했다.

[중략 줄거리] 객 ‘수추’는 저자를 떠나 강을 건너간 뒤, 시냇가에서 음물을 완성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나)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해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음물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광야에서 몇 날 몇 밤을 짐승들이 일시에 몸서리치면서 달아났다,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곁에서 달아나는 일을 해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달려서 자꾸만 어위어 갔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흰한 대낮에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이제 막 거문고의 가락에 얹히려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이 끊긴 줄이 울어 대는 무참한 소리가 그의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거문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자르릉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부서지고 그의 노래마저 함께 부서져 버렸다. 그의 발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만이 즐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가운데서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노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수추는 파괴된 악기와 버려진 노래를 회상할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음과 같은 휴식 안에서 비로소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그의 눈은 살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는 모든 산 것들이 그러하듯 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하였다.

- 황석영, 「가객」-

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가)와 (나)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에서 해소되고 있다.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 변호사와 이중생, 고민에 빠져 있다. 곁에 앉아 있던 이중건, 꾸벅꾸벅 즐기 시작.

최 변호사 : 결국 저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은 사기. 배임 횡령, 공문서 위조 및 탈세법인 위대한 사업가 이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이중생이만 없어지구 볼 지경이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할 수밖에 없습죠! 탈세한 돈이며 연체된 이자면 횡령한 공금을 받물래야 받을 길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중생 : 내가 없어진단?

최 변호사 : 그렇죠. 세상에서, 땅 위에서 없어지구 말아야죠.

이중생 : 예기! 여보, 내가 죽구서야.

최 변호사 : 쏘! 헛헛! 그런 게 아니와요. 일사(一死)면 도무사(都無事)라 아주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운. (컫속 말을 하고 나서) 헛헛, 상속법에 관해서는 누구에게 도치지 않습니다.

이중생 : 헛헛, 그야 최 선생이야 상속법에는 권위자이지.

최 변호사 : 저는 그저 영감이 썩 놓으신 유서……. 유서는 작성된 것으로 하여야 됩니다. 그러구 난 뒤에는 그저 유서의 내용대루 가장 법률적으로루 정확 신속히 처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영감계선 영감의 전 재산을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음직허구, 또 차후로 이중생 씨 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따라서 사업의 경험내지 야망이 없구 법률 상식두 없는 충직한 재산 관리인만 한 분 선택하십시오. 영감계서는 그 뒤에 가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시면 그만 아닙니까? 말했 많은 이 중생만 없어지면…….

이중생 : 그 자가 죽는 경우엔 어떻게 된다? 내 재산이 또 공중에 뜨게……. 안 되지.

최 변호사 : 하식 군도 좋구. 형님도 좋구.

이중건 : (잡작 놀라 잠을 깨며) 뭐. 뭐이. 이번엔 내 이름을 어째?

이중생 : 쉬이!

이중건 : 쉬이? (두리번거린다)

최 변호사 : 그러구 남은 문제는 살아 있는 영감의 사망 진단서를 누가 용감히 쓰느냐…….

이중생 : 그야 내 사위더러 쓰려면 되지만…….

이중건 : 누가 죽었어?

이중생 : 가만 계세요, 형님은……. (무릎을 치고 일어나며) 울지! 됐어! 됐어! 최 선생. 아주 적재가 있던 말야. 헛헛……. 개똥두 약에 쓸 때가 있구다.

이중건 : 개똥?

이중생 : 형님, 누설됐다가는 큰일입니다.

최 변호사 : 큰일이더뿐이요? 은 존당의 짐은커녕 이제 문중이 큰 봉분을 당하시죠. 비밀, 비밀, 절대 비밀이야. 이중생 : 형님의 삼백만 환두 내 전 재산두 수포로 돌아가구 말죠. 최 선생, 자 우리 안으로 들어갑시다.

2인, 상수로 나가려다가 이중생은 다시 돌아와서 이중건에게 컷속말.

이중생 : 비밀입니다. 아셨죠?(나간다.)

이중건 : 비밀……. 비밀? (뚱그려진 눈으로 집나는 듯이 주위를 살핀다.)

다음날 저녁,

이중생의 사위인 송달지 화초본의 잎사귀를 하나하나 뜯으며,

송달지 :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안 됐어. 다시 한번, 말까, 줄까 말까, 줄까, 줄까, 헛 그럴 테지. 이름 식 자 빌려 줄 수가 있다. 어디 다시 한번…….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어, 어, 어떨쇼? (하연, 하수로

등장.)

하연 : 형부, 혼자 무슨 장난이세요?

- 오영진,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10.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2008년 6월 모의평가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착질하러 다니느냐, 게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었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씩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실붙리 입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생된 듯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서 물레 미달을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짝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득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포시」 옥상 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테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일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흥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호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A]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

한 생활이 푹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다?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짚쪽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푸—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거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돌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서너리 넘어가듯 번뜩었다.

나는 견뎌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이상, 「날개」-

* 미쓰포시: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

* 회탁의: 회색의 탁한.

* 아달린: 수면제의 일종.

11. 일제 강점기에 미쓰포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포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나’와 ‘회탁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회탁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1999학년도 수능

[51~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주관(眞珠館) 옥수루(竹西樓) 오십천(五十川) 느린물이
 티백산(太白山) 그림자를 동해(東海)로 다마 가니, 출하리 한
 강(漢江)의 목벽(木覓)의 다하고져, ㉠왕명(王程)이 유한(有
 限)하고 풍경(風經)이 못 슬피니, 유희(幽懷)도 하고 할사,
 객수(客愁)도 둘 되 없다, 선사(仙差)를 띄워 내어 두우(斗
 牛)로 향(向)할사, 선인(仙人)을 초주려 단혈(丹穴)의 머므
 살가, 턴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명(汪洋溟)의 올은 말이,
 바다 뵈곤 하늘이니 하늘 뵈곤 뜨시고, 그득 노흔 고래, 뉘
 라서 놀래관디, 불거니 썩거니 어저러이 구는디고, 은산(銀
 山)을 것거 내어 녹합(六合)의 느리는 듯, 오월(五月) 당턴
 (長天)의 백설(白雪)은 뜨스일고, 저근덧 밤이 드러 풍낭(風
 浪)이 명(定)하거늘, 부상(扶桑) 지척(咫尺)의 명월(明月)을
 기드리니, 서광(瑞光) 천당(天丈)이 비는 듯 숨는겨야, 주렴
 (珠簾)을 고터 짓고, 옥계(玉階)를 다시 씌며, 계명성(啓明
 星) 뉘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백련화(白蓮花) 흐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고, 일이 도흔 세계(世界) 늙대되 다 비교져,
 뉴하쥬(流霞酒) 그득 부어 돌드러 무론 말이, 영웅(英雄)은
 어디 가며, 스선(四仙)은 기 뉘러니, 아미나 맛나 보야 뱃
 기 별 못자 흥니, 선산(仙山) 동해(東海)에 갈 길히 머도 멀사,
 송근(松根)을 베어 누어 풋음을 얼뜻 드니, 봄에 흐 사람이
 날드려 닐은 말이, 그딕를 내 모라라, 상계(上界)에 진선(眞
 仙)이라. 황정경(黃庭經) 일주(一宇)를 었디 그릇 닐겨 두고,
 인간(人間)의 내려와서 우리를 쫓노는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흐 잔 머저 보오, 북두성(北斗星) 기우려 항홍수(滄海
 水) 부어내어,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화풍(和
 風)이 습습(習習)하야 낭익(兩腋)을 추혀 드니, 구만리(九萬
 里) 당공(長空)에 저기면 놀리도다. 이 술 가져다가 스희(四
 海)에 고로 노화, 억만(億萬) 창칭(蒼生)을 다 취(醜)케 밍근
 후(後)의, 그제야 고터 맛나 또 흥잔 흥갓고야. 말 디자 학
 (鶴)을 타고 구공(九空)의 올라가니, 공둥(空中) 옥소(玉篇)
 소릭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줌을 썩어 바다홀 구버보니,
 ㉡ 명월(明月)이 천산(天山)
 만낙(萬樂)의 아니 비친 디 없다.

- 정철, 「관동별곡」

12. ㉡에 표현된 화자의 내면 세계를 잘 설명한 것은?

- ① 풍광(風光)을 즐기 위해 벼슬을 그만두고자 하는 도피적 심리가 엿보였다.
- ② 공인(公人)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 ③ 공인(公人)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 의무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이 엮혀 있다.
- ④ 공적(公的)인 책임에 구애되지 않고 탐미적 자세로 자연에 몰입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⑤ 공인(公人)으로서 백성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과 선인(仙人)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2008학년도 수능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습이 끝나고 막걸리 집으로 옮겨 갔을 때, 아이들은 민 노인을 에워싸고 역시 성규 할아버지의 북소리는, 우리 같은 줄 개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명인의 경지라고 추어올렸다. 그것이 입에 발린 찬찬일지라도, 민 노인으로서 듣기 싫지 않았다.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 주는 말이기도 했다.

“애들아, 꺼져 가는 떠들이 북쟁이 어지럽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아라.”

민 노인의 겸사에도 아이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벌써 품이 다른걸요.”

“맞아요. 우리가 칠 때는 죽어 있던 북소리가, 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라니까요.”

“성규, 이번에 참 욱보았다.”

난데없이 성규의 노력을 평가하는 너석도 있었다. 민 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술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외견과는 달리 꽤 편안하다는 느낌도 곱씹었다. 옛날에는 없었던 노인파 젊은이들의 이런 식 담합이, 어디에 연유하고 있는가를 딱히 짚어 볼 수는 없었으되.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기한 뒤, 본 공연이 열리던 날 새벽에 민 노인은 성규에게 일었다.

“아무리 단역이라고는 해도, 아무 옷이나 걸치고는 못 나간다. 모시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는 북채를 잡을 수 없어.”

“물론이지요.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 놓으세요. 제가 따로 가지고 갈게요.”

“두 시부터라고 했지?”

“네.” / “이따 만나자.”

일찍 잠실을 먹고, 어느 날의 걸음걸이로 집을 나선 민 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설레임으로 흔들렸다.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한 아들 내외에 대한 심리적 부담보다는, 자기가 말은 일 때문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출판에 영광쟁이 하나가 낀다는 사실이, 세삼스럽게 어색하기도 하고, 모처럼의 북 가락이 그런 모양으로밖에는 선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얇은 적막감도 셋어 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젊은 훈김들이 뿜어내는 학교 마당에 서자 그런 머뭇거림은 가장찮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 속에 섞여 원진(圓陣)을 이루고 있는 구경꾼들을 대하자, 그런 생각들은 어디론지 녹아 내렸다. 그 구경꾼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도 자신이 거쳐 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그만이었다. 노장이 나오고 취발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목중들이 춤을 추며 걸쭉한 음담패설 등을 쏟아 놓을 때마다, 관중들은 까르르 웃었다. 민 노인의 북은 요긴한

대목에서 등등 울렸다. 체지는 소리를 내는 꿩소리며 장구에 파묻혀 제값을 하지는 못해도, 민 노인에게는 전혀 캐념할 일이 아니었다.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연 전에 마신 술기운

도 가세하여, 탈바가지들의 손끝과 발목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북소리는 퉅 퉅 뿜었다. 그세 입에서는 얼씨구! 소리도 적시에 흘러나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는 달착지근한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그날 밤, 민 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춤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유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고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호뭇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져떡볶이 되어,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다. 그 아 낱 보이자 민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겨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북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랐했나?”

우선은 죄인 다투며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 인가요?”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이번에도 내가 너들 체면 쥐았냐.”

“아시니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닥닥 문을 닫고 나갔다.

- 최일남, 「호르는 북」 -

13.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③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마누라 말을 들으니 복반을 말이로세 내 말을 들어보소 내가 길가에서 얻은 돈도 아니오 누가 나를 그저 준 돈도 아니라 읍내에서 들어보니 이 고을 김부자를 어떤 놈이 얼거서 영문(營門)에 정하였는데 지금 김부자는 앉고 누구던지 대신 가서 불기 삼십 개만 맞고 오면 돈 삼십 냥에 닷냥을 노자로 주니 그 아니 횡재인가 감영에 가서 눈끔찍하고 불기 삼십 개만 맞았으면 돈 삼십 냥이 횡재 아닌가” 흥부 안해 이 말 듣고 깜짝 놀라 하는 말이 “어보시오, 아이 아버지 매품팔이 뉘 말이오 남의 죄를 어저 알고 대신이라니 뉘말이 오 살인죄에 범했는지 강도 죄에 범했는지

기인취재(欺人 取財)* 범하였는지 남의 죄를 어저 알고 만일 영문에 올라갔 다 여러날 굶은 몸이 영문 끈장 맞게 되면 몇 안 맞아 죽을 터이니 어저 가서 그 일 파의하고 마오 마오 가지 마오 만일 에 갈 터이거든 나를 죽여 묻고 가오 나 곧 죽어 모르면 그는 응당 가려니와 살려두고는 못가리다 가지 마오 마오 제발 내 말대로 가지 마오 갔다가 매맞어 죽게 되면 뉘조상이 날 터이 니 부대 내 말 팔시 마오”

(나) “잔소리 마라! 어린 게 무얼 안다고 주착없이 할 소리 못할 소리 무람없이…….”

부친은 듣기에도 싫었지만 아버지 성검을 세우려는 것이다. 덕기는 잠자코 앉았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말이 난 김이니 하고 싶던 말은 다 하고야 말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어쨌든 그 애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애까지야 무슨 죄로 회생이 됩니까? 제가 감히 아버지의 잘잘못을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마는 뒷갈망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무슨 뒷갈망을 하라는 말이나?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부친은 소리를 한창 더 버럭 지른다.

“그런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그저께 제녁에 가 보고 왔습니다만 어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할 말씀으로 아버지께 서 책임을 모피하시려고 - 허물을 저편에 들씩우고 발을 빼시 려고 그렇게 모함을 잡으신 것은 설마 아니시겠지요?”

(다) “당신은 고등 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 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 버리렵니까?”

“중립국.”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낫살은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 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겠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테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한층 가락을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했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쪽지로 테이블을 푹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보았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었다.

나오는 문 앞에서 자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찼끔찌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객객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데도 어찌 한 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기인취재(欺人取財) :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음

14. ㉠에 내포된 심리적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① 심경과 행동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2004 9월 모의평가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운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 -

(나)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때로* 다 남은 무명서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
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듯동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
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
다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
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념
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잭」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벨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 때때로 : 때에 전.

(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房)은 우주(宇宙)로 통(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鄉) -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가)~(다)에는 내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부장 그렇습니다.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문을 열고 향
북하면, 낙랑 왕 식구 세 사람은 모두 목숨을 살려 이곳에 모
서다가 왕비 마마 곁에서 사시게 작정이 된 일이 아니었습니
까? 왕자님,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동 어찌할 수 없는 일…….

부장 그렇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동 누가 그것을 모르는가?

부장 돌아가신 낙랑 공주에게 미안해서 그러십니까?

호동 …….

부장 공주께서도 어찌 원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왕자께
서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두 분의 행복을 위해서
부탁하신 일인 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낙랑 공
주였으니 어찌 원망하실 수 있었습니까. 왕자님과 이
몸이 대왕의 뜻을 받들어 평화 교섭을 위해서 낙랑을
찾아갔을 때, 제일 반가워한 분이 공주님이셨고, 낙랑
왕의 고집 때문에 화평 교섭이 잘 되지 않아 누구보다
도 근심하신 분이 공주님이셨지요.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워서 술한 사람이 죽느니보다는 자명고를 찢어서 고
구려가 이기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결심한 것도 낙랑 공
주이시지요. 낙랑 나라가 그런 신묘한 복을 가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지요. 대대로
낙랑 왕의 식구밖에는 모르는 비밀을. 그래서 왕비 마
마께서도 이 나라에 시집오신 몸이면서도, 그리고 의
붓아드님이 정벌군을 이끌고 낙랑으로 떠나게 되어도
입을 다물고 계신 비밀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습
니까? 왕자님을 그렇게 따르시게 된 공주께서 그 이야
기를 하시더라는 말씀을 왕자님께 들었을 때처럼 무서
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고구려군이 싸움
을 벌였다라면 ㉠ 이었겠지요. 적은
먼저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호동 그 말을 자네한테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인지 어쩐지 모
르겠군.

부장 무슨 말씀을. 또 놀라게 하시는군요. 말씀하시기 다행이
지요. 그랬길래 제가 왕자님께 간곡히 그 복을 공주님 손으로
찢게 하시라고 알려 드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저도 공주님께
그리하는 것이 왕자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공주님께 알려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호동 뭐, 자네가? 그런 말은 안 하지 않았는가?

부장 네, 안 했지요. 그러나 잘못된 일이옵니까?

호동 …….

부장 왕자님 몰래 공주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좋다고 여겨져
서 그러한 것입니다.

호동 오, 그래서…….

부장 무슨 일이 있었더랬습니까?

호동 복을 찢었다면서, 이 일은 왕자님 뜻을 묻기 전에 자기
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자꾸 다짐하더군요.

부장 열너이십니다.

호동 큰 고구려의 왕자가 한 여자의 손을 빌려 싸움에 이기는
것을 부끄러워할까 봐 그랬던 것이로군.

부장 열너이십니다.

호동 ㉡ 그 열녀의 덕을 본 나는 무어가 되는가?

부장 영웅이십니다.

호동 여자 힘을 빌린 영웅이라.

- 최인훈, 동동 낙랑동 -

16. 연출가가 배우에게 ㉡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도록 조언할 내용으
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호동은 공주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이로 인해 갈등하는 모습을 잘 표현해
보십시오.

2012학년도 수능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심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
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회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
설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
와 같은 입장을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되,
그 밭들의 고품,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양
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도 탐스럽게 호젓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
나 아버지가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
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웬일인데 어찌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부 안 데려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뭇 허 오누?”
“인전 어머니서건 서울로 모셔 갈 채벌 허러 왔따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테서 살아 봤을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
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렇지 단순히 들떠들 마음이 아
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
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기 못
한 것이 잘못인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
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씩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
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역
시 방화방공으로 가지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
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경하기에 용이한 것, 각종에 수도·가스 다 들
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열한 것, 열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
금의 병원을 팔면 일반 오천 원쯤은 받았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야,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나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 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잠심이나 먹어라. 나무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윗물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짐 심상을 받았다. 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칠 놀 게 내가 어려서 왔는 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강정 수십 명이 한나잠을 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쳐지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너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하니? 시냇사람들은 모두 인경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너다 모셨구, 내가 천잘 거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발 따구 내 집에 왔어. 나죽건 그 다리루 건너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지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독에 선 느르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분들 동상(銅像)이나 다투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허느냐? 땅 없애 버라, 길이 어렸으며 나라가 어엿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가 땅이 뿔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번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현실팍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에 비치 않드라."

"....."

- 이태준, <둘다리>

17.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보기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되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㉔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5. 이상과 현실의 괴리>

2012 6월 모의평가

(가)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님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거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 김동명, 「파초」-

* 파초 :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나)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 — 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흘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 — 한 공중을 향하여 여원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은 영혼 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 — 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원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연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죽 — 히 부르면서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 수철리 :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①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2004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가 만난 이중섭

김춘수

광복동에서 만난 이중섭은

㉔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가 온다고
바다보다도 진한 빛깔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눈을 씻고 보아도
길 위에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 나는 또
남포동 어느 찻집에서
이중섭을 보았다.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
진한 어둠이 깔린 바다를
그는 한뼘 한뼘 지우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는 오지 않는다고,

2.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밑글의 ㉔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3점]

<보 기>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피레네의 성(城)'입니다. 바다 위에 바위가 하나 떠 있습니다. 기이한 느낌이 들지요? 바위 꼭대기에는 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아니라, 표면이 울퉁불퉁한 달걀 같기도 하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질적이고 비밀스러운 사물들의 연계는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같은 발상은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자유로운 상상이 대상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피레네의 성(城)'입니다. 바다 위에 바위가 하나 떠 있습니다. 기이한 느낌이 들지요? 바위 꼭대기에는 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아니라, 표면이 울퉁불퉁한 달걀 같기도 하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질적이고 비밀스러운 사물들의 연계는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같은 발상은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자유로운 상상이 대상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인간과 격리된 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아득한 바다 위의 성을 표현한 것 같다. ㉔ 또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2007학년도 수능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팔아라

남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나)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린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②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6. 부정적 상황>

2011 6월 모의평가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회 치다라 안자
갓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陂)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
하여 풀덕 뛰어 내닷다가 두엄 아래 갓바지거고
모쳐라 날넌 넬스만경 예혈*질 번 하께라.

- 작자 미상, 사실시조

* 예현 : 어현.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나)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발사발 크나 작으나 통웃이 좋고 웃으나
마음을 다루는 듯 호수(戶首)*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흥질할것 하나나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득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엇그제 화강도(火鬮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누가 잘 하며 심은 누가 역모라
너희 제주 해아려 제각기 맡아 하라
가을걷이 한 후에는 집짓기를 아니하라
집은 내 지오마 읊은 네 물어라
너희 제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닦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볕을 언제 보라
방아를 못 쪼개는 거치나 거친 울벼
옥 같은 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나
엇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데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밤만 다루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죽조반(粥早飯)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었거든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과 하면서 세끼 한 사리 다 꼬졌도다.

- 허견, 「고공가(雇工歌)」

* 호수 : 고공(머슴)의 우두머리.

(다)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그 나라의 군주이다. 어족(魚族)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곤어, 바다 장어 같은 것은 그 군주의 내외 여러 신하이고,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종류는 서리나 아전의 무리이다. 그 밖에 크기가 한 자가 못 되는 것은 수국(水國)의 만백성들이다. 그 상하에 서로 차서(次序)가 있고 대소(大小)에 서로 거느림이 있는 것은 또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 이어주고, 사람들이 물고기 씨를 말릴까 염려하여 겹겹이 물결을 일렁이여 덮어 주니, 그것이 물고기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셔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詩書)로 삼고, 고통,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씹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으며, 문철망둑, 쏘가리, 드렁허리, 가물치 족속은 사이를 노리고 틈을 잡아 덮쳐서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은 아랫것을 사로잡는다. 진실로 그러한 행위를 싫증 내지 않는다면 물고기들은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스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의 도(道)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 이옥, 「어부(魚賦)」

3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④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2011 9월 모의평가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길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객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도.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나) 적막강산

백석

오이밭에 벌베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술밭에 뺨꾸기 소리
잔술밭에 덜거기*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벌베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 늙은 장끼.

(다) 단가 육장

이신의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댄던 술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랄시고
두어라 우로(雨露) 곧 있으면 다시 불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거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중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테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원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풀일까 하노라 <6장>

* 부근 :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적객 :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 들보.

2.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②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2005 6월 모의평가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날 밤 승용차 안의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사 버렸다.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이십이만 원에 사는 것을 이십오만 원씩 주고 모두 사 버렸다. 그날 밤에도 영화는 편지 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다. 영화는 편지 꽃 두 송이를 따 하나는 기타에 꽂고 하나는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폼짝도 하지 않고 기타만 쳤다.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했다.

“이십오만 원이 분명하죠?”
어머니가 물었다. 사나이를 따라온 나이 든 사람이 검은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 주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매매계약서를 썼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서류가 든 봉투와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는 계약서 매도자란에 ‘金不伊’라고 쓰고 도장을 눌렀다. 나이 든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바람의 뜻을 그가 알 리 없었다. 어머니는 소중하게 싸 두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넘겨주었다.

식칼 자국이 난 표찰, 아침 수저를 놓고 가슴을 세 번 치게 한 철거 계고장, 짐을 헐값에 버리기 위해 생긴 차음 내본 인감 증명 두 통, 미리 서명해 두었던 명의 변경 신청서, 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과 나이가 차례대로 적혀 있는 주민 등록 등본 두 통. 마당가 편지 꽃 앞에 앉아 있던 영화가 고개를 숙였다. 사나이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뒤로 물러앉았다.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다. 폭 삼 초 동안 들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아 들었다.

다음날 아침, 명희 어머니는 사람들을 시켜서 집을 헐었다. 어머니가 심오만 원을 갚았다. 두 부인은 손을 마주 잡은 채 아무 말도 못 했다. 용달차가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와 명희네 집을 실었다. 명희 어머니가 치마를 울려 눈물을 닦았다.

“예유, 정이란 게 뭐지!”

명희 어머니가 말했다.

“정이란 게 이렇게 더러운 게라우.”

그 말이 우리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용달차가 집 앞을 지나갔다. 아버지는 오른손을 반쯤 올렸다 내렸다. 왼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지섭의 책에 아버지의 손때가 까맣게 묻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달에 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렌즈를 지키는 일야. 달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다.”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넌 이때까지 뭘 배웠니?”

아버지가 말했다.

“뉴턴이 그 중요한 법칙을 발표하고 삼 세기가 지났어. 너도 그걸 배웠지?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런데 우주에 관한 기본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런데 누가 아버지를 달에 모시고 가겠대요?”

“지섭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 센터에 편지를 냈다. 그곳 관리인 로스 씨가 답장을 보내올 거야. 후년에 우주 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달에 가게 될 거다.”

“그 책을 돌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는 미쳤어요.”

“이 책의 사진을 보라. 이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이 사람은 로버트 고다드다. 당시 사람들이 미치광이로 지목했던 인물들이야. 이 미친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야니?”

“물라요.”

“넌 학교에서 죽은 교육을 받았어.”

“어쨌든 그 책을 돌려주세요.”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고생하다 바짝 마른 물골로 죽기를 바라고 있지? 힘든 일에 놀려 허우적거리다 숨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너희들은 왜 지섭에게 아무것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니?”

“도대체 뭘 배우라는 말씀예요?”

“로스 씨의 편지를 받기 전에 보여 줄 것이 있다. 지섭에게 말해서 최공을 쓰아 올려 보여 주마.”

“없지?”

“네.”

“찾지도 못하면서 밤새도록 어디 가 있었니?”

나는 돌맹이를 집어 다시 방죽을 향해 던졌다. 어머니도 기진해 다른 말을 못 했다. 형이 어머니의 등을 밀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백여 채의 집이 헐리고 남

은 것은 몇 채 안 되었다. 우리도 영희만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전날 떠났을 것이다. 철거일을 어겨야 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 꽃 두 송이뿐이었다. 나는 좀 큰 돌맹이를 집어 던졌다. 이편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이 수조 사이로 밀려왔다.

- 조세희,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

3. <보기>를 참조하여 밑줄을 해석할 때,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보 기>

이상 세계를 꿈꾸는 것이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도 멀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 비판의 표시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대항 이미지로서의 이상 세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할 때, 그 이미지는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되거나 현실을 극복해 가는 힘이 된다.

㉔ ‘달’은 아버지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2005학년도 수능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드립턴 장돌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충주 계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이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 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달 동안이나 두박두박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기만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 건만 허 생원은 번치 않고 언제나저 가슴이 뛰놀았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여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꿎은 정본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는 없었다. ㉕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려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

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다.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밭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자 하였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밭에 감동하여서였다. ㉖이저러는 겹이나 보름을 가계 지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호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받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관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일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호호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말랑말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 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것 외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라)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줏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덤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기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죽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 팽이가 있는 것투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딸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져 듣고난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애젠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가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

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관은 소문에 발근 뒤집혀 고작하여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해 하단 말이야. 계천 장관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풀은 땀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을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마)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향유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놀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까지 장돌맹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두박두박 걸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 가지 이 길 걷고 저 단 볼 태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띄어졌다. 꿈무늬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4.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㉑, ㉒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㉑ ㉑의 ‘길가’는 허 생원이 비참해진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공간이다.

㉒ ㉒의 ‘밤길’은 장돌맹이 생활을 하는 세 인물의 어려움과 압당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2009 6월 모의평가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여승(女僧)은 합창(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용새가 닳다
쓸쓸한 낮이 빗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했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너 산(山) 깊은 금덕관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섬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뿡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
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女僧)」-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데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다) 어머니,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벨테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결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줄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후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얼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5.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2013 9월 모의평가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밤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鄉)」-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지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낯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지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겁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2」-

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기>
자아 성장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
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
견한 후 이들을 상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
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가)의 '밤'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2007학년도 수능

☆ 고전 시가 + 수필

[51~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화우(梨花雨) 흠뿌릴 제 울며 잠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랑의 시조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 추루(空山觸髓)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기나
윤회 만겁(輪廻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顯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가엾은 이 얼굴을 네모다 반기실까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공산 추루: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 * 만장송: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 * 침변: 베개머리.
- *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다)
우리 집 이웃의 늙은 부부는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자
기네가 목불식경(目不識丁)인 것이 철천지의 한이 되어서 아들만
은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아
들을 서당에 보내고 노상 “우리 서당 애, 우리 서당 애.” 하
며 아들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집 단칸방에 있는 다 깨어진
질화로 위에,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예(例)의 서당 아이를
기다리는 따뜻한 토장찌개가 놓였음은 물론이다. 그 아들이 『
천자문』을 읽는데, ‘질그릇 도(陶), 당국 당(唐)’이라 배운
것을 어찌 된 셈인지 ‘꼬끼요 도, 당국 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오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늙은 ‘오마니’가, 알지는 못하
나마 하도 괴이하여 의의(疑義)를 삽(挿)한즉, 늙은 영감이
분연(憤然)히,

“여보 할멈,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마소.
글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꼬끼요 도’는 없을라고.”
하였다. 이렇게 단연(斷然)히 서당 아이를 변호한 것도 바로
질화로의 찌개 그릇을 둘러앉아서였다. 얼마나 인경미 넘치는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이나.

사랑에 놓인 또 하나의 질화로는 이와는 좀 다른 풍경을 보였
다. 머슴, 소배(少輩)들이 모인 곳이면, 신 삼기, 등우리 만
들기에 질화로를 에워싸 한창 분주하지마는, 팔씨름이라도 벌
어지는 때에는 쌍방이 었더니 서로 버티는 서슴에 화로를 발로
차 온 방 안에 채를 쏟아 농기가 일쑤요, 노인들이 모인 곳이
면, 고담 책* 보기, 시절 이야기, 동네 젊은 애들 버릇없어져
간다는 이야기들이 이 질화로를 둘러서 일어나는 일이거니와,
노인들의, 입김이 적어서 꺼지기 쉬운 장죽은 연해 화로의 불돌
밑을 번갈아 찾아갔었다. 그리하여 기나긴 겨울밤은 어느덧 밤
을 넘어 되는 것이다.

돌이켜 우리 집은 어떠했던가? 나도 5, 6세 때에는 서당 아이
였고, 따라서 질화로 위에는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찌개 그릇
이 있었고, 사랑에서는 밤마다 아버지의 담뱃대 터치는 소리와

고서(古書)를 읽으시는 소리가 화로를 둘러 끊임없이 들렸었다. 그러나 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그 소리는 사랑에서 그쳤고, 따라서 바깥 화로는 필요가 없어졌고, 하나 남은 안방의 화로 곁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대학(大學)』을 구수(口授)하시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마저 내가 열두 살 되던 해에 그 질화로 옆을 길이 떠나가시었다. 그리하여 서당 아이는 완전한 고아가 되어, 신식 글을 배우러 옛 마을을 떠나 동서로 표박(漂泊)하게 되었고, 화로는 또다시 찾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

질화로 의 찌개 그릇과 또 하나의 질화로에 깊이 묻히던 장죽, 노변(爐邊)의 추억은 20년 전이 바로 어제와 같다.

- 양주동, 「질화로」 -

- * 목불식정: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 * 의의를 삼한죽: 의문을 제기하리.
- * 고담 책: 옛날이야기 책.
- * 구수: 학문이나 지식 따위를 말로 전하거나 가르쳐 줌.
- * 표박: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냄.

7.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④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05학년도 수능

☆ 고전 시가 + 수필

[37~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늘이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잎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엿저녁 마시다 남은 머무술을 들이키고 나니 새삼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어젖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 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멋’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었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작(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집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밭과 산나물로 죽히 목숨을 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던이 있고 밭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제 세상이 괴롭다 하노는,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리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

- 조지훈, 「멋 설(說)」 -

- * 유위전변(有爲轉變): 세상사가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이르는 말.
- ** 방우자(放牛子): 글쓴이의 아호(雅號).

(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버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 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울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거 말슴 흥가.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흔디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에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닮러 므슴 흥고.

청산(靑山)은 옛제허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제허여 주야(晝夜)에 굶지 아니노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히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허거니 귀 아니 쉬은가 성인(聖人)도 못 다 하시니 귀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 연하(煙霞): 안개와 노을.
- ** 순풍(淳風): 순박한 풍속.
- *** 소쇄(瀟灑): 기운이 맑고 깨끗함.

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2010학년도 수능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짙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사리위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집어 올린 외씨보선(外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아
세사에 시달려도 빈치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뜨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빠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든 질웁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빠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빠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뒀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뒀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빠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를 곁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빠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찰흙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빠꾸새」-

- * 길든: 길이 덜 든.
- * 세석: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9. (가)의 ‘서리위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한 지 판단하시오.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잎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갖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뒤흔치고 둥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 듯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엇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잎에 가득 가을 소리라
세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울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님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체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10. (가)와 (나)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나)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판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2008학년도 수능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들벽 아래 잠조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위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나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쩌랴 이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려 함.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③ (가), (나)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2002학년도 수능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난한 사랑 노래
-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러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불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나)

추억에서

박재삼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썹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매야 울 엄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밖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떡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다)

그리움

이용악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백무선: 함정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산을 잇는 철도

12.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③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거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글 상엇집 흰 눈 속을 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삶이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짜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어항 뒷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남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덩그러니그러.

-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네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단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네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가,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끓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네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다]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바깥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보니 꿈을 뉘러 상시(常時)과져²⁾
 학발자안(鶴髮慈顏)³⁾ 못 비겨든 안족서신(雁足書信)⁴⁾ 잿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⁵⁾ 뉘 해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로고져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가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져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져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르고

- 이광명, <북찬가(北窓歌)>

[어휘풀이] 1)영 : 고개, 2) 꿈을 뉘러 상시고져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3)학발 자안 : 머리가 허물게 선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4)안족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 달아 보낸 편지, 5) 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왈차히 내려앉은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옥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버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붉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 :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7. 비판적 태도>

(가)
 가난한 사랑 노래
 -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짐을 지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는가,
 어머니님 보고 싶소 수없이 되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불에 와 당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나)
 추억에서

박재삼

진주 장터 생어물절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헌(恨)이던가.
 울 엄매야 울 엄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케 떨던가 손시리케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세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머했음고.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다)
 그림음

이용악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힘한 바람을 굵이 굵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란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백무선 :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
 산을 잇는 철도

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화상(自畫像)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이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
 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이란 바
 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돔 개들이 시골짜크게 짖어댄다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지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농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험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A]차철.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통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해매 공이 주야 병측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침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심여 년

**—
존망을 모르매 병일풀수하여 명이 오늘날이라.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충 하소서.”**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낮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해매 좌우가 불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었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썼으며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씩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보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풍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

- 전.-
- * 산짐 : 해산의 기미.
-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 월음 :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 수말 : 일의 처음부터 끝.

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2013학년도 수능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쉼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실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울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건데, 전찬 밧 타냐?”

아무리 ‘바로 저기’ 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꿨다.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쉼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 이 선 듯도 싶지 않건 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투박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몸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둘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것때깔이 아이νομ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걸잡을 수 없게 들렀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옷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잠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 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나,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겐 띄이나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증산모 쓴 포목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옥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나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껌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저 위에서 뒹굴고, 그러는 각정이* 때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뎌,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즐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 도 가 볼 수 있고, ‘전차’ 도

탈 수 있고, 옹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 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 길에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도,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 라는 물건을, 잠깐 머뭇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 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다, 시골 아이야.”

철칼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고 그렇게 말하니,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딸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 가는 혀끝을 놀리며,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뻥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붙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 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진거 종소리에, 그만 걸걸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 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실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말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떡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 나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 나 태워 주고, ‘화신상’ 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던 편 좋겠다고 짐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임바네스 : 남자용 외투의 일종.

* 각정이 : 거지.

6.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기>

도시에서 처음 입성한 이들은 자신의 꿈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심리적 혼돈 속에서 크게 위축된다. 도시는 문명의 화려함을 내세워 그들을 매혹하지만 안정된 삶의 장소를 내주지는 않는다. 도시 문명에 가리어진 도시의 이면적 풍경, 인정이 메마른 도시인의 초상, 그리고 도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이 어우러져 도시 소설의 한 줄기를 이룬다.

㉔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고 한 데서, 혼돈에서 벗어나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가) 하늘이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일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멋’ 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엿저녁 마시다 남은 머투술을 들이키고 나니 새삼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어젖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 라 하고 ‘일물(一物)’ 이라 하고 ‘일심(一心)’ 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멋’ 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 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빈뇌(頻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마리 밥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으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터이 있고 밭을 쉴 때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뇨. 이

는 구태어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웃을 삼노라.

- 조지훈, 「덧 설(說)」-

* 유위전변(有爲轉變) : 세상사가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이르는 말.
** 방우자(放牛子) : 글쓴이의 아호(雅號).

(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벼를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늙어 가늠이 중(中)에 부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죽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울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거(小)할수 흥가.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흐되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무궁(無窮)하에라 이 중(中)에 양래풍류(往來風流)를 날러 모습 흥고.

청산(靑山)은 옛제하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제하여 주야(晝夜)에 굶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정(萬古常靑)히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흐거니 그 아니 쉬은가 성인(聖人)도 못 다 흐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겹거나 어렵거나 중(中)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연하(煙霞) : 안개와 노을.
** 순풍(淳風) :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 기운이 맑고 깨끗함.

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 현상에 얽매이는 태도를 비판하며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2006학년도 수능

☆ 고전 시가 + 수필

[24~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霜天月照夜河明

나그네는 돌아가고픈 심정이 간절해지네 客子思歸別有情
긴긴 밤 근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 厭坐長宵愁欲死
홀연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들이 소리 忽聞隣女搗衣聲
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聲來斷續因風至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夜久星低無暫止
고국을 떠난 뒤로는 들지를 못하였건만 自從別國不相聞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今在他鄉聽相似
- 양태사, 「야정도의성(夜聽搗衣聲)」-

(나)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져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어와 너어이고 나의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괴약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네로다 여기실새
나도 임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시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헤아리니
내 몸의 지은 죄 죄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
설위 풀쳐 해니 조물의 뜻이로다
글란 생각 마오 맺힌 일이 있어이다
임을 피서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할실 적 몇 날이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누워서 피셨는고

[A]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다)

그날 황혼 천하에 공지(空地) 없음을 한탄하며 뉘 집 이층에서 저물어 가는 도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실로 덕수궁 연못 같은, 날만 따뜻해지면 제 출몰에 해소될 영성한 공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참 훌륭한 공지를 하나 발견하였다.

○○보험회사 신축 용지라고 대서특시한 놀라운 판장(板障)으로 둘러막은 목산(目算)* 범 천 평 이상의 명실상부의 공지가 아닌가.

잡초가 우거졌다가 우거진 채 말라서 일면이 세피아 빛으로 덮인 실로 황량한 공지인 것이다. 입추의 여지가 가히 없는 이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인외경(人外境)의 감을 풍기는 적지 않은 공지가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닐 수 없다.

인마(人馬)의 발자취가 끊인 지-아니 그전 또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지만-오랜 이 공지에는 강아지가 서너 마리 모여 석양의 그림자를 끌고 회롱한다. 정말 공지-참말이지 이 세상에는 인제는 공지라고는 없다. 아스팔트를 칸 뺄만한 길도 공지가 아니다. 질펀한 논밭, 임야, 석산, 다 아무개의 소유답지요, 아무개 소유의 산팍**이요, 아무개 소유의 광산인 것이다. 생각하면 들에 나는 풀 한 포기나 공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처럼도 하자면 우리는 소유자의 허락이 없이

일 보의 반 보를 어찌 옮겨 놓으리오. 오늘 우리가 제법 교의로 산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세상 인심이 좋아서 모두들 묵허(默許)를 해 주니까 향유할 수 있는 사치다. 하나도 공지가 없는 이 세상에 어디로 갈까 하던 차에 이런 공지다운 공지를 발견하고 저기 가서 두 다리 쪽 뺏고 누워서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보험회사가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조물인 것을 깨달았다. 다만 이 건조물은 콘크리트로 여러 층을 쌓아 올린 것과 달라 잡초가 우거진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B]봄이 왔다. 가난한 방안에 왜꼬아리 분(盆) 하나가 철을 찾아서 요리조리 썩이 튼다. 그 닳꼴 한 되도 안 되는 흙 위예다가 늘 잉크병을 올려놓고 하다가 썩트는 것을 보고 잉크병을 치우고 겨우내 그대로 두었던 낙엽을 거두고 맑은 물을 한 주발 주었다.

그리고 천하에 공지라곤 요 분 안에 놓인 땅 한 군데밖에는 없다고 좋아하였다. 그러나 두 다리를 뺏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기에는 이 동글납작한 공지는 너무 좁다.

-이상, 「초춘점묘(早春點描)」-

*목산:눈으로 어렵셈함.

**산팍:산갓. 산림의 의미.

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A], [B] 모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2010학년도 수능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다른 눈썸미로 한 번 보면 못 내는 시능이 없었고, 손속 또한 유별났으니 예세 가르친 바가 없어도 음식 맛깔과 바느질 솜씨는 어머니도 나무랄 수 없음을 진작에 선연한 정도였다. 동냥을 주면 종구라기가 넘치고 개밥을 주어도 구유가 쫓겨 손이 컸다.

“저것이 저리 손이 크니 시집가면 대번 시에미 눈 밖에 나리…….”

어머니의 걱정처럼 그녀는 오종종하거나 소갈머리 오죽같은 것을 가장 싫어했고, 남의 억울한 일에는 팔뚝을 걸어붙이고 나서서 뒤통을 싸워 주며, 부지런하러 들기로도 남보다 뒤처짐이 없었던 것이다.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가 징발됐던 것도 남의 집 뒷수혜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음이니, 은갓일의 들무새요 안머슴이었던 것이다.

“말꼬랑지 파리가 천 리 가더라구 웅쟁이가 그렇당개.”

부락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과 솜씨를 그렇게 비유하였고, 그녀

는 그녀대로 그런 말 듣게 된 자신을 대견스레 여기는 것같았다.

그녀가 열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안팎 동네의 머슴이나 풀일꾼, 그리고 어리전이나 드림전을 보아 제 몫은 하던 장돌뱅이 총각들의 눈독을 한 몸이 받고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총각들은 장차 그녀를 아내로 맞고 싶어서 그러던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았다. 그 시절만 해도 혼사에 있어서 만은 으레 근본의 어머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양반 쪼끼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향품배(鄕品輩)*^{*} 흐트머리만 되어도 집안이 이렇고 저러함을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 교전비(橋前婢)*와 낭봉난 행랑 것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녀의 신분은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커다란 허물이었다. 아무리 소견이 들어 뒹뒹이가 쓸 만하고 살림에 규모가 있더라도 그녀의 내력을 번연하게 외던 근동 사람이라면 거들떠보려고도 앓을 판이었다.

(중략)

관촌 부락에서 등성이를 끼고 돌면 요꼬티라는 작은 부락이 있었다. 원래 이웃하고 농사짓는 초가집 대어섯 가구뿐으로 일년 내내 대사 한 번 치르지 않아 사는 것 같지 않던 동네였으나, 해방 이듬해부터는 금융 조합 창고 같은 연립 주택이 몇 채 들어서고 한 채에 여남은 가구씩, 복해도에서 왔다는 전제민들을 들여 정착시키자, 밤낮 조용한 날이 없게 시끄러운 마을로 변하면서 전제민촌이라는 새 이름이 붙은 곳이었다. 읍내의 지계꾼, 신기료장수, 리어카꾼과, 주계풀이 남무한 낯선 사람은 모두 전제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그 전제민촌이란 이름은 차츰 도둑놈 소굴이라는 뜻의 대명사로 불리어져 갔다. 관촌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무엇이 없어진다거나, 논밭에 심은 것이 축난 듯싶으면 으레 전제민촌 사람들의 소행으로 여겨 버릇했고, 서툰 입고리장수가 들어서도 전제민촌 사람으로 판단, 물건을 갈아주기보다 집어 가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려는 도사림으로 냉대해 보내기 일쑤였다.

그런 중에도 웅쟁이는 조금 달랐다. 그네들의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었던 거였다. 굶다 못해 이불숨을 빼다 팔아 겨울에도 흠이불을 덮는다는가, 변변한 옷가지는 죄 팔아먹어 주계풀이 것처럼 비렁뱅이 풀이라는 거였다. 그렇다면서 전제민만 오면 어머니를 졸라 무엇이든 한 가지는 갈아주도록 피하던 것이다. 그녀는 특히 그녀만 보면,

“옥상, 오꼬시 사 먹소.”

하며 들어붙던 절름발이 늙은이를 가장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다. 일본에서 건너오다 차자를 놓쳐 홀로 된 늙은이라는 거였다.

“그 옥상만 보면 지 애비가 모집 나갔다 나오면서 고상했다던 생각이 나서 딱해 못 견디겠슈.”

웅점이 어머니한테 하던 말이다.

과자를 먹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으면 웅점은 서슴지 않고,

“쪽쟁이 보리 한 종발 주구 옥상헌티 샐지.”

했다. 옥상에게 과식을 빼돌려 가면서까지 그녀가 내게 굳건했을 시킨 이유는, 옥상이라고 부르던 그 불우한 늙은이를 돕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더 가혹한 뜻이 없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A]근래에 들어와 크게 유행을 본 말 가운데서 내가 가장 단기 수월했던 말이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 운운하던 단어들이었다. 어떡하든 것이 주체 의식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주체성을 지키는 것인지 알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였다.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함이 예사이고, 말을 얹으면 병신 대접 받기 십상인 줄 모르지 않으나,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이란 말을 외래어보다도 막연하게, 개나 절이나 지절여 대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는 줄 알던 많은 사람을 보아 온 터여서, 그 친한 말을 웅점은 일찍이 내게 행동으로써 보여 준 셈이라고 장담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한 번 더 다짐해 두지만, 그 무렵 웅점의 태도를 주체 의식, 또는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면, 나는 그녀만 한 정신 자제를 가진 인간을, 내가 이 사회에 나와 벌여먹게 된 뒤로는 몇 사람 외에 구경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향품배 : 지방의 낮은 벼슬아치들.

* 교전비 : 혼례 때에 신부가 데리고 가던 계집종.

9. 윗글을 <보기>에 비추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보기>

「관촌수필」은 전(傳)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은 한 인물의 행적을 짤막하게 서술한 전통적인 글쓰기 양식이다. 대개 ‘인물 소개 - 주요 행적 - 인물 평’의 순서로 구성된다. 서술 대상은 주로 충신, 효자 등 모범적인 덕목을 지닌 인물이었는데, 그중에는 하층민도 포함되어 있다. 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물평인데, 인물의 행적 요약, 본받을 만한 덕목 제시, 작가의 최종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 세상에 대한 작가의 판단이 덧붙여지곤 한다. 인물평은 행적 부분과 구별되는 진술 방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④ [A]에 나타난 세태 비판적 태도에서 ㉠을 엿볼 수 있다.

1998학년도 수능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에, 자기 부친 윤용구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죽은 시제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냐고 화광이 충진한 하늘을 우러러,

“이 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었다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위대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지요.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 아저,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웅위 아래 윤 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다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 애비, 부디 청신채라라……!”

윤 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정신을 채리아 할 것이 누가 암만하여두 네 아우 종학이 만 못하여! 종학이는 그 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하여서, 너처럼 허랑허지도 않고 그럴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머년 대학교를 줄 업혀잖나? 내후년이?”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허구나와서, 삼 년이나 다직* 사 년만 썰들어 나머년 그들은 지가 목적인, 요 새 그 목적인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목적현 경부 가 되야 갖구서, 경찰서장이 된담 말이다! 응? 알았어.”

“네.”

“그러니까루 너무 정신을 바짝 채리 갖구서, 어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냐……? 아,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놈은 게우 군서기를 땡기구 있담! 남 부끄러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구 경찰서장 되구 허머년, 느딜 좋구 느딜 호강이지 머,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 소리 허년 것두 다 느딜 위하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죽듯만치 두 상관술어야! 알아들냐?”

“네.”

마침 이 때, 마당에서 행뎌, 점잖은 발은기침 소리가 납니다. 장식이 윤 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큰턱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뜨겼구나?”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고 꼬집는 소립니다.

“……뭇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냥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 놓았으면 포옥 맞겠습니까.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땅- 찰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어진 온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러니? 이게 무슨 소리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 놈이 사회주의에 참예를…….”

“으응?”

- (중략) -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짖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 던 말세년 다 지내가고요……. 자 부아라, 거리 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허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가 명명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잡*을 헌단 말이며, 으응?”

- 채만식의 「태평천하(太平天下)」에서

*다직: 기껏

*영각: 황소가 길게 뿜어 우는 소리

*참잡: 남의 일에 참견하여 간섭하는 것

10. ‘윤 직원’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에 대한 지적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④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판적이다.

2007 9월 모의평가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린캠프 주시경은 국어학자이면서 국어 교육자이다. 그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국어 연구를 통해 국어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켰을 뿐 아니라 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맞춤법의 통일 같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국어학자로서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적인 인물이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국어학 연구에서, 그는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형태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문법 현상을 분석하고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순수 고유어를 사용하여 학술 용어를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모호하거나 엄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연구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이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특히 ‘늦씨’와 ‘속뜻’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단어를 뜻하는 ‘씨’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면서 여기에 ‘늦씨’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컨대 ‘해바라기’를 ‘해‘바라기’, ‘이더라’를 ‘이‘더라’처럼 늦씨 단위로 분석했다. 이는 그가 오늘날 ‘형태소’라 부르는 것과 유사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1930년대에 언어학자 블룸필드가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또한 그는 숨어 있는 구조인 ‘속뜻’을 통해 겉으로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을 분석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장의 계층적 구조는 그림을 그려 풀이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 언어학의 분석적인 연구 방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주시경은 국어학사에서 길이 기억될 연구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국어 교육자로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언어를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보았으며,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말과 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국어 교육에 온 힘을 다하였다. 여러 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국어 강습소를 만들어 장차 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그의 국어학 연구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면, 주시경은 ‘한글’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그는 맞춤법을 확립하는 정책에도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 모임을 만들어 맞춤법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갔다. 그리고 1907년에 설치된 ‘국문 연구소’의 위원으로 국어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한글 맞춤법’도 일찍이 주시경이 취했던 형태주의적 입장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바 크다.

11. 중심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서술 태도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④ 중심 화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0년 9월 모의평가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차 안에서처럼 두 개의 의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옆에는 스크린이 창문처럼 설치되어 있다. 관람객들이 이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 대화 속의 단어들에 상응하는 이미지들이 화면 가득하나타나 입체적 영상을 만들어 낸다. 이는 소머러와 미그노뉴의 디지털 아트 작품인 「인터넷 타기」에 대한 설

명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은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경계를 넘어 작품의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분명 종래의 예술관에 대한 도전이다. 종래의 예술관은 수용자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 감상을 미적 관조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예술 이외의 모든 관심과 욕구로부터 초연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관조적 태도와 함께 예술 작품 자체도 모든 것에서 벗어난 순수한 객체가 됨으로써 이제 예술은 그 어떤 권위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율적 영역이 된다. 이 때문에 종종 예술은 쓸모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현실의 모든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 공간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이 예술을 상호 작용 공간으로 만들 경우 미적 해방 공간마저 일상적 삶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예술 이외의 관심과 욕구로 얼룩지고 마는 것인가? 넓게 보자면 인간은 세상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란 세상과의 부단한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상호 작용이 외적·내적 요인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을 낳을 때, 인간의 경험은 대립과 분열 속에 빠지며, 이것이 지속될 때 삶은 위기를 맞는다. 반면 각각의 상호 작용의 고유성이 보호되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전체 속에서 통일될 때 인간의 삶은 극치를 이룬다. 존 듀이는 이러한 통일성에 대한 체험을 미적 체험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러한 미적 체험은 현실적 삶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것은 예술 작품 속에서 상이한 요소, 행동, 사건, 주체들이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듀이는 예술의 신성화가 아니라, 예술의 세속화를 원한다. 대립되고 분열된 일상의 수많은 상호 관계와 경험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미적 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가 이러한 미적 체험을 실험하고 연습하는 장을 만든다면, 이는 예술 작품을 넘어 삶 속에서도 미적 체험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2. <보기>의 입장에서 ‘예술의 세속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세상은 의지의 표현이며, 이 의지는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맹목적 충동일 뿐이다. 이 충동은 하나가 만족되면 새로운 충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간은 맹목적 충동의 사슬이 불리일으키는 불만족 갈등에 시달린다. 미적 관조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인간은 잠시나마 이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① 예술의 세속화는 자기 보존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 ② 예술의 세속화는 상호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예술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 ③ 예술의 세속화는 역으로 예술을 인간의 맹목적 충동에 종속시

- 킬 위험성을 갖는 것은 아닐까?
- ④ 예술의 세속화는 오히려 인간이 현실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아닐까?
- ⑤ 예술의 세속화는 미적 관조를 현실 세계로 확산시킴으로 삶의 통일성에 대한 경험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2013 6월 모의평가

이때 동래 부사 송정이 사신 온다는 공문을 보고 웃으며 왈,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든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오. 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 하더니 하인이 보하되, “사명당 행차 온다 하오니 어찌 접대하리이까.” 송정이 분부 왈, “상례로 대접하라. 제 비록 부처라 한들 어찌 곧이들리오.” 하고 심상히 여기거늘, 하인 분부를 듣고 나와 부사의 말을 이르고 왈, “지방관의 도리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을 가벼이 여기거니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로다.” 하더니 자연 삼일 만에 이르렀는지라. 대접하는 도리와 수용하는 일이 가장 소홀하거든 사명당이 대로하여 객사에 좌기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송정을 잡아 계하에 꿇게 하고 이르되, “네 벼슬이 비록 옥당이나 지방관이요, 내 비록 중이나 일국 대사마대장군이요 봉명 사신이어늘 네 한자 벼슬만 믿고 국명을 심상히 여겨 방자함이 태심하니 내어 배어 국책을 엄히 하라.” 하고 즉시 나라에 장문하여 선참후계(先斬後啓)*하고 인하여 길을 떠날 새 승종을 만나 행선하리나.

[중략 줄거리]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하자 왜왕은 사명당의 신통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채만홍이 주왈, “신의 소견은 철마를 만들어 붙같이 달구고 사명당을 태우면 비록 부처라도 능히 살지 못하리이다.” 왜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풀무를 놓고 철마를 지어 만든 후 백탄을 피같이 쌓고 철마를 그 위에 놓아 붙같이 달군 후에 사명당을 청하여 가로되, “저 말을 능히 타면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 사명당이 심중에 망극하여 납관을 쓰고 조신 향산을 향하여 사배하더니 문득 서넛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천지가 희미하거늘 사명당이 마지못하여 정히 철마를 타려 하더니 홀연 벽력소리 진동하며 천지 뒤늬는 듯하고 태풍이 진작하여 모래 날리고 돌이 달음질하고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사람이 지척

을 분변치 못하는지라. 경각 사이에 성중에 물이 불어 넘쳐 바다가 되고 성 외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하되 사명당 있는 곳은 비 한 방울이 아니 젖는지라.

왜왕이 경황실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천위를 안정하리오.” 예부상서 한자경이 주왈, “처음에 신의 말씀을 들었사오면 어찌 오늘날 환이 있으리이까. 방금 사세를 생각하옵건대 조신에 항복하여 백성을 평안히 함만 같지 못하나이다.” 왜왕이 자경의 말을 듣고 마지못하여 항서를 써 보내니 사명당이 높이 좌하고 삼해 용왕을 호령하더니 문득 보하되, “네 나라 항복받기는 네 손아귀에 있거니와 왜왕의 머리를 베어 상에 받쳐 들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일본을 멸하여 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네 들어가 왜왕에게 자세히 이르라.” 사자 들어가 전말을 고하니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고 능히 할 말을 못하거늘 관백이 주왈, “전하는 모를지기 옥체를 진중하소서.” 왕이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남은 백성이 살기를 도모하여 사면팔방으로 헤어져 우는 소리, 유월 염천에 큰비 오고 방초중의 왕머구리 소리 같은지라. 왕이 이 광경을 보니 만신이 떨려 능히 진정치 못하거늘 관백이 다시 가지고 들어가 사명당께 드리니 사명당이 항서를 보고 대쾌 왈, “네 왕이 항복할진대 일찍이 항서를 드릴 것이어늘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고 용왕을 불러 이르되,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어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 용왕이 공중에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고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운무 중에 몸을 드러내니 사명당이 관백에게 왈, “네 빨리 들어가 왜왕에게 일러 용의 거동을 보게 하라.” 관백이 들어가 그대로 고하니 왜왕이 창황 중 눈을 들어 하늘을 치밀어 보니 중천에 삼공이 구름을 피우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었으니 형세 산악 같고 고기비늘이 어지러이 번쩍여 일광을 바수고 소리 벽력같이 천지진동하는지라. 이 진걸이 주왈, “본국 보화를 다 바치고 항표(降表)를 올려 애걸하소서.” 왕이 즉시 이진걸을 명하여 항표를 올린대 사명당이 대로 왈, “네 나라 임금의 머리를 베어 들이라 한대 마침내 거역하니 일본을 무찔러 혈천을 만들리라.” 하고 인하여 육왕장을 들어 공중을 향하여 추속하더니 문득 뇌성벽력이 진동하여 산악이 무너지는 듯 천지 겁겁한지라. 왜왕이 이때를 당하여 삼혼(三魂)이 흩어지며 칠백(七魄)이 달아나니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 봉명 사신 :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신.
- * 선참후계 : 군율을 어긴 자를 먼저 처형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

13.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기>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역사에 허구를 더해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을 보상하면서 전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③ 부사에 대한 하인의 비판적인 발언을 통해,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2013 6월 모의평가

[앞부분의 줄거리]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몰 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홍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9. 현장

홍 기자 여기는 동진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갱구 매몰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 사고는 울 들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 씨가 손길 이 닿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가 난 동5 갱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 위원회 회장이시며 동진 광업소 소장이신 권오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셋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

소장 (마이크 앞에 선다) 애썬,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주공 2명, 조수 2명, 감독 1명, 신호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6시간씩 교대하여 불철주야 김창호 씨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앞으로 구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 애초 예상과 달리 갱목 철근 등의 장애물이 많은 데다 갱내에 물이 쏟아져 작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2, 3일 더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감사합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수행원, 경찰.

홍 기자 (기자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자 1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2 현저 주민들이 기자 숙소로 옥수수와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 달라고 호소할 땐 눈물 이 핑 돌더군요.

홍 기자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

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 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 말씀드립니다. (쪽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 를 창조하는 몽셀느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

10. 사무소와 갯내

전화벨 울리며 갯내를 비춘다. 지친 듯 쓰러져 있던 김창호, 간신히 몸을 움직여 전화를 받는다. 사무실엔 비서관, 수행원, 의사, 경찰서장이 전화 거는 것을 지켜본다.

김창호 네?

소장 나 소장이요. 지금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비서관님을 보내셨습니다. 받아 보시오.

비서관 (전화 바꾼다)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가 어서 구출되어 나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꼭 구출될

겁니다.

김창호 (기운 없이) 감사합니다.

비서관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중략)

14. 기자 회견 석상

김창호, 주치의의 호위하에 단상에 앉는다. 기자들, 카메라맨, 카메라를 들이대자 김창호, 얼굴을 가린다.

카메라맨 김창호 씨, 얼굴 좀.

주치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시력이 약화돼서 카메라 플래시

에 견디질 못합니다.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김창호에게 씌운다)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

플래시 터진다. 김창호, 움찔거리지만 참고 견딘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우리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환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김 창호씨가 구출되기까지 꼭 지켜보았던 한일 매스컴센터의 홍성기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창호 (당황) 뭐가 뭐지 모르겠습니다. 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주치의, 귀에 대고 뭐라고 한다.

김창호 저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자 1 16일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 견디셨는데 어디서 그런 인내력이 나셨는지요?

김창호 예?

주치의, 쉽게 설명해 준다.

- 윤대성, 「출세기」-

* 인터셉트 : 화면에 다음 화면을 끼워 넣음.

- 14. 뒷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㉔ 소장은 취재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음.

2005 6월 모의평가

(38~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면 만첩(萬疊) 청산(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만경파(萬頃波) : 넓은 바다 물결.
** 홍진(紅塵) :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제세현(濟世賢)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제.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험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던 억만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며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핏귀우라 내발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마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명랑, 독(毒)을 차고 -

(다) 지상(地上)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의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어나 옥문삼(玉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이.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질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 박목월, 가정(家庭) -

-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㉕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가)

내 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안니시며 거즈르신 돌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턱시라도 님은 훌터 녀져라 아으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물히마리신더*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허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남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서

- 정서, 정과정(鄭瓜亭) -

* 버기더시니 : 우기던 사람이.
* 물히마리신더 : 못 사람의 험뜯는 말이로다.
* 슬웃븐더 : 슬프구나.

(나)

어이 못 오던가 무삼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서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뉘주 놓고 뉘주 안에 깨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雙排目)* 걸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 서른 날에 날 와 볼 하루 없으랴

- 작자 미상의 시조 -

* 쌍배목 :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다)

이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南方炎天) 찌는 날에 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 오르니 굴뚝 막는 덕석인가
 덥고 겹기 다 버려도 내용새는 어찌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움터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하게 밀어 있어
 옥식진찬(玉食珍饈)* 어디 가고 맥반염장(麥飯鹽藏)* 되었으
 며
 금의화식(錦衣華飾)* 어디 가고 현순백결(懸鴈百結)* 되었는
 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는가 모양은 귀신일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어이없어
 도로혀 웃음 나니 미친 사람 되겠구나
 어와 보리가을 맥풍(麥風)이 서늘하다
 앞산 뒷산에 황금을 펼쳤으니
 지계를 벗어놓고 앞 산을 굽어보며
 한가히 베는 농부 묻노라 저 농부야
 밤 위에 보리 단술 몇 그릇 먹었느냐
 창풍에 취한 얼굴 껌본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배어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春精)*에 쓸어내니
 일본(一分)은 밥쌀하고 일본(一分)은 술쌀하여
 밤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고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는 양
 농가의 좋은 흥미 저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백운(白雲)이 즐기는 줄 청운(靑雲)이 알 양이면
 꽃 탐하는 벌나비 그들에 걸렸으랴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옥식진찬, 금의화식: 좋은 음식과 의복.
 * 맥반염장, 현순백결: 빈약한 음식과 누더기 옷.
 * 용정: 곡식을 찹쌀.

16. (가)~(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③ 부당한 현실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아늑한 이 향구—니들 손쉽게야 버틸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땀부리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데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것는다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깎깎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ندا
 우리도 우리들끼리
 깎깎대면서
 갈쪽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만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않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1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① (가)와 (나)에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가 나타나 있다.

2011년 9월 모의평가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겠습니다. 이 일은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백삼십에 사건을 무마하도록,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뭐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모님이시다 보니
 신중을 기하느라고 조심할 뿐, 이 정도야 간단히 처리할 수 있
 죠. 저쪽이 훨씬 약하니깐요. 그 처지에 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습니까.”

“사무장도 말 좀 골라 뵈시오. 같은 말이라도, 환장이 뭐

요? 물론 우리 집안 명예와 어머니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무장
 도 이걸 명심하시오. 윤전수네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윤전수 쪽 가족 생각이, 이번 일은 돈에
 시우 군이 팔린 게 아니라 주인아주머니의 어쩔 수 없는 입장
 을 윤전수 된 도리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그 성의 표시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게 되어
 은혜를 갚는 느낌이다. 윤전수와 가족이 이런 생각을 갖게끔
 사무장이 처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란 쓰기 나쁠이라 잘못
 쓰면 오히려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욕까지 먹게 돼요. 윤전수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표하고 그들이 그 성의를 진실로 받아
 들이게끔 행동하란 말이예요.”

이 선생은 젊은 부사장의 설교조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중략)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
 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징역에 2년 집행 유예로 나갈 줄 알았
 다. 그런데 이 선생이 울린 향소가 고법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
 정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듯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듯하
 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중우 형 면회가 있고부터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시우야, 일백삼십에서 또 오십만 원을 더 받았어. 네가 실
 형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백팔십이 된 거야. 네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란 말이야. 그 돈이면 나두 공사판을 그만두구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야간이라도 학교엘 나갈 수 있게
 됐구. 참아 줘. 이건 정말 면목이 없지만, 어떡하니. 그럴 수
 밖에 없잖나? 그에게 사모님을 만나 같이 네 애길 했다했어.
 전생에 다시 갖지 못할 빚을 네게 졌다면서 말아야. 네가 출감
 하면 윤전수든 뭐든 다시 일을 시키겠다고, 월급을 올려 주겠
 다고 약속했었어. 시우야,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우리두 성공하여 옛말하구 살자꾸나. 정
 말 성공하여 남부럽잖게 될 때, 이 죄놈들 나는 고생은 그때
 가서 위로하자…….”

벌써갑지 선 간수 귀를 피해 귀엣말로 중우 형이 이렇게 말
 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시우는 검게 탄 형의 거친 뺨
 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철창 사이로 굳게 잠은 형
 의 억센 손이 떨리고 끝내 꺼억거리며 흐느낄 때, 시우는 여지
 껏 침묵한 채 참아 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했다.

오늘 아침, 녀 달 동안 집 안방과 다를 바 없는 안락지로 떠
 나게 되자 까담 없이 마음이 설레 아침밥도 거르게 되고, 그제
 공복과 더불어 한기를 가중시켰다. 시우는 언방 떨며 다시 중
 열거렸다. 정말 겨울은 지금부터이고 고생도 시작인데 몸과 마
 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눈이 오면 날씨가 포근한 뻘이다 워져 요렇게 차다냐. 이런
 날은 개팔자가 켈이어.”

“글쎄 말이다. 동지도 그름이모 열매 안 있어 새해 아닌가
 말이다. 그라모 햇수로 일 년 넘기는 건데, 해해. 그렇게 햇수
 로 따져서 내보내 준다 카모 난도 출감이 가까운데 말이다.”

도란도란 입김으로 나누는 말소리가 시우 귀에 다습다. 몇
 명이 같은 감방에 있게 될는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수감될

는지 모를 다정한 얼굴을 시우는 눈여겨보았다. 강도-절도-사기-
 살인, 각각 이마밖에 눈에 띄지 않는 풋말을 붙이고 그들은 거
 울감을 즐기는 두터지 풀로 엉겨 있었다.

“젊은 친구, 이쪽으로 와. 거긴 더 추울걸.”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떨어져 앉은 시우에게 말을 던졌
 다. 구레나룻 시켜면 그는 토지 사기범이었다.

시우는 빙장 옷이 보이곤 다시 쇠창살 밖으로 눈을 주었다.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고깔 열매가 눈을 맞고 있었다. 시우
 는 산타클로스 모자가 생각났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 있
 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쌀밥에 고기반찬을 먹겠거니
 어거졌다. 그리고 형은 지금쯤 눈을 맞으며 저 어디 화곡동이
 나 봉천동 신중 주택 지대를 싸들며 식품점 벌일 점포를 물색
 하고 다닐 터였다. 그렇게만 되면 을숙이도 내년이면 맞춤 중
 학 교복을 입고 뿔뿔 터였다.

시우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과자며 음료수, 채
 소, 과일, 각종 일용품이 진열된 상점이 떠올랐다. 짐포 이름
 은 고향 이름 그대로 백암 상회라 붙이겠다고 형이 말했다.

철창을 올려다보던 시우가 갑자기 말 울음소리로 웃었다. 그
 묘한 웃음소리를 듣고 동료 죄수들 눈이 그에게 쏠렸다. 개팔
 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시우를 보며 시큰둥 한마디 했다.

“저런 웃는 게 아니구면. 웃음도 여러 짝이여. 저 상관 봐
 여.”

- 김원일, 「잠시 늙는 풀」

18.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
 시오.

<보 기>

김원일의 초기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루
 고 있다. 특히 권력에 의한 사건 조작 모티프는 약자의 삶에
 고통을 가중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위 작품은 가진 자와 못 가
 진 자의 대립 구도 아래, 가진 자의 음모를 보여 주는 한편, 약
 의적 세계에 갇힌 사람들의 실존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급
 박한 생존의 현실을 감내하려는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상황을
 부각하였다.

- ③ 사건 조작 모티프의 설정은 작가가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 밤 승용차 안의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
 을 모두 사 버렸다.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이십이만 원에 사
 는 것을 이십오만 원씩 주고 모두 사 버렸다. 그날 밤에도 영
 희는 팬지 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다. 영희는 팬지 꽃 두 송이
 를 따 하나는 기타에 꽂고 하나는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폼
 쪽도 하지 않고 기타만 쳤다.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
 했다.

“이십오만 원이 분명하죠?”

어머니가 물었다. 사나이를 따라온 나이 든 사람이 검은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 주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매매계약서를 썼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서류가 든 봉투와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는 계약서 매도자란에 ‘金不伊’라고 쓰고 도장을 눌렀다. 나이 든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바람의 뜻을 그가 알 리 없었다. 어머니는 소중하게 싸 두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넘겨주었다.

식칼 자국이 난 표찰, 아침 수저를 놓고 가슴을 세 번 치게 한 철거 게고장, 짐을 헐값에 버리기 위해 생긴 처음 내본 인감 증명 두 통, 미리 서명해 두었던 명의 변경 신청서, 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과 나이가 차례대로 적혀 있는 주민 등록 등본 두 통.

마당가 펜치 꽃 앞에 앉아 있던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사나이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뒤로 물러앉았다.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다. 꼭 삼 초 동안 듣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아 들었다.

다음날 아침, 명희 어머니는 사람들을 시켜서 짐을 헐었다. 어머니가 십오만 원을 갓았다. 두 부인은 손을 마주 잡은 채 아무 말도 못 했다. 용달차가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와 명희네 집을 실었다. 명희 어머니가 치마를 울려 눈물을 닦았다.

“에유, 정이란 게 뭐지?”

명희 어머니가 말했다.

“정이란 게 이렇게 더러운 게라유.”

그 말이 우리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용달차가 집 앞을 지나갔다. 아버지는 오른손을 반쯤 올렸다 내렸다. ㉔ 왼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지섭의 책에 아버지의 손때가 까맣게 묻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끼던 뉘를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달에 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렌즈를 지키는 일야. 달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디.”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년 이때까지 뭘 배웠니?”

아버지가 말했다.

“뉴턴이 그 중요한 법칙을 발표하고 삼 세기가 지났어. 너도 그걸 배웠지?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런데 우주에 관한 기본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런데 누가 아버지를 달에 모시고 가겠대요?”

“지섭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 센터에 편지를 냈다. 그곳 관리인 로스 씨가 답장을 보내올 거야. 후년에 우주 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달에 가게 될 거다.”

“그 책을 돌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는 미쳤어요.”

“이 책의 사진을 보라. 이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이 사람은 로버트 고다드다. 당시 사람들이 미치광이로 지목했던 인물들이야. 이 미친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나?”

“물라요.”

“년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어.”

“어쨌든 그 책을 돌려주세요.”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고생하다 바짝 마른 물골로 죽기를 바라고 있지? 힘든 일에 눌러 허우적거리다 숨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너희들은 왜 지섭에게 아무것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니?”

“도대체 뭘 배우라는 말씀에요?”

“로스 씨의 편지를 받기 전에 보여 줄 것이 있다. 지섭에게 말해서 쇠공을 쏘아 올려 보여 주마.”

“없지?”

“네.”

“찾지도 못하면서 밤새도록 어디 가 있었니?”

나는 돌맹이를 집어 다시 방죽을 향해 던졌다. 어머니도 기진해 다른 말을 못 했다. 형이 어머니의 등을 밀면서 때문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백여 채의 집이 헐리고 남은 것은 몇 채 안 되었다. 우리도 영희만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전날 떠났을 것이다. 철거일을 어겨야 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펜치 꽃 두 송이뿐이었다. 나는 좀 큰 돌맹이를 집어 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19.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해석할 때,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이상 세계를 꿈꾸는 것이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도 멀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 비판의 표지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대항 이미지로서의 이상 세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할 때, 그 이미지는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되거나 현실을 극복해 가는 힘이 된다.

㉕ ‘행복동’은 현실 비판적 의식으로 현실의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004 9월 모의평가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어던지고 매달은* 다 낡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여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등등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뎠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 다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 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 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

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짙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쾨」와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벨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 때글은 : 때에 전.

(나)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房)은 우주(宇宙)로 통(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鄕) -

2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㉔ (가)와 (나)에는 현실 비판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2003 9월 모의평가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홍부 부부(夫婦)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金)이 문제리, 황금(黃金) 비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어 주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홍부 부부상(夫婦像) -

(나)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세계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놓을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애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애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누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यो
청태(靑苔)라도 자옥이 끼일 일인 것이다.

- 서정주, 무등(無等)을 보며 -

(다)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21. (가)~(다)의 어조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㉓ 역사와 시대에 대한 성찰을 자기 비판적인 어조로 표출하고 있다.

2013 9월 모의평가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물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실월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낯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태면
철저히게 겁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강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2」-

(다)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였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떨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따뜻한 직선을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빛이 달라붙어 물기를 뺏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떨치는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첫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떨치
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떨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떨치」-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㉑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010학년도 수능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언주를 통해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18세기
의 바로 음악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악보에
서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기호는 음높이를 나타내는 5선
과 음자리표, 음길이를 나타내는 음표와 박자표이다. 음높
이와 음길이는 음악이 표현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선은 음높이를 표시하는 실용적인 기호이다. 그런데 9세
기경에는 선을 사용하지 않고 가사 위에 간단한 기호로
음들 간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표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높
낮이는 재현할 수 없었다. 이후 11세기경부터 2선이나 4선
위에 음을 기록했고, 현재 사용하는 5선 악보는 14세기 무
렵에 완성되었다. 또한 11세기경부터 사용된 음자리표는
고정된 음높이를 명시하는 기능을 해, 음의 높낮이를 명확
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음길이를 표시하는 기호는 13세기 말 ‘프랑코 기보법’에
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보법에서는 네 종류의 음
길이를 정하고, 이를 가장 긴 두플렉스통가부터 가장 짧은
세미브레비스까지 네 가지의 음표로 표기했다. 이런 길이를
나타내는 음표를 사용하여 음의 장단을 나타내는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졌다. 특히 다성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하
는 이 시기에는 선율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구별되었는
데, 여러 가지 음길이의 음표는 이를 표시하는 데 유용했
다.

음길이의 표현인 리듬이 일정한 페턴의 강약을 규칙적
으로 반복하면 박자가 형성되며, 이를 표기한 것이 박자표
이다. 음악의 흐름에는 강과 약의 박이 있다. ‘강-약’, ‘강-
약-약’의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이것을 묶은 것이 각
각 2박자, 3박자이다. 이렇게 규칙적인 박의 묶음을 표시
하는 박자의 개념은 새로운 리듬 양상을 보여 주는 14세
기에 시작되었다. 14세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
체를 의미하는 3이라는 수를 ‘완전하다’고 인식했기 때문
에 음길이를 셋으로 분할하는 완전 분할을 사용하였는데,

14세기가 되면서 불완전 분할인 2분할도 동등하게 사용되
었다. 이러한 3분할과 2분할은 3박자와 2박자 계통의 기조
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음높이는 5선과 음자리표로 정확하게 표시되
고 음길이는 음표와 박자표로 다양한 리듬과 규칙적인 박
을 보여 주면서, 소리는 악보를 통해 그 의미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23. 밑글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㉒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8. 대 구>

1. 페휴대전화에 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문구
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보 기>

- 페휴대전화의 양면성을 대구의 형식으로 표현할 것
- 활용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호소력을 높일 것

- ① 자원 활용은 두 배로, 환경오염은 반으로.
우리에게 말기세요, 페휴대전화. 지구가 아프지 않게.
- ② 우리에게 버리세요, 꼭꼭 숨어 있는 페휴대전화.
환경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 ③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당신의 오랜 친구 페휴대전화.
한데 모아 다시 쓰면 유용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 ④ 관심만 있다면 쓰레기도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잠자는 페휴대전화, 다시 써서 깨끗한 세상 만들어요.
- ⑤ 버리면 해로운 쓰레기가 되지만, 모으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요.
페휴대전화 수거에 동참하세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속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활랑활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짜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뒷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떨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용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려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테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머들발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려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테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끓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테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다]

앉은 곳에 ㉠헛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맛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보니 **꿈**을 둘러 상시(常時)과저²⁾
학발자안(鶴髮慈顏)³⁾ 못 비거든 안쪽서신(雁足書信)⁴⁾ 잣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라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교사(一般苦思)⁵⁾ 뉘 해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비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네 가 머무름고

- 이광명, <북찬가(北畵歌)>

[어휘풀이] 1)영 : 고개, 2)꿈을 둘러 상시교저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3)학발자안 : 머리가 허얇게 선 지어은 얼굴, 어머니를 가리킨, 4)안쪽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5) 일반교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2.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나)는 (가)에 비해 대구와 부드러운 어감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3. (나)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1>의 2연은 문장 구조가 같은 두 행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2>의 2연도 마찬가지이다.

4. (다)의 ㉠~㉣ 중 함축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10] 다음은 사진전을 관람한 후 작성한 소감문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사진전에 다녀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진전에 다녀왔다.
그곳에서는 ‘빛 공해’의 실태를 보여 주고 적절한 조명을 권
장하는 취지에 ㉡ 걸맞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빛 공해’란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명으로 사람과 동식물이
입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말한다.

㉢ 어두워야 할 밤에 지나친 조명을 받으면 인체의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생체 리듬이 깨지며, 식물의 성장에도
장애가 된다고 한다.

나는 여러 작품 중 특히 도시의 건물 사이에 넘쳐 나는 조
명을 용암처럼 표현한 작품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무심코 켜 놓은 불빛들이 모여 도시를 끓게 하고 있었다니 ㉣
.....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빛 공해’를 주제로 한 표어 대회
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진전에서 받은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나도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표어를 ㉤

제기하고 돌아왔다.

5. <보기>는 ‘표어 대회’의 조건이다. 이에 따라 작성한 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은 것.
- 비유와 대구를 활용할 것.

- ① 도시를 뜨겁게 달구는 조명의 불빛
하늘을 슬프게 헤매는 새들의 눈빛
- ② 무심코 불을 켜면 한숨 쉬는 나무들
당신이 불을 끄면 미소 짓는 나무들
- ③ 거리의 환한 조명으로 잠 못 드는 사람들
당신의 손길이 편히 쉴 수 있게 해 줍니다
- ④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들의 아름다운 향연
화려한 조명들이 선물하는 사진 속의 예술
- ⑤ 별빛마저 삼켜 버린 숲일같이 따가운 불빛
아아 그럼구나! 깜깜한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

6.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표어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1점]

<보기>

- 주제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점층적으로 드러낼 것.
- 비유와 대구의 표현 방법을 활용할 것.

- ① 우리가 살린 우유 팩, 나무를 지키고
우리가 지킨 나무, 지구를 살립니다
- ②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우유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우유 팩
- ③ 당신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우리의 자연이 상처 입습니다
- ④ 환경을 위한 당신의 작은 손길
등불 되어 어두운 세상 밝힙니다
- ⑤ 우유 팩 모으기, 생각으로 부족합니다
산림 보호, 행동으로 가능합니다

7. <보기>의 조건에 따라 공익 광고 문안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적
절한 것은?

<보 기>

- 무엇을 말할 것인가?
- 게임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
- 어떻게 쓸 것인가?
- 표제: 감각어를 활용한 대구형 표현
- 본문: 구체적 상황으로 경각심 고취

① 차가운 상상 속의 만남, 따뜻한 현실 속의 만남

चे은 없는 캐릭터가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② 네모 속에 갇힌 당신, 세상 밖으로!

당신이 게임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
당신의 활력은 방안에 갇혀 있습니다.

③ 아직도 게임 중! 시간은 진행 중!

겉은 파도도 휩쓸려 가는
당신의 보랏빛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④ 달콤한 승리의 환상, 씁쓸한 좌절의 현실

움켜쥔 당신의 마우스는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⑤ 하얗게 지새운 밤, 노랗게 흔들리는 아침

당신이 지난밤 모니터 속의 적과 대결하는 동안
당신은 적에게 생기를 빼앗겼습니다.

2011 6월 모의평가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땀싸한 뉘새가
코를 땀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 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리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지 않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

(나) 어두운 방안엔
 빼알간 솟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맡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디다
 어찌면 당신이 거기 개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어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젠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개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디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개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8.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2012 6월 모의평가

(가) 조국을 언제 떠났도,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빛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A]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내 발등에 뚫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 김동명, 「파초」 -
 * 파초 :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를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 1 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입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라도 입이 헤여 보소서. <제 2 수>

[B]추성(檇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읍어 예는 저 시내아
 뜨름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 3 수>
 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맑고 맑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 4 수>
 어버이 그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귀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 5 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 망령된 :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 추성 진호루 :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뜨름 호리라 : 무엇을 하려고.

9. [A]와 [B]에 나타난 공통된 표현 효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③ 대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2010 9월 모의평가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다*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내가 났다니
 맑은 낮에 깃들여
 자랐어라
 박꽃처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쪼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끝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담계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 이육사, 「소년에게」
 * 진준다 : 진주인가.
 * 한가 : 가장 끝 부분.

(나)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壽) 녹수(綠水)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에 밤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鵠)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關)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이현보, 「어부단가」
 * 청하 : 푸른 연잎.
 * 노적 화총 :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 일반 청의미 :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 제세현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10.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③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2004 9월 모의평가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 담물 그리스화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효요이다
 아니시며 거즈르신 돌 아오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라시리이다
 녀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오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름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몰히마리신더*
 슬웃븐더* 아오
 니미 나를 허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남하 도람 드르샤 피오쇼셔
 - 정서, 정과정(鄭瓜亭) -
 * 버기더시니 : 우기던 사람이.
 * 몰히마리신더 : 못 사람의 험뜯는 말이로다.
 * 슬웃븐더 : 슬프구나.

11.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① 대구와 대조를 통해 울동감을 높이고 있다.

12. 대충 도서에 붙인 스티커를 제작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의도 : 대충 도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표현 : 의인화와 대구를 활용함.

① 책과 함께 하는 세상
 남과 함께 사는 세상

- ② 책에 흔적을 남기기보다
당신의 마음에 지혜의 흔적을
- ③ 제 몸 곳곳에 늘어나는 상처
당신의 양심에 새겨지는 낙서
- ④ 지나친 손길로 얼룩져 갈수록
지울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
- ⑤ 늘어나는 책꽂이의 빈자리
나눌 줄 모르는 당신의 빈 가슴

2005학년도 수능

☆ 고전 시가 + 수필

[37~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늘이 드높아 가니 별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잎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엿저녁 마시다 남은 머루술을 들이키고 나니 세삼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어젖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종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멋’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마리 발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단이 있고 발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냐.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리고 함으로써 멋을 살노라.

- 조지훈, 「멋 설(說)」 -

* 유위전변(有爲轉變): 세상이 바뀌어 쉬워 덧없음을 이르는 말.

** 방우자(放牛子): 글쓴이의 아호(雅號).

13. 밑글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을 보여 주고 있다.

14. ‘독서’와 관련한 표어를 쓰려고 한다. <보기 1>의 관점과 <보기 2>의 표현법을 모두 살린 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트집을 잡거나 반박하려고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믿거나 그대로 인정할 생각으로 읽어서도 안 된다. 이야기거리나 설교 자료를 구하려고 읽지도 마라. 다만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기 위해 읽어야 한다.”
- 베이컨 -

- ① 책 속에서 나를 찾고 책 속에서 지혜 얻자
- ② 책 속의 선인 지혜 계승하여 나를 찾자
- ③ 바다같이 넓은 독서 깊어지는 나의 지혜
- ④ 행복 주는 책 읽기가 행복 사회 가져온다
- ⑤ 읽고 읽어 바로 알자 세상의 옳고 그름

<보기 2>

- 보고 지고 보고 지고
- 새가 울고 꽃이 핀다.

<9. 거리>

2004학년도 수능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千山鳥飛絕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萬徑人蹤滅
외로운 배 안의 도롱이 입은 늙은이 孤舟蓑笠翁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엔 눈만 내리고 獨釣寒江雪
- 유종원, 강설(江雪) -

(나)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라 흰털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巖巖), 태산(泰山)은 추출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絕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굴 물이 주루루룩, 저 굴 물이 찰찰, 열에 열 굴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저, 년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가)에 비해, (나)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멀다.

1998학년도 수능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에, 자기 부친 윤용구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 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러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하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었다.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위대한 투쟁의 선언이었습시다.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지요.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쳐만 빼놓고, 서울 아씨, 태식이, 뒤체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웅위 아래 윤 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시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은 애비, 부디 청신채려라……!”

윤 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곱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은 애비지요.

“……정신을 채려야 할 것이 너가 맘만하여두 네 아우 종학이만 못하여! 종학이는 그 놈이 재주두 있고 착실하여서, 너처럼 허랑허지도 않고 그럴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머년 대학교

를 줄 업허잖나? 내후년이?”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허구나와서, 삼 년이나 다적* 사 년만 쪼들어 나머던 그들은 지가 목적인, 요 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목적현 경부 가 되야 갖구서, 경찰서장이 된답 말이다! 응? 알겠어.”

“네.”

“그러니까두 너무 정신을 바짝 채리 갖구서, 어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냐……? 아,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게우 군서기를 땡기구 있답! 남 부끄러서 어쩔 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구 경찰서장 되구 허머년, 느릴 줄구 느릴 호강이지 머,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 소리 허년 것두 다 느릴 위하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총독만치 두 상관없어! 알아듣냐?”

“네.”

마침 이 때, 마당에서 램뽀, 짙짙은 밧은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 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큰땀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뜨졌구나?”

“네.”

마침 이 때, 마당에서 램뽀, 짙짙은 밧은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 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큰땀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뜨졌구나?”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멋하러 오냐? 돈 달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 놓았으면 옳을 맞겠습니까.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으영?”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콩- 찡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어선 온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러냐?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테지요!”

“사상 관계라냐?”

“그 놈이 사회주의에 참예를…….”

“으영?”

- (중 략) -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짖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칩니다.

“화적패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 된 말세던 다 지내가고요……. 자 부아라, 거리 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 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허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 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것 지니고 앉아 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 평천하……! 그러던 이런 태평천하라

구 하는 것이며, 태평천 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들의 자식이, 더 군다나 의지가 땡땡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단 말이어, 응응?”

— 채만식의 「태평천하(太平天下)」에서

*다적 : 기껏
*영각 : 황소가 길게 뿡아 우는 소리
*참섭 : 남의 일에 참견하여 간섭하는 것

2. ‘윤 직원’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지적인 것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④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판적이다.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드뭇친 장돌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충주 체전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해매이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 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달 동안이나 뚝뚝뚝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깜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 건만 허 생원은 번치 않고 언제나저 가슴이 뛰놀았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야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겠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겼으나 보름을 가재 지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호분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밭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관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환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ക്ക로 흘러간다. 앞장 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콩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라) “장 선 쪽 이런 날 밤이었네. 객조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폐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볼발갓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팔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춧빛 연기가 밝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눈쟁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왜 메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관은 소문에 발근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해 하단 말이야. 제천 장관을 몇 번이나 뒤졌잖나. 하나 처녀의 풀은 쟁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마)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우 못난 것 얻어 세게 낳고, 격정 들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까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러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뚝뚝뚝 걸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 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터어졌다. 콩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① (가)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며 논평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리고 통인이 도장을 받아서 찍었다. 그 뚜옥 뚜옥 하는 소리는 저 엄고(嚴鼓) 치는 소리와 같고, 그 찍어 놓은 풀은 마치 북두성이 세로 놓인 듯이 삼성(參星)이 가로 잘린 듯이 벌어 있다. 뒤를 이어서 호장(戶長)이 증서를 한번 읽어 끝내었다. 부자는 한참 머영하다가 말했다.

“양반이 겨우 요것뿐이란 말씀이우? 내가 듣기엔 양반 하면 신선이나 다름없다더니, 정말 이것뿐이라면 너무도 억울하게 곡식만 몰수당한 것이어유. 아무쪼록 좀 더 이롭게 고쳐 주시기유.”

군수는 그제야 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증서를 고쳐 만들기로 했다.

“대체 하늘이 백성을 낳으실 제, 그 갈래를 냐으로 나누었다. 이 네 갈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이가 선비이고, 바로 선비를 불러 ‘양반’ 이라 한다. 이 세상에선 양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들은 제 손으로 농사도 장사도 할 것 없이 옛 글이나 역사를 대략만 알 정도이면 곧 과거를 치러 크게 되면 문과요, 작게 이터더라도 진사는 때에 놓은 것이다. 문과의 홍패(紅牌)야말로 그 길이가 두 자도 못 되어 보잘것없이 온갖 물건이 예서 갖추어 나게 되니 이는 곧 돈자루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진사에 오를 선비는 나 이 서른에 첫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늦지 않아서 이름 높은 읍관(廳官)이 될 수 있다. 비록 그렇지 못해서 궁한 선비의 몸으로 시골살이를 하더라도 오히려 무단적인 행위를 감행할 수가 있다. 이웃집 소를 몰아다가 내 밭을 먼저 갈고 동네 농민을 잡아 내어 내 김을 먼저 매게 하되 어느 놈이 감히 나를 괘시하라. 갯물을 네 놈의 코에 바로고 상투를 잡아 매며 수염을 뺏더라도 원망 조차 못하리라.”
증서가 겨우 반쯤 이룩되었다. 부자는 어이가 없어서,

“아이구, 그만두시유 제발 그만두시유. 참, 맹랑합니다 그려. 당신네들이 나를 도둑놈이 되라 하시유.”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달아나 버렸다.

(나) 천생만민(天生萬民) 필수지직(必受之職) 직업이 다 다르다. 사(士) 농(農) 공(工) 고(賈) 네 가지에 우리의 배운 직업 배장사가 직업이라. 바다에 배를 타고 상고(商賈)로 가는데 인당수 용왕님은 인제수(人祭需)를 받는 고로 황주 땅 도화동에 심오 세 심청 여자 인물이 일색이요 온몸에 흠이 없고 효행이 출천(出天)키로 증가(重價) 주고 그 몸 사서 목욕계(沐浴財界) 단장시켜 제수로 바치오니 흥향(歡響) 받아 하옵시고 대해 만리 가는 우리 밤이먼 석을 잡고 낮이면 돛을 달아 배도 무쇠배가 되고 닻도 무쇠닻이 되어 억만금 퇴를 내어 출추고 돌아오게 점지하여 주옵소서. 북을 등등 울리면서 심청아 급급하다 어서 급히 물에 들라. 심청이 거등 보소. 뱃머리에 나서 보니 새파란 물결이며 울울을 바람 소리 풍랑이 대작하여 뱃전을 탕탕 치니 심청이 깜짝 놀라 뒤로 꺾 주지않으며, 애고 아버지 다시는 못 보겠네. 이 물에 빠지면 고기밥이 되겠구나. 무수히 통곡타가 다시금 일어나서 바람 맞은 사람같이 이리 비를 저리 비를 치마폭을 무릅쓰고 앞니를 아드득 물고, 애고 나죽네, 소리하고 물에 풍 빠졌다하되 그리하여서야 효녀 죽을 될 수 있다. 두 손을 합장하고 하느님 전비는 말이, 도화동 심청이가 맹인 아버 해원(解冤)키로 생목숨이 죽사오니 명천(明天)이 하감(下感)하사 캄캄한 아버지 눈을 불일내(不日內)에 밝게 떠서 세상 보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한 후에 선인들 돌아보며, 평안하 배질하여 억식만 금 퇴를 내어 고향으로 가을 적에 도화동 찾아 들어 우리 부친 눈없는가 부디 찾아보고 가오.

4. (가)의 ‘군수’와 (나)의 ‘심청’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보기>에서 바르게 찾은 것은?

- <보 기>
- ㉠ 인물에 대하여 거리를 둔다.
 - ㉡ 인물에 대하여 거리를 두지 않는다.
 - ㉢ 상황에 따라 거리를 두기도 하고, 두지 않기도 한다.

군수	심청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006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⑥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그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멀며 한없이 떠다니는
 땀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5. 윗글의 특징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고 한다. 창작 구상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②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10. 문학 개연성, 인과성>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임을 파한 후에 토끼 뒤에 따라가며 한 번 불러. “여보. 토생원(兔生員).” 토끼의 근본 성품 무겁지 못한 것이 경하여 몸집도 작으니 온 산중이 멸시하여 누가 대접하겠느냐. 쥐와 여우. 다람쥐도 ‘토끼야. 토끼야.’ 아이 부르듯 이름 불러 어른대접 못 받다가 천만뜻밖 누가 와서 생원이라 존칭하니, 좋아 아주 못 견디어. “게 뉘랄게. 게 뉘랄게. 날 찾는 게 뉘랄게.” 요리 팔팔 조리 팔팔 깡장깡장 튀어오니, 별주부(蠶主簿)가 의문하여 토끼의 동정 보자 긴 목을 움츠리고 가만히 앉았으니 토끼가 주부 보고 의심을 매우 하여. “이것이 무엇인고? 쇠뿔이 말랐는가. 이 산중에 무슨 술 깨어진 부들감*이 어찌 저리 묘하게 깨져. 애고. 이것 큰입났다. 사냥왔던 총(銃)장이자 짐승송** 끌러 놓고 똥 누려 갔나 보다. 바빠바빠 도망하자.”

주부가 생각한즉 그대로 두어서는 저리 방정맞은 것이 이리저리 한없이 내달리겠거든 또 한 번 크게 불러. “여보 토생원.” 토끼가 가다 듣고. “누가 나를 또 부르느냐?” 아장아장 도로 오며 주부를 바라보니, 아까 없던 목줄기가 돌담 틈에 배암같이 슬금이나오거든. 의심 나고 겁이 나서 멀찍이 서서 보며 문자(文字)로 수작 내어. “내가 이 산중에 생어사(生於斯) 장어사(長於斯) 유어사(遊於斯) 노어사(老於斯)하여 몇 해가 되었으되 오늘 처음 보는 티에 나를 어

찌 알고 무엇 하려 불렀느냐?” 주부가 대답하되. “유봉(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역낙호(不亦樂乎)가 공자님 말씀인데. 어이 그리 무식하여 처음 본다 팔시하니 인사가 틀렸는데.”

토끼가 들어본즉 생긴 것과 말하는 게 만만히 볼 수 없거든. 옆에 와 썩 앉으며. “누락 하시오?” “예. 나는 수궁(水宮)에서 주부 벼슬하여 먹는 자락요.” “산수(山水)가 서로 다른데 산중은 어찌 왔소?” “우리 용왕 장한 가르침 팔친 리를 다스리니 하루에도 수 없이 몸소 일을 하옵는데 신하가 제주 없어 찬양하기 어렵기로. 용왕의 분부 모시어 임금 보좌할 인재를 구하기로. 천하 명산 다니다가 오늘날 모옥(毛族) 모임 천만다행 만났기로. 자리를 다 보아도 임금 보필할 인물은 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선생 하나뿐이기로 선생을 모셔 가자 뒤를 따라 왔사오니. 바라건대 선생은 나를 따라 가사이다.”

토끼가 제 인물에 하 감사한 말이든, 제 소견에도 의심하여. “어떻기에 내 형용이 곰보다도 나를 태요? 범보다 나를 태요?” 주부가 대답하되. “곰의 몸이 비록 크나 눈이 작고 털이 덮여 태양 정기 부족하니 미련하여 못 쓸 태요. 범이 비록 용맹하나 코 짧고 줄기 없어 얼굴 가운데가 움푹하니 단명(短命)하여 못 쓸 태요. 몸이 작고 발이 빨라 산도 넘고 물도 뛰어 따라갈 이 없을 테니, 민첩한 저 구면(口辯)이 소진(蘇秦)의 합중(合縱)인지. 가끔가끔 조는 것이 공명(孔明)의 춘수(春睡)런지.*** 볼수록 모두, 짐승 중 제일이니, 우리 수궁 같사으면 출장임상, 부귀공명 따라갈 이 누 있을까?”

토끼가 들어 본즉 주부의 하는 말이 저 생긴 형용하고 낱말이 똑같거든. 가만히 생각한즉 형용은 무던하나 속에 글이 없었으니, 수궁에 글하는 이 있는지 알아야 할 태어든. 또 물어 “수궁의 조관(朝官) 중에 문장이 몇이 되오?” “문장 조관 있으면서 영덕전(靈德殿) 지을 적에 상량문을 못 지어서 인간 세상까지 나와 구했겠소?” 또 물어, “수궁에 흰떡 키 큰 조관 있소?” “영덕전 상량할 제, 키 큰 조관 가리는데 내가 상량하였지요. 그리 큰 수궁에서 나만한 키도 없소. 선생이 들어가면 거인이 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라지요.”

토끼가 생각한즉. ‘너른 의사(意思) 좋은 구면 내 속에 흠뻑 들고. 글 잘하고 키 큰 조관 수궁에 없다 하니. 나 지닌 신언서판(身言書判) 놀릴 데가 없긴다는 땅에 안주하여 울기 어려우니 이 형편에 썩 떠나기가 어렵구나.’

- 신재효, 토벌가(兔讒歌) -

- 부들감 :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아궁이의 불을 담아둘 때 부삽 대신 쓰는 것.
- 짐승송 : 화약의 심지
- 소진의 합중, 공명의 춘수 : 토끼의 말솜씨와 조는 모습을 각각 소진의 위업과 제갈공명의 여유에 비친 말.

1.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설화를 채록한 것이다. <보기>와 비교하여 윗글의 특징을 말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 채록 일시 : 2001년 ○월 ○일
- 채록 장소 : 경기도 ○○군 ○○면 ○○리
- 제보자 : 정○○(여, 75세)
- 채록자 : 김○○

자라가 옥지에 나와서 토끼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한 짐승이 있길래 목을 집어넣고 발을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자 그 짐승이 와서 먼저 보며, “이게 뭐냐? 쇠뿔 있는데?” 하며 발로 툭 차 봤겠지. 자라는 그 짐승이 별로 해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목을 쭉 내밀고, “너는 뭐냐?” 하고 물었어. “나는 토끼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뭐냐?” 하고 되물었겠다. 자라는 “나는 용궁에 사는 자라인데, 이 세상에 토끼란 것이 재간이 많고 하는 말을 듣고서 용궁에서 데려다가 귀한 벼슬을 주고 재미있는 세월을 보내게 하겠다고 나를 내보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용궁에 가지 않겠냐?” 하며, 이런 말 저런 말로 토끼를 꾀는 것이야. 토끼는 그 말을 듣고서 용궁에 가고픈 맘이 생겼지.

① **수정 : 사건의 인과성을 드러내기 위해 장면을 전환시켰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복락 선생이라 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리(東里寡婦之閭)’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姓)을 지녔다.

[나] 어느 날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벌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 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복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밖으로 들어다보니, 동리자가 복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오네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복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절개를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얼 분대 만들었나. 흥(興)이라.”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했다.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복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목으면 둔갑하여 사람 시늬를 할 수 있다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복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갖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고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오니 복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깎질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벌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벌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머리를 원편으로 돌려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복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영금영금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범님의 덕은 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평(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 자리에 서옵니다.”

벌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다가 오지 마라. 앞서 내 들건대, 유(儒)¹⁾란것은 유(詭)²⁾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엔 천하의 악명을 모아 땅덩이내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져서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끈이틀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벌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벌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복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앉드었다가 일어나 엉겨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넛이 밝았는데, 벌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아침에 밭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 물으니, 복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렵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걸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려.”

- 박지원, <호질>

[어휘집1] 1)유(儒) : 선비. 2)유(詭) : 아첨하다.

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③ (다)는 (라)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2005학년도 수능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드팀턴 장돌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형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충주 체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이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 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 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서지 장으로 가는 길의 이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날 동안이나 두뼘두뼘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 건만 허 생원은 번치 않고 일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여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증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예쁜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는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겠다 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려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시급해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자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꼭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치러는 쫄으나 보름을 가계 지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호듯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관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쿵 포기와 옥수수 일세가 한층 달에 푸르게 짙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호듯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말랑말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 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풍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것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라)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줍짐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뉘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던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기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못별 연기가 밝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눈썹이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나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구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출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관은 소문에 발근 뒤집혀 고작하여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던 말이야. 제천 장관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풀은 꿩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마)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향유 못난 것 얻어 세기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까지까진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썹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강철 툼벼툼벼 걸리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뵈어졌다. 풍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3.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② (나)의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은 이후에 서술될 ‘인연’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11. 외적 갈등>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바닥이 얼어붙고 먼 산에 눈발이 치고 그 해는 이른 겨울부터 몹시 추웠다. 그동안 숙부님은 몇 번이나 집에 다녀가시고 관상소 출입도 더러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황진사의 얼굴은 그 뒤로 비치 않았다. 다만, 삼촌을 통해 그의 시골이 충청도 어디란 것과 그의 문벌이 놀라운 양반이란 것과, 그의 조상에는 정승 판서 따위가 많이 났다는 것과, 그 자신도 현재 진사 구실을 한다는 것과, 그의 머릿속은 자기 가벌에 대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우스운 것은 그가 곧잘 진사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처음 관상소에서 어느 장난꾼이 농담 삼아 그에게 서전과 시전을 외게 하여 급제를 주고 진사라 부르기 시작한 것인데 그 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반 조롱으로 ‘황진사, 황

진사’ 부르게 되니. 그러나 황진사 자신은 조금도 어색해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싸하게 여겨 요즘 와서는 아주 뽐내고 진사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몹시 추운 날이었다. 아궁이에 불을 넣고 방구석에 숯불을 피우고 나는 온종일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낮이 ① 침지했을 때다. 밖에서,

“일 오너라 - .”

하는 소리가 마치 ‘사람 살리우’ 하는 소리같이 바람결에 새어 들어왔다. 내가 보니 황진사가 연방 손으로 콧물을 닦고 서 있는 것이다. 나는 대체 얼어 죽지나 않았나 하고 궁금해 하던 차라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이 진정 반가웠다.

나는 곧 그를 나의 방에 안내한 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즉,

“거야 친구 집에서 지냈지요 뭐, 흐흐……”

하며 재미난 듯이 웃었다.

“아 참, 완장 선생은 여태 안 왔시우?”

“수차 다녀가셨지요.”

“아, 그럼 겨우 난 여태 한 번두 못 뵈었으니 이거 죄송해서, 흐흐……”

그는 숯불을 안고 앉아 또 히히거리고 웃었다.

흰떡을 사다 숯불에 구워서 그에게 대접을 하고 나는 아까 하다 둔 일을 마저 해지울 양으로 잠깐 책상에 앉아 있으려니까, 그는 언 것과 구운 것을 가리지 않고 한참 부지런히 집어 먹더니 그동안 흥이 났는지 아주 목청을 뽐아서,

“관란저주(關關雎鳩)는 재하지주(在河之洲)로다. 요조숙녀(窈窕淑女)는 군자호구(君子好逑)로다.”

하고 대문을 외곤 하였다.

나는 그동안 책상에 앉아 있느라고 모른 채하고 있으니까,

“아, 성인께서도 실수가 있던 말야!”

그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아, 공자님께서 시전에 음군을 두셨거든!”

그는 무슨 큰 문제나 발견한 듯이 나 있는 쪽을 곁눈질로 흘려보며 마구 기쁨을 뽐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 모른 채하고 있으니까 그는 화로 곁에서 일어서더니, 두루마기 자락을 뒤로 찢히고 저고리 삼을 위로 쳐들고 손을 넣어 무엇을 꺼내는 시늉을 하였다. 나는 속으로, 옷의 이를 잡아내어 숯불에 넣으려는 겐가 하고 있는데 그는 또 한번 나 있는 쪽을 흘려보고 나서 배에 두르고 있던 때문에 전대 하나를 꺼내었다. 전대 속에서는 네 귀가 다 이치러지고 종이 빛까지 우중충하게 묵은 모뎀 사책 한 권과, 백지로 싸서 노끈으로 찡챙 감아 맨 솔잎 한 줍과 휴지 조각 몇 장이 나왔다.

“거 무슨 책이유?”

내가 이렇게 물은즉,

“아, 주역책이지 그야.”

하고 된소리를 질렀다. 과연 그 이치러진 네 귀마다 넓적넓적한 पै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역책임을 틀림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주역책은 왜 하필 전대에 넣어서 두르고 다니느냐고 물은즉,

“아, 공자님께서도 역은 삼천독을 하셨는데 그야.”

하고, 된소리를 질러 놓고 나서, 다시 조용히 음성을 낮추어,

“아, 여북해 지역의 조종이요 조화의 근본 아니오.”

하였다.

나는 처음 관상소에서 그를 보았을 때부터 “하도 지모가

나지 않아 효육을 뽑아 보았노라” 한 것을 들은 일이 있어서 그가 평소에 얼마나 이 ‘지략’ 과 ‘조화’ 를 부려 보고 싶어하는 위인인가를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이 언제나 몸에 지닌 솔잎 한줌과 네 귀 모지라진 주역 속에서 우러난 음양 오행의 지모 조화가 겨우 ‘쇠뿔 위에 개뿔 눈’ 흉가루 약과, 친구에게 책상을 들리우고 다니는 것쯤 인가고 생각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저녁 때가 되어 그는 전대를 다시 배에 두르고 돌아왔다. 종종오라고 한즉, 매양 신세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며 절을 몇 번이나 하였다.

그 해 겨울 그는 내가 성이 가시도록 자주 나를, 아니 내 삼촌을 찾아왔다. 그는 언제나 나를 볼 때마다 오랫동안 삼촌께 못 봐서 죄송하다고 하였다.

그는 나에게 한사를 지어 달라면서 사오 차나 운자를 가지고 왔다. 어디 쓰느냐고 물으면 친구의 환갑 잔치에 대노라고 한다.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 참봉, 윤 승지, 무슨 참판, 어디 남작하고 모조리 서울서도 유수한 대가와 부자들의 이름만 꼽지만 거리에서 그가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나 가끔 친구라고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 그의 말과는 판판으로 황진사 자신보다 별로 유여한 측들도 아니었다.

좋은 규수가 있으니 장가를 들지 않겠느냐고, 그는 여러 차례 나를 졸랐다. ‘좋은 규수’가 어뵈느냐고 물으면, 단번에 친구의 딸이라 하고, 어떤 친구냐고 하면 무슨 승지, 무슨 자작하는 예의 대가집 따위들을 꼽았다. 색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하면 매양 자기의 누르통통하게 부은 얼굴을 가리키며 이렇게 아주 유복스럽게 생겼다고 한다. 내가 웃으며, 색시가 일제 선생 같아서야 좀 재미 적다고 하면,

“아, 일등 규수라는데 그야.”

하고 화를 내었다.

“그렇지만 너무 욕중해서야.”

하면,

“아, 거기 식욕이 들었는걸 그야. 아, 여북해 일등 규수라는데 그래도 못 믿어서 그야?”

하고 기를 쓰곤 하였다.

- 김동리, 화랑의 후에 -

1. 구술 면접 시험에서 밑줄에 대해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대담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③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통해서 인간의 이타적 속성을 상징적으로 그려냈다고 생각합니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영영 소리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저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쩐지 마음이 조금 흐뭇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멎었다.

바깥은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아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껄었다.
 “저것 봐, 저기 저기, 에에이, 모두 잠만 자기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지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히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친친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곤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서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었어야이.”
 “……”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이. 너무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야.”
 하고는 혜죽이 웃었다.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러안으면서,
 “칠성아, 아하, 흠씩은 좋다.”
 “……”
 “저 말이야, 으만 날 늘 불쌍하 여겼었어야, 잉. 아,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야이.”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별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네.”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젠 좀 그만 걷지 달,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훌끔 결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깥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야,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췌 웃으면서,
 “허허, 내가 무슨 소릴 허니. 네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에 또 동생의 어깨를 그러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웠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고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만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췌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흐흐흐.”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름거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리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낫색이었다. 돌래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게 짓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고 글지 마라, 어영?”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아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꺾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꼭 찌르고는 견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메칠을 더 살겠다구 뼈대? 뼈대대길.”
 - 이호철, 「나상(裸像)」-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은 형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인물 사이의 관계] 화옥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심씨에게서 장자 화춘을, 정씨에게서 차자 화진을, 그리고 오씨에게서 딸 화빙신을 얻었다. 오씨는 일찍 죽었고, 후에 화옥과 정씨가 잇달아 죽었다. 성 부인은 화옥의 누이로, 과부가 되어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하루는 요 부인의 유모 취선이 빙선 소저를 대하여 흐느끼며 이르기를, “어르신과 정 부인의 은덕으로 소저와 둘째 공자(公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더니, 두 분이 돌아가시매 문득 독수(毒手)에 들었으니 이 늙은이가 차라리 먼저 죽어 그 일을 아니 보고자 하나이다.” 소저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지 않더니, 취선이 또 말하기를, “정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거하시던 수선루(壽仙樓)의 시녀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은 자 많으니, 아저, 정 부인이 어찌 나에게 해악을 끼쳤으리요?” 하니, 소저 또 대답하지 않더라.

이를 난향이 창밖에서 엿듣고 심씨에게 고한데, 심씨 시비

(侍婢)를 시켜 소저를 잡아 와서 꾸짖기를, “네 누이 감히 흉심(凶心)을 품고 진이와 함께 장자(長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친한 중 취선과 모의한 것이 아니냐?” 하니, 소저가 당혹하여 말도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흘릴 따름이라. 심씨 또 화진 공자를 오라 하여 마당에 끌리고 큰 소리로 죄를 묻기를, “네 이놈 진아, 네가 성 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선친(先親)을 우롱하여 적장자(嫡長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 하늘이 돕지 않아 대사(大事)가 틀어졌더니, 도리어 요망한 누이와 흉악한 종과 함께 불측(不測)한 일을 피하였도다.” 하니,
 공자가 통곡하며 우러러 여짜오되, “사람이 세상에 나매 오륜(五倫)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간간이 더욱 중하니,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 소자 선친의 혈육으로 모부인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누이가 비록 취선과 말하긴 하였으나 사사로운 정을 나눈이 큰 죄 아니고, 혹 원망의 말이 있었어도 취선이 하였지 누이가 하지는 않았으니, 바라긴대 모친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배푸소서.” 소저 여짜오되, “큰집 작은집이 모두 혈육이니 이 자리를 빼앗고 저 사람과 협력한다는 말씀은 만민부당하나이다.” 하니, 심씨 크게 노하여 쇄쩍책을 잡고 소저를 치려 하니, 공자는 방성대곡(放聲大哭)한대, 화춘의 부인 임씨가 심씨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니 심씨 더욱 노하여 노비로 하여금 공자를 잡아 내치라 하고, 일세를 꾸짖어, “너도 악한 무리에 들어 나를 없애려 하느냐?” 하더라.
 이때 비복(婢僕)들이 황황히 중문 밖에 모여 흐느끼더니, 마침 빙선의 약혼자 유생이 화씨 집으로 오다가 공자가 찢어진 배옷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물으니 공자가 부끄러워 대답을 못하는지라. 유생이 큰 변이 있는 줄 알고 화춘을 만나려고 시묘(侍墓)하는 곳에 가니 춘이 없는지라. 풍자가 한송정(寒松亭)에서 낮잠이 드셨다고 아뢰니, 유생이 그곳에 올라 보니 과연 대공자(大公子)란 자가 창틀에 다리를 높이 얹고 코를 골며 웃을 풀어 헤치고 자고 있거늘, 유생이 탄식하기를, “쫓쫓, 도적(盜跖)과 유하혜(柳下惠)*가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더니, 어찌 오늘 다시 이런 형제를 보는가?” 하고 발로 차서 깨우면서, “그대의 집에 큰 변란이 일어났으니 빨리 가 보라.” 하니라.
 화춘이 놀라 급히 내당에 들어가니 심씨 바야흐로 계향으로 하여금 빙선 소저를 매질하고 취선은 이미 6, 70대를 맞고 다 죽어 가는지라. 심씨 화춘이 오자 손뼉 치고 필적필적 뛰면서 소저와 취선의 말을 더욱 꾸며서 화춘을 격노케 하니,
 화춘이 이르기를, “소자 이미 진이 남매가 이 같은 마음을 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둘이 고모와 함식하였으니 형세로는 지금 당장 제거하지 못하옵고, 아까 유생이 이미 이 변을 알고는 얼골빛이 좋지 않았나이다. 또 고모께서 머지않아 돌아오시면 반드시 크게 꾸짖으실 것이니 이번은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심씨가 땅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성씨 집 늙은 과부가 내 집에 옮겨하여 생각이 음흉하니 반드시 우리 모자를 죽일지라. 내 비록 힘이 모자라나 그 늙은이와 환관 붙어 보리라. 또 유생은 남의 집 자식이라, 어찌 우리 집안의 일을 알리오. 필시 진이 유생에게 알려 나의 부덕함을 누설하였으리니

내가 응당 네 앞에서 결단하리라.” 하니,
 화춘이 부득이 화진 공자를 붙들어 와 가혹한 매를 가하니, 공자가 이미 그 모친과 형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한 마디 변명도 없이 20여 장(杖)에 혼절(昏絶)하는지라.
 - 조성기,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
 *도적 : 중국 춘추 시대의 유명한 도적.
 유하혜 : 도적의 형. 어진 인물.

3. 밑줄에 그려진 갈등의 근본 원인은?
 ① 심씨와 화춘이 화진과 빙선의 도덕성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② 심씨가 자기 가문의 일에 간섭하는 성 부인을 축출하고자 한다.
 ③ 심씨가 가문 내에서 화춘이 지닌 장자로서의 권한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④ 심씨가 남편과 다른 두 부인이 죽은 후, 두 부인의 소생(所生)들을 배척한다.
 ⑤ 심씨가 화진과 빙신이 자기를 친모(親母)로 대접하지 않는 데에 대해 보복하고자 한다.

2012학년도 수능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심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격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회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장성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되, 그 바닥들의 고품,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애나 탐스럽게 호젓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만 돈만 있다고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웰인인데 어찌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두 안 데려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뭇 허 오누?”
 “인젠 어머니시건 서울로 모셔 갈 체뵈려 허러 왔따유.”
 “서울루! 체뵈 아이들허구 한테서 살아 봤음 원이 없었따.”
 하고 어머니는 땅보따, 조상님을 산소나 사당보따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뜰뵈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서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

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곤란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육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얇한 것, 열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뜯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지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답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집심이나 먹어라. 나무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단.”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닢뿔들을 올려놓고야 돌아와 그도 집심상을 받았다. 집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다 봐! 그 다리 철 놓 게 내가 어려서 봤는 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덜낸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더나!”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지시나요?”
 “너무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둘만 허단?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하니? 서울무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난던 생각 안 하니? 시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네다 보셨구, 내가 철갈 끼구 그 다리무 글 읽으러 땡졌다. 네 아버지 그 다리무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죽진 그 다리무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질금이 쏠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발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끼지는 같은 게 이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리지 논독에 선 느리나론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이름을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허느냐? 땅 없애 보라, 집이 어렸으며 나라가 어렸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편지무 모르구 육신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번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현실팽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에 끼어난 사람들무밖에 비치 않드라.”

“…….”
 - 이태준, <돌다리>

4.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기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 ① ‘창성’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 ②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성’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돌추어 고발하고 있다.
- ④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성’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증세하고 있다.

2012학년도 수능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복락 선생이라 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수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閭)’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姓)을 지녔다.

[나] 어느 날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벌이 반짝이는데, 밤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복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복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온데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복락 선생이 웃기를 바로잡고 잠잠해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로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덤 본떠 만들었다. 흥(興)이라.”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댔다.
 “에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복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둔갑하여 사람 시늬를 할 수 있다 하니, 저런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복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갈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고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다니 복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깔짚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뜬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벌이 길을 막

고 있었다. 벌이 오만상을 쪼푸리고 구억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머리를 왼편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복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룡(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 자리에 서웁니다.”

벌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건네대, 유(儒)”란것은 유(詎)²⁾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끈이들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복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었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제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설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웁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키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벌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아침에 발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 물으니, 복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으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려.”

- 박지원, <호절>
 [어휘풀이] 1)유(儒) : 선비. 2)유(詎) : 아첨하다.

- 5.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드러나 있다.
- ④ (라)는 행위에 의해, (마)는 주로 대화에 의해 갈등이 해결된다.

2004학년도 수능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가 봐야 노루 꼬리만큼 찡다는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 둔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황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제분 공장 별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멍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멍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울울이 흘러져 대굴대굴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집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칩묵(枕木) 사이에 깔린 잔돌로 비사차기를 하거나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엮어 놓았던 못을 뒤지면서 화차가 당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세팔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어밀어 조개탄을 후벼 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 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짹한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방울 계급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 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전뽕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굵고구마, 딱시,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보다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해안촌(海岸村) 혹은 중국인 거리라고도 불리어지는 우리 동네는 겨우내 북풍이 실어 나르는 탄가루로 그늘지고, 겨우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낮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짙수세미에 아궁이에서 끓여 낸 고운 재를 묻혀 번쩍 광이 날 만큼 대야를 닦았다. 아버지의 와이셔츠만을 따로 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바람을 들이지 않는 차양 안쪽 깊숙이 널 와이셔츠는 몇 번이고 다시 행구어 푸세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망할 놈의 탄가루들. 못 살 동네야.

할머니가 허를 차면 나는 으레 나를 뒤엎 말을 받았다. 광석천이라는 냇물에서는 말이다. 물론 난리가 나기 전 이북에서지. 빨래를 하면 희다 못해 시퍼렇지. 어느 독(毒)이 그렇게 퍼탕했나.

겨울방학이 끝나면 담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숙직실 부엌 바닥에 옷통을 벗겨 었드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다. 귀 뒤, 목덜미, 발가락, 손톱 사이까지 탄가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왕소름이 돋은 등어리를 찹쌀찰떡 때리는 것으로 검사를 끝냈다. 우리는 킬킬대며 살비들이 푸르르 떨어지는 내의를 머리부터 뒤집어썼다.

봄이 되자 나는 3학년이 되었다. 오전반이었기 때문에 한낮인 거리를 치욕이와 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삼거리의 미장원을 지날 때 치욕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 회충약을 먹는 날이나 아침을 굶고 와야 해요. 선생의 지시대

로 치욕이도 나도 빈속이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닌을 먹었기 때문일까, 해인초 끓이는 냄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차마 밑으로 펠릭이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길의 양편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드문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체가 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제일 큰 극장이었다.

조명판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회계 회칠이 된 한쪽 벽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욕이가 소곤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곡괭이의 첫 날을 났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회고 거대한 벽은 핑음으로 주저앉으리라.

한쪽에서는 이미 헐어 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들과 철근을 발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속밭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치욕이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 내어 몇 번이고 속밭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집을 지어 빈터를 다스렸다. 반 자른 드림통마다 조개탄을 듬뿍 써서 해인초를 끓였다.

치욕이와 나는 자주 멈춰 서서 적적 침을 뱉어 냈다.

회충이 약을 먹고 지랄하나 봐.

아냐, 회충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도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뽑히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치욕이는 내 어깨에 엇갈린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늑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초 냄새, 내가 이 시(市)와 나는 최초의 약수였으며 공강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6. 뒷글에서 ‘석탄’이 갖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④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2013학년도 수능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막 씨 줄연 복통이 있어 마치 태중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러 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더니, 심 식에 미처는 산점*이 있어 초막(草幕)에 었드렸더니,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멸

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지라.

막 씨 해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 뉘 때에 아궁이에 들이켰더니, 님새 후에 해쳐 본즉 금방울이 튀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씩씩하고 향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집머 나는 세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실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묻혀 오되 그 털이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비지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테서 남의 방아를 쥘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랍게 더우며 방울이 빗을 내어 밝기 닳 갈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테와 마른 테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흠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된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놓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히니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누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차설. 장 공이 너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풍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며 공이 주야 병측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침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며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요?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중 하소서.”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낫을 데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썼오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늘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씩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팔*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 **질**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

전.-

- * 산점 : 해산의 기미.
-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 월음 :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 수팔 : 일의 처음부터 끝.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 :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2013학년도 수능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쉴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실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등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건데, 전찬 댕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 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꿨다.
전차도 전차러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 이 선 듯도 싶지 않건 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뚝뚝하다’ , 바로 벌벌 비슷이 불려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막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렸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옷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칠할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잠달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사냥을 한다. 그것이 ‘권투’ 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띄이나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임은 민 주사며, 종산모 쓴 포복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귀족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에도,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땡굴고, 그러는 작정이* 때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엔,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줄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분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 도 가 볼 수 있고, ‘전차’ 도 탈

수 있고, 울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 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 길히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러지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 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 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야.”
칠할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듯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딸 아이들인,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 가는 허물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뻔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붙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 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절집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데머 비켜서는 풀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싹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기뻐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 나 태워 주고, ‘화신상’ 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꼭 좋겠다고 짐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 임바네스 : 납자용 의투의 일종.

* 깍정이 : 거지.

8. ㉠~㉣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은 ㉡, ㉢, ㉣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드림전 장들을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충주 체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이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대를 돌아다녔다. 닷새 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달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만 가자왔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 건만 허 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나 가슴이 뛰놀았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여 돈뿐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들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로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

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엄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째째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데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겹으나 보름을 가제 지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우수수 잎새가 환중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팔랑팔랑 메밀밭개로 울려간다. 앞장 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풍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치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라) “장 선 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집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폐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춧빛 연기가 밝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려는 놈 뺨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가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러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잖나. 하나 처녀의 꼴은 핑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마)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향유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까지 장물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걸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가르칠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 큰길로 띄어졌다. 풍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9.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다)의 ‘단 한 번’은 ‘오늘 밤도 또’와 대비되면서 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12. 의지(극복 의지, 의지적 태도)>

2013학년도 수능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막 씨 줄연 복통이 있어 마치 태중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러 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더니, 심삭에 미쳐는 산짐*이 있어 초막(草幕)에 이르렀더니, 헤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지라.

막 씨 헤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태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 뿔 때에 아궁이에 들이쳤더니, 닷새 후에 해쳐 본즉 금방울이 뛰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썩씩 하고 향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 가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칩떠 나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일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물혀 오되 그 털이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비치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테서 남의 방아를 쥘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랍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낮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데와 마른 데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흙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니, 오히려 금방울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농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뇌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단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차설.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풍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며 공이 주야 병축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침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불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며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요?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충 하소서.”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되, 장 공이 낫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며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밤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도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썼으며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축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데,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썩확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풀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 전.-

- * 산점 : 해산의 기미.
-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들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 월음 :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 수말 : 일의 처음부터 끝.

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보기>

.금방울전.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후, 방울을 깨고 사람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방울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시련을 겪지만, 방울의 모습을 한 채로 자신의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 주인공이면서도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지닌다.

㉔ 막 씨가 금방울을 거듭 버려도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것은 금방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005학년도 수능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드립전 장들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충주 체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이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 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들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

건만 허 생원은 번치 않고 언제나저 가슴이 뛰놀았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놓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꿎은 정봉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엄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려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단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단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밤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겹으나 보름을 가제 지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호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관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낸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 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콩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채 멎어 적적하지는 않았다.

(라)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짓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죽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놈 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날 판인 때었지. 한참만 일이나 말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가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리저리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었네. 장관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러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관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풀은 쟁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마)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황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걸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띄어졌다. 콩무늬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㉔ (마)의 인물 간 대화는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려는 주인공의 굳은 결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2005 6월 모의평가

[38~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랴.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면 만첩(萬疊) 청산(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관(北關)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 만경파(萬頃波) : 넓은 바다 물결.
- ** 홍진(紅塵) :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제세현(濟世賢)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제.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훌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험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역만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되!’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되!’ 허나 앞뒤로 담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쪼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을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

(다) 지상(地上)에는 아흙 켈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칸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은 문수(文叟)가 다른 아흙 켈레의 신발은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이야.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플른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 박목월, 가정(家庭) -

3.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②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인다.

2010 6월 모의평가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데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있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때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김영랑, 「거문고」

(나) 헤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얕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의만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다투어 몰려오는 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질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송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터미의 무거운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매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헤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 최승호, 「대설주의보」

4.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가)와 (나)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김 선생님: 순수 시경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거문고 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 를 읽어 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② (가)와 (나)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2005 6월 모의평가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 밤 승용차 안의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사 버렸다.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이십이만 원에 사는 것을 이십오만 원씩 주고 모두 사 버렸다. 그날 밤에도 영희는 팬지 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다. 영희는 팬지 꽃 두 송이

를 따 하나는 기타에 꽂고 하나는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꿈쩍도 하지 않고 기타만 쳤다.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했다.

“이십오만 원이 분명하죠?”

어머니가 물었다. 사나이를 따라온 나이 든 사람이 검은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 주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매매계약을 썼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서류가 든 봉투와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는 계약서 매도자란에 ‘金不伊’라고 쓰고 도장을 눌렀다. 나이 든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바람의 뜻을 그가 알 리 없었다. 어머니는 소중하게 싸 두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넘겨주었다.

식칼 자국이 난 표찰, 아침 수저를 놓고 가슴을 세 번 치게 한 철거 예고장, 짐을 헐값에 버리기 위해 생긴 처음 내본 안감 증명 두 통, 미리 서명해 두었던 명의 변경 신청서, 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과 나이가 차례대로 적혀 있는 주민 등록 등본 두 통.

마당가 팬지 꽃 앞에 앉아 있던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사나이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뒤로 물러앉았다.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다. 꼭 삼 초 동안 들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아 들었다.

다음날 아침, 명희 어머니는 사람들을 시켜서 짐을 헐었다. 어머니가 이십오만 원을 갠었다. 두 부인은 손을 마주 잡은 채 아무 말도 못 했다. 용달차가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와 명희네 집을 실었다. 명희 어머니가 치마를 울려 눈물을 닦았다.

“예유, 정이란 게 뭐지!”

명희 어머니가 말했다.

“정이란 게 이렇게 더러운 게라우.”

그 말이 우리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용달차가 집 앞을 지나갔다. 아버지는 오른손을 반쯤 올렸다 내렸다. 왼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지섭의 책에 아버지의 손매가 까맣게 묻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키린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달에 찬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렌즈를 지키는 일야. 달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제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더.”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넌 이때까지 뭘 배웠니?”

아버지가 말했다.

“뉴턴이 그 중요한 법칙을 발표하고 삼 세기가 지났어. 너도 그걸 배웠지?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런데 우주에 관한 기본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런데 누가 아버지를 달에 모시고 가겠대요?”

“지섭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 센터에 편지를 냈다. 그곳 관리인 로스 씨가 답장을 보내올 거야. 후년에 우주 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달에 가게 될 거다.”

“그 책을 돌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는 미쳤어요.”

“이 책의 사진을 봐라. 이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이

사람은 로버트 고다드다. 당시 사람들이 미치광이로 지목했던 인물들이야. 이 미친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나?”

“물랴요.”

“넌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어.”

“어쨌든 그 책을 돌려주세요.”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고생하다 바짝 마른 물골로 죽기를 바라고 있지? 힘든 일에 놀려 허우적거리다 숨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너희들은 왜 지섭에게 아무것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니?”

“도대체 뭘 배우라는 말씀에요?”

“로스 씨의 편지를 받기 전에 보여 줄 것이 있다. 지섭에게 말해서 쇠공을 쏘아 올려 보여 주마.”

“없지?”

“네.”

“찾지도 못하면서 밤새도록 어디 가 있었니?”

나는 돌맹이를 집어 다시 방죽을 향해 던졌다. 어머니도 기진해 다른 말을 못 했다. 형이 어머니의 등을 밀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백여 채의 집이 헐리고 남은 것은 몇 채 안 되었다. 우리도 영희만 짐을 나가지 않았다면 전날 떠났을 것이다. 철거일을 어겨야 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간건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 꽃 두 송이뿐이었다. 나는 좀 큰 돌맹이를 집어 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 조세희,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

5. <보기>를 참조하여 밑줄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이상 세계를 꿈꾸는 것이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도 멀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 비판의 표시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대항 이미지로서의 이상 세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할 때, 그 이미지는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되거나 현실을 극복해 가는 힘이 된다.

① ‘달’은 현실의 모습을 개혁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2010학년도 수능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다른 눈멀미로 한 번 보면 못 내는 시능이 없었고, 손속 또한 유별났으니 애써 가르친 바가 없어도 음식 맛깔과 바느질

숨쉬는 어머니도 나무랄 수 없음을 진작에 선언한 정도였다. 동냥을 주면 종구라기가 넘치고 개밥을 주어도 구유가 좁게 손이 컸다.

“저것이 저리 손이 크니 시집가면 대변 시에미 눈 밖에 나리…….”

어머니의 걱정처럼 그녀는 오종종하거나 소갈머리 오죽같은 것을 가장 싫어했고, 남의 억울한 일에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뒤통을 싸워 주며, 부지런하러 들기로도 남보다 뒤처짐이 없었던 것이다.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가 징발됐던 것도 남의 집 뒷수체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음이니, 온갖일의 들무세요 안머슴이었던 것이다.

“말고랑지 파리가 천 리 가더라구 웅쟁이가 그렇당께.” 부락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과 숨쉬를 그렇게 비유하였고, 그녀는 그녀대로 그런 말 듣게 된 자신을 대견스레 여기는 것같았다.

그녀가 열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안팎 동네의 머슴이나 품일꾼, 그리고 어리전이나 드림전을 보아 제 몫은 하던 장돌뱅이 총각들의 눈독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총각들은 장차 그녀를 아내로 맞고 싶어서 그러던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았다. 그 시절만 해도 혼사에 있어서 만은 으레 근본의 어머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양반 찌꺼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향품배(鄕品輩)* 끄트머리만 되어도 집안이 이렇고 저러함을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 교전비(橋前婢)*와 난봉난 행랑 것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녀의 신분은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커다란 허물이었다. 아무리 소견이 들어 뒤통이가 쓸 만하고 살림에 규모가 있더라도 그녀의 내력을 변연하게 되던 근동 사람이라면 거들떠보려고도 않을 판이었다.

(중략)

관촌 부락에서 등성이를 끼고 돌면 요카타라는 작은 부락이 있었다. 원래 이웃하고 농사짓는 초가집 데어섯 가구뿐으로 일년 내내 대사 한 번 치르지 않아 사는 것 같지 않던 동네였으나, 해방 이듬해부터는 금융 조합 창고 같은 연립 주택이 몇 채 들어서고 한 채에 여남은 가구씩, 북해도에서 왔다는 전제민들을 들여 정착시키자, 밤낮 조용한 날이 없게 시끄러운 마을로 변하면서 전제민촌이라는 새 이름이 붙은 곳이었다. 읍내의 지계꾼, 신기료장수, 리어카꾼과, 주재풀이 남루한 낫선 사람은 모두 전제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그 전제민촌이란 이름은 차츰 도둑놈 소굴이라는 뜻의 대명사로 불리어져 갔다. 관촌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무엇이 없어진다거나, 논밭에 심은 것이 축난 듯싶으면 으레 전제민촌 사람들의 소행으로 여겨 버릇했고, 서툰 임고리장수가 들어서도 전제민촌 사람으로 판단, 물건을 갈아주기보다 집어 가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려는 도사림으로 냉대해 보내기 일쑤였다.

그런 중에도 웅쟁이는 조금 달랐다. 그녀들의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다던 거였다. 굶다 못해 이불숨을 빼다 팔아 겨울에도 홀이불을 덮는다든가, 변변한 옷가지는 죄 팔아먹어 주재풀이 그처럼 비렁뱅이 풀이라는 거였다. 그렇다면서 전제민만 오면 어머니를 졸라 무엇이든 한 가지는 갈아주도록 피하던 것이다. 그녀는 특히 그녀만 보면,

“옥상, 오꼬시 사 맥소.”

하며 들어붙던 점멸발이 늙은이를 가장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다. 일본에서 건너오다 처자를 놓쳐 홀로 된 늙은이라는 거였다.

“그 옥상만 보면 지 애비가 모집 나갔다 나오면서 고상했다던 생각이 나서 딱해 못 견디겠슈.”

웅쟁이가 어머니한테 하던 말이다.

과자를 먹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으면 웅쟁이는 서슴지 않고,

“쭈쟁이 보리 한 종발 주구 옥상헌티 샅지.”

했다. 옥상에게 곡식을 빼들려 가면서까지 그녀가 내게 굳것질을 시킨 이유는, 옥상이라고 부르던 그 불우한 늙은이를 돕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더 가뜩한 뜻이 없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근래에 들어와 크게 유행을 본 말 가운데서 내가 가장 단기수월찮던 말이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 운운하던 단어들이었다. 어떡하는 것이 주체 의식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주체성을 지키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함이 예사이고, 말을 얹으면 병신 대접 받기 십상인 줄 모르지 않으나, 주체 의식이나 주체성이란 말을 외래어보다도 막연하게, 개나 걸이나 지껄여 대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는 줄 알던 많은 사람을 보아 온 터여서, 그 천한 말을 웅쟁이는 일찍이 내게 행동으로써 보여 준 셈이라고 장담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한 번 더 다짐해 두지만, 그 무렵 웅쟁이의 태도를 주체 의식, 또는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면, 나는 그녀만 한 정신 자세를 가진 인간을, 내가 이 사회에 나와 벌어먹게 된 뒤로는 몇 사람 외에 구경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향품배 : 지방의 낮은 벼슬아치들.

* 교전비 : 혼례 때에 신부가 데리고 가던 계집종.

6. 윗글을 <보기>에 비추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관촌수필」은 전(傳)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은 한 인물의 행적을 짚막하게 서술한 전통적인 글쓰기 양식이다. 대개 ‘인물 소개 - 주요 행적 - 인물 평가’의 순서로 구성된다. ㉠ 서술 대상은 주로 충신, 효자 등 모범적인 덕목을 지닌 인물이었는데, 그중에는 하층민도 포함되어 있다. 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물평인데, 인물의 행적 요약, 본받을 만한 덕목 제시, 작가의 최종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작가의 판단이 덧붙여지곤 한다. 인물평은 행적 부분과 구별되는 진술 방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 웅쟁이가 ㉠이 된 이유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 때문이다.

2003 9월 모의평가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오랴.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농울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애비를 뭍꼬리미 우러러보고

지애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누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यो

청태(靑苔)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 서정주, 무등(無等)을 보며 -

(나)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7.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나)의 화자가 (가)의 화자에게 충고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두 시가 씌어진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가치 공백의 시대였다. 사회를 이성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은 사라지고, 그 대신 치열한 내면 성찰과 자기 반성으로써 비극적인 현실을 극복해 나가려는 정신 자체가 요구되었다.

- ① 인내하는 자세 없이 고상한 이념만을 외친다면, 그것은 대담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 ②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 줄다 일상에 충실합시다. 그러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③ 시대의 이념을 바로 세우는 일은 이제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찾겠다는 것입니까?
- ④ 현실을 좀더 엄정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려는 치열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⑤ 당신은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용 자적인 삶의 자세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이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 꽃
 이육사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어

북(北)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땀아리가 움작거리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어

한바다 북관 용솟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이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8. (가), (나)의 ‘꽃’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나)에서 꽃은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상이다.

2011 6월 모의평가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짓닌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鵝)이 떠 잇거는 가슴이 금죽
 하여 풀덕 뛰어 내닷다가 두엄 아래 갖바지거고
 모쳐라 날넌 널식만정 예헐*질 번 해래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예헐 : 어헐. 티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뻐힌 것.

(나)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밤사발 크나 작으나 통웃이 좋고 곳으나
 마음을 다루는 듯 호수(戶首)*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흥것할것 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잇그제 화강도(火鬮盜)에 가산(家産)이 땅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누가 잘 하며 섬은 누가 엮으랴

너희 재주 헤아려 재각기 말아 하라
 가을걷이 한 후에는 짐짓기를 아니하라
 짐은 내 지오마 움은 네 물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명석에 버를 년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볕을 언제 보라
 방아를 못 쟁거든 거치나 거친 울버
 옥 같은 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네 테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잇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채쳐 두고 옷 밤만 다투느냐
 너희네 테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죽조반(粥早飯)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었거든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짐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과 하면서 새끼 한 마리 다 꼬겠도다.
 - 허전, 「고공가(雇工歌)」

* 호수 : 고공(머슴)의 우두머리.

(다) 물이 하나의 국가라던, 용은 그 나라의 군주이다. 어족(魚族)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큰어, 바다 장어 같은 것은 그 군주의 내의 여러 신하이고,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종류는 서리나 아전의 무리이다. 그 밖에 크기가 한 자가 못 되는 것은 수국(水國)의 만백성들이다. 그 상하에 서로 차서(次序)가 있고 대소(大小)에 서로 거느림이 있는 것은 또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리 이어주고, 사람들이 물고기 씨를 팔릴까 염려하여 겹겹이 물결을 일렁이여 넣어 주니, 그것이 물고기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서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詩書)로 삼고, 교룡,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썩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으며, 문질망둑, 쏘가리, 드렁허리, 가물치 족속은 사이를 노리고 틈을 잡아 덮쳐서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은 아랫것을 사로잡는다. 진실로 그러한 행위를 싫증 내지 않는다면 물고기들은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뒤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스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의 도(道)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 이육, 「어부(魚賦)」

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2009 6월 모의평가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鶯子初來時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喃喃語不休 지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語意雖未明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似訴無家愁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榆槐老多穴 느릅나무 해나무 목이 구멍 많은데
 何不此淹留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나
 燕子復喃喃 제비 다시 지저귀며
 似與人語酬 사람에게 말하는 듯
 榆穴鶴來啄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槐穴蛇來搜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 정약용, 「고시(古詩)」-

(나)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듣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게 쥐고 물결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냐
 아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가시 영진 목은 밭도 쉽사리 갈련만은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라
 봄갈이도 끝나간다 후리 처 던져두자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려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있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사
 훌륭한 군자들이 늙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봉 벗이 되어
 ㉔ 입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박인로, 「누항사」-

* 세정 : 세상 물정.

(다) 나는 전에 관동 지방에 유람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강 너머 물가를 바라보니 인가가 물가의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고, 단풍나무와 떡갈나무가 서 있는데, 그 사이로 초가지붕이 보이고, 아침 햇살이 비쳐드니 서리 내린 나뭇잎이 노랗기도 하고 붉기도 하였습니다. 뿔나무를 실은 작은 배와 소금 실은 조각배가 서로 바라보며 오가고, 채소밭과 논두렁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하더군요. 또한 지팡이를 짚고 발두둑에 밟추어 서 있는 사람,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사람, 어린애를 데리고 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 나란히 쟁기를 끄는 사람도 있었으며, 닭과 개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밟는 연기가 간간히 일어났지요.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내달리고 흥취가 일어나 ‘훗날 식구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오면 근심을 잊고 노년을 마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지요.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이 이야기를 내 친구인 포원자에게 하였던니, 포원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몸소 가 보았던 곳이라네. 내가 거기에 가 보니, 마을 앞에는 메마른 자갈밭만 보이고 채소의 싹도 등성등성하게만 돌아나 있고 집은 낮은데다가 비좁아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려야 했었네. 마을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대네. ‘여름에 장마가 저 강물이 불어오면 전답이 어김없이 물바다가 되어 한 해 동안 애써 농사지는 작물을 서쪽 물결에 보내 버리게 됩니다. 오래도록 가뭄이 계속 되면 자갈밭이 후끈 달아올라 온갖 곡식이 바싹 말라 버린답니다. 오직 비와 햇빛이 때에 맞고 들관과 습지의 곡식이 모두 잘 익어야 우리 마을에서는 느긋하게 숨을 내쉬며 근심이 없을 수 있지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아침과 낮에는 그러저럭 지낼 만하였지만, 어스름이 내린 뒤에는 문을 나가면 호랑이에게 물러가기 때문에 문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호랑이 그물을 친다네.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은 집이 없었고, 이가 없는 집이 없었네. 가려운 데를 긁어대느라 부스럼이 되었고,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지. 그때는 정말이지 미친 듯 고향을 지르고 싶었네. 앞서 말한 뿔나무와 소금 실은 작은 배, 채소밭과 논둑을 몽땅 다 나에게 주면서 하룻밤을 더 머물라고 부탁해도 나는 머리를 내치으며 서둘러 도망갔을 길세.”

이 말은 시골 생활의 괴로움을 깊이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 이학규, 「어떤 사람에게(與某人)」-

10.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개선하고자 한다.

11.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㉔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인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 ㉮은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012 9월 모의평가

(가)

[1] 풀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다들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굳이 따르기를 피하려 할 이유가 있겠는가?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한 평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2] 어찌서 상고 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이는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며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온갖 냇물이 각자의 모양대로 흐르며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道理이다.

[3] 물론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천성과 사명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천하가 모두 주나라를 새로운 천자의 나라로 섬기게 되었음에도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모든 풀과 나무가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질 때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여전히 푸른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렇지만 우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었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르지 않았던가! 성인(聖人)도 모두가 함께 하는 부분을 위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4]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치를 따라야 한다.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치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엇을 따르든 모두 올바르게 하늘의 법칙에 절로 부합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만 따르다 보면 운명과 귀신도 모두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 이용휴, 「수려기(隨廬記)*」-

* 수려기 : ‘따르며 살리라’ 라는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글.

(나)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은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잘고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과* 깨달아서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울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흔간장 쌓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 불가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슬슬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슬슬 녹네

-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 황연대과 : 환하게 모두 깨달음.
* 화용월태 :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뺨시를 이르는 말.

(다) 이런들 어찌하며 저런들 어찌하리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찌하리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리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배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로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 이항, 「도산십이곡」-

* 초야우생 :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12.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07 6월 모의평가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玉人金釵)* 비겼으니
이삼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찌 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동각에 숨은 꽃이 척축(擲躑)*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래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누 있으니

- 안민영, 「매화사」 -

* 옥인 금차: 미인의 금비녀.
* 척축: 칠쭉.
* 백설 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음력 정월.

(나)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嵐(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사양(斜陽)과 섞이어서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예(藍靑)를 재촉해 타고 술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고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윤(綠陰)이 영긴 적에
백적 난간에 긴 조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어적(漁鰈)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결늘
조물이 현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태(慶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

에 벌였어라
진콘도 풍성할사 간 테마다 경이로다
- 송순, 「변양정가」 -

* 산람: 산 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경궁요태: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
* 옥해 은산: 눈 덮인 들판과 산.

(다) 아아! 덕보(德保)*는 만사에 통달하고 명민하며, 겸손하고 고야하며, 식견이 심원하고 아는 것이 정밀하였다. 특히, 율력(律曆)에 정통하여 그가 만든 혼천의(渾天儀) 등 여러 기구들은 깊이 생각하고 오래 연구하여 지혜를 발휘하여 제작한 것들이다. 애초 서양인은 땅이 둥글다는 것만 말하고 회전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덕보는 일찍이 지구가 한 번 돌면 하루가 된다고 논했는데 그 이론이 미묘하고 심오하였다. 이에 관한 책을 미처 쓰지는 못했지만, 만년에 이르러 지구가 회전한다는 사실을 더욱 자신하였다.

덕보를 흠모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일찍부터 과거를 단념한 채 명리(名利)를 생각지 않고 조용히 집에 들어앉아 좋은 향을 피우거나 거문고를 타며 지내는 것을 보고는 ‘덕보가 담박하게 자중 자애하면서 세속을 벗어나 마음을 닦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가 백사(百事)를 두루 잘 다스리고, 문란하고 그릇된 일을 척결하며, 나라의 재정을 맡거나 외국에 사신으로 갈 만하며, 군대를 통솔하여 나라를 방어하는 데 뛰어난 책략을 지녔다는 것을 통 알지 못했다. 하지만 덕보는 자신의 재주가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한두 고을의 수령을 지낼 때에도 그저 관아의 장부를 잘 정리하고,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며, 아전들을 공손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따르게 함이 고작이었다.

덕보는 서장관(書狀官)인 숙부를 수행하여 북경에 갔을 때, 유리창*에서 옥비, 업성, 반정균을 만났다. 이 세 사람은 모두 고향이 전당(錢塘)으로 문장과 예술에 능한 선비들이었고, 사귀는 이들도 중국의 저명한 인사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덕보를 큰선비로 떠받들며 그에게 심복(心服)하였다. 덕보는 그들과 수만 글자의 필담을 나눴는데, 그 내용은 경전의 취지, 사람에게 천명이 부여된 이치, 고금의 인물들이 살아간 도리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웅대하고 걸출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마침내 헤어지게 되었을 때, 서로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한번 헤어지고 나면 천고에 다시 만나지 못할 테지요. 지하에서 만날 그날까지 부끄러운 일이나 없도록 합시다.”

- 박지원, 「홍덕보 묘지명(洪德保墓誌銘)」 -

* 덕보: 홍대용(洪大容)의 자(字).
* 유리창: 중국 북경의 거리 이름.

1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2012 9월 모의평가

(나)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세소리는 종계 들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등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잡고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벌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펜잡은걸 세소리로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십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닫아서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맑춤마다 개개 울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처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처 보고 화왕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처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처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 볼가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슬슬 풀려 삼동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슬슬 녹네

-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 * 황연대각 : 환하게 모두 깨달음.
- * 화왕월태 :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뺨시를 이르는 말.

(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 하물며 천석고향을 고쳐 무엇 하리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고인을 못 배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A]

- 이황, 「도산십이곡」-

* 초야우생 :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14.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A]는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11 9월 모의평가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승상이 심사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의 골육이니, 남은 다 흉물이라 하여 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심한 것 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요? 필경 무슨 이 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흉악해도 집에 두고 나중을 보사이다.”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들은 이불 속에서 태극태극 굴러 나와 승상 곁에 놓였다. 승상이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마는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아무렇거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 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붕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연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은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렇거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하였다.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매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이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후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먹이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圓)이라 하라.” 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흥하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 하였다.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하였다.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되었다.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중략)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 비어 있었다. 가득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테없는 선동(仙童)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은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물으 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 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물기를,

“이 일이 하도 고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 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 로되 네 부모께 죄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소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은즉 허물이 곁에 놓여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였거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 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니 아무런 줄 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습니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가 어이하여 십 년 고생을 이다지도 하였느냐?”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과 친척 가운데 뉘 아니 기뻐하리오.

- 작자 미상, 「김원전」-

15.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주인공이 천상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화소를 적강화소(竊降話素)라 한다. 이 화소를 수용한 「김원전」에서 공간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뉘고, 천상계와 지상계는 주인공 김원의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소통한다. 위 글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에 김원과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004 9월 모의평가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南方炎天) 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 오르니 굴뚝 막는 덕석인가 덥고 집기 다 버려도 내음새는 어찌하리 어와 내 일야가 가련이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읍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하게 벌어 있어 옥식진찬(玉食珍饈)* 어디 가고 맥반염장(麥飯鹽藏) 되었으며 금의화식(錦衣華飾)* 어디 가고 현순백결(懸鵠百結)* 되었는 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는가 모양은 귀신일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어이없어 도로혀 웃음 나니 미친 사람 되겠구나 어와 보리가를 맥풍(麥風)이 서늘하다 앞산 뒷산에 황금을 펼쳤으니 지계를 벗어놓고 앞 산을 굽어보며 한가히 베는 농부 똥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단술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본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배어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春精)*에 쓸어내니 일분(一分)은 밥쌀하고 일분(一分)은 술쌀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고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는 양
농가의 좋은 흥미 지던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백운(白雲)이 즐기는 줄 청운(靑雲)이 알 양이던
뭇 탐하는 벌나비 그물에 걸렸으랴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 음식진찬, 금의화식: 좋은 음식과 의복.
- * 맥반염장, 현순백결: 빈약한 음식과 누더기 옷.
- * 용정: 곡식을 췌음.

16.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보 기>

작품의 창작 및 향유 상황을 고려할 때, 유배가사를 단순히 유배지에서의 삶을 그린 가사로 보기는 어렵다. 유배가사는 작가가 유배지에서 풀려날 목적으로 임금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지은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더욱 정교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

④ ‘그물에 걸렸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작가가 죄를 지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군.

2013 6월 모의평가

[앞부분의 줄거리] 광산에서 갠도가 무너지는 매물 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홍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9. 현장

홍 기자 여기는 동진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갠구 매물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 사고는 울 들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 씨가 무려 열하루째 지하 1천5백 미터 아래서 구출의 손길이 닿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갈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은 사고가 난 동5 갠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 위원회 회장이시며 동진 광업소 소장인 권오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갠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윈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

소장 (마이크 앞에 선다) 예행,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주공 2명, 조수 2명, 감독 1명, 신호수 1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6시간씩 교대하여 불철주야 김창호 씨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앞으로 구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 애초 예상과 달리 갠목 철근 등의 장애물이 많은 데다 갠내에 물이 쏟아져 작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2, 3일 더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감사합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수행원, 경찰.

홍 기자 (기자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자 1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2 현지 주민들이 기자 속소로 옥수수와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 달라고 호소할 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홍 기자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

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 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 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 말씀드렸습니다. (꼭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 를 창조하는 몽웁스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

10. 사무소와 갠내

전화벨 울리며 갠내를 비춘다. 지친 듯 쓰러져 있던 김창호, 간신히 몸을 움직여 전화를 받는다. 사무실엔 비서관, 수행원, 의사, 경찰서장이 전화 거는 것을 지켜본다.

김창호 네?

소장 나 소장이요. 지금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비서관님을 보내셨습니다. 받아 보시오.

비서관 (전화 바꾼다)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가 어서 구출되어 나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꼭 구출됩니다.
김창호 (기운 없이) 감사합니다.
비서관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중략)

14. 기자 회견 석상

김창호, 주치의의 호위에 단상에 앉는다. 기자들, 카메라맨, 카메라를 들이대자 김창호, 얼굴을 가린다.

카메라맨 김창호 씨, 얼굴 좀.
주치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시력이 약화돼서 카메라 플래시에 견디질 못합니다.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김창호에게 씌운다) 잠으세요, 곧 끝납니다.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

플래시 터진다. 김창호, 움찔거리지만 참고 견딘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우리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환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김창호씨가 구출되기까지 쫓 지켜보았던 한일 마스크센터의 홍성기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창호 ㉠ (당황) 뭐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주치의, 귀에 대고 뭐라고 한다.

김창호 저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자 1 16일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 견디셨는데 어디서 그런 인내력이 나셨는지요?

김창호 예?

주치의, 쉽게 설명해 준다.

- 윤대성, 「출세기」-

* 인터셉트 : 화면에 다음 화면을 끼워 넣음.

17.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글의 제목 「출세기」의 ‘출세’는, 감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의미의 ㉠ 출세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된다는 의미의 ㉡ 출세이기도 하다.

④ ㉠에는 ㉡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 있다.

2012 6월 모의평가

(가)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님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거울을 가리우자.

- 김동명, 「파초」-

* 파초 :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18.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① 파초를 ‘또’ 머리맡에 둔다고 한 것을 보니, 계속해서 파초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군.

(나)가 없음

19.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⑤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2011 9월 모의평가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길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요.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객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고.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갈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썼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나) 적막강산

백석

오이밭에 별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별로 오면 별 소리

산에 오면
큰술밭에 뺨꾸기 소리
잔술밭에 덜거기* 소리

별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별로 오면 별이 들썩 별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별에 오면 별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별배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 늙은 장끼.

20.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⑤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2010 9월 모의평가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더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쪼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세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곧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일어불고
너조차 미친들 어머라

- 이육사, 「소년에게」

* 진준가 : 진주인가.
* 한가 : 가장 끝 부분.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 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가풍이 자신의 일을 중시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낙동강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의병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삶동강시를 일찌시킨 그의 시 세계를 구도한게 하였다.

⑤ 7연의 '너조차 미친들 어머라'에서는 화자의 시련 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2007 9월 모의평가

[28~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단(香丹)아 그뱃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배갯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갈한 나비 새끼 꼬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날으는 새여
뫼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밀바다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벨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뫼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든 날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푹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까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랴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피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났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
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뫼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투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갖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어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하얗 : 시골에 사는 건물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부릴 : 부러워함.
* 삼공 : 삼 정승.
* 만승 : 천자(天子).
* 소부 허유 :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약뫼더라 : 약뫼더라.

22.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3.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테라. 이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견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쟁시는 만나 보기 마땅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008년 6월 모의평가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썩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블리 입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머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팠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백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프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테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일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리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호를 해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툭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부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는나라. 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세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받아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모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펴고 하는 것 같은 찬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도다.

나는 불현듯이 거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돌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빈뜩었다.

나는 걸틴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이상, 「날개」 -

- * 미스프시: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
- * 회탁의: 회색의 탁한.
- * 아달린: 수면제의 일종.

24.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날개」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물들과 사건들을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2003 9월 모의평가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얼마나 있었소?”
사내가 물었다.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보니 그리 흉악한 몸골도 아니었고, 우선 그 시원시원한 태도가 은근히 밍글없고 영달이는 생각했다. 그가 자기보다는 몇 살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 바람 부는 겨울 들뜬에 척 걸터앉아서도 만사 태평인 꼴이었다. 영달이는 처음보다는 경계하지 않고 대답했다.
“넋 달 있었소. 그런데 노형은 어디루 가쇼?”
“삼포에 갈까 하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다. 영달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방향 잘못 잡았수. 거긴 벽지나 다름없잖소. 이런 겨울철에.”
“내 고향이오.”
사내가 목장갑 낀 손으로 코밑을 쓱 훑쳐냈다. ㉠ 그는 벌써 들뜬 저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달이와는 전혀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그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영달이는 또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 집에 가는군요.”
사내가 일어나 땀방울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다 걸쳐메면서 영달이에게 물었다.
“어디 무슨 일자리 찾아가쇼?”
“땀은 오라는 테가 있어서 여기 왔었소? 언제나 마찬가지죠.”
“자, 난 이제 가봐야겠는걸.”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질척이는 독길을 향해 올라갔다. 그가 독 위로 올라서더니 배낭을 다른 편 어깨 위로 바꾸어 메고는 다시 하반신부터 차례로 개털모자 끝까지 독 너머로 사라졌다. 영달이는 어디로 향하겠다는 별 뾰족한 생각도 나지 않았고, 동행도 없이 길을 갈 일이 아득했다. 가다가 도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우선은 말동무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그는 멍청히 섰다가 쟁길음으로 사내의 뒤를 따랐다. 영달이

는 독 위로 뛰어올라갔다. 사내의 걸음이 무척 빨라서 벌써 차도로 나가는 셋길에 접어들어 있었다. 차도 양쪽에 대빛자루를 거꾸로 박아 놓은 듯한 앙상한 포플러들이 줄을 지어 섰는 게 보였다. 그는 독 아래로 달려 내려가며 사내를 불렀다.

“여보쇼, 노형!”
그가 멈춰 서더니 뒤를 돌아보고 나서 다시 천천히 걸어갔다. 영달이는 달려가서 그 뒤편에 따라붙어 헐떡이면서, “같이 갑시다. 나두 월출리까진 같은 방향인데.”
했는데도 그는 대답이 없었다. 영달이는 그의 뒤통수에다 대고 말했다.

“젠장, 이런 겨울은 처음이오. 작년 이맘때는 좋았지요. 월삼천 원짜리 방에서 작부랑 살림을 했으니까. 업동설한에 정말 갈 데 없이 뺏뺏하게 됐는데요.”
“우린 습관이 되어 놔서.”

사내가 말했다.
“삼포가 여기서 몇 린 줄 아쇼? 좌우간 바닷가까지만도 몇백 리 길이오. 거기서 또 배를 타야 해요.”

“몇 년 만입니까?”
“십 년이 넘었지. 가 봤자. 아는 이두 없을 거요.”

“그럼 뭇 허러 가쇼?”
“그냥…… 나이 드니까, 가 보고 싶어서.”

그들은 차도로 들어섰다. 자갈과 진흙으로 다져진 길이 그런 대로 견기가 편했다. 영달이는 시린 손을 잠바 호주머니에 처박고 연방 꼬지락거렸다.

“어이 욕심하게는 출네. 바람만 안 불면 좀 낫겠는데.”
사내는 별로 추위를 타지 않았는데, 털모자와 야전잠바로 단단히 무장한 탓도 있었지만 원체가 혈색이 건강해 보였다. 사내가 처음으로 다정하게 영달이에게 물었다.

“어떻게 아침은 자셨소?”
“헐걸요.”
영달이가 열썩게 웃었다.

“새벽에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셈인데.”
“나두 못 먹었소. 찬샘까진 가야 밥술이라두 먹게 될 거요. 진작에 똬을걸. 이런 겨울에 움직일 생각이 안 납디다.”

“인사 늦었네요, 나 노영달이라고 합니다.”
“나는 정가요.”
“우리두 기술이 좀 있어 놔서 일단 일자리만 잡으면 별 걱정 없지요.”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25.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③ 비속어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11 6월 모의평가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
 어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는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보 기>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④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2005 9월 모의평가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담뱃 들관에 곡식이 뜨겁게 익고
 장대 같은 빗줄기 오랫동안 쏟아진 다음
 남지나해의 회오리바람 세차게 불어와
 여름내 흘린 땀과 곳곳에 쌓인 먼지
 말끔히 씻어갈 때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숲결 뿜어내고
 대추나무 우듬지**에 한두 개
 누르스름한 이파리 생겨날 때
 광복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 소리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아직도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

- 김광규, **때** -

* 이적진: '이제까지는'의 방언.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27.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⑤ **시간의 역전(逆轉)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2003 9월 모의평가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흥부 부부(夫婦)가 박덩이를 사이고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옷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金)이 문제리,
 황금(黃金) 비이삭이 문제리,
 옷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옷어 비추어 주던 거울면(面)들아.
 옷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니.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러워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② **본(本)옷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제삼, 흥부 부부상(夫婦像) -

(나) 가난이아 한낱 남루(藍褸)에 지나지 않는다.
 ⑥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
 라.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놓을처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어 그대들도
 더리는 앉고
 더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에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애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쭉구렁에 누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문뜩다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靑苔)라도 자옥이 끼일 일인 것이다.

- 서정주, 무등(無等)을 보며 -

28. ②와 ①의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여 **대학 홍보용 광고를 만들려고 한다.** ②, ①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활용한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④ ⑥를 통해서 **꿈을 펼쳐려는 학교의 의지를, ①을 통해서**는 **정의로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2011학년도 수능

☆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뒷집의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잤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빛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었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鵠)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골쓰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훌들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식근·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재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식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29.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③ **농가와 자연을 분리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 고전 시가 + 수필

[24~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霜天月照夜河明
 나그네는 돌아가고픈 심정이 간절해지네 客子思歸別有情
 긴긴 밤 근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 厭坐長宵愁欲死
 홀연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忽聞隣女擣衣聲
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聲來斷續因風至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夜久星低無暫止
 고국을 떠난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건만 自從別國不相聞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今在他鄉聽相似
 -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

30. **윗글의 시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③ **'바람'은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2006학년도 수능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정한담과 최일귀 두 사람이 이때를 타서 천자께 여쭙오되,
 “폐하 즉위하신 후에 은덕이 온 백성에게 미치고 위엄이 온
 세상에 진동하여 열국 제신이 다 조공을 바치되, 오직 토번
 과 가달이 강포함만 믿고 천명을 거스르니, 신 등이 비록
 재주 없 사오나 남적을 항복 받아 충신으로 돌아오면 폐하
 의 위엄이 남방에 가득하고 소신의 공명은 후세에 전하리
 니, 앞드려 바라 읍건대 폐하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천자 매일 남적이 강성함을 근심하더니, 이 말을 듣고 대화
 왈,
 “경의 마음대로 기병하랴.”
 하시니라.
 이때 유 주부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천자 앞에 들
 어가 앞드려 주왈,
 “듣사오니 폐하께옵서 남적을 치라 하시기로 기병하신단 말
 씀 이 옳은이인가?”
 천자 왈,
 “한담의 말이 여차여차하기로 그런 일이 있노라.”
 주부 여쭙오되,
 “폐하, 어찌 망령되게 허락하였습니까? 왕실은 미약하고 외
 적 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찌름과 같고 드는 토끼를
 놓침이 라. 한낱 새알이 천 근의 무게를 견디리까? 가련한
 백성 목숨 백 리 사창(沙場) 외로운 훈이 되면 그것인들 아
 니 적악(積惡) 이리요, 앞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기병치
 마옵소서.”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차에, 한담과

일귀 일시에 합주하되,

“유심의 말을 듣사오니 죽어도 애석하지 않으니, 오국 간신과 같은 무리로소이다.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놈만 칭찬하여 개미 무리를 대국에 비하고 한낱 새알을 폐하에게 비하니, 일대의 간신이요 만고의 역적이다. 신 등은 저어하건대 유심의 말이 가달을 못 치게 하니 가달과 동심하여 내용이 된 듯하니 유심 의 목을 먼저 베고 가달을 치사이다.”

천자가 허락하니, 한림 학사 왕공렬이 유심 죽인단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왓.

“주부 유심은 선황제 개국 공신 유기의 자손이라. 위인이 정직 하고 일심이 충직하오니 남적을 치지 말자는 말이 사리에 당 연하옵거늘, 그 말을 죄라 하와 충신을 죽이시면 태조 황제 사 당 안에 유 상공을 배향하였으니 춘추로 제사 지낼 때에 무슨 면목으로 보으며, 유심을 죽이면 직간할 신 하 없사옵 것이니, 황상은 생각하와 죄를 용서하옵소서.”

천자 이 말 듣고 한담을 돌아보니, 한담이 어쭈오되, “유심을 죄하실진대 만 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으나 공신의 후 예이오니, 죄목대로 다 못하오나 정배나 하사이다.”

천자 “올다.”
하시고, “황성 밖에 멀리 유배 보내라.”

[중간 줄거리]
유심이 유배된 후, 아들 유충렬은 정한담의 박해로 고난을 겪다가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한담이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하자, 유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대원수가 된다. 유충렬이 도성을 비운 사이, 천자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나) 이때 대원수가 금산성에서 적 십만 병을 한칼에 무찌르고 바로 호산대에 득달하여 적병을 썩 없이 함몰코자 행하더니, 뜻밖에 월색이 희미하며 난대없는 빗방울이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 괴이히 여겨 말을 잠깐 머무르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紫微星)이 떨어져 번수가에 비쳤거늘, 크게 놀라 발을 구르며 왓, “이게 웬 변이나?”

갑옷과 투구,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바삐 올라 산호 채찍을 높이 들어 채질하며 말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왓, “천사마야, 너의 용맹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 쓰고 어디 쓰 리오. 지금 천자 도적에게 잡혀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지 라. 순식간에 득달하여 천자를 구원하라.”

천사마는 본디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라. 채질을 아니 하고 단단히 부탁하여 말해도, 비룡의 조화라 제 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몇 천 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입자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호채로 채질하니, 어찌 아니 급히 갈까. 눈 한 번 깜짝이며 황성 밖을 얼른 지나 번수 가에 다다르니,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지고 한담은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 하거늘, 원수 이때를 당하매 평생에 있는 기력과 일생에 지를 호통을 힘을 다해 지르고, 천사마도 평생 용맹을 이때에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삼십삼천 어런 조화 이때에 다 부리니, 원수 달는 앞에 귀신들 아니 울며,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엎는 듯 혼백인들 아니 울리오. 온몸이 불빛 되어 벽력같이 소리하며 왓,

“이놈 정한담아, 우리 천자를 해치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하는 소리에 나는 짐승도 떨어지고 강신 하백(江神河伯)도 눈을 잃어 용납지 못하거늘, 정한담의 혼백인들 아니 가며 간담인들 성할쏘나. 호통 소리 지나는 곳에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먹먹하여 뒳던 말 둘러 타고 도망하여 가려다가, 형산마 거꾸러져 백사장에 떨어지니 창검을 갈라 들고 원수를 겨누거늘, 구만 청천 구름 속에 번개같이 번쩍 하며 한담의 장창 대검이 부서지니, 원수 달려들어 한담의 목을 산 채로 잡아들고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엎드리니, 이때 천자 백사장에 엎어져서 반생반사 기절하여 누워 있거늘, 원수 붙잡아 앉히고 정신을 진정한 후에 엎드려 주왓.

“소장이 도적을 함몰하고 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달고 왔나 이 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31.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삽화를 그려려고 한다. <보기>에서 (나)의 내용을 잘 반영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유충렬이 천기를 살펴보는 호산대의 배경을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표현하여 앞으로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ㄴ. 쓰러져 있는 천자에게서 무력함 또는 낙담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ㄷ. 정한담을 향해 달려가는 천사마는 역동적이면서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그린다.
ㄹ. **장성검을 들고 진격하는 유충렬의 모습에서 천자를 구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이도록 한다.**
ㅁ. 달려오는 유충렬을 보고 도망가는 정한담의 표정에서 여유와 의연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린다.

- ① ㄱ, ㄴ, ㄱ ② ㄱ, ㄷ, ㄷ ③ ㄱ, ㄷ, ㄱ
- ④ ㄴ, ㄷ, ㄷ ⑤ ㄷ, ㄷ, ㄱ

—

2002학년도 수능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꽃 쥐어 수(數) 놓고 무진 무진 먹세그려.

이 목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 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억새풀, 속새풀, 딱칼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회오리바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 할꼬
하물며 무덤 위에 원승이 휘파람 불 때야 뉘우친들 어찌 하리.

- 정철. 장진주사(將進酒辭) -

32. <보기>의 관점에서 뒷글을 평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우리나라의 노래는 율란스러워 말할 것이 못 된다. ‘한림별곡(翰林別曲)’과 같은 노래는 방당한 뜻이 있고 거만한 데다가 외설스러워 숭상할 바가 아니다. 이별(李鵬)이 지은 노래가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이것이 더 낫다고들 한다. 하지만 세상을 우습게 알며 공손한 뜻이 없는 데다가 온유(溫柔)한 태도가 적어 애석하다. 요사이 나는 한가롭게 지내며 병을 고치는 틈틈이 마음에 감동된 것을 한시(漢詩)로 나타내곤 했다. 그런데 한시는 읊조릴 수는 있지만 노래가 되지는 않았다. 마음에 감동된 것을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시속(時俗)의 말로 엮어야 한다.

- 이황, 도산육곡 발(陶山六曲跋) -

② 뒷글은 세상을 호탕하게 살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좋군.

—

2001학년도 수능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이고 나는
바리고 가시리이고 나는
위 증증가 대평성덕(大平盛大)

날리는 엇디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이고 나는
위 증증가 대평성덕(大平盛大)

잡스와 두어리마는

(㉠)
위 증증가 대평성덕(大平盛大)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증가 대평성덕(大平盛大)

- 「가시리」

(나) 뱃버들 가려 쥐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시는 창(窓)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뱃버는 새일 나가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 홍량의 시조

(다)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山)진이 수(水)진이 해동청(海東靑) 보라매 쉬어 넘는
고봉(高峰) 장성령(長城嶺) 고개
그 너머 넘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기
라

- 작자 미상의 시조

(라) 천상(天上)의 견우 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
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컸,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手) * 가렸관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에 비겨 서서 님 가신 테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싫다.
세상(世上)에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顔)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 말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

*약수(弱水) :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전설상의 강 이름

33. (가)~(라)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③ 민중의 적극적인 생활 의지를 담고 있다.

—

1999학년도 수능

[51~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주관(眞珠館) 득수루(竹西樓) 오십천(五十川) ~린물이
턱백산(太白山) 그림자를 동해(東海)로 다마 가니, 출하리 한
강(漢江)의 목목(木覓)의 다하고저. ㉠왕명(王程)이 유훈(有

限)하고 풍경(風經)이 못 슬피니, 유희(幽懷)도 하고 할사, 객수(客愁)도 돌 되 없다. 선사(仙差)를 띄워 내어 두우(斗牛)로 향(向)할사가, 선인(仙人)을 좇느라 단혈(丹穴)의 머므 살가, 턴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영(汪洋)의 울은 말이, 바다 밧근 하늘이니 하늘 밧근 므르신고, 그득 노흔 고래, 누라서 놀래관디,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어 늑합(六合)의 누리는 듯. 오월(五月) 당틴(長天)의 빅절(白雪)은 므스일고, 저근덧 밤이 드러 풍당(風浪)이 덩(定)허겨늘, 부상(扶桑) 지척(咫尺)의 명월(明月)을 기다리니, 서광(瑞光) 천당(天丈)이 비는 듯 숨는거야, 주렴(珠簾)을 고터 것고, 옥계(玉階)를 다시 켜며, 계명성(啓明星) 뭇도록 묵초 안자 바라보나, 빅년화(百蓮花) 혼 가지를 뒤라셔 보내신고. 일이 도흔 세계(世界) 놀대되 다 뵈고져, 뉴하쥬(流霞酒) 그득 부어 들드려 무론 말이, 영웅(英雄)은 어딴 가며, 사선(四仙)은 귀 뒤러니, 아미나 맛나 보아 뱃 괴 별 못자 허니, 선산(仙山) 동해(東海)에 갈 길히 머도 멀사. 송근(松根)을 베어 누어 썸죽을 얼끗 드니, 꿈에 혼 사람이 날드려 날은 말이, 그덕를 내 모르라, 상계(上界)에 진선(眞仙)이라. 황덕경(黃庭經) 일직(一)을 엮디 그릇 날겨 두고, 인간(人間)의 내러와셔 우리를 쫓노는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혼 잔 머겨 보오, 북두성(北斗星) 기우려 창홍슈(滄海水) 부어내어,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겨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習習)허야 낭익(兩腋)을 추혀 드니, 구만리(九萬里) 당공(長空)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서희(四海)에 고로 논화, 억만(億萬) 창성(蒼生)을 다 취(醉)케 밍근 후(後)의, 그제야 고터 맛나 썸 혼잔 허갓고야. 말 디자 학(鶴)을 타고 구공(九空)의 올라가니, 공중(空中) 옥소(玉篇) 소릭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즘을 썸어 바다홀 구버보니,

㉠

명월(明月)이 천산(天山) 만남(萬樂)의 아니 비썸 더 업다.
- 정철, 「관동별곡」

34. ㉠에 표현된 화자의 내면 세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④ 공적(公的)인 책임에 구애되지 않고 탐미적 자세로 자연에 몰입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010학년도 수능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 무등산 한 활개 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순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테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앉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김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순 일 바빠서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만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라 내리락 모이락 홀으라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리꿈 좇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있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틀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서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장에(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 송순, 「면양정가」-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35.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송순이 「면양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양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양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순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2009학년도 수능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현세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랑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 견장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뒤흔치고 돕니다.
- 한운용, 「님의 침묵」 -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걸로 가는 길은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도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흠날리던 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3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잠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든 이 육원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나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라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고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려 함.

3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㉓ (가), (나)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과랴게 꽃핀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삭골 상앗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집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땀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추수가
 찌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뒷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얇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밧기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받마다 꿈에 보니 꿈을 돌려 상시(常時)과제²⁾
 학발자안(鶴髮慈顏)³⁾ 못 비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⁴⁾ 찾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율가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계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⁵⁾ 뉘 해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로고져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져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져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레 가 머무르고

- 이광범, <북찬가(北嶽歌)>

[어휘풀이] 1)영 : 고개. 2) 꿈을 돌려 상시과제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3)학발자안 : 머리가 하얗게 선 지대로은 얼굴. 어머니를 가리킨. 4)안족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5) 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39. (가)와 (나)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㉔ (가)의 ‘꿈’과 (나)의 ‘꿈’은 출세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2007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 었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 부터 불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절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 밖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 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 왔다 거나 혹은 일을 해 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매 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오는 응고개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 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였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칠났다 하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였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뒀들었고 텃기까지 하려면 그는 뽕 생각 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 참판이든 뻥질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열른 털어서 뽕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뒀지유 -”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이매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즐기며 혼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뒀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 부터 옛, 옛,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뻥히 보고 싶는데 빈 지개로 텅털거머벼 짐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득한데 얼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개 비틀었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빚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 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우 - 물러들 거기간.

응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당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다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튼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나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런면 하려면 일 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눈에 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녀네히 거뒀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버릇을 잘못 해 놓으면 어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걸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었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 채고 응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변인테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쪽경이는 제쳐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상만 따 갔다. 그 면적으로 어렵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댓 말 가량은 될는지! 응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개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눈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폐는 좋지 않아 될 것이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눈독에 머리만 내

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뒀지 형질이 가리었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뭇이 뺑소니를 놓는다.

그러자 응철이가 날째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향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테굴테굴 굴러서 떨어진다. 열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철이는 덩벼들어 우선 허리계를 내려조겼다. 어이쿠쿠, 쿠 -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띄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건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똥맛은 바람만 공중에서 복새를 놓는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남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뒹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못집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테풍스러이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굶속 같아서 멍하니 있을 뿐이다.

- 김유정, 「만무방」 -

*장리: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

*도지: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는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색초: 짐초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40. ‘응철’의 행동은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보기>를 토대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 ㉑. 응철이는 먼 곳에서 동생을 찾아온다.
- ㉒. 응철이는 담판을 지으려고 지주를 만났다.
- ㉓. 응철이는 지주의 뺨을 때린다.
- ㉔. 응철이는 눈에 가서 도적을 기다린다.
- ㉕. 응철이는 도적을 잡기 위해 다짜고짜로 달려든다.

㉔ ㉒, ㉒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응철이의 의지를 볼 수 있어.

2007학년도 수능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41. <보기>는 윗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입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 (『육사 시집』 발문)

㉮ ‘바람’은 이육사를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2005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너의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일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꽃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광재구, 「은행나무」 -

* 도롱이집 : 도롱이나방의 집.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노래할 수 없다’,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2013학년도 수능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강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불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있는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관의 슬픔 하나 들관의 고독 하나
 들관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해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왓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질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굵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새라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

43.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

<13. 시간, 공간 개념>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머하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오목(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옛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소풍에 우는 세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고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들쏘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수간오목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살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鵠)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옛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훌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싣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라.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욱, 「율리유곡(栗里遺曲)」 -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싣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다)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겹칠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뒤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랴?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나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백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라야 비로소 흠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볼거리에 구속되어 큰 볼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거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가)~(다)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맑은 들는 대로 듣고 별은 췌 대로 편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러 불 계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르고 <4>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蓆)*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
 장>
 - 위백규, 농가(農歌) -
 * 우배 초적 :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

2. 밑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㉒ 낮에서 저녁으로의 시간 경과와 함께 공간적 이동도 나타나고

있어.

2012학년도 수능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ㅁ 동리 사람들, 들것에 복조 송장을 태워 들어온다. 물이 푹푹 떨어진다. 복실과 본 어머니, 의아하여 잠시 보고 있더니 달려들어 목놓고 운다. 동리 사람들, 소리를 낮춰 침묵할까 운다.

간(間)

㉒ (부엌에서 나오며) 왜들 우니?

본 어머니와 복실 어머니, 복조예요.

동리 사람 3 최뿌리로 배 내다가 보니 범바위 틈에 꺾습디다.

㉓ 물에서 죽은 놈이 복조뿐인가? 어떻게 복조라고 장담해. (아무 관계없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간다.)

(노어부를 석이와 윤 첩지가 양편에서 꼭 붙들고 들어온다.)

노어부 바. 두고 볼 거 아니야.

윤 첩지 참어. 참는 데 복이 있다네. 그저 참는 것이 제일이야. 참을 인(忍)자가 셋이면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

석이 (그제가 들것과 사람들을 보고) 누나, 이것이 작은형이요? (붙들고 운다.)

윤 첩지 찾았으니 다행이군. (눈물을 씻는다.)

노어부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눈물을 닦으며 서러운 소리로 푹푹히) 몇 해 전에는 배도 서너 척 있었고, 그물도 동리에 뛰어나게 가졌드랬지. 배 팔고 그물 팔고 나머지는 뭐냐? 내 살덩이밖에 없었어. 그것도 다- 못해서 다리 한쪽 뺐졌지.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윤 첩지.....

윤 첩지

노어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두고 보고 바랄 것이 인제는 하나도 없어. (별안간 부엌 뒤로 퇴장. 들어가더니 쟁이를 들고 나온다. 뒤따라 치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부지깽이로 노어부의 머리를 후려 때린다. 노어부 쓰러진다.)

㉔ (쟁이를 잡아 뺐으며) 이 쟁이가 무슨 쟁인 줄 알아?

노어부 (뒤통리다가 치의 너무도 맹활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려 복조를 붙들고 운다.)

㉒ 내가 맑은 물 떠 놓고 수신계 빌었거든. 이것은 우리 복조 아니야.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전신을 파먹히게 안 했을 거야. 지금쯤은 너구리섬 동남에 있는 시퍼런 깊은 물속에. 참 거기는 미역 냄새가 향기롭지. 그리고 백옥 같은 모래가 깔렸지. 거기서 팔다리 쪽-뺀고 눈감았을 거야. 나는 지금 눈에 완전히 보이는걸. 복조 배 위로 무지갯빛 같은 고기가 쏙- 지나갔어. (눈앞에 보이는 환영을 물리치는 듯이 손으로 앞을 가리며) 눈감은 얼굴이 너무도 쓸쓸하군. 이렇-게 (시늉을 하며) 원망스러운 얼굴이야. 불만스러운 얼굴이야. 다행 일이 너무도 쓸쓸해.

간(間), 울음소리

동창으로 가야지. 서남풍이 자고, 동풍이 불면 나를 만나러 올지도 몰라. 아니야 꼭 울 거야. 저쪽을 아니면 내일 아침을 그도 아니면 모래 아침물, 산수자리를 골라 놓고 동쪽을 보고 기대려야지. (일등을 보고 꺾 웃으며)뒷 때문에 울어들? (쟁이를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

석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속이 타서 발을 구르며)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붙드세요. 얼른 얼른 아버지.

노어부 내 말 것 아니야.

석이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뒤따라 퇴장)

(멀리서 치의 웃는 소리 우는 소리 번갈아 들린다.)

노어부 (일어서며) 윤 첩지, 복당상으로 가지.

복실 촛불 하나 안 키고 관도 없이 어딜 가요?

본 어머니 사람 목숨이 이렇게도 썩가. 뒤란에 검부락지 쓸어가듯 획 쓸어 가면 고만이야.

윤 첩지 장성한 사람을 그럴 수 있나.

본 어머니 (일어서며) 난 향구로 가겠다. 더 있었는데 가슴만 졸이지. 윤머 웃으며 한세상 살다 그러저러 죽을 때 되면 죽지. (인덕을 넘어 퇴장)

노어부 (빛모양을 바라보다가) 왜, 과부 수절하기가 싫으냐?

석이 (울면서 등장) 어머니가 갯가에서 쟁이로 물을 퍼며 통곡을 하시다가는 별안간 화파가 끊어진 것처럼 웃으며 (복실의 가슴에 안겨) 누나야. 어머니는 한세상 참말 헛사셨다. 왜 우리는 밤 낮 울고불고 살아야 한단든?

복실 (머리를 쓰다듬으며) 글썽해 연기 한 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도 없었지.

석이 (울음 섞인 소리로, 그러나 한 마디 한 마디 푹푹히) 왜 그런지를 난 생각해 볼 태야. 긴긴 밤 갯가에서 조개 잡으며, 긴긴 낮 신작로 오가는 길에 생각해 볼 태야.

복실 (바다를 보고) 인제 물결이 자는구나.

윤 첩지 ㉒인동이 트는군. (나가면서)

(노어부를 보고) 사람 삼키더니 물결이 얼음판 같아 졌지. 자네 한 칸 쪽- 들이키고 수염 닦는 듯이. 어서 초상 준비나 하게. 상영집에 행하니 다녀올 테니.

- 막 -

- 합세덕, <산허구리>

3. ㉒을 통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관객에게 전달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㉒ 관객은 ㉒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분명하게 인지하여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서경주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판지 두 장만만큼 먹오뎅빛 뒷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뒷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은 물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변질변질 닦이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뒹개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떼거울 뒷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뒷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㉒ ‘뒷마루’는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㉒ ‘집 뒤안’과 ‘장독대’는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004학년도 수능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가 봐야 노루 꼬리만큼 짹다는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 둔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향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제분 공장 별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명석에는 늘 털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명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울음이 흘러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쩍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들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지면서 화차가 당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것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뽉으면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깔치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 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 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쫘뼛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께금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 음식집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전병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장이였다.

해안촌(海岸村) 혹은 중국인 거리라고도 불리어지는 우리 동네는 겨우내 북풍이 실어 나르는 탕가루로 그늘지고, 거무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낮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짚수세미에 아궁이에서 끓어 낸 고운 재를 묻혀 번쩍 광이 날 만큼 대야를 닦았다. 아버지의 와이셔츠만을 따로 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바람을 들이지 않는 차양 안쪽 깊숙이 던 와이셔츠는 몇 번이고 다시 행구어 푸새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망할 놈의 탕가루들. 못 살 동네야.

할머니가 혀를 차면 나는 오래 나올 뒷땀을 받았다.

광석천이라는 냇물에서는 말이다. 물론 난리가 나기 전 이북에

서지, 빨래를 하면 희다 못해 시퍼랬지. 어느 독(毒)이 그렇게 퍼렸겠니.

겨울방학이 끝나면 담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숙직실 부엌 바닥에 옷통을 벗겨 엮드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다. 귀 뒤, 목덜미, 발가락, 손톱 사이까지 탄가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왕소름이 돋은 등어리를 찝찰찰 찝 찝 하는 것으로 검사를 끝냈다. 우리는 킁킁대며 살비뽀이 푸르르 떨어지는 내의를 머리부터 뒤집어썼다.

봄이 되자 나는 3학년이 되었다. 오전반이었기 때문에 한낮인 거리를 치옥이와 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삼거리의 미장원을 지날 때 치옥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 회충약을 먹는 날이니 아침을 굶고 와야 해요. 선생의 지시대로 치옥이도 나도 빈속이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니를 먹었기 때문일까, 해인초 끓이는 냄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치마 밑으로 펼쳐지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길의 양편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드문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骸가 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제일 큰 극장이었다.

조명판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희게 회칠이 된 한쪽 벽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옥이가 소곤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곡괭이의 첫 날을 뿜 뒤치를 가늘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희고 거대한 벽은 핑음으로 주저앉으리라.

한쪽에서는 이미 헐어 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돌과 철근을 발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속밭을 만들어 버렸더니까.

치옥이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 내어 몇 번이고 속밭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집을 지어 빈터를 다스렸다. 반 자른 드림통마다 조개탄을 듬뿍 써서 해인초를 끓였다.

치옥이와 나는 자주 멈춰 서서 짝짝 침을 뱉어 냈다.

회충이 약을 먹고 지랄하나 봐.

아냐. 회충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도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뽀히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치옥이는 내 어깨에 엮갈린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농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초 냄새, 내가 이시(市)와 나눈 최초의 악수였으며 공감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5. 뒷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 '중국인 거리'는 '나'가 태어난 곳이 아니다.
- ㉡ 전쟁 후의 항구 도시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엮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있는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치고 있다.
피하지 마라
㉠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나)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왈차히 내려앉은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질베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담 모를 굵은 눈을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짜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

- 6.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3)
- ㉢ ㉣ : 화자와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는 공간이다.
- ㉤ ㉥ :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를 표상한다.

2013학년도 수능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를 귀는 어찌 썼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엿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나 밀거나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드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 * 한기 : 책.
-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 기산의 ~ 썼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썼었다는 고사.
- * 박 소리 핑계하고 :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 * 조장 : 기게 있는 품행.
- * 풍입송 : 악곡 이름.
-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나)
벗님대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떠리
어허 이 미친 사람이 날마다 흥동(興動)*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이고
- <제1수>

우리는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 <제2수>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거리 놀아 보자
복건 망례(市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세 유전(後世流傳)하리라
- <제3수>

우리도 갈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창 닫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이들을 처져 울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 <제4수>

벗이야 있고 없고 날들이 웃거나 말거나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라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 권섭, '독자왕유회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 -
- <제5수>

- * 흥동 : 흥에 겨워 다님.
- * 승유편 :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
- * 양신 미경 :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벌*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옷을 훨훨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라야 출발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 하지만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술잎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허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 하는 갑남을녀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절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

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 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이상하, .신록 예찬.-

- * 문법 : 문법 강의 시안.
- * 영일 : 일이 없이 평화스러움.

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㉓ (나)와 (다)는 시간적 배경에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㉔ (가)~(다)는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등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물에 그윽하다만
틸보네 간 곳은 아마도 모른다

찾길 이 뇌이기 전
노루 뱃배지 쫓게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짜리깅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열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틸보네는 또 아들을 뵈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이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름들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갖추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야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썰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물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른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펴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질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재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린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 * 짓두광주리 : ‘반걸고리’의 방언.
- ** 글거리 : ‘그루터기’의 방언.

(나)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길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일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까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박계구, 「은행나무」 -

- * 도롱이집 : 도롱이나방의 집.

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㉒ (나)는 (가)와 달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드러나 있다.
- ㉓ (가)는 (나)에 비해 당시의 사회 현실을 더욱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㉔ (가)와 (나)에는 모두 과거 사건의 전개 과정이 실감 나게 그려져 있다.

2005학년도 수능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드림전 장동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충주 체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이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 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려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㉑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달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만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 건만 허 생원은 번치 않고 언제나든 가슴이 뛰놀았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여 돈뿐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증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놓고 투쟁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동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는 없었다. ㉒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엄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밭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자 하였다.

“달밭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밭에 감동하여서였다. ㉓ 이지러는 절이나 보름을 가제 지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발길, 고개를 돌아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관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환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장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㉔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 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콩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하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울만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라) “장 선 쪽 이런 날 밤이었네. 객짓집 토방이란 무더위서 잠이 들어가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요.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몰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밝기운 속에 흘러서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뉘 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듣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나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이었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관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하여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문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관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끝은 평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마)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향용 못난 것 연어 세끼 놓고, 걱정 놓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걸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난 거꾸러질 때 까 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띄어졌다. 풍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9.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㉓ (다)의 '단 한 빈'은 '오늘 밤도 또'와 대비되면서 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㉔ (라)의 '물방앗간'은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의 동질성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10.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의 '길'은 장들뱅이로 유랑해 온 허 생원의 삶의 여정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의 '길가'는 허 생원이 비참해진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공간이다.

㉢ ㉢의 '밤길'은 장들뱅이 생활을 하는 세 인물의 어려움과 압박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의 '길'은 동이가 대화에서 배제되어 허 생원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 ㉤의 '길'은 허 생원의 과거와 현재가 길을 매개로 하여 미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길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세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요.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객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요.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켜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나) 적막강산 백석

오이밭에 벌베채* 붓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별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술밭에 빠꾸기 소리
잔술밭에 덜거기* 소리

별로 오면
눈두렁에 물담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별로 오면 별이 들썩 별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별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벌베채 : 들 베추, 야생 베추의 변형.
* 덜거기 : 늪은 장끼.

* 광양 : 들보.

11.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㉓ (가)의 '정주 객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㉔ (가)의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나)의 '하룻길'은 시공간

적 성격을 띤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감도 서리다가
바갈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경지용, 「인동차(忍冬茶)」 -

* 삼긴: 삶긴. 물에 삶아 우려냄.
** 덩그럭 불: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몰하게 쓰다.
**** 책력: 달력.

12. <보기>와 같이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익제 막기인 1947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옥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육에 살고 있었음.
-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인 잎사귀를 말려 달여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박(半) 상륙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 있음.
-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 무시호: 아무 때나.
-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 어미지: ……
 - 특이한 표현: ……

㉓ '덩그럭 불이/도로 피어 붉고'라는 표현에서 실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2008학년도 수능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 한림은 두(柱) 부인 모자를 집으로 초청했다. 큰 잔치를 열어 전별하려는 것이었다. 두 부인은 그 자리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는 온종일 인짙은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마침내 한림에게 말했다.

“오라버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로 조카님을 의지해 지내왔네. 이제 만 리 먼 작별을 앞두고 내가 한 마디 부탁을 하려고 하네.”

유 한림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사씨 문제라네. 사씨는 오라버니께서 아끼던 사람으로 성품이 본래 근실하고 신중하네. 그에게 죄과가 없으리라는 것은 백 번이라도 보장할 수 있지. 내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대로 믿지 말게. 설혹 그의 잘못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도 반드시 내게 편지를 보내 의논해 주게. 부디 가볍게 처리하지 말게나.”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두 부인이 이어서 시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부인은 어디 계시나? 내 직접 가 보아야겠다.”

시비는 두 부인을 모시고 사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사씨는 누추한 방에 거적을 깔고 있어 보기에 도도 처참했다. 나무 비너와 베치마에 다복씩처럼 형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몸은 초췌하여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했다.

사씨는 두 부인을 맞아 절을 올린 후 말했다.

“숙숙*께서 영귀하여 멀리 떠나시지요. 그러나 돌아보건대 저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고 또한 씻을 수 없는 죄명을 지고 있어, 감히 뜰에 나가 경하 드리며 떠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또한 나가서 뵈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생에서는 다시 존안을 대할 날이 없을 듯하여 무궁한 한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부인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임종하실 때 한림을 내게 부탁하셨지.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네. 내가 조카를 잘 인도하지 못한 탓에, 자네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어. 모두 내 허물일세. 그런데 내가 몇 해 전에 자네에게 했던 말을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사씨는 다시 절을 하고 대답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찌 잊을 날이 있겠습니까? 제가 눈을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 부인이 떠난 뒤, 사씨는 또다시 교씨의 흉계에 빠진다. 교씨는 울면서 사씨를 모함한다.

마침내 한림은 화를 벌럭 냈다.

“투부*가 처음에 저주를 했을 때, 나는 부부의 정의를 생각하여 차마 적발할 수가 없었지. 그 후 신성현에서 더러운 행실을 한 단서가 이미 드러났을 때에도 죄를 묻지 않았어. 지금 또 이렇게 세상에 보기 드문 흉악한 짓을 하다니……. 이 사람을 집안에 그대로 둔다면 조상께서 제사를 흠향하지 않으시고, 자손도 완전히 끊어질 거야.”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미 저물었네. 날이 밝으면 일가들을 모아 사당에 고한 후에 투부를 내칠 것이네. 그리고 자네를 부인으로 삼을 것이야.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게. 꽃 같은 얼굴만 상하겠네.”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 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사씨에게 그 전말을 고하고 통곡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속숙: 두 부인의 아들을 가리킴.

* 투부: 절투심이 많은 여자. 사씨를 가리킴.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2009학년도 수능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9. 불이의 집(낮)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어낸 집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희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붉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엄마 영희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

영호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집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딸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빙긋 웃고)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애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둘러 먹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의 소리. 해머 소리.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먹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95. 불이의 집

광광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던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넓혀 온다.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일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는 먼지의 마당.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태도가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앉으며 땀을 뺀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낯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벽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답답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딸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96. 고급 레스토랑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97. 불이의 집

일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뽀얗게 먼지가 일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홍과 객석,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 다운: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 몽타주: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1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_1, M_2, \dots, M_k, \dots, M_n$ 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_1, S_2, \dots, S_k, \dots, S_n$ 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_1 \rightarrow S_1 \rightarrow M_2 \rightarrow S_2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k \rightarrow S_k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n \rightarrow S_n$ 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_k 에서 S_k 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_k 와 S_k 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저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쩐지 마음이 조금 흐트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췌,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가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껄었다.

“저것 봐, 저기 저기, 예에이, 모두 잠만 자구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지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해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곤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서 늘 그렇듯 벌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었어야이.”

“…….”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 너무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이.”

하고는 해죽이 웃었다.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러안으면서,

“칠성아, 야하, 흠씩은 좋다.”

“…….”

“저 말다이, 엄만 날 볼 불쌍히 여겼었야, 잉. 야,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이.”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별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질려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예에이, 이젠 좀 그만 걸지 달,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흘금 흘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다이,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췌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하니. 내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에 또 동생의 어깨를 그러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고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럭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흐흐흐.”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질려거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릴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낫색이었다. 돌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금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게 짙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며,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고 글지 마라, 어영?”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듯이 손으로 앞을 가리며) 눈감은 얼굴이 너무도 쓸쓸하군. 이렇- 게 (시늉을 하며) 원망스러운 얼굴이야. 불만스러운 얼굴이야. 다른 입이 너무도 쓸쓸해.

간(間), 울음소리

통창으로 가자지. 서남풍이 자고, 동풍이 불면 나를 만나러 울지 도 몰라. 아니야 꼭 울 거야. 저녁물 아니면 내일 아침물 그도 아니면 모래 아침물. 산수자리를 골라 놓고 동쪽을 보고 기대려야지. (일 동을 보고 픽 웃으며) 몇 때문에 울어들? (쟁이를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

석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속이 타서 발을 구르며)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불드세요. 얼른 얼른 아버지.

노어부 내 알 것 아니야.

석이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뒤따라 퇴장)

(멀리서 처의 웃는 소리 우는 소리 번갈아 들린다.)

노어부 (일어서며) 윤 첩지, 북망산으로 가자.

복실 솫불 하나 안 키고 판도 없이 어쩔 개요?

분 어미 사람 목숨이 이렇게도 쟁가. 뒤란에 겁부락지 쓸어가듯 휩 쓸어 가 면 고만이야.

윤 첩지 장성한 사람을 그럴 수 있나.

분 어미 (일어서며) 난 향구로 가겠다. 더 있었는데 가슴만 쫄이지. 울며 웃으며 한세상 살다 그러저러 죽을 때 되면 죽지. (언덕을 넘어 퇴장)

노어부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왜, 왜 수절하기가 싫은가?

석이 (울면서 등장) 어머니가 갯가에서 썩이로 물을 퍼며 통곡을 하시다가는 별안간 회파가 끊어진 것처럼 웃으며 (복실의 가슴에 안겨) 누나야. 어머니는 한세상 칼날 헛사셨다. 왜 우리는 밤 날 웃고불고 살아야 한다든?

복실 (머리를 쓰다듬으며) 글썽에 연기 한 번 무러무러 피어오른 적도 없 었지.

석이 (울음 섞인 소리로, 그러나 한 마디 한 마디 푹푹히) 왜 그런지를 난 생각해 볼 테야. 긴긴 밤 갯가에서 조개 잡으며, 긴긴 낮 산자로 오 가는 길에 생각해 볼 테야.

복실 (바다를 보고) 인제 물결이 자는구나.

윤 첩지 만동이 뜨는군. (나가면서)

(노어부를 보고) 사람 삼키더니 물결이 열음판 같아 겠지. 차네 한 잔 쪽- 들이키고 수업 댕는 듯이. 어서 초상 준비나 하게. 상영집에 행하니 다녀올 테니.

- 막 -

- 합세탁, <산허구리>

4.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㉓ ‘윤 첩지’는 ‘노어부’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

2005학년도 수능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드팀전 장돌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충주 체천 등의 이웃 군에다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이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 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픔

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겐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달 동안 이나 두박두박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 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 건만 허 생원은 번치 않고 언제나저 가슴이 뛰놀았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증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굽는 정본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㉑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로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출산을 모을 엄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질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배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자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밤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겼으나 보름을 가제 지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관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환층 달에 푸르게 젖 었 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 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 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 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 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맛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라)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짓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

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던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잖아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뽏 뽏이었다.

구수한 자웃면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 핏기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데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듣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말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가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리저리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근 뒤집혀 고작하여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해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잖나. 하나 처녀의 풀은 썩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마)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까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러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두박두박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 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띄어졌다. 꿈무늬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5.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㉒ ㉑의 ‘길가’는 허 생원이 비참해진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공간이다.

-

2003학년도 수능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곱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볼로 만나려 한다.
㉑ 벌써 숲이 된 뻐 하나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6. 윗글의 ㉑과 시적 정조가 가장 가까운 것은?

㉑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 세상은 회개, 또는 고요하게, /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

㉒ 눈이 많이 와서 / 산애새가 별로 나려 백이고 / 눈구덩이에 토기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 백석, 국수 -

㉓ 바야흐로 해발 육천 척 위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말이 말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 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 정지용, 백록담 -

㉔ 물 먹는 소 목덜미에 / 할머니 손이 없혀졌다. / 이 하루도 / 함께 지났다고, /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 서로 적막하다고,
- 김종삼, 묵화(墨畵) -

㉕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 혼들어 깨우면 /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 이성부, 봄 -

<15. 비유>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괴테는 젊은 시절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면서 “나의 조국을 알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노라.” 하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어를 통해서 한국어에 없는 문법 장치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언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때로는 한국어의 고유성에 대한 재확인(再確認)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 “철수가 축구를 하였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문장으로는 화자가 ‘철수가 축구를 한 것’ 을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들었는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콜롬비아의 토속어인 투유카 어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장치가 있다. 화자의 목적 여부가 동시에 형태적으로 표시되는데 그것을 ‘증거법’ 이라고 부른다.

díga apéwi (그가 축구를 것을 내가 보았다.)

díga apéti (그가 축구를 것을 내가 소문은 들었지만 보지 못했다.)

díga apéyi (그가 축구를 것을 내가 알지못 보지는 못했다.)

díga apéyigi (그가 축구를 것을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díga apéchiyi (그가 축구를 것을 나는 짐작했다.)

○ 증거법의 구성 요소 = (wi=시각적, ti=비시각적, yi=명백함, yigi=전해 들음, hiyi=짐작함)

(다) 위 예문들의 공통 의미는 ‘그가 축구를 하였다’ 이다. 그런데 투유카 어의 문장으로 이 의미만을 표현할 수는 없다. 투유카 어는 증거법의 형태들이 문장에 필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어에는 증거법이라는 문법 범주가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한국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법 형태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단어나 문장 등 다른 차원의 언어적 장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어로 사실을 표현하는 방식과 투유카 어의 그것이 다를 것을 보여 준다.

(라) 그러면 한국어는 어떠한가? 한국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은 ‘눈입법’ 이다.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말에는 ‘화자가 청자를 높이고 있다’ 는 정보가 들어 있다. 한국어 화자들이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묵시적인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당신은 청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을 높입니까? 아니면 높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눈입법을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외국어는 자국어(母語)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언어 간의 대조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 방식을 돌아켜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투유카 어의 증거법을 이해한 한국인들은 문장 속 동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산업화의 정도나 사용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토착민의 언어든 문명국의 언어든 서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언어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의 그

림’ 을 보다 객관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마) : 비유를 통하여 설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2. 폐휴대전화 활용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보 기>

- 폐휴대전화의 양면성을 대구의 형식으로 표현할 것
- **활유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호소력을 높일 것

- 자원 활용은 두 배로, 환경오염은 반으로. 우리에게 말기세요, 폐휴대전화. 지구가 아프지 않게.
- 우리에게 버리세요, 꼭꼭 숨어 있는 폐휴대전화. 환경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당신의 오랜 친구 폐휴대전화. 한데 모아 다시 쓰면 유용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 관심만 있다면 쓰레기(쓰레기)도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잠자는 폐휴대전화, 다시 써서 깨끗한 세상 만들어요.
- 버리면 해로운 쓰레기가 되지만, 모으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요. 폐휴대전화 수거에 동참하세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머하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 한 이 많건만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A]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鷄)를 못내 거위 소리마다 고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나.

- 정국인, 「상춘곡(賞春曲)」-

-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甕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췌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鵠)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골쏘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훌들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싣근·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래라

귀일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B]

- 김광옥, 「울리유곡(栗里遺曲)」-

-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재후 또는 세도가.
- * 헛글고 싣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다)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가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맞으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퉈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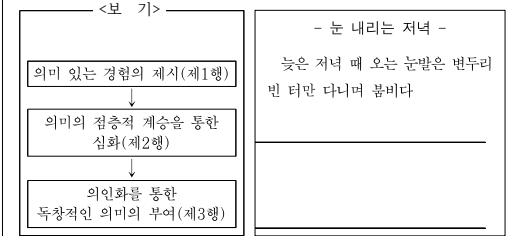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랴?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나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백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랴야 비로소 흠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볼거리에도 구속되어 큰 볼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

- [A]와 [B]에서 봄은 모두 인간의 유행성을 상징한다.
- [A]는 [B]와 달리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B]는 [A]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A]의 봄은 흥겨움을, [B]의 봄은 서글픔을 불러일으킨다.
-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B]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봄을 묘사하고 있다.

4. <보기>의 전개 과정에 따라 시를 완성하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03)



- 늦은 저녁, 내리는 눈발은 짐으로 가는 사람들 등 뒤에만 봄비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을 감싸는 저 따뜻한 손길
- 으스름 저녁, 눈 내리는 공터에 작은 나비들만 나폴거려다 발끝에 어리는 천학 간 친구 얼굴
- 으스름 저녁, 인적 없는 운동장에 지친 바람만 서성이다 늦은 하룻길 기다리다 어루만지는 엄마의 마음
- 늦은 저녁 때 동네 골목 어귀로 흘러가는 작은 걸음 저만치 앞서 걸어가는 내 초라한 그림자
- 물결치는 어깨 위로 소복이 내리는 달빛 그 걸음으로 문득 다가와 손 내미는, 내 손 시린 사랑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제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디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뉘든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봉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緜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2013학년도 수능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맑거니와 호걸도 맑고 맑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맑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썼었는가*
 박 소리 쟁계하고* 조장(操杖)*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잠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어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청산별곡」-

- * 한기 : 책.
-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 기산의 ~ 썼었는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썼었다는 고사.
- * 박 소리 쟁계하고 :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쟁계하고.
- * 조장 : 기계 있는 풍행.
- * 풍입송 : 악곡 이름.
-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6.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화자는 '손'의 말을 빌려 '주인'을 '진선'에 비유하며 '주인'의 흥취 있는 삶을 흠모하고 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너의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꺾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일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싶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 회화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락계구, 「은행나무」-

* 도롱이집 : 도롱이나방의 집.

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빛나는 눈썹',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은 은행나무 잎을 비유한 것이다.

2005학년도 수능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드림전 장들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이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 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움 강산이 그대로 그에겐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달 동안이나 뚜벅뚜벅 걸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 건만 허 생원은 번치 않고 언제나 가슴이 뛰놀았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증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끊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들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투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엄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때고 되풀이할 ㉤ 때로는 되풀이하고자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 이지러는 겹으나 보름을 가계 지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호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관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

있 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 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가로 흘러간다. 앞장 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풍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B]

(라)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짓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 아까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못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뉘 핏기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나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철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관은 소문에 발근 뒤집혀 고작하여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관을 몇 번이나 뒤졌잖나. 하나 처녀의 풀은 꿩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마) “수 좋았지. 그렇게 시똥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들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까지 장들행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걸리란 여간이래야지.”

㉢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걸고 저 달 볼 데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띄어졌다. 풍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8. <보기>에 따라 ‘이효석 문학제’를 알리는 초청장을 만들려고 한다. 문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A]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그것을 작가의 작품 세계가 지닌 특징을 드러내는 데 활용한다.
-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인다.

- ① 역사와 전통 위에 지은 터전, 이효석 문학 마을로 오세요.
- ② 지친 현대인에게 소박한 농촌의 맛과 인심을 돌려드립니다.
- ③ 이효석, 그 서정과 낭만으로 빛은 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④ 서도(西道)의 애수와 가락이 있는 계절, 당신의 의자를 비워 두었습니다.
- ⑤ 우리들의 잃어버린 고향, 다시 못 갈 그 서러운 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개념 완성

2권

미시적 분석

- 문학편

(8.23) -

정음사관학원

강사 : 유대종

<16. 영탄적 어조>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강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잃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왈차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뒀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질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붉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라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두운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④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낸다.

2005학년도 수능

☆ 고전 시가 + 수필

[37~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늘이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잎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
 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엿저녁 마시다 남은 머무술을 들이키고 나니 세삼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어
 켜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
 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
 (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
 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멋’이
 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
 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
 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
 슌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변뇌(顛腦)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

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
 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
 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죽히 목숨을 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던이 있고 발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냐. 이
 는 구태어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리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

- 조지훈, 「멋 설(說)」-

* 유위전변(有爲轉變) : 세상사가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이
 르는 말.

** 방우자(放牛子) : 글쓴이의 아호(雅號).

2. 밑글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① 영탄적인 어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2006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킨*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람 풍설(風雪) 소리에 잠작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삼킨:살긴. 물에 삶아 우려냄.

** 덩그럭 불: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작하다: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책력:달력.

(나)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숲
 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
 살은 내려오고, 등 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님잇 골 골짜기서 울
 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었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불이 고
 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
 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피어 울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와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
 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
 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
 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멀쩡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3.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010학년도 수능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짙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축(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뻐히 접어 올린 외씨보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은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A] 이 밤사 귀뜨로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든·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체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흰색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B] 불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뱀꼭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댜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철쭉꽃발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뱀꼭새」-

* 길론 : 길이 달 든.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4.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17. 원경, 근경, 시선의 이동>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A]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거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소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살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찾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빛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리리.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소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홀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싣근·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B]**
- 김광욱, 「율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싣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1.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B]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봄을 묘사 하고 있다.

2004학년도 수능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千山鳥飛絕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萬徑人蹤滅
외로운 배 안의 도룡이 입을 늙은이 孤舟蓑笠翁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엔 눈만 내리고 獨釣寒江雪
- 유종원, 강설(江雪) -

2.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산 → 길 → 배 → 낚시질’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2004학년도 수능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저 중천(居之中天)에 높

이 떠서 두 나래 흰선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같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巖巖), 태산(泰山)은 추층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흉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팔팔.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3. 뒷글의 전개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가고 있다.

2006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혼흔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 삼긴: 삼긴, 물에 삶아 우려냄.
** 덩그럭 불: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몰하게 쓰다.
**** 책력: 달력.

(나)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숲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등 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어트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빠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볼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피어 올 맑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충충충 달려도 와 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하나둘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빠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

(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들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글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빛 솟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4.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18. 표면화된 화자>

2006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손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작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 삼긴:삶긴. 물에 삶아 우려냄.

** 덩그럭 불: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작하다: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책력:달력.

(나)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슬
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
살은 내려오고, 동 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울
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었드려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불이 고
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
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퉁어 울 맑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
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
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
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

(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㉓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2006 6월 모의평가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나)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 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복어들,
복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썸이다.
한 썸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번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썸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복어들의 뺨뺨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복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복어(北魚)」 -

(다) 흠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길승의 우는 소릴 불려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구비 꿰어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2.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 시인의 생각을 드러
내고 있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흠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
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받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늙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3. 밑줄친 소용 구조와 표현에 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
하시오.

① '나는 나룻배'에서 보듯이 이 시의 화자는 '나'야. 이럴 경우
'나는'는 시인의 분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

2013학년도 수능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벗님네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쩌리

<제1수>

어허 이 미친 사람이 날마다 흥동(興動)*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이고
우리는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2수>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복건 망혜(.巾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세 유전(後世流傳)하리라
<제3수>

우리도 같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창 닫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4수>

벗이아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라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제5수>

- 권섭, .독자왕유희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

- * 흥동 : 흥에 겨워 다님.
- * 승유편 :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
- * 양신 미경 :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보 기>

.독자왕유희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는 작자가 문관(文官) 등과 남산에 놀이 가기로 약속했으나 그들이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혼자 가게 된 경위와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제1수부터 제5수까지 '작자-문관- 작자- 또 다른 인물- 작자' 순으로 인물이 달리 등장하고 있다. 회곡에서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각각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장적 시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제1수에서 제5수까지 화자를 바꿔 가며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9. 제목 고려>

2006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흠뻑새 혼흔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 삼긴:살긴. 물에 삶아 우려냄.
- ** 덩그럭 불: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 잠착하다: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 책력:달력.

1. <보기>와 같이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보 기>

-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이제 몇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옥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음.
-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항암제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엔 잎사귀를 깔려 닳아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반(半) 상록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 있음.
-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 무시호 : 아무 때나.
-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
 - 어미지 : ……
 - 특이한 표현 : ……

㉠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다.

2011학년도 수능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화상(自畫像)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畵)』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남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풍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뇌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3. <보기>는 윗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보 기>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백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 (『육사 시집』 발문)

㉠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2001학년도 수능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의 줄거리> 정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전쟁 통에 우리 집에 피난와 있던 외할머니는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다. 외할머니는 건지산에 있는 빨치산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노발대발한다. 삼촌이 빨치산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진 나는 삼촌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말하게 되고, 아버지의 큰 고초를 치른다. 이로 인해 나는 친할머니의 분노를 사 큰방 출입

이 금지된다. 친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잔치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녀가 되어도 삼촌은 오지 않는다. 그 때 난데없이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 온다. 친할머니는 졸도를 한다.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現身)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때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구렁이에 게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섞이! 섞이!”
외할머니의 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년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혀서 먼 곁을 쉰안히 가소. 뒷일은 아모 염려 말고 그저 쉰안히 가소. 증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히 돌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구네 아버지께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이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다?”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였다. 고모가 맞닿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간혹 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는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 방울이 훑쪽한 불고랑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 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 전에 할머니하고 한다래끼*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무뚝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짝 메었다.

“사분*도 벌시런 말썹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어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헌 일을 다 치르노라고 열매나 수고 시렸오요.”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썹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뽕이나 잘 추시리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 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없이 잘 가거나 했는지 몰라라우.”
“염려 마시랑개요. 지긋쯤 어디 가서 쉰안히 거처헿시나 사분택 터주 노릇을 푹푹히 하고 있을 것이요.”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도 대번에 기운이 까라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완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방을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땀술갈 흘려 넣은 마음과 땅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 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 내는 고역을 치러 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 버린 촛불이 스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짝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떠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으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남살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 * 한다래끼: 큰 싸움
- * 사분: 사부인(姪夫人)의 속음. 사돈택
- * 야한티서: 애한테서

— 윤홍길, 「장마」

4.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인 ㉠에 대한 반응들이다. 밑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품의 제목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같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저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쩐지 마음이 조금 흐뭇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났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껄었다.

“저것 봐, 저기 저기, 예에이, 모두 잠만 자구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지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해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곤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었이야이.”

“……”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이. 너두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이.”

하고는 해죽이 웃었다.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러안으면서,
“칠성아, 야하, 흠씩은 좋다.”

“……”

“저 말이다,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었야이, 잉. 야,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이야이.”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별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네.”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로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예에이, 이젠 좀 그만 걷지 달,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훌끔 걸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깥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다이,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췌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하니. 내가 집에 갈 땐 나누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그러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고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뽕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췌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흐흐흐.”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름거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리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낫새이었다. 돌래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훌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게 짓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구 글지 마라, 어영?”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꼭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술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건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메칠을 더 살겠다구 벵데? 벵데대길.”

— 이호철, 「나상(裸像)」-

5. <보기>를 참조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보 기>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실감 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이 작품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① 이 작품의 제목은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20. 낫설게 하기>

2009 9월 모의평가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백무선 :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산을 잇는 철도

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과랴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추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뒷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푸르주 지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남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라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잊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려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대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때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려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대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풀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네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다]
얕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벗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받마다 꿈에 뵈니 꿈을 물너 상시(常時)과저²⁾
학발자안(鶴髮慈顏)³⁾ 못 버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⁴⁾ 잦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윤가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⁵⁾ 뉘 해우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르고

— 이광명, <북찬가(北嶺歌)>

[¹⁾어휘풀이] 1)영 : 고개. 2)꿈을 물너 상시고저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3)학발자안 : 머리가 허얇게 선 지대로은 얼굴. 어머니를 가리킨. 4)안족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 달아 보낸 편지. 5)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2.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2012학년도 수능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동리 사람들, 들것에 부조 송장을 태워 들어온다. 물이 푹푹 떨어진다. 복실과 분 어머니, 의아하여 잠시 보고 있더니 달려들어 묵놓고 온다. 동리 사람들, 소리를 낮춰 활활활씩 온다.

간(間)

치 (부엌에서 나오며) 왜들 우니?

분 어머니와 복실 어머니, 복조예요.

동리 사람 3 쇠뿌리로 배 내다가 보니 범바위 뜬에 켜습디다.

치 물에서 죽은 놈이 복조뿐인가? 어떻게 복조라고 장담해. (아무 관계없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간다.)
(노어부를 석이와 윤 철지가 양편에서 꼭 붙들고 들어온다.)

노어부 낚. 두고 볼 거 아니야.

윤 철지 참어. 참는 데 복이 있다네. 그제 참는 것이 제일이야. 참을 인(忍)자가 셋이면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

석이 (그제야 들것과 사람들을 보고) 누나, 이것이 작은형이요? (붙들고 윤 다.)

윤 철지 찾았으니 다행이군. (눈물을 씻는다.)

노어부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눈물을 닦으며 서러운 소리로 푹푹히) 몇 해 전에는 배도 서너 척 있었고, 그들도 동리에 뛰어나게 가졌으셨지. 배 팔고 그물 팔고 나머지는 뭐냐? 내 살림이밖에 없었어. 그것도 다— 못해서 다리 한쪽 뻗겼지.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윤 철지…….

윤 철지 …….

노어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두고 보고 말할 것이 인제는 하나도 없어. (별안간 부엌 뒤로 퇴장. 들어가더니 켈이를 들고 나온다. 뒤따라 치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부지깅이로 노어부의 머리를 후려 때린다. 노어부 쓰러진다.)

치 (켈이를 잡아 뺏으며) 이 켈이가 무슨 켈인 줄 알어?

노어부 (덜비리다가 치의 너무도 험악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려 복조를 붙들고 온다.)

치 내가 밝은 물 떠 놓고 수신께 빌었거든. 이것은 우리 복조 아니야.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전신을 과격하게 안 했을 거야. 지금쯤은 너구리집 동벽에 있는 시퍼런 깊은 물속에. 참 거기는 미역 냄배가 향기롭지. 그리고 백옥 같은 모래가 깔렸지. 거기서 팔다리 축—뿔고 눈감었을 거야. 나는 지금 눈에 완연히 보이는걸. 복조 배 위로 무지갯빛 같은 고기가 썩— 지나갔어. (눈앞에 보이는 환영을 물리치는 듯이 손으로 앞을 가리며) 눈감은 얼굴이 너무도 쓸쓸하군. 이렇—게 (시항을 하며) 원망스러운 얼굴이야. 말만스러운 얼굴이야. 다문 입이 너무도 쓸쓸해.

간(間), 울음소리
통창으로 가야지. 서남풍이 자고, 동풍이 불면 나를 만나러 울지도 몰라. 아니야 꼭 울 거야. 저녁물 아니면 내일 아침물 그도 아니면 모래 아침물. 산수자리를 글라 놓고 동쪽을 보고 기대려야지. (일 등을 보고 꺾 웃으며)땀 때문에 울어? (켈이를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

석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속이 타서 발을 구르며)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붙드세요. 얼른 얼른 아버지.

노어부 내 알 것 아니야.

석이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뒤따라 퇴장)
(덜리서 치의 웃는 소리 우는 소리 번갈아 들린다.)

노어부 (일어서며) 윤 철지, 북방산으로 가지.

복실 촛불 하나 안 키고 판도 없이 어쩔 가요?

분 어머니 사람 목숨이 이렇게도 쟁가. 뒤편에 검부라지 쓸어가듯 휩 쓸어 가면 고만이야.

윤 철지 장성한 사람을 그럴 수 있나.

분 어머니 (일어서며) 난 항구로 가겠다. 더 있었는데 가슴만 좋아지. 울며 웃으며 한세상 살다 그러저럭 죽을 때 되면 죽지. (언덕을 넘어 퇴장)

노어부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왜, 파부 수절하기가 싫은냐?

석이 (울면서 등장) 어머니가 갯가에서 켈이로 물을 파며 통곡을 하시다가는 별안간 허파가 끊어진 것처럼 웃으며 (복실의 가슴에 안겨) 누나야. 어머니는 한세상 참말 헛사했다. 왜 우리는 밤 낮 울고불고 살아야 한단든?

복실 (머리를 쓰다듬으며) 골목에 연기 한 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도 없었지.

석이 (울음 섞인 소리로, 그러나 한 마디 한 마디 푹푹히) 왜 그런지를 난 생각해 볼 테야. 긴긴 밤 갯가에서 조개 잠으며, 긴긴 낮 신장로 오는 길에 생각해 볼 테야.

복실 (바다를 보고) 인제 물결이 자는구나.

윤 철지 먼동이 뜨는군. (나가면서)

(노어부를 보고) 사람 삼키더니 물결이 얼음판 같어 졌지. 자네 한 잔 쪽— 들이키고 수염 닦는 듯이. 어서 초상 준비나 하게. 상엿집에 행하니 다녀올 테니.

— 막 —

— 함세덕, <산허구리>

3. 뒷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복실'은 행복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

(가) 내가 만난 이증섭 김춘수
광복동에서 만난 이증섭은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가 온다고 바다보다도 진한 빛갈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눈을 씻고 보아도 길 위에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 나는 또 남포동 어느 찻집에서 이증섭을 보았다.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 진한 어둠이 깔린 바다를 그는 한뼘 한뼘 지우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는 오지 않는다고,

(나)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서정주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만 먹오릿빛 뒷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뒷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은 물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뒷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열 뿔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뒷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유년 시절에 대한 향수가 드러나 있다.

건만 허 생원은 변치 않고 언젠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놓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야미타볼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겠다 했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제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다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때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꼭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치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계 지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쿵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 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풍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라)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집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던 말야네. 봉평에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덤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눈썹이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나 딸애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가야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짓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관은 소문에 발근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해 하단 말야. 제천 장관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풀은 평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마)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러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두벌두벌 걸리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 가지 이 길 견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띄어졌다. 풍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9. <보기>는 윗글을 읽고 ‘허 생원’에게 ‘봉평’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토론했던 내용이다. 적절한 의견으로 묶은 것은?

<보 기>

- ㄱ. 허 생원은 줄곧 봉평 인군을 돌아다니고 있어. 심지어 고향인 청주에도 가 보지 않은 것 같아. 허 생원에게 봉평은 마음의 구심점인 셈이지.
- ㄴ. 허 생원은 달밤이면 언제나 봉평에서 겪었던 무섭고도 기막힌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달밤의 분위기가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지. 봉평은 허 생원을 현실 너머로 이어 주는 상상의 통로야.
- ㄷ. 허 생원은 젊었을 때 모았던 돈을 투전으로 다 날리고 평생토록 가정보도 꾸리지 못했어. 허 생원에게 봉평은 젊은 시절의 잠깐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곳이지.
- ㄹ. 허 생원은 봉평에서 성 서방네 처녀와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을 맺었어. 허 생원에게 봉평은 가난하고 쓸쓸한 삶을 견디게 해 주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006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킨* 물이 나리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 * 삼킨:삼긴. 물에 삶아 우려냄.
- ** 덩그럭 불: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 잠착하다: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몰하게 쓰다.
- **** 책력:달력.

10. <보기>와 같이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1.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일제 말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옥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옥에 살고 있었음.
2.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항암제로도 쓰이는 인동의 증기(蒸氣) 일사(逸息)를 깔려 덮여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반(半) 상륙(上陸) 국성(國性). 인동에는 ‘겨울을 참고 견디다’는 뜻이 있음.
3.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 위장(胃) 같은 내장의 벽.
 - 무시로 : 아무 때나.
4.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
 - 이미지 : ……
 - 특이한 표현 : ……

④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

아가는 도희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22. 대화체, 말 건네는 방식, 의인화된 청자>

2006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슬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동 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껏 골 골짜기 서 울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얼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 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린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띄어 올 맑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

1. 윗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보 기>

원시 시대의 인간은 주술적(呪術的) 언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였다. 박두진의 「청산도」에는 이러한 주술적 언어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어를 반복·변용하는 것, 유성상징어를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대화체, 말내내는 어투 : 청자가 명시적-암시적으로 존재하거나, 존댓말!>
<말을 건네더라도 청자가 부재중이라면, 독백적 어조가 가능하다.>

(나)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이었을래.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뜨락의, 물 냄세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여러 올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잔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래.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 빛 입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 -

(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내 다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2. (가)와 (나)에 나타난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① 대화체를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2013 6월 모의평가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처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뺐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뉘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다) 동풍이 건똥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득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 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득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뎠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추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누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이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거러기 울어 열 제 위루(危樓)에 혼자올라 수정림(水晶簾) 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비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켜어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공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쓰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 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 이얏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러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썰 꼬.

- 정철, 「사미인곡」-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3.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동풍이 건똥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득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 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득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뎠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추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누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이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거러기 울어 열 제 위루(危樓)에 혼자올라 수정림(水晶簾) 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비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켜어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공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쓰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 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 이얏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러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썰 꼬.

- 정철, 「사미인곡」-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4.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이해할 때,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보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의 그리워 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귀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뱃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했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너 산(山) 깊은 금담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섬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女僧)」-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동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울려다봅니다
 중앙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문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건지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지,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다) 어머니,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승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기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별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풀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줄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풀어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어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후환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얼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5.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㉔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인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수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잡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풍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동」-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들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데
 이 유편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6.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천심절벽(千尋絕壁) 첫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A]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곡>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白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곡>

- 권구, 「명산육곡(屏山六曲)」

- * 어조 생애 :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생활.
- * 백조 : 모든 새.
- * 내곳 : 내가.

7. [A]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㉔ [A]의 증상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
 이 고요히 흘러나온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
 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교수 (한참 있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야.
 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일어서며)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회
 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천사 귀코리만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군요.
 교수 언제 어떻게 해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
 이 납니다. 밤을 새우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
 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천사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
 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너무 늦었어
 요.

교수 내 꿈을 도로 찾아 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사고(思考)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事故)가 난
 걸요.

교수 이 합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어둠 속
 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감독관 (회초리를 흔들며) 원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러한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잠
 시 후 새 소리, 닭 우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아침이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돼서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
 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장녀 (관객들에게)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아버지는 연구하시다가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
 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점을 이
 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이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 게 제
 가 대신 왔습니다. 아시겠지요. 아버지가 밤늦도 록 수고
 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 드립니다. (교수
 를 깨운다) 아버지. (교수, 눈을 비비며 머리를 든다.) 아
 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 드리겠어요.

교수 (하품을 하며) 그래, 읽어다오.

장녀 (신문을 읽는다.) 비가 많이 왔어요. 강원도 쪽의 눈
 이 굉장한 모양이에요. 또 살인입니다.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에비를 죽였대요.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지프차는 도
 망가 버리구. 이것 봐요. 아버지 ‘개성을 잃은 노동
 자’ 라는 번역 책이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요. 이책
 가 또 당선됐습니다.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

근요. 끔찍도 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대요. @

교수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도 많아라.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야 어디 살 수 있겠니.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중이는 뭐냐?

장녀 이거요?

영자 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

장녀 뭘 번역을 하세요?

교수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그대로 번역을 한다.

장녀 아버지두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예요.

교수 (신문을 보더니) 그렇군! 난 영어길래 곧 번역하려고 했지.

시계가 여덟 번을 친다. 교수는 무었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소파 쪽으로 가 철쇄를 바꾸어 맨다.

- 이근삼, 「원고지」 -

8. 윗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장녀가 판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흠뻑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날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9. 윗글의 소통 구조와 표현에 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청자도 비교적 명확해. '당신은 행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현재 화자

앞에 청자가 없으니까 이 시는 독백이라고 봐야 할 거야.

(가)

가난한 사랑 노래
-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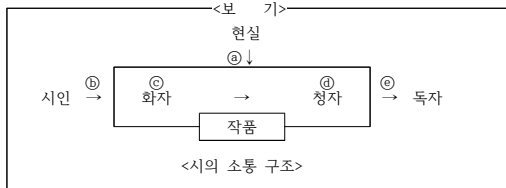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넘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불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10. 부제(副題)를 붙여 얻게 되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윗글을 <보기>의 각 요소에 관련지어 설명했다.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④: '너'를 구체적인 청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화자의 독백이라는 느낌을 준다.

(가)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만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갈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빌세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려라 꽃아. 문 열려라 꽃아.
벼락과 헤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려라 꽃아. 문 열려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때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婆蘇) 단장」 -

(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타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있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를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께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셀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이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이

-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

(다) 사립을 짓혀 쓰고 망해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었으니,
만경창과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남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鵠),
내 뉘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분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곱던 입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없기를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흙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랴.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음을 깔으려니,
값을 범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閔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 안조원, 「만민사」 -

* 조대: 낚시를 하는 곳.

*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 한민: 한가로운 백성.

1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가)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빛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빛도 헤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던
억만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데!'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데!' 허나
앞뒤로 담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랴
마음 날 네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

(나) 지상(地上)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칸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叟)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엃둥아 귀엃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짚을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 박목월, 가정(家庭) -

12.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㉓ (가)는 대화를 인용하고 있고,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몰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긴—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잡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잠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동」 -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13.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23. 긍정적 - 부정적>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아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허무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해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김수영은 한때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고, 오규원은 ‘순례’ 연작사에서 생성과 변화를 중시하면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하려고 했다. 오규원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은 위대성에 주목하면서 대상의 숭고한 면이나 뛰어난 점을 발견하려 했고, 오규원은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와 몸의 이미지를 포착하려 했다.

㉓ (가)의 ‘소리’와 (나)의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거울 보리 파랑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글 상엿길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걸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들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쪽의 땀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뒷밭의 허물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진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걸 뿌려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멀그럭덜그럭.

- 박재규,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용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종태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빗길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때
비들발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종태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냐

끓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게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2. (가)와 (나)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
하십시오.

㉓ (가)의 '강물 소리'와 (나)의 '노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
를 드러낸다.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왈차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㉑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담 모를 굵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두운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3. 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㉑ ㉑ :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2013학년도 수능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늪은 고를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불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나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瑶臺月下)*에 행어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 한기 : 책.
-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 기산의 ~ 씻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씻었다는 고사.
- * 박 소리 핑계하고 :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 * 조장 : 기게 있는 품행.
- * 풍입송 : 악곡 이름.
-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4.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㉓ 고사를 들어 '고불'의 '조장'이 높다고 하면서 화자는 세상에
초연했던 '고불'의 인생관을 긍정하고 있다.

(가)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향구로 가는 콩실이에 늪은 등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용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 이 뇌이기 진

노루 뱃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름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물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중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더의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핏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테몬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늪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쫓았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짓두광주리 : '반질고리'의 방언.
** 글거리 : '그루터기'의 방언.

(나) 너의 노오란 우산길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늪은 러시아 문화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잎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만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길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락재구, 「은행나무」-

* 도롱이집 : 도롱이나방의 집.

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㉑ (나)는 (가)와 달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드러나 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향구로 가는 콩실이에 늪은 등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용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㉑ 찾길 이 뇌이기 진

노루 뱃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름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 권섭, 「독자왕유희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

- * 흥동 : 흥에 겨워 다님.
- * 승유편 :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
- * 양신 미경 :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나)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옷을 훨훨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레아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길터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 하지마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 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술임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가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 하는 갑남을녀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집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 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있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이양하, 「신록 예찬」-

- * 문법 : 문법 강의 시간.
- * 영일 : 일이 없이 평화스러움.

10. (가)와 (나)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㉓ 시간적 배경에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2006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슬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등 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쫓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어트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었드려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 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띄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발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들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글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11. (나)의 ㉠와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 현실의 모순을 심화하는 존재이고, ㉡는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는 존재이다.

<25. 방황, 일탈>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는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절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봉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볼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뜰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울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볼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했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2006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슬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등 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쫓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어트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었드려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 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띄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발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나)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들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글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13. (가)의 ㉠와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는 화자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준 존재이고, ㉢는 화자의 방황을 유발하는 존재이다.

2008 6월 모의평가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슴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①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애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끔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회개,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②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을 치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율동주, 「길」 -

14.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①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1

<26. 음성 상징어>

(가)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증들 개들이 시골짜하게 찾아댄다
이 개 짓으니 저 개도 찾아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찾아댄다
이런 개 짓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A]
공발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뎀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법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버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짓는 소리 뜰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나)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은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B]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를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볼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울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
㉠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갈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과랑개 꽃핀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낚고 왔는데
썩골 상앗집 흰 눈 속을 넘을 때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똥**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객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종태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종태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꿈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랴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2.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 (가)는 (나)와 달리 의성어의 변화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2006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②동 동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
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
서 울어 오는
뿌리구…….

③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었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④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
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
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별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
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떠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⑤불이 고운 나의 사람.

②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빠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3. 밑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보 기>

원시 시대의 인간은 주술적(呪術的) 언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였다. 박두진의 「청산도」에는 이러한 주술적 언어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어를 반복·변용하는 것,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13 6월 모의평가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교묘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처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았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닢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던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은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해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 세 가지 피었어라. 가뭇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쫘아 베개 밑에 비치니 호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 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걸어 놓고 공작(孔雀)을 돌려 두니 가뭇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우어서 임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계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누리러 찾아갈고.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열 계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견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비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공곡(深山窮谷) 한낱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세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쳐(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차마 비친 해를 옥투에 울리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푹푹 이앉아 청등 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러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사 이 밤은 언제 썰꼬.

- 정철, 「사미인곡」-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4.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5. 일상 생활의 소재를 활용하여 쓴 짧은 글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보 기>

- 선택된 제재를 1인칭 서술자로 설정한다.
- **적절한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한다.**
-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 ① 지우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고통이 따르지만, 내 실수와 잘못을 덮어 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② 수건: 햇빛이 나의 온몸에 스며든다. 바람이 불어 산들산들 흔들린다. 싱그러운 초여름의 기운을 맛보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③ 비누: 흐르는 물에 몸을 적신다. 부글부글 거품이 되어 누군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살아가지만, 정작 작아져 가는 나를 돌아보지 못한다.
 ④ 분필: 오늘도 어제와 같이 칠판 위에 나의 흔적을 남긴다. 때로는 딱딱 깨지고 부서지는 아픔도 있지만, 앞의 기쁨을 전해 주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⑤ 축구공: 드넓은 데지에서 뛰고 달리고 구르고 있다. 데굴데굴 굴러서 그룹에 가 닿으면, 나를 보고 외치는 환호성에 들뜨면 서도 다른 쪽의 따가운 시선에 부담을 느낀다.

2005 9월 모의평가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찰찰하신* 노(老)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손아(孫兒)**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만은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 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 별별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르누르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뭇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 하였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였다.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었다.

“그저 하늘 물이라야…… 억조창생(億兆蒼生)이 다 비를 맞

아야…….”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랗게 뜬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맣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렸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원래 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태를 두르고 겹가지 셋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사춘 나무도 되고 오충으로 된 나무도 있다. 장미는 흉에문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회한해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재공(才功)을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춘 나무 오충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一顧之惠)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필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뺨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이어서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자연은 신이다. 이를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조각,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 이태준, 화단(花壇) -

- * 찰찰하다: 지나치게 꼼꼼하고 자세하다.
- ** 손아(孫兒): 손주를 일컫는 말.
- *** 별별: 식물의 가지 따위가 옆으로 벌어진 모양.
- **** 채반(盃): 접점을 벗긴 찻甌개비나 버들가지 따위를 엮어 만든 바구니.

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의태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7. <보기>는 웃음 상징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의 특징을 모두 가진 것은?

<보기>

웃음 상징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그것이 모양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 소리를 동반하느냐이다. 웃음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웃음 상징어에는 소리만 주목하는 것, ㉡ 입을 주목하는 것, 입과 눈을 함께 주목하는 것 등이 있다. 이 밖에 웃는 모양이나 소리의 크고 분명한 정도, 연속성(連續性) 또는 ㉢ 일회성(一回性) 여부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 ① 피식 ② 실실 ③ 까르르 ④ 빙그레 ⑤ 하하하

<27. 여운>

2006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1. 윗글의 특징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고 한다. 창작 구상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③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여운을 준다.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때 왠지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시봉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붉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④ 고향을 떠나올 때의 장면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작 여운을 남기고 있다.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정미가 계속되고 있었다. 전쟁 중에 우리 집에 피난과 있던 외할머니는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다. 외할머니는 건치산에 있는 빨치산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노담대발한다. 삼촌이 빨치산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진 나는 삼촌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말하게 되고, 아버지는 큰 고초를 치른다. 이로 인해 나는 친할머니의 분노를 사 큰방 출입이 금지된다. 친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잔치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도 삼촌은 오지 않는다. 그 때 난데없이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친할머니는 졸도를 한다.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現身)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때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구렁이에게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쉬이! 쉬어이!”
외할머니의 권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뺏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랄 성혀서 먼 걸음 쉼안히 가쇼. 뒷일은 아모 염려 말고 그저 쉼안히 가쇼. 중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히 돌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구네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이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나?”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였다. 고모가 말뚝을 제뿔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간혹 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 방울이 훑쪽한 불고랑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 전에 할머니하고 한다래끼* 단단히 별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미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짝 메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은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애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허야 헐 일을 사분이 대신 맡었구라. 그 험헌 일을 다 치르노라고 열매나 수고 시었요.”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네그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어서 뵈이나 잘 추시리구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라.”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 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달없이 잘 가기가 험는지 몰라라우.”
“연려 마시랑개요. 지금쯤 어디 가서 쉼안히 거처헐시나 사분데 터주 노릇을 푹푹히 하고 있을 것이요.”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도 대번에 기운이 까라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원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방을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땀순갈 흘러 넣은 마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 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 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 내는 고역을 치러 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

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 버린 촛불이 스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짝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① 정말 지루한 장미였다.

* 한다래끼: 큰 싸움
* 사분: 사부인(查夫人)의 속음. 사돈래
* 야한티서: 예한테서

- 윤홍길, 「장미」

3.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인 ㉠에 대한 반응들이다. 윗글의 내용으로 무어에 볼 때,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① 한 줄 띄어져 있어 여운을 남기는군.

4.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보기>의 의도를 잘 반영하여 표현한 것은?

<보기>

가. 개나리꽃이 핀 모습을 인간 현상에 비추어 표현한다.
나. 유추와 비유의 효과를 살린다.
다. 가치의 요소를 여운있게 드러낸다.

- ① 춤으로 치면 독무(獨舞)가 아니라 군무(群舞)이며, 운동으로 치면 화려함이 돋보이는 개인 경기가 아니라 일상불란한 짜임으로 이루어진 단체 경기이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전체를 빛낸다.

- ③ 매연에 찌든 도시에서도 조그마한 언덕배기라도 있으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모습이 대견하다. 공해를 이기는 강한 생명력은 나약(懦弱)한 현대인에게는 좋은 교훈이 된다.

- ④ 겨울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장 화려한 빛으로 피어서 인간에게 마침내 봄이 오고 있음을 가장 가까이서 알려 준다. 새 계절을 알리면서도 금세 지고 말아 늘 아쉽다.

- ⑤ 송이송이가 뜰어 보면 꾸밈이 없고 단출하여 달리 두드러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 빛깔도 혼자로는 요란하지 않지만, 무리지어 피면 백합이나 장미보다 눈부시다. 소박미의 극치라고나 할까?

2010 6월 모의평가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짝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敎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치게 보체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잠벌 날으듯 하여라.

- 정지용, 「발열(發熱)」

*박나비: 흰계비 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주사(朱砂) :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철자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얕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판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다투어 몰려오는 험한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험한 눈보라의 군단,
매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판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 최승호, 「대설주의보」

5. (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②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2008 9월 모의평가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일 진 사잇길 저 모
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
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쾡깍지, 쾡깍지처럼 후미진
외판집, 외판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슬도록 창문은 모파 빛
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판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
머지 무를 까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들
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치마깃에 나
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
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말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
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
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
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들은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月暈)」

* 월훈: 달무리.

6. 뒷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④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2006 6월 모의평가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조생당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나) 밤의 식료품 가게

캐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 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복어들,
복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꿩뿔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켤의 허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복어들의 뺨뺨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해업차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복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복어(北魚)」

(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렁울렁 때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택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구비 풀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7.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⑤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지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28. 문체>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에 가 봐야 노루 꼬리만큼 짧다는 겨울 해에 짐승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 둔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향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제분 공장 별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명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명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우울이 흩어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달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검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들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지면서 화차가 당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 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 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쫄쫄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끔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 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있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전빵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아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해안촌(海岸村) 혹은 중국인 거리라고도 불리어지는 우리 동네는 겨우내 북풍이 실어 나르는 탄가루로 그늘지고, 겨우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낮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짙수세미에 아궁이에서 끓여 낸 고운 재를 묻혀 번쩍 광이 날 만큼 대야를 닦았다. 아버지의 와이셔츠란을 따로 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바람을 들이지 않는 차양 안쪽 깊숙이 던 와이셔츠는 몇 번이고 다시 행구어 푸새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말할 놈의 탄가루들. 못 살 동네야.

할머니가 혀를 차면 나는 으레 나를 뒤엎발을 받았다.

광석천이라는 냇물에서는 말이다. 물론 난리가 나기 전 이북에 서지. 빨래를 하면 희다 못해 시퍼랬지. 어느 독(毒)이 그렇게 퍼렸겠니.

겨울방학이 끝나면 담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숙직실 부엌 바닥에 옷통을 벗겨 엮되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다. 귀 뒤, 목덜미, 발가락, 손톱 사이까지 탄가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왕소름이 돋은 등어리를 찹쌀찰떡 때리는 것으로 검사를 끝냈다. 우리는 킬킬대며 살비뽀이 푸르르 떨어지는 내의를 머리부터 뒤집어댔다.

봄이 되자 나는 3학년이 되었다. 오전반이었기 때문에 한낮인 거리를 치옥이와 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삼거리의 미장원을 지날 때 치옥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 회충약을 먹는 날이니 아침을 굶고 와야 해요. 선생의 지시대로 치옥이도 나도 빈속이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닌을 먹었기 때문일까, 해인초 끓이는 냄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차마 밀어서 킬킬이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길의 양켄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드문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체가 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제일 큰 극장이었다.

조명완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회계 회칠이 된 한쪽 벽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옥이가 소곤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곡갱이의 첫 날을 났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회고 거대한 벽은 평음으로 주저앉으리라.

한쪽에서는 이미 헐어 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들과 철근을 발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쑥밭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치옥이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 내어 몇 번이고 쑥밭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집을 지어 빈터를 다스렸다. 반 자 큰 드럼통마다 조개탄을 듬뿍 써서 해인초를 끓였다.

치옥이와 나는 자주 멈춰 서서 적적 짐을 뺐어 냈다.

회충이 약을 먹고 지랄하나 봐.

아냐. 회충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도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쫄히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치옥이는 내 어깨에 엮어진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눈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초 냄새, 내가 이시(市)와 나눈 최초의 약속였으며 공간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1. [A]를 <보기>와 같이 바꿔 썼을 때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실중

<보 기>

지금도 나는 가끔 그곳. 제분 공장의 마당을 떠올리곤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높디란 굴뚝이 있는 제분 공장. 펼쳐진 명석에는 늘 널 진조된 밀이 있었지요. 나이 많은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우리는 마당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명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털어 넣은 밀알……. 밀 알은 울음이 흘러지고,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곤 했지요. 딱딱한 껍질이, 달고 따뜻한 침에 녹아, 속살을 풀 때……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던 밀알들. 우리의 무로함을 달래 주던…… 밀알이 제법 고추질의 짙긴 맛을 낼 때쯤, 우리는 철로에 달곤 했습니다.

- ① 회고조의 목소리가 두드러져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잘 드러낸다.
- ② 중심 제재를 더 자세히 묘사하여 독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준다.
- ③ 호응을 느끼게 하여 과거의 경험을 음미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 ④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독자가 장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⑤ 친밀한 느낌을 주는 말투를 써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좁혀 준다.

2004학년도 수능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심생(沈生)은 서울의 양반이다.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風情)이 넘쳤다.

어느 날 운종가(雲從街)*에 나가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긴장한 여종이 자주색 명주(明紬) 보자기로 한 처녀를 덮어줘워 등에 업고, 머리를 땀은 여종은 주홍색 비단신을 들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림짐작으로 보자기 안의 몸을 재어 보니 어린 여자 아이는 아니었다. 드디어 심생은 바짝 붙어 뒤를 쫓았다.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면서 눈을 한순간도 그 보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길음이 소광동교(小廣通橋)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색 보자기를 반이나 들추었다. 아나나 다를까 처녀가 나타나는데 복숭아 빛 발그레한 뺨에 버들가지 같은 가는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분이 몹시 고와 실려 보아도 절색이었다.

처녀도 보자기 속에서 어뭇뭇하게 이롭다운 소년이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草笠)을 쓰고, 좌우 이쪽저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추파(秋波)를 들어 보자기 밖의 소

년을 한참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걷히고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네 개가 부딪쳤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러워기도 했다. 보자기를 당겨 다시 덮어쓰고 자리를 떴다.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지겠는가! 곧장 뒤를 쫓아갔다. 소공주동(小公主洞)* 홍살문 안에 이르러 처녀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심생은 망연자실하여 한참을 배회하다가 이윽 노파를 붙들고 자세히 알아보았다. 늙어서 은퇴한 호조(戶曹) 계사(計士)*의 집이요, 말 하나만을 두었고, 나이는 열 예닐곱이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등등. 처녀가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노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희철한 담이 하나 나올 거요. 담 안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로 처자(處子)가 거처하는 곳 이라유.”

노파의 말을 듣고 난 심생은 아무리 해도 잊을 수가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집마다 거짖말을 꾸며 댔다.

“서당 친구가 저랑 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니 오늘 밤부터가 불개요.”

드디어 인정(人定)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서 담을 넘었다. 초승달이 어스름 빛을 드리운 창밖에는 꽃과 나무들이 제법 아담하게 가꾸어져 있고,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은 아주 완하였다. 벽에 등을 대고 처마 밑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여종 둘이 함께 있었다. 처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는데 피꼬리 새끼가 우는 듯 낭랑하게 들려왔다.

삼경(三更) 무렵, 여종들은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처녀는 그제야 “혹!” 등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거렸다. 심생은 잠이 들 리도 없었고 숨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새벽중이 울릴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담을 타고 나왔다.

그로부터 일파로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가 치면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한 지 스무날이 되었어도 심생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처녀는 처음에는 소설도 읽고 바느질도 하며, 한밤에 등불이 꺼지면 잠도 잤으나,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 예니레를 넘기자 “몸이 편치 않다.” 라고 말하고 겨우 초경(初更)인데도 배개를 베고 누워서 자는 자주 손을 던져 벽을 쳤고, 긴 한숨 짧은 탄식이 창을 넘어 들려왔다.

하루하루 밤을 보낼 적마다 심해지던 스무날째 저녁, 처녀는 훌쩍히 마루 뒤쪽으로 나와서 벽을 따라 돌아 심생이 앉아 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처녀를 잡았다. 처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은 소광동교에서 만났던 분이 맞지요? 소녀는 도련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지 벌써 스무날인 것을 잘 알아요. 저를 잡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지만 하면 다시는 여기를 나가지 못해요.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요.”

“도련님은 소광동교에서 만났던 분이 맞지요? 소녀는 도련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지 벌써 스무날인 것을 잘 알아요. 저를 잡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지만 하면 다시는 여기를 나가지 못해요.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요.”

여종이 안방으로 가더니 오래지 않아 자물쇠를 갖고 왔다. 처녀는 드디어 약속한 뒷문에도 문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걸고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되 일부터 “철거덕!” 거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바로 등잔불을 켰다. 정적에 쌓여 잠이 깊이 든 듯했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 이옥, 심생전(沈生傳) -

- * 운종가, 소광동교, 소공주동 : 서울의 지명.
- * 계사 : 회계원.

- 2. 밑줄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① 섬세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묘사가 돋보인다.
- ② 간결한 문장으로 장면을 빠르게 전환시켜 박진감을 준다.

2013학년도 수능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쉴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실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건데, 전차 밧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 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걸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꿨다.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 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뚝뚝하다’, 바로 별명 비듯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곱함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쫓으조각을 둘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것때때 아이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떴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옷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잠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 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께이나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나. 입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보 쓴 포복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육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한 각정이* 때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면,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줄장,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 도 가 볼 수 있고, ‘전차’ 도 탈 수 있고, 울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테려다 준다든 ‘승강기’ 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 깃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도,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 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 했으나, 어느 틈인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야.” 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딸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장난애조차, 잘 안 돌아 가는 혀끝을 놀리며,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뻔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껴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 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싹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야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짜소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 나 태워 주고, ‘화신상’ 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편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입바네스 : 남자용 외투의 일종.

* 각정이 : 거지.

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염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

<29. 방언>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바닥이 얼어붙고 먼 산에 눈발이 치고 그 해는 이른 겨울부터 몹시 추웠다. 그동안 숙부님은 몇 번이나 집에 다녀가시고 관광소 출입도 더러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황진사의 얼굴은 그 뒤로 비치 않았다. 다만, 삼촌을 통해 그의 시골이 충청도 어디란 것과 그의 문벌이 놀라운 양반이란 것과, 그의 조상에는 정승 판서 따위가 많이 났다는 것과, 그 자신도 현재 진사 구실을 한다는 것과, 그의 머릿속은 자기 가벌에 대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우순은 것은 그가 곧잘 진사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처음 관광소에서 어느 장난꾼이 농담 삼아 그에게 서전과 시전을 외게 하여 급제를 주고 진사라 부르기 시작한 것인데 그 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반 조롱으로 ‘황진사, 황진사’ 부르게 되니, 그러나 황진사 자신은 조금도 여색해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싸하게 여겨 요즘 와서는 아주 뽐내고 진사 행세를 한다 는 것이다.

어느 몹시 추운 날이었다. 아궁이에 불을 넣고 방구석에 숯불을 피우고 나는 온종일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낮이 짐짓했을 때 다. 밖에서,

“일 오나라 -.”

하는 소리가 마치 ‘사람 살리우’ 하는 소리같이 바깥결에 새어 들어왔다. 내가 보니 황진사가 연방 손으로 뿔을 닦고 서 있는 것이다. 나는 대채 얼어 죽지나 않았나 하고 궁금해 하던 차라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이 진정 반가웠다.

나는 곧 그를 나의 방에 안내한 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즉,

“거야 친구 집에서 지냈지요 뭐, ㅎㅎ…….”

하며 재미난 듯이 웃었다.

“아 참, 완장 선생은 여태 안 왔시우?”

“수차 다녀가셨지요.”

“아, 그렇거 나 여태 한 번도 못 뵈었으니 이거 죄송해서, ㅎㅎ…….”

그는 숯불을 안고 앉아 또 히히거리고 웃었다.

흰떡을 사다 숯불에 구워서 그에게 대접을 하고 나는 아까 하다 둔 일을 마저 해지울 양으로 잠깐 책상에 앉아 있으려니까, 그는 언 것과 구운 것을 가리지 않고 한참 부지런히 집어 먹더니 그동안 흥이 났는지 아주 목청을 뽐아서,

“관란저구(關關雉鳴)는 재하지주(在河之洲)로다. 요조속녀(窈窕淑女)는 군자호구(君子好逑)로다.”

하고 대문을 외곤 하였다.

나는 그동안 책상에 앉아 있느라고 모른 채하고 있었으니까,

“아, 성인께서도 실수가 있던 말야!”

그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아, 공자님께서 시전에 음군을 두셨거던!”

그는 무슨 큰 문제나 발견한 듯이 나 있는 쪽을 결눈질로 흘겨 보며 마구 기쁨을 뽐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 모른 채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화로 곁에서 일어서더니, 두두마기 자락을 뒤로 젖히고 저고리 셔를 위로 쳐들고 손을 넣어 무엇을 꺼내는 시늉을 하였다. 나는 속으로, 옷의 이를 잡아 내어 숯불에 넣으려는 겐가 하고 있는데 그는 또 한번 나 있는 쪽을 흘겨보고 나서 배에 두르고 있던 때문에 전대 하나를 꺼내었다. 전대 속에서는 네 귀가 다 이지러지고 종이 빛까지 우중충하게 묵은 모필 사책 한 권과, 백지로 써서 노끈으로 책장 감아 맨 솔잎 한 줍과 휴지 조각 몇 장이 나왔다.

“거 무슨 책이유?”

내가 이렇게 물은즉,

“아, 주역책이지 그라.”

하고 된소리를 질렀다. 과연 그 이지러진 네 귀마다 넓적넓적한 패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역책임에 틀림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주역책은 왜 하필 전대에 넣어서 두르고 다니느냐고 물은 즉,

“아, 공자님께서도 역은 삼천독을 하셨다는데 그라.”

하고, 된소리를 질러 놓고 나서, 다시 조용히 음성을 낮추어,

“아, 여복해 지략의 조종이요 조화의 근본 아니오.”

하였다.

나는 처음 관광소에서 그를 보았을 때부터 “하도 지모가 나지 않아 육욕을 뽐아 보았노라” 한 것을 들은 일이 있어서 그가 평소에 얼마나 이 ‘지략’ 과 ‘조화’ 를 부러 보고 싶어하는 위인인가를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이 언제나 몸에 지닌 솔잎 한줌과 네 귀 모지라진 주역 속에서 우러난 음양 오행의 지모 조화가 겨우 ‘쇠뿔 위에 개뿔 눈’ 흠가루 약과, 친구에게 책상을 들리우고 다니는 것쯤 인가고 생각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 나왔다.

저녁 때가 되어 그는 전대를 다시 배에 두르고 돌아왔다. 종종 오라고 한즉, 매양 신세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며 절을 몇 번이나 하였다.

그 해 겨울 그는 내가 성이 가시도록 자주 나를, 아니 내 삼촌을

찾아왔다. 그는 언제나 나를 볼 때마다 오랫동안 삼촌께 못 뵈어 죄송하다고 하였다.

그는 나에게 한시를 지어 달라면서 사오 차나 운자를 가지고 왔다. 어디 쓰느냐고 물으면 친구의 환갑 잔치에 대노라고 한다.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 참봉, 윤 승지, 무슨 참판. 어디 남작하고 모조리 서울서도 우수한 대가와 부자들의 이름만 꼽지만 거리에서 그가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나 가끔 친구라고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 그의 말과는 판관으로 황진사 자신보다 별로 유려한 축들도 아니었다.

좋은 규수가 있으니 장가를 들지 않겠느냐고, 그는 여러 차례 나를 졸랐다. ‘좋은 규수’가 어딴느냐고 물으면, 단번에 친구의 딸이라 하고, 어떤 친구냐고 하면 무슨 승지, 무슨 자작하는 예의 대가 집 따위들을 꼽았다. 색시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 매양 자기의 누르릉통하게 부은 얼굴을 가리키며 이렇게 아주 유복스럽게 생겼다고 한다. 내가 웃으며, 색시가 일제 선생 같아서야 좀 재미 적다고 하면,

“아, 일등 규수라는데 그라.”

하고 화를 내었다.

“그렇지만 너무 욕중해서야.”

하면,

“아, 거기 식욕이 들었는걸 그라. 아, 여복해 일등 규수라는데 그래도 못 믿어서 그라?”

하고 기를 쓰곤 하였다.

- 김동리, 화랑의 후에 -

I. **구술 면접 시험에서 윗글에 대해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대담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02)**

㉔ **사투리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전통적 가치를 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
—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날로 밤으로

왕귀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매든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나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등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기어 놓이기 전

노루 뱀돼지 족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깃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볼었으면 팔이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름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좋으며 자랐다
당나귀 물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중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야의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쫓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테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질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계절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린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 깃두광주리 : ‘반길고리’의 방언.

** 글거리 : ‘그루터기’의 방언 .

2. 뒷글에 대한 감상문을 쓰기 위해 <보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 발표 연도: 1938년
- 작가 소개: 이용악의 고향은 함경북도 경성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소금 장사를 하었는데, 아버지의 객사(客死)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야 했다. 어려서부터 궁핍한 생활을 했던 이용악은 일본 유학 시절에도 품팔이로 학비를 조달했다. 그러면서도 방학 때면 으레 귀국하여 동포들이 모여 사는 간도 등지를 돌며 유이민(流移民)의 비극적인 삶을 살펴보기도 했다.

㉤ 함경도에서의 공간 체험이 시에 방언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30. 비극적 분위기>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저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쩐지 마음이 조금 흐뭇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껓었다.
“저것 봐, 저기 저기, 예에이, 모두 잠만 자구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지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히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고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어야아이.”
“…….”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이. 너두 알잖나.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이.”
하고는 혜죽이 웃었다.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여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러안으면서,
“칠성아, 야하, 흠썩은 출다.”

“…….”

“저 말이야,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었어야, 잉. 야,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이야.”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불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예에이, 이젠 좀 그만 걸지 말,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훌끔 걸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깥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야,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별쪽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하니. 내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그러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고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별척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흐흐흐.”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매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름거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릴 지껓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낫색이었다. 돌래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훌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껓지 않았다.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리구 글지 마라, 어영?”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껓던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꺾하니 굼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견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메칠을 더 살겠다구 뼈득대? 뼈득대길.”

- 이호철, 「나상(裸像)」-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은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31. 속도>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임을 파한 후에 토끼 뒤에 따라가며 한 번 불러, “여보, 토생원(兔生員).” 토끼의 근본 성품 무겁지 못한 것이 겸하여 몸집도 작으니 온 산중이 멸시하여 누가 대접하겠느냐. 쥐와 여우, 다람쥐도 ‘토끼야, 토끼야.’ 아이 부르듯 이름 불러 어른대접 못 받다가 천만뜻밖 누가 와서 생원이라 존칭하니. 좋아 아주 못 견디어. “게 뉘랄게. 게 뉘랄게. 날 찾는 게 뉘랄게.” 요리 팔팔 조리 팔팔 깡장깡장 뛰어나니. 별주부(龜主簿)가 의문하여 토끼의 동정 보자 긴 목을 움드리고 가만히 앉았으니 토끼가 주부 보고 의심을 매우 하여, “이것이 무엇인고? 쇠뿔이 말랐는가. 이 산중에 무슨 술 깨어진 부등감*이 어찌 저리 묘하게 깨져. 애고. 이것 큰일났다. 사냥왔던 총(銃)장이기 질음슴** 끌러 놓고 똥 누러 갔나 보다. 바빠바빠 도망하자.”

주부가 생각한즉 그대로 두어서는 저리 방정맞은 것이 이리저리 한없이 내달리겠거든 또 한 번 크게 불러, “여보 토생원.” 토끼가 가다 듣고, “누가 나를 또 부르뇨?” 아장아장 도로 오며 주부를 바라보니, 아까 없던 목줄기가 돌담 틈에 배암같이 슬금 나오거든. 의심 나고 겁이 나서 멀찍이 서서 보며 문자(文字)로 수작 내어, “내가 이 산중에 생어사(生於斯) 장어사(長於斯) 유어사(遊於斯) 노어사(老於斯)하여 몇 해가 되었으며 오늘 처음 보는 터에 나를 어찌 알고 무엇 하러 불렀뇨?” 주부가 대답하되, “유봉(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어낙호(不亦樂乎)가 공자님 말씀인데. 어이 그리 무식하여 처음 본다 하시니 인사가 틀렸는데.”

토끼가 들어본즉 생긴 것과 말하는 게 만만히 볼 수 없거든. 옆에 와 썩 앉으며, “뉘라 하시요?” “예, 나는 수궁(水宮)에서 주부 벼슬하여 먹는 자라요.” “산수(山水)가 서로 다른데 산중은 어찌 왔소?” “우리 용왕 장한 가르침 팔친 리를 다스리니 하루에도 수

없이 몸소 일을 하옵는데 신하가 재주 없어 찬양하기 어렵기로. 용왕의 분부 모시어 임금 보좌할 인재를 구하기로. 천하 명산 다니다가 오늘날 모족(毛族) 모임 천만다행 만났기로. 자리를 다 보아도 임금 보필할 인물은 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선생 하나뿐이기로. 선생을 모셔 가지 뒤를 따라 왔사오니. 바라건대 선생은 나를 따라 가사이다.”

토끼가 제 인물이 하 감사한 말이어든, 제 소견에도 의심하여, “어떻기에 내 형용이 곰보다도 나를 테요? 범보다 나를 테요?” 주부가 대답하되, “곰의 몸이 비록 크나 눈이 작고 털이 덮여 태양 정기 부족하니 미련하여 못 쓸 테요, 범이 비록 용맹하나 코 짧고 즐기 없어 얼갈 가운데가 움푹하니 단명(短命)하여 못 쓸 테요, 몸이 작고 발이 빨라 산도 넘고 물도 뛰어 따라갈 이 없을 테니, 민첩한 저 구변(口辯)이 소진(蘇秦)의 합종(合縱)인지. 가끔가끔 조는 것이 공명(孔明)의 춘수(春睡)런지.*** 볼수록 모두, 짐승 중 제일이니, 우리 수궁 같사오면 출장입상, 부귀공명 따라갈 이 뉘 있을까?”

토끼가 들어 본즉 주부의 하는 말이 저 생긴 형용하고 낱말이 똑같거든. 가만히 생각한즉 형용은 무던하나 속에 글이 없었으니, 수궁에 글하는 이 있는지 알아야 할 테어든. 또 물어 “수궁의 조관(朝官) 중에 문장이 몇이 되오?” “문장 조관 있으려는 영덕전(靈德殿) 지을 적에 상량문을 못 지어서 인간 세상까지 나와 구했겠소?” 또 물어, “수궁에 월씩 키 큰 조관 있소?” “영덕전 상량할 제, 키 큰 조관 가리는데 내가 상량하였지요. 그리 큰 수궁에서 나만한 키도 없소. 선생이 들어가면 거인이 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라지요.”

토끼가 생각한즉, ‘너른 의사(意思) 좋은 구변 내 속에 흠뻑 들고, 글 잘하고 키 큰 조관 수궁에 없다 하니, 나 지닌 신언서판(身言書判) 놀릴 데가 없건마는 땅에 안주하여 옮기기 어려우니 이 형편에 썩 떠나기가 어렵구나.’

- 신재효, 토별가(兔臈歌) -

- 부등감 : 절그름 깨진 조각으로, 아궁이의 불을 담아낼 때 부삽 대신 쓰는 것.
- 질음승 : 화약의 심지
- 소진의 합종, 공명의 춘수 : 토기의 말쑤씨와 조는 모습을 각각 소진의 위엄과 제갈공명의 여유에 비긴 말.

1.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설화를 재록한 것이다. <보기>와 비교하여 윗글의 특징을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2)

<보 기>

- ① 수정 : 사건의 인과성을 드러내기 위해 장면을 전환시켰군.
- ② 종섭 : 설화에는 별로 없는 한문투 어구나 표현이 사용되었어.
- ③ 우성 : 서술자가 토끼의 심리 변화를 더 자세히 서술하였군.
- ④ 진화 : 설화보다 서술된 분량이 많지만 서사 진행의 속도는 느리군.
- ⑤ 현실 : 토끼와 자라의 대화가 훨씬 길어서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어.

· 채록 일시 : 2001년 ○월 ○일
 · 채록 장소 : 경기도 ○○군 ○○면 ○○리
 · 제보자 : 정○○(여, 75세)
 · 채록자 : 김○○

자라가 육지에 나와서 토끼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데, 한 짐승이 있길래 목을 집어넣고 발을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자 그 짐승이 와서 만져 보며, “이게 뭐냐? 쇠똥 같은데?” 하며 발로 툭 차 봤겠지. 자라는 그 짐승이 별로 해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목을 쪽 내밀고, “너는 뭐냐?” 하고 물었어. “나는 토끼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뭐냐?” 하고 되물었겠다. 자라는 “나는 용궁에 사는 자라인데, 이 세상에 토끼란 것이 재간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용궁에서 데려다가 귀한 벼슬을 주고 재미있는 세월을 보내게 하겠다고 나를 내보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용궁에 가지 않겠냐?” 하며, 이런 말 저런 말로 토끼를 꾀는 것이야. 토끼는 그 말을 듣고서 용궁에 가고픈 맘이 생겼지.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생(沈生)은 서울의 양반이다.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風情)이 넘쳤다.

어느 날 운종가(雲從街)에 나가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건장한 여종이 자주색 명주(明紬) 보자기로 한 처녀를 덮어줘줘 등에 업고, 머리를 땀은 여종은 주홍색 비단신을 들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림짐작으로 보자기 안의 몸을 재어 보니 어린 여자 아이는 아니었다. 드디어 심생은 바짝 붙어 뒤를 쫓았다.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면서 눈은 한순간도 그 보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걸음이 소광통교(小廣通橋)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희오히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색 보자기를 반이나 들추었다.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나타나는데 복숭아 빛 발그레한 뺨에 버들가지 같은 가는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분이 몹시 고와 설했 보아도 절색이었다.

[A] 처녀도 보자기 속에서 어렴풋하게 아름다운 소년이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草笠)을 쓰고, 좌우 이쪽저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추파(秋波)를 들어 보자기 밖의 소년을 한참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걸히고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네 개가 부딪쳤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러기도 했다. 보자기를 당겨 다시 덮어쓰고 자리를 떴다.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곧장 뒤를 쫓아갔다. 소공주동(小公主洞)* 홍살문 안에 이르러 처녀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심생은 망연자실하여 한참을徘徊하다가 이웃 노파를 붙들고 자세히 알아보았다. 늙어서 은퇴한 호소(戶曹) 계사(計士)*의 집이요, 딸 하나만을 두었고, 나이는 열 예닐곱이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등등. 처녀가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노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희철한 담이 하나 나올 거유.

담 안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로 처자(處子)가 거처하는 곳 이라유.”

노파의 말을 듣고 난 심생은 아무리 해도 잇을 수가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집에다 거짓말을 꾸며 댔다.

“서당 친구가 저랑 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니 오늘 밤부터 가 볼게요.”

드디어 인정(人定)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서 담을 넘었다. 초승달이 어스름 빛을 드리운 창밖에는 꽃과 나무들이 재법 아담하게 가꾸어져 있고,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은 아주 환하였다. 벽에 등을 대고 처마 밑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여종 둘이 함께 있었다. 처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는데 피꼬리 새기가 우는 듯 낭랑하게 들려왔다.

삼경(三更) 무렵, 여종들은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처녀는 그제야 “후!” 등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거렸다. 심생은 잠이 들 리도 없었고 숨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담을 타고 나왔다. 그로부터 일과로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가 치면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한 지 스무날이 되었어도 심생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처녀는 처음에는 소설도 읽고 바느질도 하며, 한밤에 등불이 꺼지면 잠도 잤으나,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 예니레를 넘기자 “몸이 편치 않다.” 라고 말하고 겨우 초경(初更)인데도 배개를 베고 누워서는 자주 손을 던쳐 벽을 쳤고, 긴 한숨 짧은 탄식이 창을 넘어 들려왔다.

하루하루 밤을 보낼 적마다 심해지던 스무날째 저녁, 처녀는 훌쩍히 마루 뒤쪽으로 나와서 벽을 따라 돌아 심생이 앉아 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심생은 잠잠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처녀를 잡았다. 처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은 소광통교에서 만났던 분이 맞지요? 소녀는 도련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지 벌써 스무날인 것을 잘 알아요. 저를 잡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지만 하면 다시는 여기를 나가지 못해요.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요.”

심생은 곧이듣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처녀는 다시 빙 돌아서 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종을 불러 분부하였다.

“어머니한테 가서 큰 서석 자물쇠를 달래서 갖고 오나라. 밤이 아주 캄캄하여 겁이 난다.”

여종이 안방으로 가더니 오래지 않아 자물쇠를 갖고 왔다. 처녀는 드디어 약속한 뒷문에다 문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걸고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되 일부러 “철거덕!” 거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바로 등잔불을 켰다. 정적이 쌓여 잠이 깊어 든 듯했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 이육, 심생전(沈生傳) -

* 운종가, 소광통교, 소공주동 : 서울의 지명.
 * 계사 : 회계원.

2. [A]의 주된 기능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①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속도감을 준다.

—

<32. 사회 문화적 맥락>

2004학년도 수능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생(沈生)은 서울의 양반이다.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風情)이 넘쳤다.

어느 날 운종가(雲從街)에 나가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건장한 여종이 자주색 명주(明紬) 보자기로 한 처녀를 덮어줘줘 등에 업고, 머리를 땀은 여종은 주홍색 비단신을 들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림짐작으로 보자기 안의 몸을 재어 보니 어린 여자 아이는 아니었다. 드디어 심생은 바짝 붙어 뒤를 쫓았다.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면서 눈은 한순간도 그 보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걸음이 소광통교(小廣通橋)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희오히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색 보자기를 반이나 들추었다.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나타나는데 복숭아 빛 발그레한 뺨에 버들가지 같은 가는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분이 몹시 고와 설했 보아도 절색이었다.

처녀도 보자기 속에서 어렴풋하게 아름다운 소년이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草笠)을 쓰고, 좌우 이쪽저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추파(秋波)를 들어 보자기 밖의 소년을 한참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걸히고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네 개가 부딪쳤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러기도 했다. 보자기를 당겨 다시 덮어쓰고 자리를 떴다.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곧장 뒤를 쫓아갔다. 소공주동(小公主洞)* 홍살문 안에 이르러 처녀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심생은 망연자실하여 한참을徘徊하다가 이웃 노파를 붙들고 자세히 알아보았다. 늙어서 은퇴한 호소(戶曹) 계사(計士)*의 집이요, 딸 하나만을 두었고, 나이는 열 예닐곱이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등등. 처녀가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노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희철한 담이 하나 나올 거유. 담 안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로 처자(處子)가 거처하는 곳 이라유.”

노파의 말을 듣고 난 심생은 아무리 해도 잇을 수가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집에다 거짓말을 꾸며 댔다.

“서당 친구가 저랑 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니 오늘 밤부터 가 볼게요.”

드디어 인정(人定)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서 담을 넘었다. 초승달이 어스름 빛을 드리운 창밖에는 꽃과 나무들이

제법 아담하게 가꾸어져 있고,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은 아주 환하였다. 벽에 등을 대고 처마 밑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여중 둘이 함께 있었다. 처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는데 꾀꼬리 새끼가 우는 듯 낭랑하게 들려왔다.

삼경(三更) 무렵, 여중들은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처녀는 그제야 “후!” 등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거렸다. 심생은 잠이 들 리도 없었고 숨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담을 타고 나왔다. 그로부터 일파로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가 치면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한 지 스무날이 되었어도 심생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처녀는 처음에는 소설도 읽고 바느질도 하며, 한밤에 등불이 꺼지면 잠도 잤으나,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 예니레를 넘기자 “몸이 편치 않다.” 라고 말하고 겨우 초경(初更)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워서는 자주 손을 던져 벽을 쳤고, 긴 한숨 짧은 탄식이 창을 넘어 들려왔다.

하루하루 밤을 보낼 적마다 심해지던 스무날째 저녁, 처녀는 홀연히 마루 뒤쪽으로 나와서 벽을 따라 돌아 심생이 앉아 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심생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처녀를 잡았다. 처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은 소광동교에서 만났던 분이 맞지요? 소녀는 도련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지 벌써 스무날인 것을 잘 알아요. 저를 잡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다시는 여기를 나가지 못해요.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요.”

심생은 곧이듣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처녀는 다시 빙 돌아서 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중을 불러 분부하였다. “어머니한테 가서 큰 주석 자물쇠를 달래서 갖고 오나라. 밤이 아주 캄캄하여 겁이 난다.”

여중이 안방으로 가더니 오래지 않아 자물쇠를 갖고 왔다. 처녀는 드디어 약속한 뒷문에도 문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걸고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되 일부러 “철거덕!” 거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바로 등잔불을 켰다. 정적이 쌓여 잠이 깊어 든 듯했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 이육, 심생전(沈生傳) -

* 윤중가, 소광동교, 소광주동 : 서울의 지명.

* 계사 : 회계원.

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십시오.

- ③ 당시에도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④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온몸이 그닐거리고 쭈서 잠은커녕 진드근히 누워 있을 수도 없었다. 무슨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던가는 기억해 낼 수 없다. 내가 다시 결혼 잔치가 끝나 갈 석공네 마당으로 달려들었을 때, 발마당의 모닥불은 거진 사워어 비리고 사람 하나 얼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풍장 소리와 노랫소리는 사립 울안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여전히 누군가가 ‘소리’를 부르고 있었다. 멍석 너덧 보내지만한 안마당엔 어른들이 겹겹으로 둘러서서 모두가 엉덩이를 궁깃궁깃 들썩대며, 그러나 하나같이 군소리를 참고 눈과 얼굴로만 흥겨워하고 있었다. 누구 음성이었을까, 생전 처음 들어 본 그 구성진 가락은.

“석란 백탄이 타는데, 연기가 난 평평 나는데…… 이 내 가슴 타는데, 연기가 하나도 안 나는데……”

나는 키가 모자라 사람 다리만 뻗은 쪽마루에 비비대고 올라가 넘어다보았다. 그리고 놀랐다. 놀라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한 손으로 주안상 가장자리를 두들겨 가며 앉아서 노래하는 어른, 코와 눈이 그렇게 크고 음성 또한 굵직한 신사, 그녀는 아버지였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황홀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여 열마를 두고 뜯어지게 바라보았으나 분명 아버지였다. 댁신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도취된 모습이기도 했다.

우선 석공네 울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고, 노래를 하는 것도 사실일 수가 없으려면, 모든 것은 눈에 보인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안팎 동네 어느 누구네 집도 울안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터였다. 일가 간인 한산 이가네로서 노인일 모시는 집안이거나 당내 간의 사랑이라면 더러 출입이 있었을 따름이요, 그것도 울안에 발을 들인 일이란 한 번도 없던 터였으니, 하물며 전에 일가집 행랑살이를 했던 사람네 집이겠는가. 신 서방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버지의 맞은편에 꿇어 앉은 석공은 연방 싱글병글 웃어 가며 솟음솟음하는 신명을 어찌지 못해 답답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노래를 마치자 요란스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신 서방이 두 손에 술잔을 받쳐 드니 석공은 주전자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술잔을 받아 들자 신 서방은 일어섬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 나는 그때 또 한 번 크게 놀라고 말았다. 다시 한 번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이나 그것은 아버지가 일어서서 어깨춤을 추기 시작한 거였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무릎 꿇고 조아려 공손하기가 몸종과 다름없었지만, 처자 앞에서는 단란하고 즐거워 웃더라도 결코 치아를 내보인 일이 없게 근엄하되, 한내친 백사장에 장연장이 설치되면 뜨내기 장들뱅이까지도 전을 걸어치울 정도로 수천 군민이 모여들게 마련이었으며, 산천이 들떠다 놓인다 싶게 불뽕뽕 웅변을 했는데, 그때마다 청중들로부터 친동보다 더 우렁찬 환호와 박수갈채를 얻고 당신, 액면 모든 사람한테 선생님이란 경칭을 받았던, 저만치 멀리로 건너다 보이며 어렵기만 한 사람이었다. 어디 그럴 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남의 집 울안 출입에 와 가락과 어깨춤…….

신기함과 경이로움을 주체하지 못해 나는 몹시 당황했지만 그

러나 그런 거북스러움도 ㉠ 가져지고 있었다. 멍석 가장자리로 둘러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함께 어울려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이며, 그 속에는 작대기 막대기와 새끼 타래를 내민진 쌍례 아베와 복산 아베, 덕산이와 조패랭이가 섞인 채 누구보다도 흥겨워 몸부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흥겨움에 감싸여 흐른 밤은 얼마나 되었을까. 흥겨움에 배움을 뒤에 두고 나는 아버지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나는 이만큼 뒤쳐져 걷고 있었는데, 그림자가 너무 길다고 느껴져 불현듯 하늘을 우러르니, 달은 어느덧 자리를 거의 다 내놓아 겨우 앞치마만한 하늘을 두른 채 왕소나루 가지 틈에 머물고 있었으며, 뒷동산 솔수평이의 부엉이만이 잠 못 들어 투덜대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랑 앞에 이르도록 헛기침 한 번 없이 여전 근엄하였고, 나는 버겁게 지쳐 놓은 대문을 돌쩌귀 소리 안나도록 조용히 여닫으며 들어가 이내 곤한 잠에 떨어져 버렸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요 위가 질런하니 한강이었고 아랫도리가 길래처럼 적적했으나 부끄러워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삼십 년을 모시면서 보기를 참 보겠다. 아마 평생 참이실 걸……”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저만 참인 중 알았더니 아씨두유?” 웅침이 대꾸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중 안 일이지만, 어머니에게 평생 처음으로 보인 일이란 그날 밤에 아버지가 손수 행한 바의 모두를 말함이었다. 귀로에 한쪽 발을 헛디뎠던 일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양말한 짝이 마당가 우물 도랑물에 젖어 있었다던 것이다. 어쨌든 그날 밤에 있었던 아버지의 거동은 오랫동안 여러 동네의 큰 화젯거리였을 줄 안다. 모두들 처음이며 아울러 마지막 터임을 미루어 볼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석공의 추억이 일기 시작하면, 내가 즐겨 놀았던 마당으로서보다도 나의 아버지가 평생에 단 한 번 객스럽게 놀아 보신 장소라는 데에 보다 소중함이 느껴져서 잊지 못해 해 온 사실을 밝혀 두고 싶다.

- 이문구, 관촌수필 -

2. <보기>와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 윗글을 비평한 것은?

<보기>

작품을 비평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자기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바라보는 일이다. 관점이란 쉽게 말한다면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관점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비평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매우 영향력 있는 몇몇 관점들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 중에서 ‘소설은 풍속(風俗)의 재현(再現)’이라는 관점을 취하면, 외적인 정보를 끌어들이는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 ① 소설을 읽는 일은 소설 속 인물과의 가상 대화를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는 인물들 간의 관계나 주변 인물들의 태도 자체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 그 의미가 반감된다.
- ② 소설은 그 근본이 이야기니까 문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글은 속도감도 적당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힘은 물론 감칠맛 나는 면모도 지니고 있어 매우 매력적이다.

- ③ 소설의 핵심은 갈등이 형성되고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이 글에서는 별다른 외적 갈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소설의 묘미를 맛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게 평가된다.
- ④ 소설의 본질적인 기능은 작품이 제시하는 주제를 통해 깨달음을 주는 것인데, 이 글은 가족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호감이 간다.
- ⑤ 소설의 구조와 현실의 구조는 서로 맞닿다고 하는데, 이 글은 해방 직후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삼았다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시대상은 그리고 있지 않아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본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쉼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스럽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운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어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건데, 전한 뭇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 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꿨다.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쉼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 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켜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뚝뚝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곱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둘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들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견줄 수 없게 들떠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숲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 라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나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껍이나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보 쓴
포복준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육이
며, 그러한 모든 사람들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
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
는 각정이* 때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엔,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줄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다면 물리코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 도 가 볼 수 있고, ‘전차’ 도 탈
수 있고, 읍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 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
길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게해 현기증이 나더라도, 그
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
라는 물건은,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
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
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야.”
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딸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얹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
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뻥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
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
으로 허둥대며 비껴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 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싫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깔렸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카스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
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

나
겹이 부씩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 나 태워 주고, ‘화신
상’ 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
러면 편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 임바네스 : 남자용 외투의 일종.
- * 각정이 : 거지.

3. <보기>의 관점에서 [A], [B]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

<모 가>
문학 작품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 ① [A] : 소년의 의식과 행동의 특징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인물 유형을 분류해 본다.
- ② [A] : 소년과 아버지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 갈등이 작품 전체의 주제로 발전될 가능성을 추론해 본다.
- ③ [A] : 여러 인물이 한 공간에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단서로 삼는다.
- ④ [B] : 작품 속 인물들의 외양에 주목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창작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 ⑤ [B] : 천변의 생활상에 주목하여, 당시 서울의 세태가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본다.

<33. 소재와 배경>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저
형의 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
쩍지 마음이 조금 흐뭇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껄었다.

“저것 봐, 저기 저기, 에에이, 모두 잠만 자구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지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히도 저물어 갔고 하늘
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거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친친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이곤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
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
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었이야이.”
“……”

“난 원래 다리에 ㉡담즙이 있는데이. 너무 알잖나. 요새 좀 이
상한 것 같다야.”
하고는 해죽이 웃었다.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
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러안으면서,
“질성아, 야하, 흠씩은 좋다.”
“……”

“저 말이야,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었이야, 잉. 야, 질성아, 질
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야이.”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별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
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을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젠 좀 그만 걷지
달,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흠뻑 결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질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야,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별쪽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하니. 내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그러안으면서,
“야, 질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
고 닫히고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떡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흐흐호.”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머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름거려졌다. 행렬 속에서
도 별로 혼잣소리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

심스런 낫색이었다. 돌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흠뻑
거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
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
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고 글지 마라, 어영?”
어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꺾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술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
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견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는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메칠을 더 살겠다구 뼈대? 뼈대대길.”

- 이호철, 『나상(裸像)』-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

- ① ㉠은 ‘형’의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 ② ㉡은 형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 ③ ㉢은 ‘형’의 내면 풍경을 보여 준다.
- ④ ㉣은 ‘형’의 최후를 암시한다.
- ⑤ ㉤은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선비 유영이 꿈에서, 죽은 윤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평대군은 궁녀 열 명을 뽑아 가르치면서
궁 밖과의 인연을 금했으나, 궁녀 윤영은 김 진사와 사랑에 빠졌다.
김 진사의 노비인 특의 폐에 따라 둘은 도망가려고 윤영의 의복과
재물을 빼냈다.

진사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일렀습니다.
“너는 재물을 잘 지키고 있겠지? 내가 장차 그것을 다 팔아서
부처께 지성으로 발원하여 오래된 약속을 실천하리라.”
특은 집으로 돌아가 혼잣말로 일렀습니다.
“궁녀가 나오지 못했으니, 그 재물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로
다.”

특은 벽을 향해 남몰래 웃음을 지었으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특이 자기 옷을 찢고 코를 스스로

때려, 피를 온몸에 흠뻑 바르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달려 들어와 뜰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절한 척했습니다. 진사는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곳을 알 수 없게 될까 염려되어, 약을 입에 흘려 넣는 등 특을 살려 냈습니다. 그러자 특이 십여 일 만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산 속에서 지키고 있는데 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박살날 것 같아 죽음을 다해 달아나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운명이 이리도 험한데 어찌 빨리 죽지 않고!”

말을 마친 특은 발로 땅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보냈다가, 뒤늦게야 특의 소행을 알고 노비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시에 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비녀 한 쌍과 거울 하나만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장물로 삼아 관가에 고발하여 나머지 물건들도 찾고 싶었으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진사는 그 재물이 없으면 불공을 드릴 수 없었기에 특을 죽이고 싶었으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 애써 침묵하였습니다.

특은 자기 죄를 알고, 궁궐 담장 아래에 사는 맹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이 궁궐 담장 밖을 지나가는데, 웬 놈이 궁궐 안에서 서쪽 담을 넘어 나왔소. 도적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자, 그놈은 가졌던 물건을 버리고 달아 났소. 나는 그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자가 찾아 가기를 기다렸소. 그런데 우리 주인은 본래 염치가 없어서 내가 물건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몸소 내 집에 와서 그 물건들을 찾았소. 내가 다른 보물은 없고 단지 비녀와 거울 두 가지만 있다고 대답하자, 주인은 몸소 수색을 해서 과연 그 두 물건을 찾아내었소. 주인은 그것도 부족해서 바야흐로 나를 죽이려고 하오. 그래서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데, 달아나면 길(吉)하겠소?”

맹인이 말했습니다.

“길하다.”

그때 맹인의 이웃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들더니 특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데, 이처럼 노비에게 포악하게 구느냐?”

특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나이는 어리나 문장에 능해서 조만간 틀림없이 급제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탐욕스러우니, 훗날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 섰을 때 마음 씀씀이가 어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전파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군은 크게 화가 나서 남궁 사람들에게 서궁을 수색하게 하니, 제 의복과 보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군은 서궁의 궁녀 다섯 사람을 붙잡아 뜰 가운데 세우고, 눈앞에 형장을 얹어 갖춘 다음 명령하였습니다.

“이 다섯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라.”

대군은 또 곤장을 잡은 사람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곤장 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때려라.”

이에 다섯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도록 해라.”

은성이 말했습니다.

“남녀의 정은 귀하든 천하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있는 법입니다. 한번 깊은 공에 갇혀서 홀로 지내니, 꽃을 보면 눈물 흘리고 달을 대하여 슬퍼했지요. 매실을 껌꼬리에게 던져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발을 쳐서 재비가 쌍쌍이 깃들지 못하게 함은 부름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음에도 저희가 그러하지 않은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오로지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궁중에서 말라 죽을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죽이려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비취가 초사(招辭)*를 올려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지라 저희들은 감동하고 두려워하여 오로지 글짓기와 거문고 연주만을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씻지 못할 악명이 서궁에 미쳤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초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죄인의 진술.

2. ‘궁궐의 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은 위선과 진실을 구별하는 경계이다.
- ② 담 안은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 ③ 담 안의 궁녀들은 담 밖의 세상에 관심이 없다.
- ④ 담을 넘는 것은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 ⑤ 담 밖은 담 안과 달리 신분적 위계가 없는 공간이다.

—

2013학년도 수능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막 씨 줄연 복통이 있어 마치 태증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려 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더니, 침 속에 미치는 산점*이 있어 초막(草蓆)에 엎드렸더니,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지라.

막 씨 헤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 땀 때에 아궁이에 들이쳤더니, 닷새 후에 헤쳐 본즉 금방울이 튀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짙씩하고 향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풀속에 들어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집 떠 나는 세도 잡고 나무에 올라 파실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묻혀 오되 그 털이 출일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비치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폼에 들면 조금도 춤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데서 남의 방아를 짙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뿔뿔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라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낮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풀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데와 마른 데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흙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농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위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리라.

차질. 장 공이 여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풍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공이 주야 병측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침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매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충 하소서.”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낮을 데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켜오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며 정신이 썩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

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금뿔(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산점 : 해산의 기미.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월음 :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수말 : 일의 처음부터 끝.

3.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34. 시점>

2013학년도 수능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쉴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실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건데, 전차 뭇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 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빴다.

전차도 전차리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 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뚝뚝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곱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이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침사리 놀라고, 수많은 것대잡이 아이놈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렸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옷을 놓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껍이나 재미스러웠다.

그런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찬산보 쓴 포복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육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는 깍정이* 때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면,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즐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반딧불 본다면 물고기도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 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울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 길에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게도 헝기증이 나더라도,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 었으나, 어느 틈엔가 재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야.” 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판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 가는 허겁을 놀리며, “시구라, 시구라.” 하고, 괜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험사리 붙어지는 재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 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절집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고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실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을

속에 깔렸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가스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 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편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 임바네스 : 남자용 외투의 일종.
- * 깍정이 : 거지.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①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2. <보기>의 우화를 바귀 쓰기 위해 토의해 보았다. 사고 방향에 따른 바귀 쓰기의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참나무가 갈대에게 험타락을 하고 있었다. 허약하고 바람에 쉽게 굴한다는 참나무의 놀림에 갈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 닦쳤다.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바람을 이겨 냈지만, 제 힘만 믿고 바람에 맞서 버티던 참나무는 결국 부러지고 말았다. - 『이슈 우화』 -

① 나는 이 우화의 서술 지점을 바귀 보았어. 갈대를 서술자로 만들어, 갈대가 직접 사건을 진술하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도록 해야지.

<35. 심리 변화>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임을 파한 후에 토끼 뒤에 따라가며 한 번 불러, “여보. 토생원(先生員).” 토끼의 근본 성품 무겁지 못한 것이 경하여 몸집도 작으니 온 산중이 멸시하여 누가 대접하겠느냐. 쥐와 여우. 다람쥐도 ‘토끼야. 토끼야.’ 아이 부르듯 이름 불러 어른대접 못 받다가 천만뜻밖 누가 와서 생원이라 존칭하니. 좋아 아주 못 견디어. “게 뉘랄게. 게 뉘랄게. 날 찾는 게 뉘랄게.” 요리 팔팔 조리 팔팔 깡장깡장 뛰어나니. 별주부(甌主簿)가 의뭉하여 토끼의 동정 보자 김목을 움프리고 가만히 었었으니 토끼가 주부 보고 의심을 매우 하여, “이것이 무엇인고? 쇠똥이 말랐는가. 이 산중에 무슨 술 깨어진 부등감*이 어찌 저리 모하게 깨져. 애고. 이것 큰일났다. 사냥왔던 총(銃)장이가 짐음승** 끌러 놓고 똥 누러 갔나 보다. 바빠바빠 도망하자.”

주부가 생각한즉 그대로 두어서는 저리 방정맞은 것이 이리저리 한없이 내달리겠거든 또 한 번 크게 불러, “여보 토생원.” 토끼가 가다 듣고, “누가 나를 또 부르노?” 아장아장 도로 오며 주부를 바라보니, 아까 없던 목줄기가 돌담 틈에 배암같이 슬금기 나오거든. 의심 나고 겁이 나서 멀찍이 서서 보며 문자(文字)로 수작 내어, “내가 이 산중에 생어사(生於斯) 장어사(長於斯) 유어사(遊於斯) 노어사(老於斯)하여 몇 해가 되었으되 오늘 처음 보는 턱에 나를 어찌 알고 무엇 하러 불렀노?” 주부가 대답하되, “유봉(有朋)이 자원방대(自遠方)하니 불역낙호(不亦樂乎)가 공자님 말씀인데. 어이 그리 무식하여 처음 본다 괘시하니 인사가 틀렸는데.”

토끼가 들어본즉 생긴 것과 말하는 게 만만히 볼 수 없거든. 옆에 와 썩 앉으며, “뉘라 하시요?” “예. 나는 수궁(水宮)에서 주부 벼슬하여 먹는 자라요.” “산수(山水)가 서로 다른데 산중은 어찌 왔소?” “우리 용왕 장한 가르침 팔침 리를 다스리니 하루에도 수 없이 몸소 일을 하옵는데 신하가 재주 없어 찬양하기 어렵기로, 용왕의 분부 모시어 임금 보좌할 인재를 구하기로. 천하 명산 다니다가 오늘날 모족(毛族) 모임 천만다행 만났기로, 자리를 다 보아도 임금 보필할 인물은 꿈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선생 하나뿐이기로 선생을 모셔 가자 뒤를 따라 왔사오니. 바라건대 선생은 나를 따라 가사이다.”

토끼가 제 인물이 하 감사한 말이어든, 제 소견에도 의심하여, “어떻기에 내 형용이 꿈보다도 나를 테요? 범보다 나를 테요?” 주부가 대답하되, “꿈의 몸이 비록 크나 눈이 작고 털이 덮여 태양 정기 부족하니 미련하여 못 쓸 테요, 범이 비록 용맹하나 코 짧고 줄기 없어 얼굴 가운데가 움푹하니 단명(短命)하여 못 쓸 테요, 몸이 작고 발이 빨라 산도 넘고 물도 뛰어 따라갈 이 없을 테니, 민첩한 저 구변(口辯)이 소진(蘇秦)의 합종(合縱)인지. 가끔가끔 조는 것이 공명(孔明)의 춘수(春暉)런지.*** 볼수록 모두, 짐승 중 제일이니, 우리 수궁 갈사오면 출장입상, 부귀공명 따라갈 이 뉘 있을까?”

토끼가 들어 본즉 주부의 하는 말이 저 생긴 형용하고 날날이 똑같거든. 가만히 생각한즉 형용은 무던하나 속에 글이 없었으니, 수궁에 글하는 이 있는지 알아야 할 테어든. 또 물어 “수궁의 조관(朝官) 중에 문장이 맺이 되요?” “문

장 조관 있으며는 영덕전(靈德殿) 지을 적에 상량문을 못 지어서 인간 세상까지 나와 구했겠소?” 또 물어, “수궁에 활썩 키 큰 조관 있소?” “영덕전 상량할 제, 키 큰 조관 가리는데 내가 상량하였지요. 그리 큰 수궁에서 나만한 키도 없소. 선생이 들어가면 거인이 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라지요.”

토끼가 생각한즉, ‘너른 의사(意思) 좋은 구변 내 속에 흠뻑 들고, 글 잘하고 키 큰 조관 수궁에 없다 하니, 나 지닌 신언서판(身言書判) 놀릴 데가 없건마는 땅에 안주하여 옮기기 어려우니 이 형편에 썩 떠나기가 어렵구나.’

- 신재효, 토별가(兔戀歌) -

- 부등감: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아궁이의 불을 담아낼 때 부상 대신 쓰는 것.
- 짐음승: 화약의 심지
- 소진의 합종, 공명의 춘수 : 토끼의 말썬씨와 조는 모습을 각각 소진의 위업과 제갈공명의 여유에 비긴 말.

1.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설화를 채록한 것이다. <보기>와 비교하여 윗글의 특징을 말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보 기〉
· 채록 일시: 2001년 ○월 ○일
· 채록 장소: 경기도 ○○군 ○○면 ○○리
· 제보자: 정○○(여, 75세)
· 채록자: 김○○
자라가 육지에 나와서 토끼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한 짐승이 있길래 목을 집어넣고 발을 움프리고 가만히 었 있어. 그러자 그 짐승이 와서 만져 보며, “이게 뭐냐? 쇠똥 같은데?” 하며 발로 툭 차 봤겠지. 자라는 그 짐승이 별로 해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목을 쭉 내밀고, “너는 뭐냐?” 하고 물었어. “나는 토끼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뭐냐?” 하고 되물었겠다. 자라는 “나는 용궁에 사는 자라인데, 이 세상에 토끼란 것이 재간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용궁에서 데려다가 귀한 벼슬을 주고 재미있는 세월을 보내게 하겠다고 나를 내보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용궁에 가지 않겠냐?” 하며, 이런 말 저런 말로 토끼를 피는 것이야. 토끼는 그 말을 듣고서 용궁에 가고픈 맘이 생겼지.

③ 우성 : 서술자가 토끼의 심리 변화를 더 자세히 서술하였군.

자라 짐승에 크게 기뻐 이에 토끼를 다리고 수변으로 나아가 토끼를 등에 업고 창과에 뛰어들어 남해를 바라보며 돌아오니, 대저 자라의 충성이 지극함을 신명(神明)이 굿어살피사 저 간사한 토끼를 주심이니,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리오.

이때 토끼 자라 등에 높이 앉아 사면을 돌아보니, 소상강(瀟湘江) 깊은 물은 눈앞에 고요하고, 동정호 너른 빛은 그 갓을 모를러라. 심중에 헤아리되, ‘내 천우신조로 자라를 만나 세상 풍진과 산중 고초를 다 벗어 버리고 수궁에 들어가 부귀를 누릴지니 어찌 즐겁지 아니리오’하며, 의기양양하여 이에 한 곡조 노래를 부르니 하였으되,

홍진(紅塵)을 하직하고 길이 떠남이여,

물나라히 종산(崇山)보다 크도다.

자라 등에 올라타고 또 감이어,

흰 구름의 오고 감을 웃는다.

내 장차 사기(史記)의 붓대를 잠음이여,

삼천 수족이 무릎을 꿇리도다.

부귀에 맑고 한가함을 겸함이여,

백 년의 평안함을 기약하리도다.

토끼 노래를 마치고 크게 웃거늘, 자라 일변 웃으며 생각하되,

“이놈이 너무도 교만한 놈이로다.”하고, 또한 노래로 화답하니 하였으되,

한 조각 붉은 마음을 품음이여,

얼마나 분주히 청산에 다녔던고.

이 몸이 수고를 아끼지 아님이여,

창랑을 박차고 갔다 돌아오도다.

간사한 토끼를 얻어 공을 이쁨이여,

한갓 용안의 기쁜 빛을 뵈오리도다.

우리 대왕의 병환이 쾌차하심이여,

종묘사직의 평안함을 하례하리도다.

토끼 자라의 노래를 듣고 심중에 크게 의욕하여 자라 보고 물어 가로되,

“그대의 노래 속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어인 꼭질고.”

자라 가로되,

“내 우연히 부름이니 무슨 뜻이 있으리오.”

토끼 그대로 의욕이 아니 풀려 가로되,

“간사한 토끼를 얻어 공을 이루었다 함과 우리 대왕의 병환이 쾌차하다 함은 무슨 말이뇨.”

자라 토끼의 말을 듣고 심중에 헤아리되,

‘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비록 나를 의심할지라도 무익하리라.’

하고, 이에 그 말은 대답지 아니하고 바빠 행하여 순식간에 남해 수궁에 득달하여* 토끼를 내려놓으며 가로되,

“그대는 부질없이 나를 의심치 말고 빨리 객관으로 가사이다.”

하거늘 토끼 눈을 들어 살펴보니 천지 광활하고 일월이 명량한데 주궁패결(珠宮貝闕)이 반공에 솟아 있고 문과 창에 서기 어엿는지라. 토끼 일변 기꺼운 마음이 다시 동하여 자라를 따라 객관에 이르니 자라 토끼더러 가로되,

“그대는 잠깐 여기 머물라. 내 입결하여 우리 대왕께 그대와 같이 음을 아뢰리라.”하고, 총총히 나아가거늘, 토끼 그 거동을 보고 심중에 다시 의심 하되,

‘제 나를 우선 제 집으로 인도하여 밀린 은 터에 술 한잔도 대접지 않고 향망히 궁중으로 들어가니 그 어인 일인고.’

또다시 생각하되,

‘아마 나의 높은 이름을 수국 군신이 다 들었으매, 제가 먼저 들어가 저의 임금에게 말씀하여 급히 흥분한 대제학을 제수(除授)하여* 불일내*로 여러 해 두었던 사기를 뒤흔어 하기에 골똘하여 사소한 집대는 미처 생각지 못함이로다.’

하고, 생각하고 무로히 혼자 앉았더라.

이때 자라 급히 궁중으로 들어가니, 궁중에 근시하였던 신하들이 자라를 보고 일변 반기며 일변으로 용왕께 고하니, 왕이 바빠 자라를 입시하여 용상 아래 가까이 앉았도 하며 무사히 다녀움을 받기며 토끼의 소식을 묻는

데,

자라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어 가로되,

“신이 왕명을 받자와 오후와 삼강을 무사히 지내어 동해가에 득달하와, 종산에 들어가서 높은 토끼 하나를 백가지로 쪼으며 천 가지로 달래어 간신히 얻고 지금이야 돌아와 토끼를 객관에 머무르게 하고 신이 급히 들어 왔소나, 이 사이 옥체미령(玉體靡令)하심이 어머하옵신지 하정에 황송하오이다.”하고, 인하여 토끼 달려던 말씀을 일일이 아뢰었더니, 용왕이 듣기를 다하고 크게 기뻐 무릎을 치며 칭찬하여 가로되,

“경의 충성과 구별은 가히 남해 일국에 하나이니, 하늘이 과인을 도우사 경 같은 신하를 내심이로다.”

- 작자 미상,* 토끼전 -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인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다.

—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장 그렇습니다.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낙랑 왕 식구 세 사람은 모두 목숨을 살려 이곳에 모셔다가 왕비 마마 곁에서 사시게 작정이 된 일이 아니었습니까? 왕자님,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동 어찌할 수 없는 일…….

부장 그렇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동 누가 그것을 모르는가?

부장 돌아가신 낙랑 공주에게 미안해서 그러십니까?

호동 …….

부장 공주께서도 어찌 원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왕자께서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두 분의 행복을 위해서 부탁하신 일인 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낙랑 공주였으니 어찌 원망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왕자님과 이

몸이 대왕의 뜻을 받들어 평화 교섭을 위해서 낙랑을 찾아갔을 때, 제일 반가워한 분이 공주님이셨고, 낙랑 왕의 고집 때문에 화평 교섭이 잘 되지 않자 누구보다도 근심하신 분이 공주님이셨지요.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워서 술한 사람이 죽는니보다는 자명고를 찢어서 고구려가 이기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결심한 것도 낙랑 공주이시지요. 낙랑 나라가 그런 신묘한 복을 가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지요. 대대로 낙랑 왕의 식구밖에는 모르는 비밀을. 그래서 왕비 마

마께서도 이 나라에 시집오신 몸이면서도, 그리고 의붓아드님이 정벌군을 이끌고 낙랑으로 떠나게 되어도 입을 다물고 계신 비밀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왕자님을 그렇게 따르시게 된 공주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려는 말씀을 왕자님께 들었을 때처럼 무서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고구려군이 싸움을 벌였다라면

○ 이었겠지요. 적은

먼저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호동 그 말을 자네한테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인지 어쩐지 모르겠군.

부장 무슨 말씀을. 또 놀라게 하시는군요. 말씀하시기 다행이지요. 그랬길래 제가 왕자님께 간곡히 그 복을 공주님 손으로 찢게 하시라고 알려 드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저도 공주님께 그리하는 것이 왕자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공주님께 알려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호동 뭐, 자네가? 그런 말은 안 하지 않았는가?

부장 네, 안 했지요. 그러나 잘못된 일이옵니까?

호동 …….

부장 왕자님 몰래 공주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좋다고 여겨져서 그리한 것입니다.

호동 오, 그래서…….

부장 무슨 일이 있었더랬습니까?

호동 복을 찢겠다면서, 이 일은 왕자님 뜻을 묻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자꾸 다짐하더군.

부장 열녀이십니다.

호동 큰 고구려의 왕자가 한 여자의 손을 빌려 싸움에 이기는 것을 부끄러워할까 봐 그랬던 것이로군.

부장 열녀이십니다.

호동 ㉔그 열녀의 덕을 본 나는 무어가 되는가?

부장 영웅이십니다.

호동 여자 힘을 빌린 영웅이라.

- 최인훈, 동동 낙랑동 -

3. 연출가가 배우에게 ㉔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도록 조언할 내용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부장이 공주와 호동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자 호동은 약간 우쭐해집니다. 이 감정을 적절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호동이 약간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 정도로 표현해 보십시오.

—

<36. 암시>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66. 철호의 집 앞

철호가 트락에 들어서는데 “가자!” 하는 어머니의 소리.

철호 한 대 맞은 사람 모양 우두커니 한동안 서 있더니 되돌아서 터벅터벅 걷는다.

여기에 달이는 철호의 소리 - “어머니, 어디로 가자시는 말씀입니까?”

S# 67. 정신 병원 진료실

4. 5년 전의 어머니가 병상에 반듯이 누워 있다.

명하니 어느 피인(彼身)을 바라보는 눈.

어머니 가자!

그 옆에 청진기를 손에 들고 있는 의사.

그 앞에 마주 서 있는 좀 말쑥한 철호.

철호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저러실까요. 선생님!

의사 과거에는 생활이 윤택하셨다니가 아마 그 당사로 돌아가 자식이나 아니면 우리 현실보다 나은 세계 -말하자면 영겁(永劫)의 나라일 테죠.

철호 선생님!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의사 글썽요. 한 삼사 년 치료를 받아 보시면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S# 68. 산비탈 길
두벅두벅 걸고 있는 철호.

S# 69. 피난민 수용소 안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흠어진 머리칼을 치기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의 소리 -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 되어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 종 략 -

S#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철삿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그럼 뭐 뽐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용기?

영호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엉뚱한 뭐가 엉뚱해요.

철호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하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서 가지고 있는 돈 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 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폭폭 쭈시고 아픈 걸 견디다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 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났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픽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그건 역설이야.

영호 역설이요?

철호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냐.

영호 천만에요.

- 이병선 원작/나소은·이종기 각색, 오발탄 -

*O.L(overlap) : 한 화면 끝에 다음 화면의 시작을 합치면서 부드럽게 화면을 바꾸어 가는 기법.

1. S# 69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철호 아내의 좌절된 꿈이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저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쩐지 마음이 조금 흐트러졌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흠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아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껓었다.

“저것 봐, 저기 저기, 에에이, 모두 잠만 자구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지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히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곤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었어야이.”

“……”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이. 너두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더야.”

하고는 혀죽이 웃었다.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러안으면서,

“칠성아, 아하, 흠씩은 좋다.”

“……”

“저 말이다,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었어야, 잉. 아,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더야이.”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별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뚱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음을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젠 좀 그만 걷지 달,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흘끔 걸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별쪽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하니. 네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그러안으면서,

“아,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곤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흐흐흐.”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며칠이 지날수록 ㉔형의 걸음은 더 절름거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릴 지껓지 않았었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낯색이었다. 돌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껓지 않았었다.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었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고 글지 마라, 어영?”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도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아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껓길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꼭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술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견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메면서,

“메질을 더 살겠다구 백득대? 백득대길.”

- 이호철, 「나상(裸像)」-

2. 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㉔은 ‘형’의 최후를 암시한다.

2012학년도 수능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이라 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경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멧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閭)’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姓)을 지녔다.

[나] 어느 날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벌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러도 북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오네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곽 선생이 웃기를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중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술과 세발술은 무얼 분뻬 만들었나. 흥(興)이라.”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했다.

“에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목으로 둔갑하여 사람 시늬를 할 수 있다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뉘 갖는 게 어떨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오니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깰꺨거리며 문

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벌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벌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머리를 왼편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평(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 자리에 서옵니다.”

벌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들건대, 유(儒)”란것은 유(誡)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애 천하의 악명을 모아 땅뒤에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들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북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얼드렸다가 일어나 영거주춧돌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제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아침에 갈 갈려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 물으니, 북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려.”

- 박지원, <호절>

[어휘풀이] 1)유(儒) : 선비. 2)유(誡) : 아첨하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다섯 아들은 북곽 선생을 여우로 여기고 있다. 이는 북곽 선생의 위선을 풍자하기 위하여 작가가 마련한 설정으로, 그들이 여우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은 북곽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

- ㉑ ‘여우가 사람 시늬를 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진정한 선비가 아님을 암시한다.
- ㉒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부를 이용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 ③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는 말은 복곽 선생이 농부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행위를 예고한다.
- ⑤ ‘여우를 잡아 죽이자’는 말은 복곽 선생이 봉변을 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생(沈生)은 서울의 양반이다.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風情)이 넘쳤다.

어느 날 운중가(雲從街)*에 나가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건장한 여종이 자주색 명주(明紬) 보자기로 한 치녀를 덮어씌워 등에 업고, 머리를 땀은 여종은 주홍색 비단신을 들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릿짐작으로 보자기 안의 몸을 재어 보니 어린 여자 아이는 아니었다. 드디어 심생은 바짝 붙어 뒤를 쫓았다.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면서 눈은 한순간도 그 보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길옆이 소광통교(小廣通橋)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색 보자기를 반이나 들추었다. 아니나 다를까 치녀가 나타나는데 복숭아 빛 발그레한 뺨에 벼들가지 같은 가는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분이 몹시 고와 설피트 보아도 절색이었다.

[A] 치녀도 보자기 속에서 어렵스럽게 아름다운 소년이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草笠)을 쓰고, 좌우 이쪽저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추파(秋波)를 들어 보자기 밖의 소년을 한참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걷히고 벼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네 개가 부딪쳤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보자기를 덮겨 다시 덮어쓰고 자리를 뒀다.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곧장 뒤를 쫓아갔다. 소공주동(小公主洞)* 홍살문 안에 이르러 치녀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심생은 망연자실하여 한참을 배회하다가 이웃 노파를 붙들고 자세히 알아보았다. 늙어서 은퇴한 호조(戶曹) 계사(計士)*의 집이요, 딸 하나만을 두었고, 나이는 열 예닐곱이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등등. 치녀가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노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회칠한 담이 하나 나올 거요. 담 안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로 처차(處子)가 거처하는 곳 이라우.”

노파의 말을 듣고 난 심생은 아무리 해도 잇을 수가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집마다 거짓말을 꾸며 뒀다.

“서당 친구가 저랑 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니 오늘 밤부터 가 볼게요.”

드디어 인정(人定)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서 담을 넘었다. 초승달이 어스름 빛을 드리운 창밖에는 꽃과 나무들이 제법 아담하게 가꾸어져 있고,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은 아주 환하였다. 벽에 등을 대고 처마 밑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여종 둘이 함께 있었다. 치녀는 나직한 목소

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는데 피꼬리 새끼가 우는 듯 낭랑하게 들려왔다.

삼경(三更) 무렵, 여종들은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치녀는 그제야 “혹!” 등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거렸다. 심생은 잠이 들 리도 없었고 숨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새벽벽이 울릴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담을 타고 나왔다. 그로부터 일과로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가 치면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한 지 스무날이 되었어도 심생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치녀는 처음에는 소설도 읽고 바느질도 하며, 한밤에 등불이 꺼지면 잠도 잤으나,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 예니레를 넘겨자 “몸이 편치 않다.” 라고 말하고 겨우 초경(初更)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워서는 자주 손을 던져 벽을 쳤고, 긴 한숨 짧은 탄식이 창을 넘어 들려왔다.

하루하루 밤을 보낼 적마다 심해지던 스무날째 저녁, 치녀는 홀연히 마루 뒤쪽으로 나와서 벽을 따라 돌아 심생이 앉아 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치녀를 잡았다. 치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은 소광통교에서 만났던 분이 맞지요? 소녀는 도련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지 벌써 스무날인 것을 잘 알아요. 저를 잡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지만 하면 다시는 여기를 나가지 못해요.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요.”

심생은 끈이틀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치녀는 다시 병들어서 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종을 불러 분부하였다.

“어머니한테 가서 큰 주석 자물쇠를 달래서 갖고 오나라. 밤이 아주 캄캄하여 집이 난다.”

여종이 안방으로 가더니 오래지 않아 자물쇠를 갖고 왔다. 치녀는 드디어 약속한 뒷문에다 문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걸고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되 일부러 “철거덕!” 거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바로 등잔불을 켰다. 정적이 쌓여 잠이 깊어 든 듯했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 이옥, 심생전(沈生傳) -

* 운중가, 소광통교, 소공주동 : 서울의 지명.
* 계사 : 회계원.

4. [A]의 주된 기능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④ 전개될 사건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37. 인정받음>

2013학년도 수능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막 씨 줄은 복통이 있어 마치 태중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러 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더니, 심 삭에 미처는 산점*이 있어 초막(草幕)에 었드렸더니,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기를,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지라.

막 씨 헤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 땀 때에 아궁이에 들이쳤더니, 닷새 후에 해쳐 본즉 금방울이 튀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짙어지고 향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풀속에 들어 차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침때 나는 세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일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묻혀 오되 그 털이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뵈지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데서 남의 방아를 짙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뽀뽀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랍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낮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풀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데와 마른 데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흙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차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놓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히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위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旌門)*을 세워 잠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차질.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풍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공이 주야 병측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철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을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매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충 하소서.”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낫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썼으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히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놓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데, 부인이 차고 나매 정신이 썩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풀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 전.-

- * 산점 : 해산의 기미.
-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 월음 :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 수말 : 일의 처음부터 끝.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 ㉠ ㉠ : 금방울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2005학년도 수능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 금궤자의 아들이라 하여 외딴 섬에 버려진 최치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에게 글을 배운다. 최치원이 12세가 되었을 때, 중국 황제가 신라를 공격할 구실을 찾기 위해 함에 달걀을 넣고 봉한 다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내어 시를 지어 올리라 한다. 최치원이 시를 지어 올리자, 중국 황제는 최치원이 장차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죽이려고 신라 왕에게 조서를 보내 중국으로 부른다. 최치원은 50자나 되는 기다란 모자를 마련하여 중국으로 떠난다.

낙양 성문에 들어서니, 어떤 학사가 치원에게 묻기를, “해와 달은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하늘은 어느 곳에 매달려 있는가?” 하니, 치원이 말했다. “산과 내는 땅에 실려 있는데, 땅은 어느 곳에 실려 있는가? 당신이 땅이 실린 곳을 말하면 내가 하늘이 매달린 곳을

말하겠소.”
 이에 학사가 대답하지 못했다.
 이때 황제가 최 문장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속이고자 삼문(三門) 안에 몇 길이나 되는 깊은 구덩이를 판 후, 악공들을 그 안에 매복시키고 경계하여 말했다.

“만약 최 문장이 들어오면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하여라.”

또 사문(西門) 안에는 ㉔ 장막을 설치하여 코끼리와 사람을 장막 안에 매복시킨 다음 치원을 불렀다.

치원이 느린 걸음으로 켈문에 들어서니 쓰고 있던 모자가 문쪽대기에 닿았다. 치원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비록 우리 소국의 켈문이라도 내 모자가 닿지 않았건만 하물며 대국의 켈문에 내 모자가 닿는단 말인가?”

하고, 오래도록 들어가지 않았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하며 즉시 켈문을 부수게 한 연후에 치원을 다시 불렀다. 치원이 켈문을 지나 얼마쯤 걸어 들어가니 지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치원이 즉시 청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그쳤다. 삼문에 들어서니 또 음악 소리가 들려 흰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곧 그쳤다. 사문에 들어서니 흰 코끼리가 장막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치원이 황색 부적을 던지자 그 부적이 변해 누런 벌이 되어 코끼리 입을 둘러싸니, 코끼리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황제는 치원이 여러 문을 아무런 탈이 없이 태연하게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했다.

“이는 진실로 천지(天地)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치원이 오문(五門)에 들어서니 학사들이 좌우로 쭉 늘어서 서로 경쟁하듯 질문을 던졌다. 치원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오직 시를 지어 주었는데, 순식간에 많은 시를 지었는데 학사들이 그 시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사들이 감히 다시 말을 하지 못했다.

치원이 이전에 이르니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하였다. 이내 인사말을 마치고 황제가 물었다.

“경이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었소?”
 치원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황제가 물었다.

“어떻게 알고 시를 지었소?”
 대답하기를,

“신이 듣자오니 무릇 현자는 비록 천상에 있는 물건이라도 통달해 안다고 합니다. 신이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 짓는 것쯤 못하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마음 속으로 기이하게 여기고 또 물었다.

“경이 삼문 안으로 들어올 때 음악 소리를 듣지 못했소?”
 치원이 대답하길,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황제가 삼문 안에 매복해 있던 악공들을 불러들여 꾸짖으니, 악공들이 모두 아뢰었다.

“우리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할 때 청의와 백의를 입은 자들 수천 명이 와서 우리를 뫼으며, ‘대빈(大賓)께서 오시니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기에 감히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크게 놀라 사람을 시켜 가 보게 하니 구덩이 안에는

큰 구렁이들이 가득 차 있었다. 황제가 감탄하여 말하길,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 소홀히 할 수 없다.”
 하고, ㉕ 장막을 쳐 황제가 먹는 음식을 올리게 하고 시중 드는 관리들을 배치하는 등 모두 황제의 거처와 같게 하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2. 황제가 최치원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㉔와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지 판단하시오.

㉔ ㉕는 시험의 의미를, ㉕는 예우의 의미를 띤다.

—

<38. 장면 전환>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임을 파한 후에 토끼 뒤에 따라가며 한 번 불러, “여보, 토생원(先生員).” 토끼의 근본 성품 무겁지 못한 것이 겹하여 몸집도 작으니 ㉔은 산중이 멀리하여 누가 대접하겠느냐. 쥐와 여우. 다 람쥐도 ‘토끼야, 토끼야.’ 아이 부르듯 이름 불러 어른대접 못 받다가 천만뜻밖 누가 와서 생원이라 존칭하니. 좋아 아주 못 견디어. “게 뉘랄게. 게 뉘랄게. 날 찾는 게 뉘랄게.” 요리 팔팔 조리 팔팔 깡장깡장 뛰어나니. 별주부(羅主簿)가 의동하여 토끼의 동정 보자 긴 목을 움드리고 가만히 었었으니 토끼가 주부 보고 의심을 매우 하여, “이것이 무엇이고? 쇠뿔이 말랐는가. 이 산중에 무슨 술 깨어진 부등감*이 어찌 저리 묘하게 깨져. 애고. 이것 큰 일났다. 사냥 왔던 총(銃)장이가 짐음승** 끌러 놓고 똥 누려 갔나 보다. 바빠바빠 도망하자.”

주부가 생각한즉 그대로 두어서는 ㉔저리 방정맞은 것이 이리 저리 한없이 내달리겠거든 또 한 번 크게 불러, “여보 토생원.” 토끼가 가다 듣고. “누가 나를 또 부르노?” 아장아장 도로 오며 주부를 바라보니, 아까 없던 목줄기가 돌담 틈에 배암같이 슬금 이 나오거든. 의심 나고 겁이 나서 멀찍이 서서 보며 문자(文字)로 수작 내어. “내가 이 산중에 생어사(生於斯) 장어사(長於斯) 유어사(遊於斯) 노어사(老於斯)하여 몇 해가 되었으되 오늘 처음 보는 터에 나를 어찌 알고 무엇 하러 불렀노?” 주부가 대답하되, “유봉(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억낙호(不樂乎)가 공자님 말씀인데. 어이 그리 무식하여 처음 본다 괘시하니 인사가 틀렸는데.”

토끼가 들어본즉 ㉔생긴 것과 말하는 게 만만히 볼 수 없거든. 옆에 와 썩 앉으며, “뉘라 하시오?” “에. 나는 수궁(水宮)에서 주부 벼슬하여 먹는 자라요.” “산수(山水)가 서로 다른데 산중은 어찌 왔소?” “우리 용왕 장한 가르침 팔천 리를 다스리니 하루에도 수없이 몸소 일을 하옵는데 신하가 제주 없어 찬양하기 어렵기로, 용왕의 분부 모시어 임금 보좌할 인재를 구하기로. 천하 명산 다니다가 오늘날 모족(毛族) 모임 천만다행 만났기로. 자리를 다

보아도 임금 보필할 인물은 꿈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선생 하나 뿐이기로 선생을 모셔 가져 뒤를 따라 왔사오니. 바라건대 선생은 나를 따라 가사이다.”

토끼가 제 인물에 ㉔하 감사한 말이어든, 제 소견에도 의심하여, “어떻기에 내 형용이 꿈보다도 나올 테요? 범보다 나올 테요?” 주부가 대답하되. ㉔“꿈의 몸이 비록 크나 눈이 작고 털이 덮여 태양 정기 부족하니 미련하여 못 쓸 테요, 밤이 비록 용맹하나 코 짧고 즐기 없어 얼골 가운뎃가 움푹하니 단명(短命)하여 못 쓸 테요, 몸이 작고 발이 빨라 산도 넘고 물도 뛰어 따라갈 이 없을 테니, 민첩한 저 구변(口辨)이 소진(蘇秦)의 합중(合縱)인지. 가끔가끔 조는 것이 공명(孔明)의 춘수(春睡)런지.*** 볼수록 모두, 짐승 중 제일이니, 우리 수궁 같시오면 출장입상, 부귀공명 따라갈 이 뉘 있을까?”

토끼가 들어 본즉 주부의 하는 말이 저 생긴 형용하고 낱말이 똑같거든. 가만히 생각한즉 ㉔형용은 무던하나 속에 글이 없었으니, 수궁에 글하는 이 있는지 알아야 할 태어든. 또 물어 “수궁의 조관(朝官) 중에 문장이 몇이 되요?”

“문장 조관 있으며는 영덕전(靈德殿) 지을 적에 상량문을 못 지어서 인간 세상까지 나와 구했겠소?” 또 물어, “수궁에 활plex 키 큰 조관 있소?” “영덕전 상량할 제, 키 큰 조관 가리는데 내가 상량하였지요. 그리 큰 수궁에서 나만한 키도 없소. 선생이 들어가면 거인이 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라지요.”

토끼가 생각한즉. ‘너른 의사(意思) 좋은 구변 내 속에 흠뻑 들고, 글 잘하고 키 큰 조관 수궁에 없다 하니. 나 지닌 신언서판(身言書判) 놀릴 데가 없건마는 땅에 안주하여 옮기기 어려우니 이 형편에 썩 떠나기가 어렵구나.’

- 신재효, 토별가(兔獵歌) -
- 부등감 :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아궁이의 불을 담아낼 때 부삽 대신 쓰는 것.
- 짐음승 : 화약의 심지
- 소진의 합중, 공명의 춘수 : 토끼의 말쑥씨와 조는 모습을 각각 소진의 위엄과 제갈공명의 여유에 비긴 말.

1.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설화를 채록한 것이다. <보기>와 비교하여 윗글의 특징을 말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보 기>
 ㉔ 수정 : 사건의 인과성을 드러내기 위해 장면을 전환시켰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생(泚生)은 서울의 양반이다.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風情)이 넘쳤다.
 어느 날 운종가(雲從街)에 나가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건장한 여종이 자주색 명주(明紬) 보자기로 한 처녀를 덮어썩 뒤 등에 업고, 머리를 땀은 여종은 주홍색 비단신을 들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 채록 일시 : 2001년 ○월 ○일
- 채록 장소 : 경기도 ○○군 ○○면 ○○리
- 제보자 : 정○○(여, 75세)
- 채록자 : 김○○

자라가 육지에 나와서 토끼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데, 한 짐승이 잇길래 목을 집어넣고 발을 움드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그 짐승이 와서 먼저 보며, “이게 뭐냐? 쇠뿔 같은데?” 하며 발로 툭 차 봤겠지. 자라는 그 짐승이 별로 해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목을 쭉 내밀고, “너는 뭐냐?” 하고 물었어. “나는 토끼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뭐냐?” 하고 되물었겠다. 자라는 “나는 용궁에 사는 자라인데, 이 세상에 토끼란 것이 재간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용궁에서 데려다가 귀한 벼슬을 주고 재미있는 세월을 보내게 하겠다고 나를 내보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용궁에 가지 않겠니?” 하며, 이런 말 저런 말로 토끼를 꾀는 것이야. 토끼는 그 말을 듣고서 용궁에 가고픈 맘이 생겼지.

어림짐작으로 보자기 안의 몸을 제어 보니 어린 여자 아이도 아니었다. 드디어 심생은 바짝 붙어 뒤를 쫓았다.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면서 눈은 한순간도 그 보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걸음이 소광통교(小廣通橋)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색 보자기를 반이나 들추었다.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나타나는데 복숭아 빛 발그레한 뺨에 벼들가지 같은 가는 눈썹, 초췌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분이 몹시 곱아 실려 보아도 절색이었다.

치너도 보자기 속에서 어렴풋하게 아름다운 소년이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草笠)* 쓰고, 좌우 이쪽저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추파(秋波)를 들어 보자기 밖의 소년을 한참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걷히고 벼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네 개가 부딪쳤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보자기를 당겨 다시 덮어쓰고 자리를 떴다.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곧장 뒤를 쫓아갔다. 소공주동(小公主洞)* 홍살문 안에 이르러 치너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심생은 망연자실하여 한참을徘徊하다가 이웃 노파를 붙들고 자세히 알아보았다. 늙어서 은퇴한 호소(戶曹) 계사(計士)*의 집이요, 딸 하나만을 두었고, 나이는 열 예닐곱이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등등. 치너가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노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회칠한 담이 하나 나올 거유. 담 안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로 처자(處子)가 거처하는 곳 이라유.”

노파의 말을 듣고 난 심생은 아무리 해도 잇을 수가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제에다 거짓말을 꾸며 떴다.

“서당 친구가 지랑 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니 오늘 밤부터 가 볼게요.”

드디어 인정(人定)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서 담을 넘었다. 초승달이 어스름 빛을 드리운 창밖에는 꽃과 나무들이 제법 아담하게 가꾸어져 있고,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은 아주 환하였다. 벽에 등을 대고 처마 밑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여종 둘이 함께 있었다. 치너는 나직한 목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는데 꾀꼬리 새끼가 우는 듯 낭

랑하게 들려왔다.

삼경(三更) 무렵, 여중들은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처녀는 그제야 “훅!” 등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 거렸다. 심생은 잠이 들 리도 없었고 숨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담을 타고 나왔다. 그로부터 일과로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가 치면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한 지 스무날이 되었어도 심생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처녀는 처음에는 소설도 읽고 바느질도 하며, 한밤에 등불이 꺼지면 잠도 잤으나,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 예니레를 넘기자 “꿈이 편지 않다.” 라고 말하고 겨우 초경(初更)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워서는 자주 손을 던져 벽을 쳤고, 긴 한숨 짧은 탄식이 창을 넘어 들려왔다.

하루하루 밤을 보낼 적마다 심해지던 스무날째 저녁, 처녀는 홀연히 마루 뒤쪽으로 나와서 벽을 따라 돌아 심생이 앉아 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처녀를 잡았다. 처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은 소광동교에서 만났던 분이 맞지요? 소녀는 도련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지 벌써 스무날인 것을 잘 알아요. 저를 잡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다시는 여기를 나가시 못해요.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요.”

심생은 곧이듣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처녀는 다시 병들어서 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중을 불러 분부하였다.

“어머니한테 가서 큰 주석 자물쇠를 달래서 갖고 오나라. 밤이 아주 캄캄하여 겁이 난다.”

여중이 안방으로 가더니 오래지 않아 자물쇠를 갖고 왔다. 처녀는 드디어 약속한 뒷문이다 문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걸고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며 일부러 “철거덕!” 거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바로 등잔불을 켜다. 정적에 쌓여 잠이 깊어 든 듯했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 이육, 심생전(沈生傳) -

* 운종가, 소광동교, 소광주동 : 서울의 지명.
* 기사 : 회계원.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실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긴데, 전차 땀 하려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 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꿨다.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쉼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 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러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 바로 별명 비듯이 불려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재물이 딱 벌려진 게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곁줄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둘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것대잡이 아이논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건잠을 수 없게 들렸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팔레타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웃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칠방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 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뛰어난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증산모 쓴 포복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퀴육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땡굴고, 그러는 각정이* 매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엔,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B] 더구나, 소년은, 출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단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 도 가 볼 수 있고, ‘전차’ 도 탈 수 있고, 울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테러다 준다는 ‘승강기’ 라는 것이 있다지 않냐. 수길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 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야.”
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말하니가,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딴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뺨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게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 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 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실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뒀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떡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 나 태워 주고, ‘화신상’ 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꽤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임바네스 : 남자용 외투의 일종.
* 각정이 : 거지.

<39. 저항>

2011학년도 수능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저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쩐지 마음이 조금 흐뭇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흠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껄었다.

“저것 봐, 저기 저기, 에에이, 모두 잠만 자구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기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해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여러 있고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기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됐이야이.”

“……”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이. 너무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이.”

하고는 해죽이 웃었다.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친친히 그러안으면서,

“칠성아, 야하, 흠씩은 출다.”

“……”

“저 말이야, 엄만 날 볼 불쌍히 여겼었야, 잉. 야,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이이.”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별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음을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젠 좀 그만 걷지 달,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훌끔 걸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2013학년도 수능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쉼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깥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별쪽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하니. 네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에 또 동생의 어깨를 그러안으면서,

“야, 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고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흐흐흐.”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머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룩거리었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릴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낱색이었다. 들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겨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게 짙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구 글지 마라, 어영?”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리 큰 소리로,

“아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꺾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견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딱발총을 휘둘러 쓰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메면서,

“매질을 더 살것다구 빼득대? 빼득대길.”

- 이호철, 「나상(裸像)」-

1.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보 기> —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실감 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친진남만한 ‘별거승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이 작품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④ 자신을 압박해 오는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친진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

<40. 제시>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임을 파한 후에 토끼 뒤에 따라가며 한 번 불러. “여보, 토생원(兔生員).” 토끼의 근본 성품 무겁지 못한 것이 겸하여 몸집도 작으니 온 산중이 멸시하여 누가 대접했느냐. 쥐와 여우, 다람쥐도 ‘토끼야, 토끼야.’ 아이 부르듯 이름 불러 어른대접 못 받다가 천만뜻밖 누가 와서 생원이라 존칭하니. 좋아 아주 못 견디어. “게 뉘랄게. 게 뉘랄게. 날 찾는 게 뉘랄게.” 요리 팔팔 조리 팔팔 깡장깡장 뛰어나니. 별주부(甌主簿)가 의문하여 토끼의 동정 보자 긴 목을 움츠리고 가만히 앉았으니 토끼가 주부 보고 의심을 매우 하여. “이것이 무엇이고? 쇠뿔이 말랐는가. 이 산중에 무슨 술 깨어진 부등감*이 어찌 저리 묘하게 깨져. 애고, 이것 큰일났다. 사냥 왔던 총(銃)장이가 질음승** 끌러 놓고 똥 누러 갔나 보다. 바빠바빠 도망하자.”

주부가 생각한즉 그대로 두어서는 저리 방정맞은 것이 이리저리 한없이 내달리겠거든 또 한 번 크게 불러. “여보 토생원.” 토끼가 가다 듣고. “누가 나를 또 부르뇨?” 아장아장 도로 오며 주부를 바라보니, 아까 없던 목줄기가 돌담 틈에 배알같이 슬금 나오거든. 의심 나고 겁이 나서 멀찍이 서서 보며 문자(文字)로 수작 내어. “내가 이 산중에 생어사(生於斯) 장어사(長於斯) 유어사(遊於斯) 노어사(老於斯)하여 몇 해가 되었으되 오늘 처음 보는 터에 나를 어찌 알고 무엇 하러 불렀느냐?” 주부가 대답하되, “유봉(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억낙호(不樂乎)가 공자님 말씀인데. 어이 그리 무식하여 처음 본다 팔시하니 인사가 틀렸는데.”

토끼가 들어본즉 생긴 것과 말하는 게 만만히 볼 수 없거든. 옆에 와 썩 앉으며, “뉘라 하시요?” “예, 나는 수궁(水宮)에서 주부 벼슬하여 먹는 자라요.” “산수(山水)가 서로 다른데 산중은 어찌 왔소?” “우리 용왕 장한 가르침 팔천 리를 다스리니 하루에도 수 없이 몹소 일을 하옵는데 신하가 제주 없어 찬양하기 어렵기로, 용왕의 분부 모시어 임금 보좌할 인재를 구하기로. 천하 명산 다니다가 오늘날 모족(毛族) 모임 천만다행 만났기로, 자리를 다 보아도

임금 보필할 인물은 곰도 아니고 범도 아니고 선생 하나뿐이기로 선생을 모셔 가자 뒤를 따라 왔사오니, 바라건대 선생은 나를 따라 가사이다.”

토끼가 제 인물이 하 감사한 말이어든, 제 소견에도 의심하여, “어떻기에 내 형용이 곰보다도 나를 테요? 범보다 나를 테요?” 주부가 대답하되, “곰의 몸이 비록 크나 눈이 작고 털이 덮여 태양 정기 부족하니 미련하여 못 쓸 테요, 발이 비록 용맹하나 코 짧고 줄기 없어 얼굴 가운데가 움푹하니 단명(短命)하여 못 쓸 테요, 몸이 작고 발이 빨라 산도 넘고 물도 뛰어 따라갈 이 없을 테니, 민첩한 저 구번(口辯)이 소진(蘇秦)의 합중(合縱)인지. 가꿈가꿈 조는 것이 공명(孔明)의 춘수(春睡)런지.*** 볼수록 모두, 짐승 중 제일이니, 우리 수궁 갈사오면 출장입상, 부귀공명 따라갈 이 뉘 있을까?”

토끼가 들어 본즉 주부의 하는 말이 저 생긴 형용하고 낱날이 똑같거든. 가만히 생각한즉 형용은 무던하나 속에 글이 없었으니, 수궁에 글하는 이 있는지 알아야 할 테여든. 또 물어 “수궁의 조관(朝官) 중에 문장이 맺이 되요?” “문장 조관 있으며는 영덕전(靈德殿) 지을 적에 상량문을 못 지어서 인간 세상까지 나와 구했겠소?” 또 물어, “수궁에 월씩 키 큰 조관 있소?” “영덕전 상량할 제, 키 큰 조관 가리는데 내가 상량하였지요. 그리 큰 수궁에서 나만한 키도 없소. 선생이 들어가면 거인이 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라지요.”

토끼가 생각한즉, ‘너른 의사(意思) 좋은 구번 내 속에 흠뻑 들고, 글 잘하고 키 큰 조관 수궁에 없다 하니, 나 지닌 신언서판(身言書判) 놀릴 데가 없건마는 땅에 안주하여 옮기기 어려우니 이 형편에 썩 떠나기가 어렵구나.’

- 신재효, 토별가(兔獵歌) -

- 부등감 :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아궁이의 불을 담아낼 때 부삽 대신 쓰는 것.
- 질음승 : 화약의 심지
- 소진의 합중, 공명의 춘수 : 토기의 말솜씨와 조는 모습을 각각 소진의 위업과 제갈공명의 여유에 비긴 말.

1.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설화를 채록한 것이다. <보기>와 비교하여 윗글의 특징을 말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보 기>

⑤ 현성 : 토끼와 자라의 대화가 훨씬 길어서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어.

—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66. 철호의 집 앞

철호가 트락에 들어서는데 “가자!” 하는 어머니의 소리.

철호 한 대 맞은 사람 모양 우두커니 한동안 서 있더니 뒤

- 채록 일시 : 2001년 ○월 ○일
- 채록 장소 : 경기도 ○○군 ○○면 ○○리
- 제보자 : 정○○(여, 75세)
- 채록자 : 김○○

자라가 육지에 나와서 토끼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데, 한 짐승이 있길래 목을 집어넣고 발을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자 그 짐승이 와서 만져 보며, “이게 뭐냐? 쇠뿔 같은데?” 하며 발로 툭 차 봤겠지. 자라는 그 짐승이 별로 해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목을 쭉 내밀고, “너는 뭐냐?” 하고 물었어. “나는 토끼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뭐냐?” 하고 되물었겠다. 자라는 “나는 용궁에 사는 자라인데, 이 세상에 토끼란 것이 재간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용궁에서 데려다가 귀한 벼슬을 주고 재미있는 세월을 보내게 하겠다고 나를 내보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용궁에 가지 않겠니?” 하며, 이런 말 저런 말로 토끼를 피는 것이야. 토끼는 그 말을 듣고서 용궁에 가고픈 맘이 생겼지.

돌아서 터벅터벅 걷는다.

여기에 달이는 철호의 소리 - “어머니, 어디로 가지시는 말 씀입니까?”

S# 67. 정신 병원 진료실

4. 5년 전의 어머니가 병상에 반듯이 누워 있다.

명하니 어느 피안(彼岸)을 바라보는 눈.

어머니 가자!

그 옆에 청진기를 손에 들고 있는 의사.

그 앞에 마주 서 있는 좀 말쑥한 철호.

철호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저러실까요. 선생님!

의사 과거에는 생활이 윤택하셨던가 아마 그 당시로 돌아가 지시거나 아니면 우리 현실보다 나은 세계 -말하자면 영겁(永劫)의 나라일 테죠.

철호 선생님!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의사 글썽요. 한 삼사 년 치료를 받아 보시면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S# 68. 산비탈 길

두뼉두뼉 걸고 있는 철호.

S# 69. 피난민 수용소 안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훌쩍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의 소리 -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 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련토로’.

- 종 략 -

S#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철사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그럼 뭘 뽐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용기?
영호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엉뚱하진 뭐가 엉뚱해요.
철호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하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서 가지고 있는 돈 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 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급니만 해도 폭폭 쑤시고 아픈 걸 견디다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지극하게 살아야 하나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왔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픽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그건 억설이야.
영호 억설이요?
철호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건 아니냐.
영호 천만에요.

- 이범선 원작/나소은·이종기 각색. 오발단 -

*O.L(overlap) : 한 화면 끝에 다음 화면의 시작을 합치면서 부드럽게 화면을 바꾸어 가는 기법.

2. 윗글을 영화로 만들고자 한다. 감독이 각 배역을 맡은 연기자들에게 주문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④ S# 69의 철호의 아내는 **증편한 삶을 잘 참아 내는 순종적인 인물로** 그림시다.
- ⑤ S# 74의 영호는 **소심하고 용의주도한 인물로 보이도록** 합시다.

2012학년도 수능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심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메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되, 그 밭들의 고품,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호호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 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괜일인데 어찌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들들부터 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누 가야겠어서 아무투 안 테귀구 왔습니다.”
“오늘누 갈 걸 뭘 하 오누?”
“인젠 어머니시킨 서울로 모셔 갈 책벌 러려 왔따유.”
“서울투! 제발 아들들허구 한테서 살아 봤을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을 산소나 사망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뜰뜰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임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씩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육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세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임원실로 변경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것, 열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았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돈대아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뽐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얼마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해 들었다. 그리고,
“잠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닳뜨들을 올려놓고와 들어와 그도 점심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다 봐! 그 다리 침 늘 게 내가 어려서 봤는 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둔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צל을 씌움을 허다냐!”

“나무다리라 있는데 천 왜 고치시냐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둘만 허다든? 너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투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철갈 끼구 그 다리투 글 읽으려 땀했다. 내 어미두 그 다리투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죽던 그 다리투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둑에 선 느리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겨구, 저 사랑 마담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판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엿으며 나라가 어엿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진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펼쳐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문돌이처럼 변리만 생각하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현신학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에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보지 않드라.”

“…….”

- 이태준, <돌다리>

- 3.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㉔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함으로써,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 ㉕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창섭’의 말투를 실감 나게 표현하여, ‘아버지’를 대하는 ‘창섭’의 태도를 제시한다.

2012학년도 수능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북쪽 선생이라 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리(東里寡婦之閭)’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姓)을 지녔다.

[나] 어느 날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벌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러도 북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온데 오는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짐작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술과 세발술은 무얼 분별 만들었나. 흥(興)이라.”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댔다.

“어찌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목으면 둔갑하여 사람 시늬를 할 수 있다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갖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

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킬킬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관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벌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벌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머리를 왼편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북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법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법님의 이름은 신룡(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 자리에 서옵니다.”

벌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들건대, 유(儒)란것은 유(誡)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내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 땅덩이께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들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벌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벌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북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얼드렸다가 일어나 영겨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제제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설칠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벌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아침에 갈 갈려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관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 물으니, 북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려.”

- 박지연, <호질>

[어휘풀이] 1)유(儒) : 선비. 2)유(誡) : 아침하다.

- 4.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㉔ (나)에 비해 (다)는 서술자의 서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된다.
- ㉕ (라)는 행위에 의해, (마)는 주로 대화에 의해 갈등이 해결된다.
- ㉖ (마)는 (가)와 구조 면에서 호응하여 작품의 완결성을 높여 준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생(沈生)은 서울의 양반이다.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風情)이 넘쳤다.

어느 날 운종가(雲從街)에 나가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긴장한 여종이 자주색 명주(明紬) 보자기로 한 처녀를 덮어씌워 등에 업고, 머리를 땀은 여종은 주홍색 비단신을 들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림짐작으로 보자기 안의 몸을 재어 보니 어린 여자 아이는 아니었다. 드디어 심생은 바짝 붙어 뒤를 쫓았다.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면서 눈은 한순간도 그 보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길옆이 소광통교(小廣通橋)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색 보자기를 받이나 들추었다.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나타나는데 복숭아 빛 발그레한 뺨에 버들가지 같은 가는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분이 몹시 고와 설핏 보아도 절색이었다.

처녀도 보자기 속에서 어렴풋하게 아름다운 소년이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草笠)을 쓰고, 좌우 이쪽저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추파(秋波)를 들어 보자기 밖의 소년을 한참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걸히고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네 개가 부딪쳤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했다. 보자기를 던져 다시 덮어쓰고 자리를 떴다.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곧장 뒤를 쫓아갔다. 소공주동(小公主洞)* 훗살문 안에 이르러 처녀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심생은 망연자실하여 한참을徘徊하다가 이웃 노파를 붙들고 자세히 알아보았다. 늙어서 은퇴한 호조(戶曹) 계사(計士)*의 집이요, 딸 하나만을 두었고, 나이는 열 예닐곱이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등등. 처녀가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노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회칠한 담이 하나 나올 거요. 담 안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로 처자(處子)가 거처하는 곳 이라유.”

노파의 말을 듣고 난 심생은 아무리 해도 잇을 수가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집마다 거짓말을 꾸며 댔다.

“서당 친구가 저랑 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니 오늘 밤부터 가 볼게요.”

드디어 인정(人定)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서 담을 넘었다. 초승달이 어스름 빛을 드리운 창밖에는 꽃과 나무들이 제법 아담하게 가꾸어져 있고,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은 아주 환하였다. 벽에 등을 대고 처마 밑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여종 둘이 함께 있었다. 처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는데 피꼬리 새기가 우는 듯 낭랑하게 들려왔다.

삼경(三更) 무렵, 여종들은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처녀는 그제야 “후!” 등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거렸다. 심생은 잠이 들 리도 없었고 숨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담을 타고 나왔다. 그로부터 일과로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가 치면 돌아오곤 했

다. 그렇게 한 지 스무날이 되었어도 심생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처녀는 처음에는 소설도 읽고 바느질도 하며, 한밤에 등불이 꺼지면 잠도 잤으나, 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 예니레를 넘기자 “몸이 편치 않다.” 라고 말하고 겨우 초경(初更)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워서는 자주 손을 던져 벽을 쳤고, 긴 한숨 짧은 탄식이 창을 넘어 들려왔다.

하루하루 밤을 보낼 적마다 심해지던 스무날째 저녁, 처녀는 홀연히 마루 뒤쪽으로 나와서 벽을 따라 돌아 심생이 앉아 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처녀를 잡았다. 처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은 소광통교에서 만났던 분이 맞지요? 소녀는 도련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지 벌써 스무날인 것을 잘 알아요. 저를 잡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다시는 여기를 나가지 못해요.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요.”

심생은 끈이틀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처녀는 다시 빙 돌아서 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종을 불러 분부하였다. “어머니한테 가서 큰 주석 자물쇠를 달래서 갖고 오나라. 밥이 아주 캄캄하여 겁이 난다.”

여종이 안방으로 가더니 오랫동안 자물쇠를 갖고 왔다. 처녀는 드디어 약속한 뒷문에도 문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걸고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되 일부러 “철거덕!” 거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바로 등잔불을 켰다. 정적에 쌓여 잠이 깊이 든 듯했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 이옥, 심생전(沈生傳) -

* 운종가, 소광통교, 소공주동 : 서울의 지명.
* 계사 : 회계원.

5. [A]의 주된 기능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속도감을 준다.
- ㉡ 여자 주인공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2013학년도 수능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막 씨 졸연 복통이 있어 마치 태증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려 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더니, 심 약에 미치는 산첩*이 있어 초막(草幕)에 었드렸더니,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지라. 막 씨 헤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 땀 때에 아궁이에 들어쳤더니, 닷새 후에 해쳐 본즉 금방울이 뛰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짙어지고 향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림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침떠 나는 세도 잡고 나무에 올라 파실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은갖 것을 묻혀 오되 그 털이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만하고 뵈지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대서 남의 방아를 쪼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랍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낮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데와 마른 데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흙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지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놓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위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旌門)*을 세워 잠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리라.

차절. 장 공이 너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몽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공이 주야 병측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침의 팔자 기박하여 한 달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매 병일곱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충 하소서.”

하고 인하여 명이 전하니, 장 공이 낮을 대고 예통하여 자로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썼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히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썩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진히 막 씨의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

- 전.-
- * 산점 : 해산의 기미.
-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 월음 :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 수말 : 일의 처음부터 끝.

6.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
㉡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2013학년도 수능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쉴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실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건데, 전차 밧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 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빠다.

전차도 전차라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정’ 이 선 듯도 싶지 않긴 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뚝뚝하다’ ,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둘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떴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웃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쫄쫄 쫄 쫄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나,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께이나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모 쓴 포복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육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나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한 깍정이* 때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면,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출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얌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 볼 수 있고, ‘진차’도 탈 수 있고, 옹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 길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게해 험기증이 나더라도,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경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 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야.”

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딸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 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뻥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붙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 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걸걸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껴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싹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가스로 고개를 한 번 끄떡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진차’나 태워 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오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께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임바네스 : 남자용 외투의 일종.

* 깍정이 : 거지.

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㉜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8. <보기>의 우화를 바꿔 쓰기 위해 토의해 보았다. 사고 방향에 따른 바꿔 쓰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보 기>

참나무가 갈대에게 험자랑을 하고 있었다. 허약하고 바람에 쉽게 굴한다는 참나무의 놀림에 갈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 닦쳤다.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바람을 이겨 냈지만, 제 힘만 믿고 바람에 맞서 버티던 참나무는 결국 부러지고 말았다. - 『이슬 우화』 -

㉝ 나는 이 우화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겠어. 참나무와 갈대가 삶의 방식을 놓고 대화하는 장면을 설정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 닦치는 장면도 자세히 묘사할 거야.

<41. 논 평>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임을 파한 후에 토끼 뒤에 따라가며 한 번 불러, “여보. 토생원(兔生員).” 토끼의 근본 성품 무겁지 못한 것이 겹하여 몸집도 작으니 ㉠ 온 산중이 멸시하여 누가 대접하겠느냐. 쥐와 여우. 다람쥐도 ‘토끼야. 토끼야.’ 아이 부르듯 이름 불러 어른대접 못 받다가 천만뜻밖 누가 와서 생원이라 존칭하니. 좋아 아주 못 견디어. “게 뉘랄게. 게 뉘랄게. 날 찾는 게 뉘랄게.” 요리 팔팔 조리 팔팔 깡장깡장 뛰어나니, 별주부(甌主簿)가 의문하여 토끼의 동정 보자 긴 목을 움드리고 가만히 얼렀으니 토끼가 주부 보고 의심을 매우 하여. “이것이 무엇이고? 쇠뿔이 말랐는가. 이 산중에 무슨 술 깨어진 부등감*이 어찌 저리 모하게 깨져. 예고. 이것 큰일났다. 사냥왔던 총(銃)장이자 질음승** 끌러 놓고 똥 누려 갔나 보다. 바빠바빠 도망하자.”

주부가 생각한즉 그대로 두어서는 ㉡ 저리 방정맞은 것이 이리저리 한없이 내달리겠거든 또 한 번 크게 불러, “여보 토생원.” 토끼가 가다 듣고, “누가 나를 또 부르뇨?” 아자아장 도로 오며 주부를 바라보니. 아까 없던 목줄기가 돌담 틈에 배암같이 슬금 나오거든. 의심 나고 겁이 나서 멀찍이 서서 보며 문자(文字)로 수작 내어, “내가 이 산중에 생어사(生於斯) 장어사(長於斯) 유어사(遊於斯) 노어사(老於斯)하여 몇 해가 되었으니 오늘 처음 보는 터에 나를 어찌 알고 무엇 하러 불렀뇨?” 주부가 대답하되, “유봉(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역낙호(不亦樂乎)가 공자님 말씀인데. 어이 그리 무식하여 처음 본다 팔시하니 인사가 틀렸는데.”

토끼가 들어본즉 ㉢ 생긴 것과 말하는 게 만만히 볼 수 없거든. 옆에 와 썩 앉으며, “뉘라 하시요?” “예. 나는 수궁(水宮)에서 주부 벼슬하여 먹는 자라요.” “산수(山水)가 서로 다른데 산중은 어찌 왔소?” “우리 용왕 장한 가르침 팔천 리를 다스리니 하루에도 수없이 몸소 일을 하옵는데 신하가 재주 없어 찬양하기 어렵기로. 용왕의 분부 모시어 임금 보좌할 인재를 구하기로. 천하 명산 다니다가 오늘날 모족(毛族) 모임 천만다행 만났기로. 자리를 다 보아도 임금 보좌할 인물은 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선생 하나 뿐이기로 선생을 모셔 가자 뒤를 따라 왔사오니. 바라건대 선생은 나를 따라 가사이다.”

토끼가 제 인물에 ㉣ 하 감사한 말이든, 제 소견에도 의심하여, “어떻게 내 형용이 곰보다도 나를 태요? 범보다 나를 태요?” 주부가 대답하되, “곰의 몸이 비록 크나 눈이 작고 털이 덮여 태양 정기 부족하니 미련하여 못 쓸 태요, 범이 비록 용맹하나 코 짧고 즐기 없어 얼굴 가운데가 움푹하니 단명(短命)하여 못 쓸 태요, 몸이 작고 발이 빨라 산도 넘고 물도 뛰어 따라갈 이 없을 테니, 민첩한 저 구변(口辯)이 소진(蘇秦)의 합종(合縱)인지. 가끔가끔 조는 것이 공명(孔明)의 춘수(春睡)런지.*** 볼수록 모두, 짐승 중 제일이니, 우리 수궁 갈사오면 출창입창, 부귀공명 따라갈 이 뉘 있을까?”

토끼가 들어 본즉 주부의 하는 말이 저 생긴 형용하고 날날이 똑같거든. 가만히 생각한즉 ㉤형용은 무던하나 속에 글

이 없었으니, 수궁에 글하는 이 있는지 알아야 할 태이든. 또 물어 “수궁의 조관(朝官) 중에 문장이 뿔이 되요?” “문장 조관 있으며는 영덕전(靈德殿) 지을 적에 상량문을 못 지어서 인간 세상까지 나와 구했겠소?” 또 물어, “수궁에 흰색 키 큰 조관 있소?” “영덕전 상량할 제, 키 큰 조관 가리는데 내가 상량하였지요. 그리 큰 수궁에서 나만 한 키도 없소. 선생이 들어가면 거인이 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라지요.”

토끼가 생각한즉. ‘너른 의사(意思) 좋은 구변 내 속에 흠뻑 들고. 글 잘하고 키 큰 조관 수궁에 없다 하니. 나 지닌 신언서판(身言書判) 놀림 데가 없건마는 땅에 안주하여 옮기기 어려우니 이 형편에 썩 떠나기가 어렵구나.’

- 신재효, 토별가(兔籠歌) -

- 부등감: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아궁이의 불을 담아낼 때 부삼 대신 쓰는 것.
- 질음승: 화약의 심지
- 소진의 합종, 공명의 춘수: 토끼의 말솜씨와 조는 모습을 각각 소진의 위업과 제갈공명의 여유에 비긴 말.

1. ㉠~㉣ 중, 등장 인물의 생각이 아닌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택이는 그리 답답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엉클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털 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딸꼬리미 화산택이를 바라보고, “아부지, 이거 누고 응?” 화산택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이다. “할매다!” “우리 할매?” “음!”

아들은 백없는 대답을 하면서 현 고무신 한 켤레를 내왔다. 화산택이는 길레로 털실털실 분 발뒤꿈치 더더기를 훑치면서, “그렇기, 나고는 침 보니…….”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질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걷는 데는 질세기가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질세기가 화산택이는 못내 아까웠다.

다다미방도 어색했지만,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의류이 두 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앉은키만 한 경대도 놓였다. 벽에는 풀기 없는 무색옷들이 쭈르르 걸렸다.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우선 어디가 구들목이며 어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전 방에 불러 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중략)

화산택이는 아들과 마주 앉고, 머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기웠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젓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좇고 있던 화산택이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봐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통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더께 더께기운 피뢰피 때 물은 비산을 들어내고 검은 보통이를 또 하나 들어냈다. 들어낸 보통이를 풀어 헤치고 아들과 머느리 어중간에 밀어 놓으면서,

“목어 봐라, 풀밤(도토리)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말팔하더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머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애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 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거냐

목어 봐라!”

머느리는 헛웃고 궁둥이만 달짝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 보던 손녀도 그만 폐쇄 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업마 곤하겠잖아!”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택이는 몇 해를 두고 버른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들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자던 습관은, 휘눈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횃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택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뒷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쫓.’ 돌아놓는다. ㉠ 건년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조면*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그러나 잠 대신 화산택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낮은 초가집이다.

빈대 피가 땃잎처럼 급한 토벽, 메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에서 손자들이 아랫도리 벗은 채 제멋대로 굴러 자고, 쭉뚝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만아들, 갈퀴 손으로 누더기를 집고 있는 맘머느리, 화산택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담아 기침을 내려 주고 머느리와 무르팍을 맞다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또 뒤쳐놓는다.

‘아무리 시에미가 시에미 같지 않기로니 참 보는 시에미에게 인삿절도 없이, 본바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은 작은아들 돈 잘 벌고 하리칼레* 메누리 봤다고 부러하더라도, 시정시럽고 가시롭다.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앙기가 있는 것도

다 기집 탓이지 머고. 여태껏 땅 한 페기 못 사는 것도 안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머고.’ 화산택이는 눈꼬리만 따갑고 잠은 점점 멀어 갔다.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십 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지 형 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더분한 색사나 골라 장가들었으면 등 따시고 배 부릴 꺼로 머 공장을 하느니 하고 날뛰 땡기더니.’

화산택이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가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은 언제 썰지 모르겠고 뒤는 자꾸 급해 왔다. 화산택이는 참다못해 조심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다시 더듬어 밖으로 나왔다.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뒷간이 있을 직할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택이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담 밑에다 대고 뒤를 보았다. ㉢ 한결 개분했다. 문살만 흰하면 나와서 뒤본 자리를 쟁기리라 맘먹고 다시 들어왔다.

화산택이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날이 활짝 쏘다. 아들 내의가 깰까 싶어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뒤본 자리는 공교롭게도 돌가루로 마린된 수채였다. 수채는 앞집으로 통했다. ㉣ 아침에 봐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 오영수, 「화산택이」-

- * 저거 조면 : ‘자기네들끼리 좋으면’ 의 방언.
- * 하리칼레 : 예전에 서양식 유행을 따르던 멋쟁이를 이르던 말.
- * 적산집 : 해방 전에 일본인들이 지은 신식 가옥을 이르는 말.

2.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보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2. 오버랩>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66. 철호의 집 앞

철호가 트락에 들어서는데 “가자!” 하는 어머니의 소리.

철호 한 대 맞은 사람 모양 우두커니 한동안 서 있더니 되돌아서 터벅터벅 걷는다.

여기에 달이는 철호의 소리 - “어머니, 어디로 가자시는 말 씌옵니까?”

S# 67. 정신 병원 진료실

4. 5년 전의 어머니가 병상에 반듯이 누워 있다.

멍하니 어느 피안(彼岸)을 바라보는 눈.

어머니 가자!

그 옆에 청진기를 손에 들고 있는 의사.

그 앞에 마주 서 있는 좀 말쑥한 철호.

철호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저러실까요. 선생님!

의사 과거에는 생활이 윤택하셨던가까 아마 그 당시에 돌아가 자식거나 아니면 우리 현실보다 나은 세계 -말하자면 영겁(永劫)의 나라일 테죠.

철호 선생님!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의사 글썩요. 한 삼사 년 치료를 받아 보시면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S# 68. 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S# 69. 피난민 수용소 안

담요까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흠어진 머리칼을 지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의 소리 -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까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 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 중 략 -

S#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그럼 뭐 뽕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용기?

영호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너 설마 영통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영통하긴 뭐가 영통해요.

철호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하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

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 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 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쑤시고 아픈 걸 견뎌내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 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났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푹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그건 역설이요.

영호 역설이요?

철호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냐.

영호 천만에요.

- 이병선 원작/나소은·이종기 각색, 오발탄 -

*O.L(overlap) : 한 화면 끝에 다음 화면의 시작을 합치면서 부드럽게 화면을 바꾸어 가는 기법.

1. S# 69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① 세 화면이 연속으로 중첩되어 상황의 변화를 보여 준다.

2009학년도 수능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9. 불이의 집(낮)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어낸 짐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희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부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엄마 영현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

영호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 겁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병과 웃고) ……떡볶이 고기를 얻었어요. 얘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92. 레스토랑

영희가 집시의 고기를 서둘러 먹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씹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95. 불이의 집

굉광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던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넓혀 온다.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인다. 지켜보는 인물들. 가라앉은 먼지의 마당.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대장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앉으며 땀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물들. 인부들도 즐거운 낯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집시에게 주섬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답답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명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반이 턱을 악물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96. 고급 맨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97. 불이의 집

일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뽀얗게 먼지가 인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수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흥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다른: 권투 시험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 몽타주: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_1, M_2, \dots, M_k 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_1, S_2, \dots, S_n 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_1 \rightarrow S_1 \rightarrow M_2 \rightarrow S_2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k \rightarrow S_k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n \rightarrow S_n$ 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_k 에서 S_k 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_k 와 S_k 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① #90, #92, #96은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이다.
- ②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③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 ④ ‘고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 ⑤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

2010학년도 수능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8. 동만네 집 전경(밤)

동만 모의 진한 핏빛 울음소리 들리는데 빗속에 누워 있는 동만네 집 전경. 끝없이 쏟아지는 장맛비. 장맛비. (F. O.)

29. 건지산 전경

(F. I.) 환고비 숨을 돌려 보슬비 뿌리는 하늘. 멀리 희색빛 용자를 자랑하는 건지산의 자태.

30. 동만네 마당

완두콩 소쿠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뒷마루에 나와 앉은 외할머니. 부엌에서 이모가 밥상을 들고 힘겹게 나온다. 일손 멈추고 명하니 건지산을 바라보는 외할머니.

이모(길자) 진지 드세요.

친할머니 (밥상 받으며) 사부인은 좀 드셨습니까?

이모 통 안 드세요. 한 숟갈두…….

친할머니 에휴 쫄쫄…….

(밥상을 받고 사르르 몸을 닦는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또 한상 들고 나오는 이모.)

이모 (외할머니 앞에 버티니) 그래 진지 안 드세요?

(그저 낯 나간 듯 앉아 있는 외할머니. 이모 밥상을 들고 건넌방으로 간다.)

31. 안채 건넌방

머리를 질근 동이고 자리에 누운 동만 모. 밥상 들고 들어오는 이모 길자.

길자 언니 식사해요.

(영겨주춤 일어나 앉는 동만 모. 금세 눈물이 또 쏟아지며)

동만 모 에휴! 우리 길준이 따뜻한 밥 한 그릇 떼뻬하게 끓여 주도 못하고.

(밥상머리에 앉아 눈물을 절끔절끔 잔다.)

길자 인제 고만 좀 해 뒤요. 몸도 생각해야지.

동만 모 에휴! 느이 오라비 불쌍한 길준이…… 전생태에서 죽다니…….

(방문 벌럭 열리며 뛰어드는 동만.)

동만 밥 줘, 배고파.

길자 어서 먹어라. 언니두 한술 떠요.

(마지못해 밥숟갈을 드는 동만 모. 동만이는 벌써 아구아구 입에 퍼 넣고 있다.)

동만 모 닌 좀 안 드냐?

길자 생각 없어요.

동만 모 언니는?

길자 통 안 잡수셔요.

동만 모 에휴! 큰일인지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길자 …….

동만 모 나야 괜찮지마는 언니가 얼마나 상심하실 것이냐? 삼대독자 의아들을 잃었으니…….

(다시 눈물을 절끔거리다가)

동만 모 어서 누구를 양자로 데려다가 끊어진 대를 이어야지. 저리 큰일 아니냐.

길자 …….

(퐁보리밥 한 그릇을 우적우적 비우며)

동만 모 동만 아버지 점심 안 하셨제?

길자 형부는 발에 나가 계세요. 점심 내다 드러야죠.

동만 모 내 대신 니가 고생이다. 에휴 에휴…….

(밥숟갈 놓으며 다시 눈을 절끔거리면서 드러눕는다.)

32. 마당

뒷마루에 고정된 물체처럼 먼 산 바라보고 앉은 외할머니. 동만이가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간다. 건지산을 향한 채 미동도 없는 외할머니의 눈길. 동만 손바닥을 펴서 외할머니 눈앞에 대고 뱅글뱅글 원을 그려 본다. 그제야 눈길 스트르 움직여 동만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버릇처럼 완두콩을 다시 가까이 시작한다. 부엌에서 이모가 대소쿠리에 밥상을 담아 이고 사립문을 나간다. 땀따라 나가는 동만.

33. 들길

보슬비 뿌리는 들길. 포플러 나무 우뚝우뚝 치솟은 발등 길을 나란히 가는 동만과 이모.

동만 이모.

길자 응.

동만 우리 외삼촌 죽었제?

길자 ……그래 전사하셨다.

동만 전사란 게 군인이 나가 죽었다는 거제?

길자 ……그래.

동만 왜 좀 더 숨어 있딜 았구 군인 나가 죽어?

길자 무어?

동만 외삼촌이 뒤란 대나무밭에 숨어 있지 았았능감? 피난 와서 내내 숨어 있딜 았았능감? 현디 왜 좀더 숨어 있딜 았고 군인 나가 죽어 뿌리능감?

길자 그건……그게 아냐.

동만 그게 아니랑게 뭐가 아냐? 외삼촌이 대숲에서 한 달 동안 잘 숨어 있딜 았았냐?

(무어라고 설명하기가 곤란한 길자. 따라가며 고개를 갸웃해 보는 동만.)

- 윤삼육 각색, 「장마」-

3. <보기>를 바탕으로 # 28 ~ # 32를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나리오에서는 장면(scene)과 장면을 연계할 때,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개 요소를 상정한다. 매개 요소란 장면 A의 말미와 다음 장면 B의 서두를 이어 주는 ‘형식적 교리’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매개 요소는 두 장면 사이의 공통성이나 대립성을 활용한다. 공통성과 대립성은 인물의 성격, 연기(행위), 대사, 빛과 음향, 분위기 등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 ① # 28에서 # 29로 바뀔 때, 장맛비의 긴장과 보슬비의 이완을 대립적인 매개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 ② # 28에서 # 29로 바뀔 때, 빛의 어두워짐과 밝아짐이라는 대립적 매개 요소를 활용하여 시간을 자연스럽게 전환하고 있다.
- ③ # 30 말미에서 앉아 있는 외할머니와 # 31에서 누워 있는 동만 모를 대비하여, 상실감을 상이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 30과 # 31에서 식사를 권유하는 대사를 반복하여, 외할머니가 있는 공간에서 동만 모가 있는 공간으로의 장면 전환을 매끄럽게 한다.
- ⑤ # 31에서 # 32로 바뀔 때, 이모 길자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매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

<43. 감각화, 형상화, 구체화>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찌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볼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緜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울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울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코
 바람도 쇠려 하고 달도 맞으려코
 밤으란 언제 줌고 고기란 언제 낚고
 시비(柴扉)란 뉘 닫으며 낚 꽃으란 뉘 슬려노

아침이 낮뜨거니 저녁이라 싫을소나
 오늘이 부족(不足)커니 내일이라 유여(有餘)하라
 이 뉘에 앉아 보고 저 뉘에 걸어 보니
 번로(煩勞)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설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다만 한 청려장(靑藜杖)이 다 무디어 가노매라
 술이 익었거니 벗이라 없을소나
 불리며 타이며 꺾이며 이아며*
 온갖 소리로 취흥(醉興)을 재촉커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우락 앉으락 굶으락 젓하랴

울으락 과람하랴 노혜로** 놀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한가하다
 회황(羲皇)***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괴로구나
 신선(神仙)이 어땡던지 이 몸이야 괴로구나
 강산 풍월(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상의 이태백(李太白)이 살아 오다
 호탕 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할소나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赤君恩)이삿다
 - 송순, 면양정가(倅仰亭歌) -

* 이아며 : 흔들며, 또는 (계속해서) 이으며.
 ** 노혜로 : 마음대로.
 *** 회황 : 중국 전설상의 제왕인 복희씨(伏羲氏).

(나)

따은 들는 대로 듣고 벌은 쥔 대로 쥔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르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장>
 - 위백규, 농가(農歌) -

* 우배 초적 :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

2. (가)와 (나)의 밑줄 친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가)의 '파람'은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표현하는 것이고, (나)의 '파람'은 노동 후의 휴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서정주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관지 두 장관만한 먹오덧빛 뒷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뒷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가울 뒷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뒷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집 뒤안'과 '장독대'는 화자의 의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013학년도 수능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당포도 그치지 않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 소리 쟁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불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한기 : 책.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기산의 ~ 씻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씻었다는 고사.
 * 박 소리 쟁계하고 :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쟁계하고.
 * 조장 : 기게 있는 품행.
 * 풍입송 : 악곡 이름.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4.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손'과 '주인'이 어울려 '풍입송'을 연주하는 장면에서 화자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
 ㉡ 화자는 '손'의 말을 빌려 '주인'을 '진선'에 비유하며 '주인'의 흥취 있는 삶을 흠모하고 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의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짙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일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던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뒤편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광재구, 「은행나무」 -

* 도롱이집 : 도롱이나방의 집.

5.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불타는 형상'은 '희망'을 감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44. 동일성>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용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네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때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러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네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썼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巖)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끓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네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1. 윗글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㉓ <1>, <2>, <3>의 각 3연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

<44. 동일시>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즐거움 열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잊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슬리며
자기를 해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보 기>

김수영은 한때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고, 오규원은 ‘순례’ 연작사에서 생성과 변화를 중시하면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하려고 했다. 오규원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은 위대성에 주목하면서 대상의 승고한 면이나 뛰어난 점을 발견하려 했고, 오규원은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와 몸의 이미지를 포착하려 했다.

㉔ (가)에 비해 (나)의 화자는 흔들리는 현상을 바탕으로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하고 있어.

2013학년도 수능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옷을 훨훨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길터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 하지만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술일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겨워하고 사람을 그리워 하는 겁나온녀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환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여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 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이양하, .신록 예찬.-

* 문법 : 문법 강의 시간.
* 영일 : 일이 없이 평화스러움.

3.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㉕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은 대상과 동화하려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5. 바람직>

(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훔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에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론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밝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나)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절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렇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한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

(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치내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볼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뻐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구나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④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신념을 그리고 있다.

37~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하늘이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잎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체이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엿저녁 마시다 남은 머루술을 들이키고 나니 세삼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여섯 짝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두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는 밤엔 ‘멋’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던이 있고 발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냐.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
- 조지훈, 「멋 설(說)」 -

* 유위전변(有爲轉變): 세상이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이르는 말.
** 방우자(放牛子): 글쓴이의 아호(雅號).

(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늙어 가며 이 중에 보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 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옳은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거 말씀 흥가.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리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흔디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에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널리 뜨슴 즐고.

청산(靑山)은 옛제하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제하여 주야(晝夜)에 굶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흐거니 괴 아니 쉬은가

성인(聖人)도 못 다 흐스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연하(煙霞): 안개와 노을.
** 순풍(淳風):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기운이 맑고 깨끗함.

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④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46. 회의적, 비판적>

(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출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열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날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나)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게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렇다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①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47. 사실감>

2004학년도 수능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소남이란 사람이 난초를 그리는데 만드시 그 뿌리를 흠에 묻지 아니하니 타죽에 개 짓밟힌 땅에 개결(慨潔)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함이란다.
붓에 먹을 찍어 종이에 환을 친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노릇이리오마는 사물의 형용을 방불하게 하는 것만으로 장기(長技)로 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빌려 작가의 청고(淸高)한 심정을 호소하는 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데서 비로소 환이 예술로 등장할 수 있고 예술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도 하는 것이다.

<중 략>

이 오죽잖은 나한테도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한테로부터 시혹(時或) 그림 장이나 그려 달라는 부끄러운 청을 받는 때가 많다. 내 변변치 못함을 모르는 내가 아닌지라 대개는 거절하고 마는 것이나,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이 청에 응하는 수도 있고, 또 가다가는 자진해서 도말(塗抹)해* 보내는 수도 없이 아니하니, 이러한 경우에 택하는 화제(畫題)란 대개가 두어 마리의 게를 그리는 것이다.

게란 놈은 첫째, 그리기가 수월하다. 긴 양호(羊毫)에 수묵을 듬뿍 묻히고 호단(毫端)에 초목을 약간 찍어 두어 붓 좌우

로

휘두르면 양버티고 일드런 풀에 여덟 개의 긴 발과 양중스런 두 개의 집게발이 즉각에 하얀 화면에 나타난다. 내가 그려 놓고 보아도 붓장난이란 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기뻐할 때가 많다.
그리고는 화제를 쓴다.

뜰에 가득 차가운 비 내려 물가에 온통 가을인데 제 땅 얻어 종횡으로 마음껏 다니누나.
창자 없는 게가 참으로 부럽도다.
한평생 창자 끊는 시름을 모른다네.

역대로 게를 두고 지은 시가 이뿐이라만 내가 쓰는 화제는 십중팔구 윤우당의 작이라는 이 시구를 인용하는 것이 항례다.

왕세정의 “마음껏 횡행하기를 얼마나 하겠는가. 결국에는 사람 입에 떨어질 신세인 것을.” 하는 대문도 묘하기는 하나 무장공자(無腸公子)로서 단장(斷腸)의 비애를 모른다는 때문이 더 내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이 비애의 주인공은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놈, 약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눈치 없는 미물! 아니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는 이러한 인사(人士)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맑은 동해변 바위틈에서 미끼를 실에 매어 달고 이 해공(蟹公)을 낚아 본 사람은 대개 짐작하리라. 처음에는 제법 영리한 듯한 놈도 내다본 체 앓다가 콩알만큼씩한 새끼 놈들이 먼저 덤비고 그 결두리를 보아 가면서 차츰차츰 큰 놈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미끼를 뺏느라고 수십 마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동족상쟁을 하는 바람에 그때 실을 번쩍 추켜올리면 모조리 잡혀서 어부의 이(利)가 되게 하고 마는 것이다.

어리석고 눈치 없고 풀에 서로 싸우기 잘하는 놈!
귀엽게 보면 재미나고, 어리석게 보면 무척 동정이 가고, 밍살스레 보면 가증(可憎)하기 짝이 없는 놈!
게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내가 즐겨 보내고 싶은 친구에게도 좋은 화제가 되거나 또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친구에게도 그려 보낼 수 있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 김용준, 게 -

- * 환을 치다: ‘그림을 그리다’ 를 낮추어 표현한 말.
- * 도말하다: 대충 그리다.

- 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A] 소실
- ③ 사실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고사 성어를 활용하고 있다.

(가)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풍실이에 늙은 등갈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이 뇌이기 전
노루 뱀뱀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깃두광주리* 옆에서
첫움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이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름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갓जू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물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야의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쫓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린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 * 깃두광주리: ‘반질고리’의 방언.
- ** 글거리: ‘그루터기’의 방언.

(나)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랴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기기도 하고
누군가 길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일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뒤편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광재구, 「은행나무」 -

- * 도롱이집: 도롱이나방의 집.

- 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② 과거 사건의 전개 과정이 실감 나게 그려져 있다.

2005학년도 수능

☆ 고전 시가 + 수필

[37~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늘이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일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덧’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덧저녁 마시다 남은 머무술을 들이키고 나니 새삼스레 고개 엮여져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어젖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

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덧’,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되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는 밤엔 ‘덧’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덧이 있었다. 덧을 덧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덧’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덧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덧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덧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덧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마리 밥과 산나물로 죽혀 목숨을 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덩이 있고 발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노뇨.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덧을 삼노라.

- 조지훈, 「덧 설(說)」 -

- * 유위전변(有爲轉變): 세상사가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이르는 말.
- ** 방우자(放牛子): 글쓴이의 아호(雅號).

(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늌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 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옳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거 말씀 흥가.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헌되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에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닮아 뜨스 홀고.

청산(靑山)은 옛제헌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제헌여 주야(晝夜)에 굶지 아니노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허거나 괴 아니 쉬온가
성인(聖人)도 못 다 하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항,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연하(煙霞) : 안개와 노을.

** 순풍(淳風) :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 기운이 맑고 깨끗함.

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글쓴이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48. 생생함>

(나) 선재리 아낙네들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들 깨들이 시골짜하게 짚어댄다
이 개 짚으니 저 개도 짚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짚어댄다
이런 개 짚는 소리 사이라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날이 아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의중은 그 소리하고 날이 아니다 [A]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재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중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짚는 소리 뜰헤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다) 그 나무
김병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은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얇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B]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망을 어딘가 안스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하,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뜰새 가난한 소지(縹緇)*,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2004학년도 수능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가 봐야 노루 꼬리만큼 짧다는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 둔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향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제분 공장 별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명석에는 늘 털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명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율율이 흘러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체법 고무질의 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검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들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집면서 화차가 달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탈경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 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 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쫘잔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 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전빵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해안촌(海岸村) 혹은 중국인 거리라고도 불리어지는 우리 동네는 겨우내 북풍이 실어 나르는 탄가루로 그늘지고, 거무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낮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짚수세미에 아궁이에서 굵어 낸 고운 재를 묻혀 번쩍 광이 날 만큼 대야를 닦았다. 아버지의 와이셔츠만을 따로 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바람을 들이지 않는 차양 안쪽 깊숙이 낀 와이셔츠는 몇 번이고 다시 행구어 푸새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망할 놈의 탄가루들. 못 살 동네야.

할머니가 혀를 차면 나는 으레 나를 뒤엎팔을 받았다.

광석천이라는 냇물에서는 말이다. 물론 난리가 나기 전 이북에서지. 빨래를 하면 희다 못해 시퍼랬지. 어느 독(毒)이 그렇게 퍼렇겠니.

겨울방학이 끝나면 담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숙직실 부엌 바닥에 옷통을 벗겨 엮드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다. 귀 뒤, 목덜미, 발가락, 손톱 사이까지 탄가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왕소름이 돋은 등어리를 찰싹찰싹 때리는 것으로 검사를 끝냈다. 우리는 킬킬대며 살비똥이 푸르르 떨어지는 내의를 머리부터 뒤집어썼다.

봄이 되자 나는 3학년이 되었다. 오전반이었기 때문에 한낮인 거리를 치욱이와 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삼거리의 미장원을 지날 때 치욱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 회충약을 먹는 날이니 아침을 굶고 와야 해요. 선생의 지시대로 치욱이도 나도 빈속이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늪을 먹었기 때문일까, 해인초 끓이는 냄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차마 밑으로 켈릭이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길의 양편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드문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체가 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제일 큰 극장이었다.

조명판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회개 회철이 된 한쪽 벽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욱이가 소곤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꼭 팽이의 첫 날을 땀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회고 거대한 벽은 평음으로 주저앉으리라.

한쪽에서는 이미 헐어 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돌과 철근을 발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속발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치욱이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 내어 몇 번이고 속발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집을 지어 빈터를 다스렸다. 반 자른 드림통마다 조개탄을 듬뿍 써서 해인초를 끓였다.

치욱이와 나는 자주 담뭍서서 적적 침을 뱉어 냈다.

회충이 약을 먹고 지랄하나 봐.

아냐, 회충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도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뽀하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치욱이는 내 어깨에 엮갈린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농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초 냄새, 내가 이 시(市)와 나는 최초의 약수였으며 공강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2. 윗글에서 '석탄'이 갖는 기능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작품의 분위기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49. 시적 긴장감>

2010학년도 수능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라라니 깡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아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잠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안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뺨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든·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뺨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재의 뺨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뺨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뺨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빗줄로 남아
이 세석(細石)·철쭉꽃발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뺨꾸새」-

* 길든 : 길이 덜 든.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굵이 한테 못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굵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길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쫓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라 내리락 모이락 흙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렁꿈 좃디느노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이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틀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것
고

용구산 문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장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 송순, 「면양정가」-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저울 보리 과랴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집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측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뒷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락제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테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과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테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끓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테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다]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빛과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비니 꿈을 들너 상시(常時)과저²⁾
학발자안(鶴髮慈顏)³⁾ 못 버거는 안쪽서신(雁足書信)⁴⁾ 찾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⁵⁾ 누 헤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짐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름고

- 이광명, <북찬가(北嶽歌)>

[어휘풀이] 1)영 : 고개. 2) 꿈을 들너 상시과저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3)학발자안 : 머리가 허얇게 선 지대로은 얼굴. 어머니를 가리킨. 4)안쪽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 달아 보낸 편지. 5) 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2.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50. 어조>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저울 보리 과랴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집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측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뒷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락제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빗줄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단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러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꿇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테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1.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④ (나)는 (가)와 달리 세로문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2006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삼긴:삼긴. 물에 삶아 우려냄.
** 덩그럭 불: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책력:달력.

(나)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술
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
살은 내려오고, 등 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어ت 골 골짜기서 울
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었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불이 고
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
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뛰어 올 맑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충충충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
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
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
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과 놀아 주던 둘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글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멀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2.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④ 경제하고 발달한 어조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51. 열거, 나열>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과랴개 꽃핀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굴 상앗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집 호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뒷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박재규,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빗줄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단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러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꿇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테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다]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맞이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밭마다 꿈에 뵈니 **꿈**을 돌려 상시(常時)과제²⁾
학발자안(鶴髮慈顏)³⁾ 못 비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⁴⁾ 찾아집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⁵⁾ 뉘 해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져 뜨는 **구름** 남침(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져
나는 두 새 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져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레 가 머무르고

- 이광명, <북찬가(北宸歌)>

[어휘풀이] 1) 영: 고개. 2) 꿈을 돌려 상시과제: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3)학발자안: 머리가 허얇게 선 재래로운 열골. 어머니를 가리킴. 4)안족서신: 기러기 발목에 매 달아 보낸 편지. 5) 일반고사: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②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013학년도 수능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잠세 때 왠지 내러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옥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질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붉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두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2.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① 고향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다.

<52. 동경>

(가)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절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림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니 내 혼자 마음은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던.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솟이 된 뱀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구나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장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③ 이상향에 대한 동경의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다.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용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네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통까
 금강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때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네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끓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네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다]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뱃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비니 꿈을 들너 상시(常時)과저²⁾
 학발자안(鶴髮慈顏)³⁾ 못 비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⁴⁾ 찾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라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⁵⁾ 뉘 해올고
 물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져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져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져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르코

- 이광명, <북관가(北關歌)>

[어휘풀이] 1)영 : 고개. 2)꿈을 들너 상시고져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3)학발 자안 : 머리가 희얌겨 센 자(오래된)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4)안족서신 : 기러기 발쪽에 매 달아 보낸 편지. 5)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2. (가)와 (나)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④ (가)의 '남풍'과 (나)의 '추풍'은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와 화자를 메기한다

(가) 고향

백석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앉아 누어서
 어느 아츰 의원(醫員)을 보이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업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목욕하니 한참 맥을 집드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띄고
 막역지간(莫逆之間)이라며 수업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즈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나)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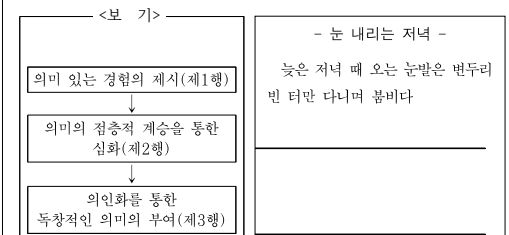
서정주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관지 두 장만큼한 먹오덧빛 뒷
 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뒷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일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
 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변질변질 닦이어
 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뒷마루를 찾아
 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
 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뒷마루에까지는 어머니
 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②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다.

<53. 점층>

1. <보기>의 전개 과정에 따라 시를 완성하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03)



① 늦은 저녁, 내리는 눈발은 집으로 가는 사람들 등 뒤에만 봄비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는 저 따뜻한 손길

- ② 으름 저녁, 눈 내리는 공터에 작은 나비들만 나풀거리다 발끝에 어리는 진학 간 친구 얼굴
- ③ 으름 저녁, 인적 없는 운동장에 지친 바람만 서성이다 늦은 하룻길 기다리다 어루만지는 엄마의 마음
- ④ 늦은 저녁 때 동네 골목 어귀로 흘러가는 작은 곁을 저만치 앞서 걸어가는 내 초라한 그림자
- ⑤ 물결치는 어깨 위로 소복이 내리는 달빛 그 곁으로 문득 다가와 손 내미는, 내 손 시린 사랑

(가) 고향

백석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앉아 누어서
어느 아침 의원(醫員)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돌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집드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방긋이 웃음을 띄고
막역지간(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년즈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나) 내가 만난 이중섭

김춘수

광복동에서 만난 이중섭은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가 온다고
바다보다도 진한 빛깔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눈을 씻고 보아도
길 위에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 나는 또
남포동 어느 찻집에서
이중섭을 보았다.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
진한 어둠이 깔린 바다를

그는 한뼘 한뼘 지우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는 오지 않는다고,

(다)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서정주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관지 두 장관만큼 먹오덧빛
뒷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뒷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묻혀서 인제
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어
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가울 뒷마루를 찾아
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
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쳐어 있는 이 뒷마루에까지는 어머니
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⑤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3. 기타 연주 동아리의 홍보 문구 중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보기>

- . 기타 연주가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드러낼 것.
- . 다른 음악 동아리와의 차이점을 밝힐 것.
- .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마무리할 것.

- ① ‘소리샘’으로 오세요. 기타 연주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동아리는 ‘소리샘’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소리샘’의 멋진 기타 연주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② 고민하지 말고 지금 도전하세요. ‘소리샘’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1년 후,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 ③ 기타 연주는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즐거움을 줍니다. ‘소리샘’은 다른 동아리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음악 동아리입니다.
- ④ 외롭고 우울한 날, 그날의 분위기에 맞는 곡을 연주해 보세요.
-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납니다. ‘소리샘’의 아름다운 선율은 오늘도 동아리방을 넘어 학교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 ⑤ 기타를 연주하며 마음의 평안을 느껴 보세요. 음악과 사회봉사 두 가지의 기쁨을 주는 동아리는 ‘소리샘’뿐입니다. ‘소리샘’에서 나를 알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해 보세요.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의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늦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일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광재, 「은행나무」-

* 도롱이집 : 도롱이나방의 집.

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④ ‘노오란 우산짓’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54. 풍자>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임을 파한 후에 토끼 뒤에 따라가며 한 번 불러, “여보, 토생원(兔生員).” 토끼의 근본 성품 무겁지 못한 것이 경하여 몸집도 작으니 온 산중이 멸시하여 누가 대접하겠느냐. 쥐와 여우, 다람쥐도 ‘토끼야, 토끼야.’ 아이 부르듯 이름 불러 어른대접 못 받다가 천만뜻밖 누가 와서 생원이라 존칭하니. 좋아 아주 못 견디어. “게 뉘랄게. 게 뉘랄게. 날 찾는 게 뉘랄게.” 요리 팔팔 조리 팔팔 강장장장 뛰어나니. 별주부(魔主簿)가 의문하여 토끼의 동정 보자 긴

목을 움프리고 가만히 었었으니 토끼가 주부 보고 의심을 매우 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쇠뿔이 말랐는가. 이 산중에 무슨 술 깨어진 부등감이 어찌 저리 묘하게 깨져. 애고, 이것 큰일났다. 사냥왔던 총(銃)장이기 질음승** 끌러 놓고 퉁 누러 갔나 보다. 바빠바빠 도망하자.”

주부가 생각한즉 그대로 두어서는 저리 방정맞은 것이 이리저리 한없이 내달리겠거든 또 한 번 크게 불러, “여보 토생원.” 토끼가 가다 듣고, “누가 나를 또 부르뇨?” 아장아장 도로 오며 주부를 바라보니, 아가 없던 목줄기가 돌담 틈에 배암같이 슬금 나오거든. 의심 나고 겁이 나서 멀찍이 서서 보며 문자(文字)로 수작 내어, “내가 이 산중에 생어사(生於斯) 장어사(長於斯) 유어사(遊於斯) 노어사(老於斯)하여 몇 해가 되었으되 오늘 처음 보는 터에 나를 어찌 알고 무엇 하려 불렀느냐?” 주부가 대답하되, “유봉(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역낙호(不樂樂乎)가 공자님 말씀인데. 어이 그리 무식하여 처음 본다 팔시하니 인사가 틀렸는데.”

(가) 토끼가 들어본즉 생긴 것과 말하는 게 만만히 볼 수 없거든. 옆에 와 썩 앉으며, “뉘라 하시오?” “에, 나는 수궁(水宮)에서 주부 베풀하여 먹는 자라요.” “산수(山水)가 서로 다른데 산중은 어찌 왔소?” “우리 용왕 장한 가르침 팔팔 리를 다스리니 하루에도 수 없이 몸소 일을 하옵는데 신하가 재주 없어 찬양하기 어렵기로, 용왕의 분부 모시어 임금 보좌할 인재를 구하기로, 천하 명산 다니다가 오늘날 모족(毛族) 모임 천만다행 만났기로, 자리를 다 보아도 임금 보필할 인물은 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선생 하나뿐이므로 선생을 모셔 가자 뒤를 따라 왔사오니, 바라건대 선생은 나를 따라 가사이다.”

토끼가 제 인물에 하 감사한 말이어든, 제 소견에도 의심하여, “어떻기에 내 형용이 곰보다도 나를 테요? 범보다 나를 테요?” 주부가 대답하되, “곰의 몸이 비록 크나 눈이 작고 털이 덮여 태양 정기 부족하니 미련하여 못 쓸 테요, 범이 비록 용맹하나 코 짧고 즐기 없어 얼굴 가운데가 움푹하니 단명(短命)하여 못 쓸 테요, 몸이 작고 발이 빨라 산도 넘고 물도 뛰여 따라갈 이 없을 테니, 민첩한 저 구변(口辯)이 소견(蘇秦)의 합종(合縱)인지. 가끔가끔 조는 것이 공명(孔明)의 춘수(春睡)런지.*** 불수록 모두, 짐승 중 제일이니, 우리 수궁 같사오면 출강입상, 부귀공명 따라갈 이 뉘 있을까?”

토끼가 들어 본즉 주부의 하는 말이 저 생긴 형용하고 낱말이 똑같은데, 가만히 생각한즉 형용은 무던하나 속에 글이 없었으니, 수궁에 글하는 이 있는지 알아야 할 터이든, 또 물어 “수궁의 조관(朝官) 중에 문장이 몇이 되요?” “문장 조관 있으며는 영덕전(靈德殿) 지을 적에 상량문을 못 지어서 인간 세상까지 나와 구했겠소?” 또 물어, “수궁에 활썩 키 큰 조관 있소?” “영덕전 상량할 제, 키 큰 조관 가리는데 내가 상량하였지요. 그리 큰 수궁에서 나만한 키도 없소. 선생이 들어가면 거인이 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라지요.”

토끼가 생각하듯. ‘너른 의사(意思) 좋은 구변 내 속에 흠뻑 들
고, 글 잘하고 키 큰 조관 수공에 없다 하니. 나 지닌 신언서판
(身言書判) 놀릴 데가 없건마는 땅에 안주하여 옮기기 어려우니
이 형편에 썩 떠나기가 어렵구나.’

- 신재효, 토별가(免獵歌) -

- 부등감 :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아궁이의 불을 담아낼 때 부삽 대신 쓰는 것.
- 질음승 : 화약의 심지
- 소진의 합종, 공명의 춘수 : 토기의 말솜씨와 조는 모습을 각각 소진의 위엄과 제갈공명의 여유에 비친 말.

1. (가)에 나타난 별주부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㉓ 상대방을 은근히 조롱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다.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내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澗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형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A]
수품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니 흥이야 다를스나.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수간모옥 : 못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쌍을 꾸니 거진 보리 한 말 못 차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B]

어와 저 백구(白鵠)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고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더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골쓰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시대를 흘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라.

헛글고 싶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라.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C]

- 김광욱, 「율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싶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다)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퉈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빠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랴?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又好(又) 좋으냐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백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야 비로소 흠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볼거리에 구속되어 큰 볼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거나 앓을까?

- 박규수, 「범희문화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2.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㉔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004학년도 수능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소남이란 사람이 난초를 그리는데 반드시 그 뿌리를 흠에 묻지 아니하니 타죽에게 짓밟힌 땅에 개결(慨潔)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함이란다.

붓에 먹울 찍어 종이에 환을 친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

단한 노릇이리오마는 사물의 형용을 방불하게 하는 것만으로 장기(長技)로 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빌려 작가의 청고(淸高)한 심경을 호소하는 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데서 비로소 환이 예술로 등장할 수 있고 예술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도 하는 것이다.

<중 략>

이 오죽않은 나한테도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한테로부터 시혹(時或) 그림 장이나 그려 달라는 부질없는 청을 받는 때가 많다. 내 변변치 못함을 모르는 내가 아닌지라 대개는 거절하고 마는 것이나,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이 청에 응하는 수도 있고, 또 가다가는 자진해서 도말(塗抹)*해 보내는 수도 없지 아니하니, 이러한 경우에 택하는 화제(畫題)란 대개가 두어 마리의 게를 그리는 것이다.

게란 놈은 첫째, 그리기가 수월하다. 긴 양호(羊毫)에 수묵을

듬뿍 묻히고 호단(毫端)에 초목을 약간 찍어 두어 붓 좌우로

휘두르면 앙버티고 엷드린 꼴에 여덟 개의 긴 발과 양승스런 두 개의 집게발이 즉각에 하얀 화면에 나타난다. 내가 그려 놓고 보아도 붓장난이란 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기뻐할 때가 많다.
그리고는 화제를 쓴다.

뜰에 가득 차가운 비 내려 물가에 온통 가을인데

제 땅 얻어 종횡으로 마음껏 다니누나.

창자 없는 게가 참으로 부럽도다.

한평생 창자 굶는 시름을 모른다네.

역대로 게를 두고 지은 시가 이뿐이란 내가 쓰는 화제는 심중괄구 윤우당의 작이라는 이 시구를 인용하는 것이 항례다.

왕세정의 “마음껏 횡행하기를 얼마나 하겠는가. 결국에는 사람 입에 떨어질 신세인 것을.” 하는 대문도 묘하기는 하나 무장공자(無腸公子)로서 단장(斷腸)의 비애를 모른다는 때문이 더 내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이 비애의 주인공은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놈, 약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눈치 없는 미물! 아니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는 이러한 인사(人士)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많은 동해변 바위틈에서 미끼를 실에 매어 달고 이 해공(蟹公)을 낚아 본 사람은 대개 짐작하리라. 처음에는 제법 영리한 듯한 놈도 내다본 채 앓다가 롱알만큼씩한 새끼 놈들이 먼저 덤비고 그 결두리를 보아 가면서 차츰차츰 큰 놈들이 한꺼번에 물러나와 미끼를 뺏는다고 수십 마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동족상쟁을 하는 바람에 그때 실을 번쩍 추켜올리면 모조리 잡혀서 어부의 이(利)가 되게 하고 마는 것이다.

어리석고 눈치 없고 꼴에 서로 싸우기 잘하는 놈!

귀엽게 보면 재미나고, 어리석게 보면 무척 동정이 가고, 뭇

살스레 보면 가증(可憎)하기 짝이 없는 놈!

게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내가 즐겨 보내고 싶은 친구에게도 좋은 화제가 되거니와 또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친구에게도 그려 보낼 수 있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 김용준, 게 -

* 환을 친다 : ‘그림을 그리다’를 낮추어 표현한 말.

* 도말하다 : 대충 그리다.

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A]소멸
㉔ 동물에 빗대어 인간의 행동을 풍자하고 있다.

<55. 감정 이입>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추억에서	박재삼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세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떡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㉓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는 ‘옹기’에는 화자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56. 객관적 상관물>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꽃 꺾어 수(數) 놓고 무진 무진 먹세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계 위에 거적 덮어 출라매 메고 가나 오색 실 화려한 위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억새풀, 속새풀, 딱갈나무, 백양 속에 가가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굽은 눈, 회오리바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 할꼬

㉠하물며 무덤 위에 원승이 휘파람 불 때야 뉘우친들 어찌 하리.

- 정철. 장진주사(將進酒辭) -

1. <보기>는 ㉠에 대한 비평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보 기>

원승이는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던 동물이니, ‘하물며 무덤 위에 이슬 내릴 때야 뉘우친들 어찌하리.’로 바꾸자.

④ 원승이가 어떤 정서를 환기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을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추억에서

박계삼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령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떡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쟁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나)

그리움

이용악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협한 바람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차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백무선 :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산을 잇는 철도

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 어둠과 추위의 이미지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환기하고 있다.

2012학년도 수능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심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격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장섬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서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되, 그 바닷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이나 탐스럽게 호숫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야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혀가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괜일인데 어찌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무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하 오누?”
“인전 어머니서건 서울로 모셔 갈 채벌 허러 왔და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테서 살아 봤을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뜰뒤풀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좇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낱알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육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경하기에 용이한 것, 각종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열한 것, 염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

금의 병원을 팔면 일단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가까이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이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잠실이나 먹이라. 나무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윗들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을 받았다.
점심을 자기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철 놀 제 내가 어려서 왔는데 불과 여남이십 거들던 들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더냐!”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냐요?”
“너무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둘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하니? 시ଟ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갈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망졌다. 네 어머무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지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다가 느르지는 같은 게 이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 논속에 선 느르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겨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룬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허느냐? 땅 없애 봐라, 집이 어딴지 모르구 어딴지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필지두 모르구 육신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번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현싯씩 버리드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비치 않드라.”

“…….”

- 이태준, <돌다리>

3.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보기

‘장소에(場所愛)’는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인 장소에 애착하는 심성이다. 근대 이전에는 ‘땅’과 ‘집’이 대표적인 장소애의 대상이었으나, 근대 이후 도시 사회에서는 이들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 ‘아버지’에게 들다리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굴 상앗길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죽 흐린 불빛 아래서도
황량황량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들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남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달그덕그덕.

- 박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흥테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빌엔 호랑나비 때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흥테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갔다.

그리운 생각에 영(影)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꿈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네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다]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바치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보니 꿈을 들너 상시(常時)과저²⁾
 학발자안(鶴髮慈顏)³⁾ 못 비겨든 안축서신(雁足書信)⁴⁾ 잦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라 오노라면 달이 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⁵⁾ 뉘 해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침(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해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나인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느때 가 머무름코

- 이광명, <북찬가(北嶺歌)>

[어휘풀이] 1)영 : 고개. 2)꿈을 들너 상시고저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3)학발 자안 : 머리가 희얌케 선 자재로운 열골. 어머니를 가리킴. 4)안축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 달아 보낸 편지. 5)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4.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㉔ 친숙한 사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2012학년도 수능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따 동리 사람들, 들것에 복조 송장을 태워 들어온다. 물이 푹푹
 떨어진다. 복실과 본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보고 있더니 달려들어 목놓고 운다. 동리 사
 람들, 소리를 낮춰 활짝힐씩 운다.

간(間)

저 (부엌에서 나오며) 왜들 우니?
 본 어머니와 복실 어머니, 복조예요.
 동리 사람 3 쇠뿌리로 배 내다가 보니 범바위 틈에 께습디다.
 저 물에서 죽은 놈이 복조뿐인가? 어떻게 복조라고 장담해. (아무 관계없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간다.)

(노여부를 석이와 윤 철지가 양편에서 꼭 붙들고 들어온다.)

노여부 놈. 두고 볼 거 아니야.
 윤 철지 참어. 참는 데 복이 있다네. 그저 참는 것이 제일이야. 참을 인(忍)
 자가 셋이면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

석이 (그제야 들것과 사람들을 보고) 누나, 이것이 작은형이요? (붙들고 운
 다.)

윤 철지 왔었으니 다행이군. (눈물을 씻는다.)
 노여부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눈물을 닦으며 시러운 소리로 푹푹히) 몇
 해 전에는 배도 시너 척 있었고, 그물도 동리에 뛰어나게 가졌드렸
 지. 배 팔고 그물 팔고 나머지는 뭐냐? 내 살덩이밖에 없었어. 그것
 도 다- 못해서 다리 한쪽 뻗었지.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잡아먹
 는다는 것은, 윤 철지…….

윤 철지 …….
 노여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두고 보고 바랄 것이 인제는 하나도 없어.
 (별안간 부엌 뒤로 퇴장. 들어가더니 썰매를 들고 나온다. 뒤따라 처
 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부지깅이로 노여부의 머리를 후려 때린다.
 노여부 쓰러진다.)

저 (썰매를 잡아 뺏으며) 이 썰매가 무슨 썰매인 줄 알아요?

노여부 (담비러다가 처의 너무도 험악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려 복조를 붙들고 운다.)

저 내가 맑은 물 떠 놓고 수심에 빌었거든. 이것은 우리 복조 아니야.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전신을 파먹히게 안 했을 거야. 지금쯤은
 너구리섬 동남에 있는 시퍼런 깊은 물속에. 참 거기는 미역 냄새가
 향기롭지. 그리고 백옥 같은 모래가 깔렸지. 거기서 팔다리 쪽-뿔고
 눈감았을 거야. 나는 지금 눈에 완전히 보이는걸. 복조 배 위로 무지
 갯빛 같은 고기가 쏙- 지나갔어. (눈앞에 보이는 환영을 물리치는
 듯이 손으로 앞을 가리며) 눈감은 얼굴이 너무도 쓸쓸하군. 이렇-
 게 (시늬를 하며) 원망스러운 얼굴이야. 불만스러운 얼굴이야. 다른
 입이 너무도 쓸쓸해.

간(間), 울음소리

통창으로 가야지. 서남풍이 자고, 동풍이 불면 나를 만나러 올지
 도 몰라. 아니야 꼭 올 거야. 저녁물 아니면 내일 아침물 그도 아니
 면 모래 아침물. 산수자리를 골라 놓고 동쪽을 보고 기대려야지. (일
 동을 보고 꼭 웃으며) 몇 때문에 울어들? (썰매를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

석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속이 타서 발을 구르며)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붙드세요. 얼른 얼른 아버지.

노여부 내 알 것 아니야.

석이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뒤따라 퇴장)
 ㉔(멀리서 처의 웃는 소리 우는 소리 번갈아 들린다.)

노여부 (일어서며) 윤 철지, 북방산으로 가지.
 복실 촛불 하나 안 키고 관도 없이 어떡 가요?

본 어머니 사람 목숨이 이렇게도 잔가. 뒤편에 검부락지 쓸어가듯 휘 쓸어 가
 먼 고만이야.

윤 철지 장성한 사람을 그럴 수 있다.

본 어머니 (일어서며) 난 항구로 가겠다. 더 있는듯가 가슴만 졸이지. 울며
 웃으며 한세상 살다 그러저러 죽을 때 되면 죽지. (언덕을 넘어 퇴
 장)

노여부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왜, 과부 수절하기가 싫으나?

석이 (울면서 등장) ㉔어머니가 갯가에서 썰매로 물을 파며 통곡을
 하시다가는 별안간 허파가 끊어진 것처럼 웃으며 (복실의
 가슴에 안겨) 누나야. 어머니는 한세상 참말 헛사셨다. 왜 우리는 밤
 낮 울고불고 살아야 한단든?

복실 (머리를 쓰다듬으며) 글썽에 연기 한 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도 없
 었지.

석이 (울음 섞인 소리로, 그러나 한 마디 한 마디 푹푹히) 왜 그런지를 난
 생각해 볼 테야. 긴긴 밤 갯가에서 조개 잡으며, 긴긴 낮 신작로 오
 가는 길에 생각해 볼 테야.

복실 (바다를 보고) 인제 물결이 자는구나.

윤 철지 민둥이 뜨는군. (나가면서)
 (노여부를 보고) 사람 삼키더니 물결이 얼음판 같이 겹지. 자네 한
 잔 쪽- 들이키고 수염 뒹는 듯이. 어서 초상 준비나 하게. 상염집에
 행하니 다녀올 테니.
 - 막 -
 - 합세떡, <산허구리>

5. ㉑과 ㉔을 통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관객에게 전달된다
 고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㉔ ㉔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알려 주지만, ㉑과 연관
 되면서 무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환기하기도 한다.

<57. 공간의 이동>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맘은 듣는 대로 듣고 벌은 쫓 대로 쫓다
 청풍(淸風)이 옷깃 열고 긴 파람 홀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
 장>

- 위백규, 농가(農歌) -

* 우배 초적 :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

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㉔ 낮에서 저녁으로의 시간 경과와 함께 공간적 이동도 나타나고
 있다.

<58. 과거와 현재의 대비>

2013학년도 수능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걸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실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뒤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긴데, 전찬 땃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 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빴다.

전차도 전차러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차가 그렇게 설 세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 이 선 듯도 싶지 않건
 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
 하다’ ‘똑똑하다’ ,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튼튼가, 재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둘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들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전장을 수
 없게 들었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팔레타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웃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늬를 한다.
 그것이 ‘권투’ 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겐 띄이나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이,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도 쓴
 포복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귀족
 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저 위에서 땡굴고,
 그러는 각정이* 매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엔,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줄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 도 가 볼 수 있고, ‘전차’ 도 탈
 수 있고, 울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 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
 길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도, 그
 것은

타는 빔을 훑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
 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
 었으나, 어느 튼튼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
 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야.”
 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단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얼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
 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뻥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 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 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싹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라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집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 나 태워 주고, ‘화신상’ 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꽤 좋겠다고 침을 뱉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임바네스 : 남자용 의투의 일종.
* 각정이 : 거지.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2013학년도 수능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썼었던가*
박 소리 쟁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숲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나 밀거나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라도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있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한기 : 책.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기산의 ~ 썼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썼었다는 고사.
* 박 소리 쟁계하고 :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쟁계하고.
* 조장 : 기개 있는 품행.
* 풍입송 : 악곡 이름.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나)
벗님네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친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쩌리

<제1수>
어허 이 미친 사람이 날마다 흥동(興動)*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이고
우리는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2수>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복긴 망혜(巾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세 유전(後世流傳)하리라

<제3수>
우리도 갈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창 닫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4수>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라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제5수>
- 권섭, 『독자왕유회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

* 흥동 : 흥에 겨워 다님.
* 승유편 :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
* 양신 미경 :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웃을 활활 털며 분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레야 술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

하지마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술잎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 하는 갑남을녀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집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결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절 또는 한 잠음

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뭘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이양하, 『신록 예찬』-

* 문법 : 문법 강의 시간.
* 영일 : 일이 없이 평화스러움.

2.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㉔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가) 하늘이 드높아 가니 별세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잎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땃’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었저녁 마시다 남은 머루술을 들이키고 나니 세삼스레 고개

딛덕여지는 발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어

젖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

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땃’,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는 밤엔 ‘땃’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땃이 있었다. 땃을

땃것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땃’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땃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땃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

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땃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가 되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땃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때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읽을 동쪽 두덩이 있고 발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뇨. 이는 구태어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㉔]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땃을 삼노라.

- 조지훈, 『땃 설(說)』-

* 유위전변(有爲轉變) : 세상이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이르는 말.
** 방우자(放牛子) : 글쓴이의 아호(雅號).

(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늙어 가니

이 중에 부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율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거 말씀 흥가.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제(玩樂齋) 소쇄(瀟灑)***흔디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래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날려 모습 높고.

청산(靑山)은 옛제하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제하여 주야(晝夜)에 굶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헛거니 괴 아니 쉬은가
성인(聖人)도 못 다 헛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연하(煙霞) : 안개와 노을.
** 순풍(淳風) :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 기운이 맑고 깨끗함.

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㉓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다.

<59. 규범적 가치>

(가) 하늘이 드높아 가니 별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일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엿저녁 마시다 남은 머무술을 들이키고 나니 새삼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어 젖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멋’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

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죽히 목숨을 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뚱족 두던이 있고 밭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냐. 이는 구태어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어.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㉓]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리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

- 조지훈, 「멋 설(說)」 -

* 유위전변(有爲轉變) : 세상사가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이르는 말.
** 방우자(放牛子) : 글쓴이의 아호(雅號).

(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니 이 중에 부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순풍(淳風)**이 족다. 헛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헛니 진실(眞實)로 울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거 말씀 흥가.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제(玩樂齋) 소쇄(瀟灑)***흐디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래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날려 모습 높고.

청산(靑山)은 옛제하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제하여 주야(晝夜)에 굶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헛거니 괴 아니 쉬은가
성인(聖人)도 못 다 헛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연하(煙霞) : 안개와 노을.
** 순풍(淳風) :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 기운이 맑고 깨끗함.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㉓ 현상에 얽매지는 태도를 비판하며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60. 대조>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잔 맥제그러. 또 한 잔 맥제그러. 꽃 꺾어 주(數) 놓고 무진 무진 맥제그러.

이 몸 죽은 후면 ㉓ 지게 위에 거저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 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역새풀, 속새풀, 락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회오리바람 볼 제 뉘 한 잔 맥자 할고.

하물며 무덤 위에 원승이 휘파람 불 때야 뉘친들 어찌 하리.
- 정철, 장진주사(將進酒辭) -

41.

1. ㉓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㉓ ㉔ :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해 죽음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66. 철호의 집 앞

철호가 뜨락에 들어서는데 “가자!” 하는 어머니의 소리.
철호 한 대 맞은 사람 모양 우두커니 한동안 서 있더니 되돌아서 터벅터벅 걷는다.
여기에 달이는 철호의 소리 - “어머니, 어디로 가자시는 말씀입니까?”

S# 67. 정신 병원 진료실

4. 5년 전의 어머니가 병상에 반듯이 누워 있다.
멍하니 어느 피안(彼岸)을 바라보는 눈.

어머니 가자!

그 옆에 청진기를 손에 들고 있는 의사.
그 앞에 마주 서 있는 좀 말쑥한 철호.

철호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저러실까요. 선생님!
의사 과거에는 생활이 윤택하셨던가까 아아 그 당시로 돌아가 자식거나 아니면 우리 현실보다 나은 세계 -말하자면 영겁(永劫)의 나라일 테죠.
철호 선생님!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의사 글썩요. 한 삼사 년 치료를 받아 보시면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S# 68. 산비탈 길
뚜벅뚜벅 걸고 있는 철호.

S# 69. 피난민 수용소 안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위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흠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의 소리 - “저절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 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 중략 -

S#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상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그럼 뭐 뺏직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용기?

영호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하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심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 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 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쑤시고 아픈 걸 견디고도 절약을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지극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났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푹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그건 역설이야.

영호 역설이요?

철호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율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냐.

영호 천만에요.

- 이범선 원작/나소은.이종기 각색. 오발탄 -

*O.L(overlap) : 한 화면 끝에 다음 화면의 시작을 함치면서 부드럽게 화면을 바꾸어 가는 기법.

2. S# 69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㉔ 담요바지와 교복이 대조적 이미지를 만든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9. 불이의 집(나)

누군가 태문을 두드린다. 들어온 집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희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부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엄마 영희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

영호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 집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딸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빙긋 웃고)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애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1. 불이의 집 마당

종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딸없이 앞만 본다.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툴게 찢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94. 몽타주*

영화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찢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95. 불이의 집

광광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던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넓혀 온다.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일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은 먼지의 마당. 식구들이 딸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태도가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앉으며 맘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낯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담담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명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딸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96. 고급 맨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이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97. 불이의 집

일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신 식구를 앞서 뽐나게 먼지가 일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흥과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 * 다운: 권투 시험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 * 몽타주: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보 기>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₁, M₂, …, M_k, …, M_n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₁, S₂, …, S_k, …, S_n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₁ → S₁ → M₂ → S₂ → … → M_k → S_k → … → M_n → S_n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_k에서 S_k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_k와 S_k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4. 페휴대화화 활용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보 기>

- 페휴대전화의 **양면성**을 대구의 형식으로 표현할 것
- 활유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호소력을 높일 것

- ① 자원 활용은 두 배로, 환경오염은 반으로. 우리에게 말기세요, 페휴대전화. 지구가 아프지 않게.
- ② 우리에게 버리세요, 꼭꼭 숨어 있는 페휴대전화. 환경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 ③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당신의 오랜 친구 페휴대전화. 한데 모아 다시 쓰면 유용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 ④ 관심만 있다면 쓰레기도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잠자는 페휴대전화, 다시 써서 깨끗한 세상 만들어요.
- ⑤ 버리면 해로운 쓰레기가 되지만, 모으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요. 페휴대전화 수거에 동참하세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나)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떡밤중 한밤중 새터 증뜰 개들이 시골짜하게 짚어댄다

이 개 짚으니 저 개도 짚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짚어댄다

이런 개 짚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종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A]

공발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를 한 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심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법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종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짚는 소리 뜰헤지고

밝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다)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개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B]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볼 성하,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리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만만한 이 많간다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오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澗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A]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鶯)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고래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수간오옥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살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췌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냐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駒)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옛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골쏘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훌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라.

헛글고 싣근·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라.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멸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B]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싣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7.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

㉔ [A]는 [B]와 달리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날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나)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절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렇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로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

(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나라.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볼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뻐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8.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㉔ 대조적인 이미지로 이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과달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굴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들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들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남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던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네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올까

금잔디 너른 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네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끓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네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다]

얕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빛이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밭마다 꿈에 뵈니 꿈을 들너 상시(常時)과제²⁾
학발자안(鶴髮慈顏)³⁾ 못 뵈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⁴⁾ 찾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⁵⁾ 님 해울고
물노라 밝은 달야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랴고

- 이광명, <북찬가(北畝歌)>

[어휘풀이] 1)영 : 고개. 2) 꿈을 들너 상시과제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3)학발 자안 : 머리가 허약계 선 지어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킨. 4)안족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 달아 보낸 편지. 5) 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10. 신임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물을 작성하려 한다. [A]에 들어갈
문구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은?

[A]

범허농을 수능은 해야 할 수 없는 별.
별은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곁으로 옵니다.
테초 이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세겨진
별처럼 많고 빛나는 신화와 전설이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중 읽으며
우주중 배우고 세상과 삶을 생각합니다.

천문 동아리 '별 불 읽 있는 사람'이 드립니다.

<보 기>

- 동아리 이름의 묘미를 살린다.
- 본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대조의 기법을 사용한다.

- ① 별 볼 일 있는 사람만이 우주와 인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 ② 도서관에서도 읽을 책을 찾습니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신비로운 우주 공간에서도 찾습니다.
- ③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달려온 별과 인생을 논해 보십시오.
- ④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태초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 ⑤ 밤에만 별을 볼 수 있다고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낮에도 볼 수 있습니다

1.

11. 기타 연주 동아리의 홍보 문구 중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보 기>

- . 기타 연주가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드러낼 것.
- . 다른 음악 동아리와의 차이점을 밝힐 것.
- .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마무리할 것.

- ① ‘소리샘’으로 오세요. 기타 연주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동아리는 ‘소리샘’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소리샘’의 멋진 기타 연주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② 고민하지 말고 지금 도전하세요. ‘소리샘’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1년 후,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 ③ 기타 연주는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즐거움을 줍니다. ‘소리샘’은 다른 동아리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음악 동아리입니다.
- ④ 외롭고 우울한 날, 그날의 분위기에 맞는 곡을 연주해 보세요.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납니다. ‘소리샘’의 아름다운 선율은 오늘도 동아리방을 넘어 학교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 ⑤ 기타를 연주하며 마음의 평안을 느껴 보세요. 음악과 사회봉사 두 가지의 기쁨을 주는 동아리는 ‘소리샘’뿐입니다. ‘소리샘’에서 나를 알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해 보세요.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진처럼 쉼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강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알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있는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해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십시오.

<보 기>

김수영은 한때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고, 오규원은 ‘순례’ 연작시에서 생성과 변화를 중시하면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하려고 했다. 오규원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은 위대성에 주목하면서 대상의 숭고한 면이나 뛰어난 점을 발견하려 했고, 오규원은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와 몸의 이미지를 포착하려 했다.

① (가)의 ‘고매한 정진처럼’에서는, 생활인으로서 시인이 지녔던 고뇌와 대비되는 대상의 위대성을 느낄 수 있어.

③ (가)의 ‘소리’와 (나)의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용언은 서술어뿐 아니라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면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문법적 기능은 주로 어미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국어 문법 연구에서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미를 그와 유사한 것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어미와 조사는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어미는 항상 어간과 결합하여 쓰이므로 그 선행 요소인 어간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 별도의 품사로 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간 +어미’ 전체가 한 단어로 취급된다. 이에 반해 조사는 홀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조사의 앞에 결합하는 요소(주로 체언)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문맥에 따라 조사의 생략도 가능하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기가 쉽다. 이 점을 고려하여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여 별도의 품사로 설정한다.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은 어미와 접미사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더욱이 접미사 중에는 어간 뒤에 결합하는 것들이 있어 어미와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어미와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지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 ‘읽었고, 읽었습니다, 읽었으나, ……」와 같이 용언 어간 ‘읽-’에 어떤 어미들이 결합하더라도 그것은 ‘읽다’라는 한 단어의 활용형일 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활용형들은 별도의 단어가 아니므로 일일이 사전에 등재하지 않으며, 활용형 중 어간에 평서형 종결 어미 ‘-다’를 결합한 것을 기본형이라 하여 이것만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이에 반해 접미사는 어미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며 이 단어는 사전에 등재한다. 파생된 단어의 품사가 파생 이전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동사 어간 ‘먹-’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먹이다’라는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파생 전과 후가 모두 동사여서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먹이’라는 명사가 되어 품사가 바뀐다. 또한 어미는 대부분의 용언 어간과 결합할 수 있는 데 비해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2013학년도 수능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계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썼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杖)*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불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나 밀거나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뻗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있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어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 한기 : 책.
-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 기산의 ~ 썼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썼었다는 고사.
- * 박 소리 핑계하고 :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 * 조장 : 기게 있는 품행.
- * 풍입송 : 악곡 이름.
-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옷을 활활 털며 분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레야 숲발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마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숲일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득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 하는 감남을녀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이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 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이양하, .신록 예찬.-

- * 문법 : 문법 강의 시간.
- * 영일 : 일이 없이 평화스러움.

1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십시오.
㉔ (가)와 (다)는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㉕ (가)~(다)는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61. 도치>

[32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잃은 계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해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때 왠지 내리앉은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버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붉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십시오.
㉑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62. 명령>

[32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잃은 계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해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때 왠지 내리앉은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버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붉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십시오.
㉒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만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澗間茅屋)을 벽계수(碧澗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덧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A]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거워
소리마다 고래도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살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옛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골싸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훌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싣근·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랴

귀일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B]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싣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2.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B]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봄을 묘사하고 있다.

2004학년도 수능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흰선 펴고, 펠펫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같고 슬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출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絕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팔팔,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펴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3. 뒷글의 전개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후반부에서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가)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퐁곳도 산호 판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등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이 뇌이기 전
노루 뱃재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깃두광주리* 열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름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불더란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야의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평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때론지 사라지고 이른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좇았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린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말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 깃두광주리 : ‘반철교리’의 방언.

** 글거리 : ‘그루터기’의 방언.

(나) 너의 노오란 우산길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이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뼉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길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광재구, 「은행나무」 -

* 도롱이집 : 도롱이나방의 집.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가)는 (나)에 비해 당시의 사회 현실을 더욱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63. 문답법>

2004학년도 수능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곡(一曲)은 어드메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걸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이곡(二曲)은 어드메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찌리

삼곡(三曲)은 어드메오 취병(翠屏)*에 일 쪼졌다
녹준(綠樽)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
에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景)이 없어라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 평무 : 풀이 우거진 들판.

* 녹준 : 술잔.

* 취병 : 이끼가 끼어 푸른 병풍 같은 절벽.

* 하상기음 :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귀.

* 반송 : 옆으로 퍼져 운치 있는 소나무.

(나)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흰선 펴고, 펠펫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같고 슬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출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絕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팔팔,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펴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나)와 달리, (가)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005학년도 수능

☆ 고전 시가 + 수필

[37~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늘이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잎이 진 지 오래고 뜰 안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잊혀져 버린 마시다 남은 머무술을 들이키고 나니 세상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어젖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는 밤엔 ‘멋’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중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런이 있고 밥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뇨.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리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

- 조지훈, 「멋 설(說)」-

* 유위전변(有爲轉變) : 세상사가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이르는 말.

** 방우자(放牛子) : 글쓴이의 아호(雅號).

2. 뒷글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물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64. 흥취>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한 잔 먹세그러. 또 한 잔 먹세그러. 꽃 꺾어 수(數) 놓고 무진 무진 먹세그러.

이 몸 죽은 후면 지계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 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역새풀, 속새풀, 딱갈나무, 백양 속에 가가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굽은 눈, 회오리바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 할고

㉠하물며 무덤 위에 원승이 휘파람 불 때야 뉘우친들 어찌 하리.

- 정철, 장진주사(將進酒辭) -

1. <보기>는 ㉠에 대한 비평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보 기>

원승이는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던 동물이니, ‘하물며 무덤 위에 이슬 내릴 때야 뉘우친들 어찌하리.’로 바꾸자.

㉡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간을 닮은 소제로 표현해야 해.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치간 남자 몸이 나만 한 이 많건만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澗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고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소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살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렀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여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골소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훌든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싯근·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멸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재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싯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다)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같기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툼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랴?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냐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야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백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야 비로소 흠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볼거리에 구속되어 큰 볼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2.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의 관점과 거리가 먼 지 판단하시오.

<보 기>

(다)는 범희문이라는 사람이 화려한 저택을 거부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연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작가는 세속적 소유를 거부한 범희문의 태도에 기대어 당대 사대부들의 삶에 드러난 속물적 태도를 비판한다. 나아가 대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 : 물아일체 속에서 흥을 느끼는 것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거를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밤으란 언제 줌고 고기란 언제 닭고

시비(柴扉)란 뉘 닫으며 진 꽃으란 뉘 쓸려노

아침이 낮뜨거니 저녁이라 싫음소냐

오늘이 부족(不足)키니 내일이라 유여(有餘)하랴

이 뉘에 앉아 보고 저 뉘에 걸어 보니

번로(煩勞)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설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다만 한 청려장(靑藜杖)이 다 무디어 가노매라

술이 익었거니 벗이라 없음소냐

블리며 타이며 켜이며 아야며*

온갖 소리로 취흥(醉興)을 재촉커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우라 앉으라 굶으라 젓하랴

음으라 곱하랴 노해로** 놀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한가하다

희황(羲皇)***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괴로구나

신선(神仙)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괴로구나

강산 풍월(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A]

악양루 상의 이태백(李太白)이 살아 오다

호탕 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할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赤君恩)이삿다

- 송순, 면앙가(倅仰亭歌) -

* 아야며 : 흔들며, 또는 (계속해서) 이으며.

** 노해로 : 마음대로.

*** 희황 : 중국 전설상의 제왕인 복희씨(伏羲氏).

3. (가)의 [A]를 모방하여, <보기>의 조건에 따라 글을 쓴 것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A]에 나타난 주제 의식을 담을 것.
- [A]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유지할 것.

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확 트인 여름 들뜬에 서 보라. 향긋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푸르른 들뜬이 가슴속을 가득 채운다. 가장 순수하고 충만한 것을 소유한 듯한 느낌이다. 내 마음은 천지와 하늘을 이루면서 한껏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이럴 때 나는 거칠 것 없는 자유와 행복감을 느끼고, 새삼 내 존재의 고귀함을 깨닫는다.

<65. 반어>

(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열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날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1. 윗글의 소문 구조와 표현에 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④ 2연은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희생이 무조건적임을 드러내려고 한 것 같다.

<65. 병치>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움
이유악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란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백무선 :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산을 잇는 철도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⑥ 화자가 있는 곳과 '너'가 있는 곳을 병치시켜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가)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뚝 개들이 시골짜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A]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나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나)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은
벗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알출 아물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B]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스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감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뜬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66. 색채 대비>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옛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⑤ 도화(桃花) 행화(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 내가 붓으로 그려 내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소냐.
시비(紫廬)에 걸여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여 산일(山日)이 적적한데
한중진미(間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41.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⑥ ㉠ :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하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옛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소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뒀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라?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域)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나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박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야 비로소 흠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볼거리에 구속되어 큰 볼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거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험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懶)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익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익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해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순례 11.-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왈차히 내려앉은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붉은 눈을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짜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3.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㉔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

<67. 설의>

(가) 흥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만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오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회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나.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수간오옥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살을 꾸니 거진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鵠)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골쏘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훌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싯근·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싯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

<68. 속세, 세속>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늪은 고를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불수록 새롭거든

㉔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어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한기 : 책.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기산의 ~ 씻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씻었다는 고사.

* 박 소리 핑계하고 :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 조장 : 기게 있는 품행.

* 풍입송 : 악곡 이름.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나)
벗님네 ㉔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떠리

<제1수>

어허 이 미친 사람이 날마다 흥동(興動)*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이고
우리는 ㉔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2수>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복견 망혜(市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㉔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세 유전(後世流傳)하리라

<제3수>

우리도 갈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㉔ 찰 달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울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4수>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㉔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랴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제5수>

- 권섭, 『독자왕유회유오영(獨自住遊戲有五詠)』-

* 흥동 : 흥에 겨워 다님.

* 승유편 :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

* 양신 미경 :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1. (가)의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 중 시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68. 수미상관>

(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1. 윗글의 소통 구조와 표현에 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③ 같은 구절을 시의 앞뒤에 배치하는 수미상관의 방법을 써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고 있어.

2007 9월 모의평가

[28~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향단(香丹)아 그벧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갈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날오는 새여
뫼인 이 가슴

발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밀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벨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에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뫼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①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2005 9월 모의평가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자.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자.

- 조지훈, 마음의 태양 -

3.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② 첫 연과 끝 연이 상응하는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몰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진—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진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틀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동」 -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69. 송고미>

뒷집의 술쌔를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췌어 쥐어 빛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A]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옛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골소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훌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싶근·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일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욱, '울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싶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1.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㉔ **승고한 삶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 있다.**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쉼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있는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해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보 기>
 김수영은 한때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고, 오규원은 '순례' 연작사에서 생
 성과 변화를 중시하면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
 서
 탈피하려고 했다. 오규원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은 위대성에 주목하면서
 대상의 승고한 면이나 뛰어난 점을 발견하려 했고, 오규원은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와 몸의 이미지를
 포착하려 했다.

- ㉕ (가)의 대상이 지닌 승고한 면모와, (나)의 대상이 지닌 동적인
 속성은 자유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

※ **고전 시가 + 수필**
 [37~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늙어 가며
 이 중에 보라는 일은 허물이나 얽고자.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죽말이
 인 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울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씀 흥가.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제(玩樂齋) 소쇄(瀟
 灑)***흔디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ㅣ 무궁(無窮)하에

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므슴 흥고.

[B] 청산(靑山)은 옛제하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제하여 주야(晝夜)에 굶지 아니느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흥거니 그 아니 쉬운가
 성인(聖人)도 못 다 하스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 연하(煙霞) : 안개와 노을.
 ** 순풍(淳風) :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 기운이 맑고 깨끗함.

3. 밑글을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 유무를 판단하라
 ㉖ [A]의 '연하(煙霞)'와 '풍월(風月)'은 **향유 대상으로서의 자연
 물로 보이고**, [B]의 '청산(靑山)'과 '유수(流水)'는 **깨달음을 주
 는 자연물로 보여**.

<71. 시상 마무리>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맘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췌 대로 췌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홀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
 장>

- 위백규, 농가(農歌) -

- * 우배 초적 :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

1. 밑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㉗ **의문형으로 시상을 매듭지어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
 고 있어**.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쉼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있는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해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때 왈차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질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로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맑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새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2.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①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2013학년도 수능

[32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때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질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로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맑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새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3. 밑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④ 고향을 떠나올 때의 장면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작 여운을 남기고 있다.

-

<72. 시상 반전>

[28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로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로
 밥으란 언제 줌고 고기란 언제 낚고
 시비(柴薪)란 뉘 담으며 진 꽃으란 뉘 쓸려노
 아침이 낮뜨거니 저녁이라 싫을소냐
 오늘이 부족(不足)커니 내일이라 유여(有餘)하라
 이 뉘에 앉아 보고 저 뉘에 걸여 보니
 번로(煩勞)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쉼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라
 다만 한 청려장(靑藜杖)이 다 무디어 가노매라
 술이 익었거니 벗이라 없을소냐
 불리며 타이며 켜이며 이아며*
 온갖 소리로 취흥(醉興)을 재촉커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우락 앉으락 굶으락 쫓히랴

울으라 파랏하랴 노혜로** 놀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한가하다
 회황(羲皇)***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괴로구나
 신선(神仙)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괴로구나
 강산 풍월(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약양루 상의 이태백(李太白)이 살아 오다
 호탕 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할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이삿다
 - 송순, 면양정가(倅仰亭歌) -

* 이아며 : 혼들며, 또는 (계속해서) 이으며.

** 노혜로 : 마음대로.

*** 회황 : 중국 전설상의 제왕인伏羲씨(伏羲氏).

(나)

맑은 들은 대로 들고 벌은 쉼 대로 쉼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에 아는 듯이 머무르고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4장>

계변(溪邊)이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
 장>
 - 위백규, 농가(農歌) -
 * 우배 초적 :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

1. (가)와 (나)의 밑줄 친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⑤ (가)의 ‘바람’과 ‘파람’이 시상을 전환시키는 데 비하여, (나)의 ‘청풍’과 ‘파람’은 시상을 매듭짓는다.

-

2004학년도 수능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에 가 봐야 노루 꼬리만큼 짧은다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 둔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향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제분 공장 별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명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명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울음이 흘러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검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잠들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집어서 화차가 달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경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 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 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쫘잔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 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찰빵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해안촌(海岸村) 혹은 중국인 거리라고도 불리어지는 우리 동네는 겨우내 북풍이 실어 나르는 탄가루로 그늘지고, 거무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낮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짙은세미에 아궁이에서 굽어 낸 고운 재를 묻혀 번쩍 광이 날 만큼 대야를 닦았다. 아버지의 와이셔츠만을 따로 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바람을 들이지 않는 차양 안쪽 깊숙이 낀 와이셔츠는 몇 번이고 다시 행구어 푸새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망할 놈의 탄가루들. 못 살 동네야. 할머니가 허를 차면 나는 으레 나올 뉘엿말을 받았다. 광석천이라는 냇물에서는 말이다. 물론 난리가 나기 전 이북에 서지. 빨래를 하면 희다 못해 시퍼렇지. 어느 독(毒)이 그렇게 퍼렇겠니. 겨울방학이 끝나면 담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숙직실 부엌 바닥에 옷통을 벗겨 었드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었다. 귀 뒤, 목덜미, 발가락, 손톱 사이까지 탄가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왕소름이 돋은 등어리를 칼썩칼썩 때리는 것으로 검사를 끝냈다. 우리는 킬킬대며 살비들이 푸르르 떨어지는 내의를 머리부터 뒤집어댔다.

봄이 되자 나는 3학년이 되었다. 오전반이었기 때문에 한낮인 거리를 치욕이와 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삼거리의 미장원을 지날 때 치욕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 회충약을 먹는 날이니 아침을 굶고 와야 해요. 선생의 지시대로 치욕이도 나도 빈속이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닌을 먹었기 때문일까, 해인초 끓이는 법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치마 밑으로 필러이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길의 양편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드문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해가 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제일 큰 극장이었다.

조명관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회계 회철이 된 한쪽 벽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욕이가 소곤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곡괭이의 첫 날을 뿜 위치를 가능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회고 거대한 벽은 평음으로 주저앉으리라. 한쪽에서는 이미 헐어 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돌과 철근을 발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속밭을 만들어 버렸다가.

치욕이는 어른들의 팔투를 흉내 내어 몇 번이고 속밭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집을 지어 빈터를 다스렸다. 반 자른 드림통마다 조개탄을 듬뿍 써서 해인초를 끓였다.

치욕이와 나는 자주 멍하니 서서 짝씩 침을 뱉어 냈다.

회충이 약을 먹고 지랄하나 봐.

아냐, 회충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도 배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법세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뽑히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치욕이는 내 어깨에 엇갈린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농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초 냄새, 내가 이 시(市)와 나는 최초의 악수였으며 공간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 오경희, 중국인 거리 -

2. 윗글에서 ‘석탄’이 갖는 기능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㉓ 사전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2013학년도 수능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왈차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옥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뒷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시울로 가는 손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질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담 모를 굵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샤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철 -'

3.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㉓ 고향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사상을 반전시키고 있다.

<73. 신비로움. 환상적>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꽃 쥐어 수(數) 놓고 무진 무진 먹세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 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억새풀, 속새풀, 딱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희오리바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 할고

㉑ 하물며 무덤 위에 원숭이 휘파람 불 때야 뉘우친들 어찌 하리.

- 정철, 장진주사(將進酒辭) -

1. <보기>는 ㉑에 대한 비평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보 기>
원숭이는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던 동물이니, ‘하물며 무덤 위에 이슬 내릴 때야 뉘우친들 어찌하리.’로 바꾸자.

㉓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던 동물을 통해 죽음의 쓸쓸함을 신비롭게 표현한 것을 논치게 돼.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만난 이증섭
김춘수
광복동에서 만난 이증섭은
㉑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가 온다고
바다보다도 진한 빛갈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눈을 씻고 보아도
길 위에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 나는 또
남포동 어느 찻집에서
이증섭을 보았다.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
진한 어둠이 깔린 바다를
그는 한뼘 한뼘 지우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는 오지 않는다고,

2.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윗글의 ㉑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보 기>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파레네의 성(城)’입니다. 바다 위에 바위가 하나 떠 있습니다. 기이한 느낌이 들지요? 바위 꼭대기에는 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아니라, 표면이 울퉁불퉁한 달걀 같기도 하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질적이고 비일상적인 사물들의 연계는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같은 발상은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자유로운 상상이 대상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㉑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림이야. ㉑과 같은 표현도 신비롭고 환상적이면서 ‘이증섭’의 그리움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군.

2013학년도 수능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막 씨 줄은 복통이 있어 마치 태중에 아이 둘 닮아서 점점 불러 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더니, 심 삭에 미처는 산점*이 있어 초막(草幕)에 었드렸더니,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지라.
막 씨 헤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 때 때에 아궁이에 들이쳤더니, 닷새 후에 해쳐 본즉 금방울이 튀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짙어지고 ㉑ 향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침때 나는 세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실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묻혀 오되 그 털이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뵈지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데서 남의 방아를 췌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랍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낮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데와 마른 데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흠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농움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누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旌門)*을 세워 집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차설.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풍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며 공이 주야 병측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침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불까 하였더니 심어 년

존망을 모르며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충 하소서.”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낫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며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찢으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히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기 나매 정신이 썩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일 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 전.' -

- * 산점 : 해산의 기미.
-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들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 월음 :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 수말 : 일의 처음부터 끝.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 ㉢ : 금방울의 신이한 면모를 보여 준다.

2013학년도 수능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썼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불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거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잠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거나 하리보다
 거문고 줄을 없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 한기 : 책.
-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 기산의 ~ 썼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고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썼었다는 고사.
- * 박 소리 핑계하고 :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 * 조장 : 기계 있는 품행.
- * 풍입송 : 악곡 이름.
-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나)
 벗님네 ㉡ 납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친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단대 내 혼자인들 어떠리

<제1수>

어허 이 미친 사람이 날마다 흥동(興動)*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이고
 우리는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2수>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복건 망혜(山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세 유전(後世流傳)하리라

<제3수>

우리도 갈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창 닫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지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4수>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라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제5수>

- 권섭, .독자왕유회유오영(獨自往遊數有五詠).-

- * 흥동 : 흥에 겨워 다님.
- * 승유편 :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
- * 양신 미경 :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이
 놓은 듯이 옷을 활활 털며 분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
 하지마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
 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술잎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
 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납달리 괴박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
 하는 갑남을녀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절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
 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金時)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
 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
 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이양하, .신록 예찬.-

- * 문법 : 문법 강의 시간.
- * 영일 : 일이 없이 평화스러움.

4.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74. 역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림	이용악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임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저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백무선 :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 산을 잇는 철도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02)
 ㉤ 화자가 있는 곳과 '너'가 있는 곳을 병치시켜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 두 야 간단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려나

아늑한 이 항구—너들 손끝에서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뫼부리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려나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단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읍속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깰깰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깰깰대면서
 갈쪽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환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다) 때때로 머리 들어 북진(北辰)을 바라보며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方)에 지게 한다.
 우리 동방 문물이 한당송(漢唐宋)에 지라마는
 국운이 불행하여 해후(海醜) 흉모(兇謀)*에 큰 수치를 안고
 있어

백분에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리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한들 신자(臣子) 되어 있었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었지만
우국(憂國) 단심(丹心)이야 어느 각(刻)에 잊을런고.
강개(慷慨) 겨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하다가는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설분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쫓고
발 없는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았거든
하물며 이 몸은 손발이 갖춰 있고 명맥(命脈)이 있었으니
서절구투(鼠竊狗偷)***를 조금이나 두려워할까.

㉠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

* 해추 흉모 : 바다 도적의 음흉한 모락.
** 설분신원 :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씻음.
*** 서절구투 : 쥐나 개처럼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무리.

2.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11 6월 모의평가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디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개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어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개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개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다.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다.
-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어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어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 제3연에서 ‘개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이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개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2010학년도 수능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은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함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뜨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뱀꾸기가
울음 울어

메로 울음 울어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야
나는 길뜰·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설상은 한 마리의 뱀꼭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뱀꼭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뱀꼭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뱀꼭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빗길로 남아
이 세석(細石)·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뱀꼭새」-

- * 길뜰 : 길이 덜 든.
-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세월봉(歲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굵이 한테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굵이는 구멍에 든 늪은 울이
선잠을 갖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절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랴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겁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쫓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이르노라
앞으락 내리락 모이락 흩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좃니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되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있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
고

용구산 풍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별것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것도 하도 할사
- 송순, 「면양정가」-

-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 사정 : 모래톱.
- * 노화 : 갈대.

4.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십시오.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류 해 황망히 나래를 잡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글어진 체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동」-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5.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75. 의문형 진술>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추억에서 박재삼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밀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및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떡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나)
그리움

이용악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백무선 :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
산을 잇는 철도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①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따은 듣는 대로 듣고 벌은 쫓 대로 쫓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홀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베 초적(牛草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
장>

- 위백규, 농가(農歌) -

* 우베 초적 :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

2. 뒷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② **의문형으로 시상을 매듭지어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
고 있어.**

<76. 이미지>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추억에서 박재삼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밀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및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떡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나)
그리움

이용악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백무선 :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
산을 잇는 철도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② **어둠과 추위의 이미지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판기하고 있다.**

2. (가)의 ㉠~㉣ 중, (다)의 **작은 마을**과 그 이미지가 대응되는

시어는? (가)가 없네요.

- ① ㉠ : 눈
② ㉡ : 메밀묵
③ ㉢ : 기계 굴러가는 소리
④ ㉣ : 새빨간 감
⑤ ㉤ : 울음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꽃 꺾어 수(數) 놓고 무
진 무진 먹세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
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억새풀, 속새풀, 딱갈나
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회오리바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 할고

①하물며 무덤 위에 원승이 휘파람 불 때야 뉘우친들 어찌 하
리.

- 정철. 장진주사(將進酒辭) -

3. <보기>는 ㉢에 대한 비평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한지 판단
하시오.

<보 기>

원승이는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던 동물이니, '하물며 무덤
위에 이슬 내릴 때야 뉘우친들 어찌하리.'로 바꾸자.

- ① **그렇게 바꾸면 무덤 주변의 스산한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표현
하지 못해.**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桃花) 행화(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품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니 흥이야 다를소나.

시비(紫簾)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여 산일(山日)이 적적한데
한중진미(間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 정국인. 상춘곡(賞春曲) -

- 시간모독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숲.
- 소요음영 : 천천히 거닐며 나직이 읊조림.

4. 윗글의 정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가집은 작게 그려서 청빈한 삶을 표현해야겠어.
- ② 피꼬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넣어 청각적 이미지도 살려야겠어.
- ③ 시를 주고받는 인물들을 배치해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모습을 나타내야겠어.
- ④ 초가집 주위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둘러 세속과 단절된 분위기를 그려야겠어.
- ⑤ 복사꽃과 살구꽃이 만발한 모습을 통해 화사하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야겠어.

(가) 선재리 아낙네들
고은

벽밖중 한밤중 새터 중들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유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의종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A]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재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종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뜰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나)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은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알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B]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뎠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망을 어딘가 안스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히려는 꽃불 성하,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縹緗)*,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울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가) 뒷집의 술살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쥘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깥살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훌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싣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일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육, 「율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싣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나)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투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빠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랴?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냐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백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빠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야 비로소 흠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볼거리에 구속되어 큰 볼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거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나는 ㉠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열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론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 오실 줄만은 알아야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나)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절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림자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려면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

(다)
우리가 ㉢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볼로 만나려 한다.

벌써 솟아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7. <보기>는 '원형적 심상'을 설명하는 상징 사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작은 배: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수단. 부활과 재생의 요람.
- 불: 수직적, 상승의 에너지. 공격적인 남성. 인간의 생명, 사랑, 육체의 파괴와 소멸, 정화와 재생.
- 물: 수평적, 하강, 모성 혹은 여성, 죽음, 정화와 재생, 순환, 시간의 흐름.
- 나무: 인간의 형상, 인간의 상승 욕구, 초월의 의지, 크고 너넉한 인격.
- 하늘: 공간의 영원성, 고고한 정신, 신(神), 순결, 무(無), 부재(不在).

- ① ㉠: '행인'이 피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② ㉡: 삶을 지탱해 주는 상승의 에너지로서 사랑의 열정을 환기한다.
- ③ ㉢: '죽은 나무뿌리를 적'신다는 것에서 보듯이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 ④ ㉣: '우리'가 함께 선다는 표현으로 보아 초월과 상승의 욕구를 가진 인간의 형상으로 읽어 낼 수 있다.
- ⑤ ㉤: '불'로 상징되는 모든 인간적 고뇌가 승화된 정신적 경지를 표상한다.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핀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맑고 왔는데

썩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땀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썩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뒷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남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들그들그들덕.

- 객제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짓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흥테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때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짓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흥테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갔다가,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끓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네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① 감각적 이미지를 빈번히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004학년도 수능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펼친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은 어이 같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巖巖), 태산(泰山)은 주출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짹짹,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술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나.

- 유산가(遊山歌) -

10. 윗글의 전개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⑤ 후반부로 갈수록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2013학년도 수능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때 왠지 내려앉은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뒷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질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굵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77. 절제>

2004학년도 수능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千山鳥飛絶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萬徑人蹤滅
 외로운 배 안의 도롱이 입은 늙은이 孤舟蓑笠翁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엔 눈만 내리고 獨釣寒江雪
 - 유종원, 강설(江雪) -

(나) 일곡(一曲)은 어드메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걸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이곡(二曲)은 어드메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더리
 삼곡(三曲)은 어드메오 취병(翠屏)*에 일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
 에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景)이 없어라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 평무: 풀이 우거진 들판.

* 녹준: 술잔.

* 취병: 이끼가 끼어 푸른 병풍 같은 절벽.

* 하상기음 :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저저럼.
* 반송 : 옆으로 퍼져 운치 있는 소나무.

(다)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라 훨씬 퍼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은 어이 같고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巖巖), 태산(泰山)은 추추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짹짹,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년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십시오.
㉮ (나), (다)에 비해, (가)는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1

<78. 기대감>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 나무	김명인
<p>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디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p>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십시오.
 ㉡ ㉠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출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갑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르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구나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십시오.
 ㉡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79. 성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 나무	김명인
<p>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디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p>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십시오.
 ㉡ ㉠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추억에서	박재삼
<p>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p> <p>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p> <p>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굴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p> <p>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터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p>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십시오.
 ㉡ 반복된 '울 엄마'는 화자가 유년기 체험을 반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가)

가난한 사랑 노래

-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법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러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불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나) 추억에서

박재삼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개 떨던가 손시리개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재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땀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다) 그리움

이용악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백무선 :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산을 잇는 철도

3.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④ 화자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다.

-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쫓 대로 쫓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홀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뜻이 머무르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장>

- 위백규, 농가(農歌) -

* 우배 초적 :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

4. 밑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② 의문형으로 시상을 매듭지어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

2012학년도 수능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이라 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閭)'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姓)을 지녔다.
[나] 어느 날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오네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잠잠해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만뽀풀이는 반짝반짝, 가마술과 새발술은 무얼 분뻬 만들었나. 흥(興)이라."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댔다.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목으면 둔갑하여 사람 시늬를 할 수 있다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뉘 갖는 게 어떨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질질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퐁이 가득 차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벌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벌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영금영금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재원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룡(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 자리에 서옵니다."
벌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든건대, 유(儒)"란것은 유(兪)²⁾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애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곧이들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벌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

한 것이라면 벌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북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얼트렀다가 일어나 영거주춧돌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제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키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벌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아침에 잘 깨어난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 물으니, 북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려."
- 박지원, <호절>
[어휘풀이] 1)유(儒) : 선비. 2)兪(兪) : 아첨하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 : 북곽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쫄린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글 상앗길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결 호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흔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환혼
뒤축의 똥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추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진정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박재규,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용네

어느 것 한 가진들 설어 안 였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네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머들발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둘러 안 였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네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니

끓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네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다]

얇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바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밭마다 꿈에 보니 **꿈**을 둘러 상시(常時)과저²⁾
학발자안(鶴髮慈顏)³⁾ 못 비거든 안쪽서신(雁足書信)⁴⁾ 잦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⁵⁾ 뉘 해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름코

- 이광명, <북관가(北宮歌)>

[여기풀이] 1)영 : 고개. 2)꿈을 둘러 상시과저 : 꿈을 가지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3)학발자안 : 머리가 희얌케 선 자이로운 일제. 어머니를 가리킴. 4)안쪽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 달아 보낸 편지. 5)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6.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④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 내고 있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소남이란 사람이 난초를 그리는데 반드시 그 뿌리를 흠에 묻지 아니하니 타죽에 게 깃뺏힌 땅에 개결(慨潔)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함이란다.

붓에 먹을 찍어 종이에 환을 친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노릇이리오마는 사물의 형용을 방불하게 하는 것만으로 장기(長技)로 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빌려 작가의 청고(淸高)한 심정을 호소하는 한 방법으로 삼는다는 데서 비로소 환이 예술로 등장할 수 있고 예술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도 하는 것이다.

<중 략>

이 오죽잖은 나한테도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한테로부터 시혹(時或) 그림 장이나 그려 달라는 부절없는 청을 받는 때가 많다. 내 번번히 못함을 모르는 내가 아닌지라 대개는 거절하고 마는 것이나,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이 청에 응하는 수도 있고, 또 가다가는 자진해서 도말(塗抹)해* 보내는 수도 없이 아니하니, 이러한 경우에 택하는 화제(畫題)란 대개가 두어 마리의 게를 그리는 것이다.

게란 놈은 첫째, 그리기가 수월하다. 긴 양호(羊毫)에 수묵을

뽀뽀 묻히고 호단(毫端)에 초목을 약간 찍어 두어 붓 좌우로

휘두르면 양버티고 었던 풀에 여덟 개의 긴 발과 양중스런 두 개의 집게발이 즉각 하얀 화면에 나타난다. 내가 그려 놓고 보아도 분장난이란 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기뻐할 때가 많다.

그리고는 화제를 쓴다.

뜰에 가득 차가운 비 내려 물가에 온풍 가을인데

제 땅 언어 종횡으로 마음껏 다니누나.

창자 없는 게가 참으로 부럽도다.

한평생 창자 끊는 시름을 모른다네.

역대로 게를 두고 지은 시가 이뿐이란 내가 쓰는 화제는 심중팔구 운우당의 작이라는 이 시구를 인용하는 것이 항례다.

왕세정의 “마음껏 행해하기를 알거나 하겠는가. 결국에는 사람 입에 떨어질 신체인 것을.” 하는 대문도 묘하기는 하나 무장공자(無腸公子)로서 단장(斷腸)의 비애를 모른다는 때문이 더 내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이 비애의 주인공은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놈, 약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눈치 없는 미물! 아니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는 이러한 인사(人士)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맑은 동해변 바위틈에서 미끼를 실에 매어 달고 이 해공

(蟹公)을 낚아 본 사람은 대개 짐작하리라. 처음에는 제법 영리한 듯한 놈도 내다본 체 **않**다가 콩알만큼씩한 새끼 놈들이 먼저 덩비고 그 결두리를 보아 가면서 차츰차츰 큰 놈들이 한꺼번에 물러나와 미끼를 뺏느라고 수십 마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동족상쟁을 하는 바람에 그때 실을 번쩍 추켜올리면 모조리 잡혀서 어부의 이(利)가 되게 하고 마는 것이다.

어리석고 눈치 없고 풀에 서로 싸우기 잘하는 놈!

귀엽게 보던 재미나고, 어리석게 보던 무척 동정이 가고, 밍살살레 보던 가증(可憎)하기 짝이 없는 놈!

게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내가 즐겨 보내고 싶은 친구에게도 좋은 화제가 되거나 또 뻔뻔스럽고 연치없는 친구에게도 그려 보낼 수 있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 김용준, 게 -

* 환을 치다 : ‘그림을 그리다’ 를 낮추어 표현한 말.

* 도말하다 : 대충 그리다.

7. 밑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④ **게를 어리석은 미물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그런 게와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이 글은 글쓴이의 삶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는 것 같다.**

⑤ **게를 그린 그림을 남에게 주는 데에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

2005학년도 수능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드림전 장돌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메이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 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들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만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리며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 건만 허 생원은 번치 않고 언제나지 가슴이 뛰놀았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뿐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한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겠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제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려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게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

다. 게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담은 친구가 면 이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자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담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밤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겹이나 보름을 가제 지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측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풍 포기와 우수수 잎새가 환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풍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 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 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치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라) “장 선 쪽 이런 달 밟이었는데, 객조집 토방이란 무더위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단태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춧빛 연기가 밝기운 속에 흘러서서 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 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듣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왜 매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이 있을 때는 누구리지

기도 쉬운 듯해서 이리저리 이야기가 되었는데……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출행량을 높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듯있네. 장관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러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관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꿀은 썩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는데.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마)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세게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까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썩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걸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 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터어졌다. 풍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8. <보기>는 윗글을 읽고 ‘허생원’에게 ‘봉평’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토론한 내용이다. 적절한 의견으로 묶은 것은?

<보기>

- ㄱ. 허생원은 줄곧 봉평 인근을 돌아다니고 있어. 심지어 고향인 청주에도 가 보지 않은 것 같아. 허생원에게 봉평은 마음의 구심점인 셈이지.
- ㄴ. 허생원은 달밤이면 언제나 봉평에서 겪었던 무섭고도 기막힌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달밤의 분위기가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지. 봉평은 허생원을 현실 너머로 이어 주는 상상의 동료야.
- ㄷ. 허생원은 젊었을 때 모았던 돈을 투전으로 다 날리고 평생토록 가정보도 꾸리지 못했어. 허생원에게 봉평은 젊은 시절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게 하는 곳이지.
- ㄹ. 허생원은 봉평에서 성 서방네 처녀와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을 맺었어. 허생원에게 봉평은 가난하고 쓸쓸한 삶을 견디게 해 주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80. 낙관적 전망>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화상(自畫像)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나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증뜸 개들이 시골짜к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종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땀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법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버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종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다)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는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울 어린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볼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침묵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뜬새 가난한 소지(敝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울리는 종이.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2012학년도 수능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과랴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글 상앗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집 호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환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속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뒷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덜덜그럭.

- 박재규,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전답내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흥테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빗칼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흥테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앓다가.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2. (가)와 (나)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③ (가)의 '강물 소리'와 (나)의 '노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가)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등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용새 그윽하다만
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이 뇌이기 전
노루 뱃재지 쪽재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름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갖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좋아며 자랐다
당나귀 물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 꿈의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핥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테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질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재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린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 짓두광주리: ‘반길고리’의 방언.
** 글거리: ‘그루터기’의 방언.

(나) 너의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란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길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일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까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박계구, 「은행나무」 -
* 도롱이집: 도롱이나방의 집.

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㉔ (나)는 (가)와 달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드러나 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등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용새 그윽하다만
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이 뇌이기 전
노루 뱃재지 쪽재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A] “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름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갖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좋아며 자랐다
당나귀 물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핥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테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질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재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린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 짓두광주리: ‘반길고리’의 방언.
** 글거리: ‘그루터기’의 방언.

4. [A]를 <보기>와 같이 희곡으로 구성할 때, 시의 맥락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은 대사는?

<보 기>

틸보네 안방
(갓 출산한 틸보 처와 산파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파: 아들이야. 애아버지를 쫓 빼놔았구먼.
㉔ **틸보 처**: (기운 없는 목소리로) 어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마을 빨래터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주머니 1: 틸보네, 아들 낳았다면서요?
㉕ **아주머니 2**: 그러게요. 자식세끼만 줄줄이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원…….
㉖ **아주머니 3**: 송아지라도 낳았으면 팔아나 먹지. 쫓쫓.

틸보네 안방
(등불이 가물거리는 어두운 방. 틸보와 틸보 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㉗ **틸보 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없는 살림에 임만 자꾸 늘고……. 어떡해요, 앞으로…….
㉘ **틸보**: 걱정 말구려. 저 먹을 건 제가 가지고 태어난다잖소. (아기를 들여다보며) 고놈, 참 잘도 자네. 이놈이 다 자랐을 때면 세상도 달라져 있겠지.

- ㉔ ㉕ ㉖ ㉗ ㉘

81. 노동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오목(澗間茅屋)을 벽계수(碧澗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이일체(物我一體)이니 흥이야 다름쓰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수간모욕 : 몇 칸 초가집.
- * 울울리 : 우거진 속.

(나) 뒷집의 술쌈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찾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A]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쩌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골소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시대를 활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식근·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멸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욱, 「율리유곡(栗里遺曲)」-

-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 헛글고 식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1.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㉓ 농가와 자연을 분리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로
바람도 쇠려 하고 달도 맞으려로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낚고
시비(柴扉)란 누 닫으며 진 쫓으며 누 슬러노
아침이 나트거니 저녁이라 싫을소나
오늘이 부족(不足)커니 내일이라 유여(有餘)하랴
이 피에 앉아 보고 저 피에 걸어 보니
번로(煩勞)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설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다만 한 청려杖(靑藜杖)이 다 무디어 가노매라
술이 익었거니 벗이라 없을소나

불리며 타이며 켜이며 이아며*
운갖 소리로 취흥(醉興)을 재촉커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우락 앉으락 굶으락 췌하랴

울으락 파람하락 노혜로** 놀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한가하다
희황(羲皇)***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괴로구나
신선(神仙)이 어땡던지 이 몸이야 괴로구나
강산 풍월(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약양루 상의 이태백(李太白)이 살아 오다
호탕 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할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이삿다

- 송승, 면양정가(倣仰亭歌) -

- * 이아며 : 흔들며. 또는 (계속해서) 이으며.
- ** 노혜로 : 마음대로.
- *** 희황 : 중국 전설상의 제왕인伏羲씨(伏羲氏).

(나)

맑은 듣는 대로 듣고 벌은 췌 대로 췌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에 아는 듯이 머무는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장>

- 위백규, 농가(農歌) -

- * 우배 초적 :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

2. (가)와 (나)의 밑줄 친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㉔ (가)의 ‘파람’은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표현하는 것이고, (나)의 ‘파람’은 노동 후의 휴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맑은 듣는 대로 듣고 벌은 췌 대로 췌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에 아는 듯이 머무는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장>

- 위백규, 농가(農歌) -

- * 우배 초적 :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

2. 밑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㉓ 농촌 생활의 분주함과 여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어.

<80. 매개>

2009학년도 수능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9. 불이의 집(나)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어낸 집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회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붉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얼마 영회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

영호 얼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 집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팔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빙글 웃고) …….뚝배에 고기를 얻었어요. 애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1. 불이의 집 마당

종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팔없이 앞만 본다.

#92. 레스토랑

영희가 집시의 고기를 서물게 썰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짐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찢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95. 불이의 집

광광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던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넓혀 온다.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일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은 먼지의 마당.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 한다. 인부의 태도가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앉으며 맘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낮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답답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96. 고급 맨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97. 불이의 집

일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뽀얗게 먼지가 일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홍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 다운: 권투 시험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 몽타주: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1.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₁, M₂, ..., M_k, ..., M_n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₁, S₂, ..., S_k, ..., S_n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₁ → S₁ → M₂ → S₂ → ... → M_k → S_k → ... → M_n → S_n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_k에서 S_k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_k와 S_k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②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③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 ④ '교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 ⑤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시경주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관지 두 장만큼만 먹오덧빛 뒷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뒷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묻혀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댤이어서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뒷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뒷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뒷마루'는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② '집 뒤안'과 '장독대'는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때거울 뒷마루'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은 '하도나 많이 묻혀서'라는 구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④ '먹오덧빛'은 '뒷마루'와 '오디 열매'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 한다.
 - ⑤ '숨을 바로 합니다'는 치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2004학년도 수능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가 봐야 노루 꼬리만큼 짹다는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 둔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향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제분 공장 별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명석에는 늘 털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명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울음이 흘러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쩍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돌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집면서 화차가 닿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뽕으면 우리들은 제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 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껌싼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 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전병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굵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아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장이였다.

해안촌(海岸村) 혹은 중국인 거리라고도 불리어지는 우리 동네는 겨우내 북풍이 실어 나르는 탄가루로 그늘지고, 거무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낮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짙은색미에 아궁이에서 굵어 낸 고운 재를 묻혀 번쩍 광이 날 만큼 대야를 닦았다. 아버지의 와이셔츠만을 따로 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바람을 들이지 않는 차양 안쪽 깊숙이 낀 와이셔츠는 몇 번이고 다시 행구어 푸새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망할 놈의 탄가루들. 못 살 동네야.

할머니가 혀를 차면 나는 오래 나를 뒤텔말을 받았다. 광석천이라는 냇물에서는 말이다. 물론 난리가 나기 전 이복에

서지, 빨래를 하면 희다 못해 시퍼랬지. 어느 독(毒)이 그렇게 퍼들겠나.

겨울방학이 끝나면 담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숙직실 부엌 바닥에 옷통을 벗겨 엮드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다. 귀 뒤, 목덜미, 발가락, 손톱 사이까지 탄가루가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야 왕소름이 돋은 등어리를 찰싹찰싹 때리는 것으로 검사를 끝냈다. 우리는 킁킁대며 살비음이 푸르르 떨어지는 내의를 머리부터 뒤집어썼다.

봄이 되자 나는 3학년이 되었다. 오전반이었기 때문에 한낮인 거리를 치욕이와 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삼거리의 미장원을 지날 때 치욕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 회충약을 먹는 날이니 아침을 굶고 와야 해요. 선생의 지시대로 치욕이도 나도 빈속이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년을 먹었기 때문일까, 해인초 끓이는 냄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차마 밀으로 펠럭이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길의 양편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드문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체가 색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제일 큰 극장이었다.

조명판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회계 회칠이 된 한쪽 벽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욕이가 소곤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곡괭이의 첫 날을 뿜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회고 거대한 벽은 평음으로 주저앉으리라.

한쪽에서는 이미 헐어 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돌과 철근을 발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속밭을 만들어 버렸다가.

치욕이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 내어 몇 번이고 속밭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집을 지어 빈터를 다스렸다. 반 자른 드림통마다 조개탄을 듬뿍 써서 해인초를 끓였다.

치욕이와 나는 자주 멈춰 서서 짝 짝 침을 뱉어 냈다.

회충이 약을 먹고 지랄하나 봐.

아나. 회충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도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뽕히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치욕이는 내 어깨에 엇갈린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능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초 냄새, 내가 이 시(市)와 나눈 최초의 악수였으며 공감이었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 3. 뒷글에서 '석탄'이 갖는 기능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② 여러 장면을 묶어 주는 연결 고리가 된다.

2004학년도 수능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외로운 배 안의 도롱이 입은 늙은이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엔 눈만 내리고	千山鳥飛絕 萬徑人蹤滅 孤舟蓑笠翁 獨釣寒江雪 - 유종원, 강설(江雪) -
---	---

- 4.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 ② '새'와 '길'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83. 흥취>

(가)

가난한 사람 노래
-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일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니 보고 싶소 수많은 뇌어 보지만,
 집 뒤 갈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로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불에 와 당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나)

추억에서

박재삼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흰(恨)이던가.
울 엄매야 울 엄매.

별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령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떡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다)

그리움

이용익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협한 바람을 굴이굴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란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백무선 :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두 산을 잇는 철도

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桃花) 행화(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품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나.

시비(紫簾)에 걸여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여 산일(山日)이 적적한데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숲.

***소요음영 : 천천히 거닐며 나직이 읊조림.

2. 윗글의 정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십시오.

㉔ 시를 주고받는 인물들을 배치해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모습을 나타내야겠어.

(가) 뒷집의 술삯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B]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홀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라.

헛글고 싶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라.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울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싶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나) ㉔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퉈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빠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랴?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냐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백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빠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라야 비로소 흡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볼거리에 구속되어 큰 볼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거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3. <보기>를 참고할 때, ㉔이 ㉔의 관점과 거리가 먼 지 판단하십시오.

<보 기>

(나)는 범희문이라는 사람이 화려한 저택을 거부하고 겸허한 삶을 살아가 했던 사연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작가는 세속적 소유를 거부한 범희문의 태도에 기대어 당대 사대부들의 삶에 드러난 속물적 태도를 비판한다. 나아가 대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㉔ ㉔ : 만호후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느끼는 것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A]

수품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나.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삯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홀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라.

헛글고 싶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라.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B]

- 김광옥, 「울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싶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다)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퉈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빠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랴?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나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박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야 비로소 흡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볼거리에 구속되어 큰 볼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거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화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4.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A]의 봄은 흥겨움을, [B]의 봄은 서글픔을 불러일으킨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거를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로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로
밤으란 언제 줌고 고기란 언제 낚고
시비(柴扉)란 뉘 닫으며 진 꽃으며 뉘 슬려노
아침이 낮브거니 저녁이라 싫을소나
오늘이 부족(不足)커니 내일이라 유여(有餘)하라
이 뵈에 앉아 보고 저 뵈에 걸어 보니
번로(煩勞)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월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다만 한 청려杖(靑藜杖)이 다 무디어 가노매라
술이 익었거니 벗이라 없을소나
불리며 타이며 켜이며 이아며*
운갓 소리로 취흥(醉興)을 재촉커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우락 앉으락 굽으락 꺾히락

울으락 파람하락 노헤로** 놀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한가하다
희황(羲皇)***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괴로구나
신선(神仙)이 어땡던지 이 몸이야 괴로구나
강산 풍월(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약양루 상의 이태백(李太白)이 살아 오다
호탕 경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할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赤君恩)이샀다

- 송순, 면앙정가(倓仰亭歌) -

* 이아며 : 혼들며. 또는 (계속해서) 이으며.

** 노헤로 : 마음대로.

*** 희황 : 중국 전설상의 제왕인伏羲씨(伏羲氏).

(나)

맑은 들은 대로 듣고 별은 쉼 대로 쉰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홀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넉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장>

- 위백규, 농가(農歌) -

* 우배 초적 :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

5. (가)와 (나)의 밑줄 친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가)의 ‘파람’은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표현하는 것이고, (나)의 ‘파람’은 노동 후의 휴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2013학년도 수능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늪은 고를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불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떨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거나 하리로다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저 주인인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어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한기 : 책.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기산의 ~ 씻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씻었다는 고사.

* 박 소리 핑계하고 :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

고.

* 조장 : 기계 있는 품행.

* 풍입송 : 악곡 이름.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6.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화자는 ‘손’의 말을 빌려 ‘주인’을 ‘진선’에 비유하며 ‘주인’의 풍취 있는 삶을 흠모하고 있다.

2013학년도 수능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밖*이 끝다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옷을 훨훨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거우 걸터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
하지마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
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술일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
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납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
하는 갑남을녀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결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
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
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
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이양하, 「신록 예찬」-

* 문법 : 문법 강의 시간.

* 영일 : 일이 없이 평화스러운.

7. 밑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은 대상과 동화하려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37~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A]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늙어 가며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 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옳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거 말슴 흥가.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리 완락재(玩樂齋) 소쇄(瀟
灑)***호되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에

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므슴 흥고.

[B] 청산(靑山)은 옛제하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제하여 주야(晝夜)에 굿지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호거니 그 아니 쉬은가
성인(聖人)도 못 다 호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연하(煙霞) : 안개와 노을.

** 순풍(淳風) :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 기운이 맑고 깨끗함.

8. 밑글을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 [A]의 ‘연하(煙霞)’와 ‘풍월(風月)’은 향유 대상으로서의 자연
물로 보이고, [B]의 ‘청산(靑山)’과 ‘유수(流水)’는 깨달음을 주

는 자연물로 보여.

<84. 지향>

윗집의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찾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A]

어와 저 백구(白鵠)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옛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골쓰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훌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싣근·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메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일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울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싣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움.

- 1.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㉔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화상(自畫像)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 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
 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
 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판단하
 시오.

<보 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
 화(自像畵)’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
 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
 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
 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㉔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삭살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활랑활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이 부끄러운 촉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뒷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박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였나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테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빗줄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였나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테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¹⁾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끓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네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다]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밤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밭마다 꿈에 보니 꿈을 들너 상시(常時)과제²⁾
 학발자안(鶴髮慈顏)³⁾ 못 버거는 안족서신(雁足書信)⁴⁾ 잦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다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⁵⁾ 뉘 헤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름코
 - 이광형, <북관가(北關歌)>

[어휘풀이] 1)영 : 고개. 2) 꿈을 들너 상시고저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3)학발자안 : 머리가 희얌채 선 자재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4)안족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 달아 보낸 편지. 5) 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 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㉔ 친숙한 사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때 왈차히 내려앉은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버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붉은 눈을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새락한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㉔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 4.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3)
 ㉔ ㉔ :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를 표상한다.

2013학년도 수능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氣)*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들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맑거나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 소리 쟁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나 밀거나 실컷 기울이나
 마음에 맺힌 시름 적거나 하리보다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어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 한기 : 책.
-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 기산의 ~ 씻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씻었다는 고사.
- * 박 소리 쟁계하고 :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쟁계하고.
- * 조장 : 기개 있는 품행.
- * 풍입송 : 악곡 이름.
-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옷을 훨훨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술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 하지마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 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술일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겨워하고 사람을 그리워 하는 겁남을너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를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 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이양하, .신록 예찬.-

- * 문법 : 문법 강의 시간.
- * 영일 : 일이 없이 평화스러운.

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㉔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출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옳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론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남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나)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게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럼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많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려 내 혼자 마음은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

(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솟이 된 뱀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6.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신념을 그리고 있다.

(가) 하늘이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잎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휘전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엿저녁 마시다 남은 머루술을 들이키고 나니 새삼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어젖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멋’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마리 밥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던이 있고 밭을 쉴 때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뇨.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㉔]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

- 조지훈, 「멋 설(說)」 -

* 유위전변(有爲轉變) : 세상이나 사물이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이르는 말.
 ** 방우자(放牛子) : 글쓴이의 아호(雅號).

(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늙어 가늠
 이 중에 부리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순풍(淳風)^가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죽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울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거 말슴 홀가.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재(玩樂齋) 소쇄(瀟
 灑)^가*** 흐디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에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모습 홀고.

청산(靑山)은 옛제하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제하여 주야(晝夜)에 굶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흐거니 괴 아니 쉬온가
 성인(聖人)도 못 다 흐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겹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연하(煙霞) : 안개와 노을.
 ** 순풍(淳風) :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 기운이 맑고 깨끗함.

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④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85. 탈속>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옛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桃花) 행화(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푸르도다.

갈로 말아 냇가 붓으로 그려 냇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들소나.

시비(紫扉)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가***하여 산일(山日)이 적절한데

한중진미(間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속.
 ...소요음영 : 천천히 거닐며 나직이 읊조림.

1. 윗글의 정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
 한지 판단하시오.

④ 초가집 주위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둘러 세속과 단절된 분위
 기를 그려야겠어.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코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코
 밤이란 언제 줌고 고기란 언제 낚고
 시비(柴扉)란 뉘 닫으며 진 꽃이란 뉘 쓸려노
 아침이 낮브거니 저녁이라 싫을소나
 오늘이 부족(不足)키니 내일이라 유여(有餘)하랴
 이 뉘에 앉아 보고 저 뉘에 걸어 보니
 번로(煩勞)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설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다만 한 청려장(靑蘂杖)이 다 무디어 가노매라
 술이 익었거니 벗이라 없을소나
 불리며 타이며 켜이며 아아며*
 온갖 소리로 취흥(醉興)을 재촉커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우락 앉으락 굶으락 젓허락

울으락 파람하락 노혜로** 놀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한가하다
 회황(羲皇)^가***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괴로구나
 신선(神仙)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괴로구나
 강산 풍월(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상의 이태백(李太白)이 살아 오다
 호탕 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할소나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앙정가(俛仰亭歌) -

* 아아며 : 혼들며, 또는 (계속해서) 이으며.
 ** 노혜로 : 마음대로.
 *** 회황 : 중국 전설상의 제왕인 복희씨(伏羲氏).

(나)

맘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쬐 대로 쬐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매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
 장>

- 위백규, 농가(農歌) -

* 우배 초적 :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

2. (가)와 (나)의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시오.

② (가)의 '벗'은 일상적 삶을 추구하는 인물이고, (나)의 '길 가
 는 손님'은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는 탈속적 인물이다.